

全州學研究

제 5 집

전주역사박물관

목 차

<기획특집> 근대 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

[논고]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함한희	7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이태영	33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이동희	67
근현대 풍류문화의 전개와 변화	송화섭	97

[구술채록]

하반영(화가)	133
백한기 · 백창현(백남석의 子 · 백남혁의 孫)	217
곽종찬(필장, 이조필방 운영)	225
채주봉(필장, 금산필방 운영)	235
장대근(필장, 백제필방 운영)	239
송제훈(지장)	245
문지연(고려필방 운영)	253
신문수(서예가, 월정서예 운영)	257

[보고서]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	262
--------------------	-----

■ 휘 보	286
-------------	-----

<기획특집>

근대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

[논고]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 함한희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 이태영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 이동희

근현대 풍류문화의 전개와 변화 || 송화섭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함 한 희*

〈목 차〉

- | | |
|-------------------|-----------------------|
| I. 서론 | IV. 근대 전주의 예술 향유층의 등장 |
| II. 조선시대의 예술과 향유층 | V. 사랑채 문화의 발달 |
| III. 문화의 ‘양반화’ | VI. 맺는말 |

I. 서론

전주는 예향(藝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별칭이 뜻하는 바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예향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라면 첫째는 예술가 층이 두텁고 둘째는 예술을 향유 또는 소비하는 계층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예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언제부터인가 전주는 예술인들이 모이는 도시였고, 또 그들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여 적극적인 감상태도를 가진 계층도 형성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예술가 층과 예술 향유층이 서로 기대어서 존재함으로써 예술이 발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 향유층은 예술 감상, 비평, 후원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예술가 층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거듭 강조하건대, 예술가 집단과 예술향유 집단이 짝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예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주의 예술을 논할 때, 걸출한 예술인과 예술작품을 집중 조명한 반면에 예술 향유층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 두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못한 것은 예술의 사회사적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본고에서 필자는 전주의 예술 향유층의 정체를 밝혀 보면서 예술이 사회 내의 다른 영역과 맺고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가 각별히 주목하는 시기는 새로운 예술 향유층이 등장하는 20세기를 전후한 때이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뚜렷해졌고, 서구와 일본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이 밀려들어오는 시기였다. 달리 말하면, 전통문화가 근대문화로 이행되어가는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사회의 기틀이었던 양반제도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부와 권력구조가 재편되면서 문화예술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새로운 예술 향유층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가운데 회화·서화 영역에 주목하고자 하며, 예술의 사회문화사적 접근을 통해서 전주의 근대사를 재구성해 보려고 한다.

II. 조선시대의 예술과 향유층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는 도덕적 수양과 학문의 연마를 우선시켰기 때문에 서화예술에 탐닉하는 것을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해서 금기시했다. 예술은 단지 즐기는 정도로 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금욕적인 풍조가 17세기 이후부터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양반들이 서화의 소장에 탐닉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18·9세기에 이르면 그 풍조가 더 커진다.¹⁾ 예술품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기실 경제력이 필수이다. 결국 돈이 있는 양반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할 수 있다. 전복 무주 출신으로 알려진 최북(1712~1786)이 남긴 일화를 통해서도 당시 양반들이 화원들로부터 그림을 사가는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 이용엽이 펴낸 『전북미술약사』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하루는 탐관오리로 정평이 나있는 장안 부자 김판관 댁 하인이 그림을 사러왔으나 그림을 팔 것이 없다고 면박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김판관이 가마를 타고 하인 셋을 데리고 직접 찾아와 고급 화선지, 개성인삼 한 묶음을 하인을 통해서 들여 놓고 오만무례하게 이리 오너라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하니 나 김판관이오, 어찌 오셨습니까? 하니 그림을 사러왔습니다. 값은 높게 쳐 드리리다. 미리 선약금을 드릴 테니 산수병풍 한 폭 그려주소....(하략)”(이용엽, 2007, 55쪽)

위의 일화는 당시 김판관이 그림을 사고자 했으나, 최북은 그가 그림을

-
- 1) 이와 관련한 연구는 강명관의 일련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강명관, 1999)에 실려 있다.
 - 2) 최북은 중인 출신으로 30세에 이르러 도화서(圖畵書)의 화원이 되었다. 그는 시, 서, 화에 능하여 당대 최고의 문장가, 화가, 관료 등과 교류하였고, 많은 일화를 남겼다.

수장할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그의 청을 거절하면서 눈마저 뿔었다는 이야기에서 간추려 본 것이다. 자신을 ‘그림이나 파는 화쟁이’로 하대한 점도 최북이 과격한 행동을 취한 원인이었다. 이 일화 속에는 당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의 그림은 비싸게 팔린다는 점, 그림을 수장하는 계층은 주로 부자 양반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부유층이 양반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예술품 수장을 즐기는 이들도 양반층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인과 아전을 중심으로 한 중간계급 즉 여항인(閭巷人)층은 예술품의 소장층·수요층이었다. 양반 못지않은 문식과 경제력을 갖춘 여항인들도 당대의 예술 향유층을 구성하는 주요계층이었다고 한다.(강명관, 1999, 277~316/319~320쪽)

조선시대 서화예술에 탐닉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반들 가운데는 서화 애호가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이 주로 취미로 서화를 그렸지만 그 수준은 높았고, 또 그린 그림이 일정한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되기도 했다. 규범적인 제한을 받고는 있었지만, 창작층이었던 선비화가들이 18·9세기 서화예술을 발달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당시 일부 선비들은 창작의 주체였으며, 서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높았고 비평가이자 소장자이기도 했다. 18세기 이후에는 선비화가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예술을 둘러싼 신경향이 움트고 있었다. 완물상지라는 평가를 받던 그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서화가들도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강명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작을 진지한 취미로 전공하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화의 수요가 늘자 공급자인 전문화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화를 지배층의 고아한 취미 또는 관에 대한 강제적 봉사를 넘어서서 생활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출현했음을 지적하였다.(강명관, 1999, 327쪽)

조선시대에도 직업이 화가인 전문인들이 소수지만 존재했다. 이들을 화원이라고 하는데, 도화서에 소속된 기능직 관료였다. 도화서는 왕실, 국가 그리고 양반층이 주관하는 행사를 기록하는 기념화나 목적화를 많이 그렸다. 신분상으로는 중인이었으며, 중인들 가운데에서도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화원에 대한 처우도 낮았다.(강명관, 1999, 324쪽) 서화에 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화원 화가의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그 수도 증가했다. 기록에 의하면 18세기 공적·사적 수요가 팽창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김홍도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난다.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져서 비단이 무더기로 쌓이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에 가득하여 미처 잠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강세황, 「단원기」, 『표암유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49쪽 ; 강명관, 1999, 328쪽에서 재인용)

18·9세기 무렵 전북에서도 뛰어난 선비화가들이 등장해서 이후 전북 예술의 전통을 세웠다. 전북지역에는 문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19·20세기까지 활동했던 선비화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인화의 전통을 세운 선비화가로 대표될 수 있는 인물은 석정 이정직(1841-1910)이다. 그는 13세부터 지역에서 통유(通儒)로 이름난 안정봉의 문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기(李沂), 황현(黃玹)과 교류하면서 실학, 서양학문 등을 수용하는 선구적인 선비였다. 그의 제자로는 조주승, 송기면, 나갑순, 최규상, 강동희, 최승현, 유영완 등을 꼽을 수 있다.(이용엽, 2007, 76~80쪽)

이러한 탁월한 서화가들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당시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지역에 문인화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향촌의 선비들이 관직에 나가는 일을 포기하면서 글을 읽거나,

시·서화에 몰두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9세기 이후 선비들뿐만 아니라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중간계급들도 이러한 유학자적 교양을 갖춘 생활세계를 흠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양반계층의 문화적인 특권이 다른 계층으로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양반들의 독점적인 문화적 소양이 부를 축적한 중간계급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의 ‘양반화(gentrification)’가 일어난 것이다. 조선의 양반층이 시·서화를 독점적으로 향유했던 시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서화예술의 사회적 수요가 늘자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예술 향유층의 확대와 전문예술가 집단의 탄생은 상호연관성이 깊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문화의 ‘양반화’

조선 후기 사회계층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신분은 낮으나 토지자본을 매개로 한 지주계층 즉 농업 자본가들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 중간계층을 차지하고 있던 향리들이거나 아니면 농업경영에 성공한 농민들로 부를 축적한 집단이었다.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서는 결코 정통성을 가진 양반이 될 수 없는 계층이었다. 향리들은 양반과는 달리 중앙의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³⁾ 향리는 원래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써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보좌하면서 지방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행정명령을 집행하며 또 지방민들의 요구를 중앙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간역할을 하는 직책이었으므로 지방 행정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조선

3) 조선후기의 향리연구는 이훈상의 『조선후기의 향리』(일조각, 1990)를 참고하였다.

후기 중앙 정치가 흔들리면서 이들의 힘이 더욱 커져갔다. 향리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방의 수령들마저도 중앙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런가하면 지방민들의 정세를 파악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지방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이들이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했고, 신분적으로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나아가서 이들은 문화적으로도 양반문화와 평민문화의 양면을 모두 수용하는 중간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당대의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계층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서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신분사회의 변화를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양반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부적응한 반면에 향리계층은 신문물을 수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특정한 계층과 그 속에 속한 개인들이 오랜 동안 축적되어온 관습, 인식, 취향을 하루아침에 버리거나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자본을 돈으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중간계층이나 서민층에서 경제적인 부를 갖추고 정치적인 권력을 손에 넣어도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의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⁴⁾ 다시 말해서 지배층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식이 있어야 하고, 교우하는 집단의 위상이 높아야 하고, 문화적인 격조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신지배층으로 올라선 집단에서는 과거 명문세족들의 문화적 취향을 닮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시대가 변해가자 양반들로서도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해가는 중간계층과 서민출신 지주들과 담을 쌓고 살기는 힘들어졌다. 언제까지 과

4)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에 대한 개념은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구별짓기, 특히 제1부 내 ‘문화귀족의 혈통’ (114~168쪽)을 참고하였다.

거 신분제에 기대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일부의 양반들은 변화하는 세류를 인식해서 신진세력들의 성장을 인정하였고, 이들과도 개방적인 자세로 교류를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유학의 길이 막혔던 향리들도 학문을 연마해서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들이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예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늘어나자 조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이훈상, 1990, 241쪽)⁵⁾ 이처럼 조선 후기에 이르면, 관직이나 유교적 지식이 더 이상 사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⁶⁾ 부를 축적한 중간계층과 서민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양반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⁷⁾ 그러면서 시서화의 창작이나 관람, 향유, 수장도 사족들만의 독점적 취향에 머무르지 않았다.

Ⅳ. 근대 전주의 예술 향유층의 등장

20세기 초 무렵까지 한국의 거부(巨富)들은 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었다. 농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농사경영이 가장 중요한 축재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 아래서 발달하게 된 자본주의가 들어 온 이후에는 금융업, 상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이용선, 1976)⁸⁾ 자본주의는 산업화와 상업화를 촉진해서 자본호름의

5) 매천 황현은 과거에 응시하는 중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천야록에 기록해 두었다.(이훈상, 1990, 241쪽)

6) 1925년 경 전국의 300여 군수 가운데 260여 명이 향리의 자제였다고 한다.(이훈상, 1990, 242쪽)

7) 조선후기사회에서 양반의 쇠퇴와 새로운 사회세력의 대두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많다. 그 가운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의 향촌사회의 변동을 미시적으로 연구한 백승중(1996)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8) 일제시대 사회경제적 변화를 연구 성과 가운데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논문으로

판도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을 재편했다. 대규모 유통업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거나, 금융업을 하면서 부르주와 계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 전주지역에서도 과거에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들이 부자들이었으나, 점차 각종 상업에 종사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상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조선시대 이래 신분사회가 만든 사농공상의 위계로 인해서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풍속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일수록 신분의 상승을 꿈꾸었고, 신분상승의 하나의 수단으로 문식을 갖추고, 세족들이 누렸던 문화와 생활양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최상류층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한 요소가 문화예술로 치장을 하고 문화엘리트로 올라서는 것이었기에 신흥자본가들이 문화자본을 갖추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화를 수장하고,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생활이 조선시대 세족들이 누리는 취향이었다면, 이후에는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에서는 이 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힘을 기우렸다.

1920년대 전주의 기업인으로 국가적인 부호로 꼽히던 두 집안이 있었다.⁹⁾ 백인기와 박영철이다. 백인기는 고종황제의 측근무관이던 백남신(본명 樂信)의 아들로 1924년 당시 학교비 부담 전국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었다.¹⁰⁾ 백인기의 재산은 뒤에 부인의 회사로 익산의 남성고등학교의 설립자금이 되었다. 박영철은 박기순의 아들로 1939년 경성일보가 발행한 조선연감에 30대 기업인의 한 사람이었다. 뒤에 상업은행 두취(장)를

는 박명규(1997)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9) 이용선의 『거부열전』(상서각, 1976)은 총12권으로 이루어져있다. 『한국거부이백년사』(韓國巨富二百年史)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부자들에게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다.

10) 백남신의 원명은 樂信인데 고종의 어명에 의하여 南信의 이름을 제수 받음. 1893년 무과에 급제하고 1897년 궁내부 영선사 주사에 임명되었다. 전주진위대의 향관을 겸하여 군량 및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1902년 궁내부 내장원의 전라도 검세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역임하는 등 당대 대부호이면서 관직도 하고 금융인으로 활약하였다.

이 두 집안은 구한말 대지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¹¹⁾ 그리고 이들은 일제시대가 되어 다른 제조 산업이나 금융업 따위에도 눈을 돌려서 산업자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면 이 두 집안이 당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당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 두 집안의 대응자세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은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묻히게 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친 대변화는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더욱 현저해졌다. 여러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의 발달이었다. 이 두 집안 모두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갔던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제성공의 비결은 이 두 집안이 모두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관료를 많이 배출하였다는 사실에도 있다고 믿어진다. 두 집안은 당시 대지주로서 이미 경제적인 발판을 굳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손들이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박영철(1869~1939)은 전주의 부호 박기순(1857~1935)의 아들로 일본 동경 유학을 하였고, 그 후 고종황제의 근위장교, 강원도지사, 함경북도 지사를 거쳐서 상업은행 두취를 지냈다. 백인기도 무관이었던 부친을 따라서 1903년 대한제국의 육군참위로 임관했다. 군대가 해산된 후에는 금융인으로 한일은행을 설립해 전무 취체역을 지냈고 조선식산은행 상담역으로도 근무했다.

11) 백남신, 백인기는 수원백씨 은진공파로 忠肅(文敬)公 白仁傑(1497~1579)을 중시조로 모시고, 그의 3남인 惟威(1546~1618)이 通政大夫 承政院 左副承旨를 지내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1등, 2등 공신이었다. 그 후손 가운데 2男 善民(1574~1642)은 通訓大夫 恩津縣監을 지냈다. 淸에 불복해서 전북 함열 용안으로 낙향하였다. 이 가계는 16세기 경에는 중앙의 관직을 가졌던 사대부들이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지주관료층의 대응은 남다르게 빨라졌다. 일본은 한국에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정치제도가 도입되고 행정체계가 세워졌으며, 신교육제도도 시행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이 본격화되었다.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 새로운 지주관료층에서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과거의 소작제를 개선하여 현대식 경영체제를 농장경영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제의 지배 아래서도 정계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군·도의회 의원직, 군수, 도의 참사관 등의 자리는 많은 경우 이들의 차지였다. 이들은 신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개방적이어서 후손들이 서양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들은 자제들을 일본으로 유학시키는 이들도 많았다.

자본주의 아래서 상공업이 발달했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상공인들 가운데에는 성공해서 부자가 된 인물들이 나타났다. 전주에서도 여러 인물과 집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호남 거상 이치중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전주에서 포목상을 해서 재산가의 반열에 올랐다. ‘서문안 미영집’을 운영하면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명주, 포목 등을 전국으로 유통시키면서 부자가 되었다. 한 때 이치중의 재산이 흥업은행의 자산보다 많았다는 소문도 있었을 정도였다.(김용옥, 1994, 16~24쪽)

백낙중(1883~1929)도 백남신의 막내동생으로 역시 큰 재산가였다. 부친인 백진수(1832~1906)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크게 늘려서 만석꾼이 되었다.¹²⁾ 백낙중의 장자인 백남혁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명치대학

12) 백낙중의 부친 백진수는 경복궁 중건 시에 거금을 헌납하면서 고종으로부터 대저택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곧 시행을 못하다가 백진수를 모시고 살던 6남 백낙중(백인숙 1883-1929)은 1905년 부친의 허락을 받아서 전주교동 104번지 492평의 대지에 당시 초가를 허물고 장자 백남혁(1905-1981)의 태어남을 기념하여 집을 지었다. 아들에게 만석군의 재산보다는 자자손손 수 백년

법과를 다녔다. 백낙중·남혁 부자(父子)는 예술에 대한 기호가 남달라서 시서화 뿐만 아니라 판소리 등의 전통음악활동을 지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08)

1. 박영철 소장 서화류들 _ 근역화회(槿域畵會)

박영철(호 다산)은 고서화 100여점과 경성제국대학교진열관 건립비를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하였다. 박영철의 회사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전신인 진열관이 1941년 9월에 문을 열었다. 박영철의 기증품 가운데 근역화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인용해서 수장가로서의 박영철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진준현, 1992)

근역화회는 오세창이 편집했다는 설도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근역화회는 조선시대 귀중한 회화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박영철은 근역서회 27책도 기증하였는데, 이 두 책은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근역화회는 천, 지, 인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천첩에는 25점, 지첩에는 21점, 인첩에는 21점으로 모두 67인 67점의 그림이 실려 있다. 시대별로는 조선 초기 1점, 중기가 9점, 후기가 30점, 말기 이후가 27점이다. 그림의 주제는 산수가 18점, 인물이 4점, 사군자가 14점, 화조가 10점, 동물이 5점, 어해(魚蟹) 7점, 초충(草蟲)이 9점이다. 시대별로 보면 초기 안견, 중기 신사임당, 이요(李潛), 이우, 전충효, 송민고, 후기에는 진재채, 김덕성, 미군후, 일명(佚名)화가인 이남원수와 혜춘, 말기의 우상하, 오경립, 이정직, 조주승, 김용수, 박기준, 유치봉, 이공우, 유재소 등의 그림이 실려 있다.

을 물려줄 저택을 짓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고종황제의 측근무관이던 백남신 [白南信:백낙중의 둘째형. 원명은 樂信인데 고종의 어명에 의하여 南信의 이름을 제수 받음. 궁내주사육군. 종2품 전주진대대장 육군부령] 과 상의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고 궁중의 일류 목수들을 지원받아 궁중양식의 학인당을 건립하였다.

2. 백낙중 · 백남혁의 소장품¹³⁾

백낙중의 장자 백남혁은 부친의 서거로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1930년 이후에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인들의 후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¹⁴⁾ 백낙중의 장자 백남혁은 부친의 서거로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1930년 이후에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인들의 후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본고에서는 시서화가들의 후원 관련 부분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당시 이광열은 전주에서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정신적인 지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1935년 최규상, 김희순 등과 같이 서화동호인 모임인 한묵회(翰墨會)를 창설하였다. 스승, 동료들과의 활발한 교류 덕분에 백남혁은 많은 예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었다. 이광열, 김정희, 김돈희가 쓴 편액이 현관과 집 안팎에 걸려있다. 그가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 예술인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박영철이 조선시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장가였다면, 백남혁은 당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작품을 구입하는 등 후원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소장품 목록을 보면 그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심농(心農) 조기석(趙沂錫), 유당(酉堂) 김희순(金熙舜), 성재(惺齋) 김태석(金台錫), 설송(雪松) 최규상(崔圭祥), 소파(小波) 송명회(宋明會), 중당(中堂) 김근진(金瑾鎭), 성산(惺山) 이순재(李舜載), 청전(靑田) 이상범, 금추(錦秋) 이남호, 소정(小亭) 변관식,¹⁵⁾ 묵로(墨鷺) 이용우,

13) 소장품에 관련한 자료는 현 학인당의 당주인 백창현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14) 인제(忍齋) 백낙중은 예술분야에 조예가 있었는데, 특히 판소리를 아끼어 대습 경연이 중단되자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학인당의 대청을 판소리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악의 인사로는 만정(晩汀) 김소희, 박녹주, 김연수, 박초월 등이 어려웠던 일제시대 백낙중의 집에서 공연을 하는 등 교류가 잦았다.

15) 소정 변관식의 작품은 미소장, 사진만 남아 있음.

의재(毅齋) 허백련, 남농 허건, 목재 허행면 등의 작품이 있다.

소장 작품을 통한 위의 두 향수자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예술사의 입장에서 보면 박영철은 한국의 미술사연구에 큰 공을 세운 셈이고, 근역화회 역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에 백씨가 역할은 예술사회사적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백씨의 향수자들은 박영철의 경우처럼 최고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골라서 수장을 하는 전문적인 수장가라기 보다는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더 중시하면서 지방예술의 맥을 이어주는 차원의 예술 향유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감상이나 소장애에 치중하기보다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더 많이 했던 예술향수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사랑채 문화의 발달

프랑스에는 살롱이 있었다면, 전주에는 사랑채가 있었다. 사랑채는 원래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남성들이 거처하는 곳이었고, 주로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사대부가의 경우 사랑채의 사교모임이 곧 그 집안의 사회적 위상을 말해주기도 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이라 해서 가(家)를 경영할 때 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손님을 맞는 의례와 행사를 중히 여기던 유교사회의 전통이 근대로 이어지면서 전주의 예술인들이 모이는 사랑채가 명성을 얻기도 했다. 신분별로 교류했던 과거의 사랑채 문화가 직업, 취향, 이념으로 대치되면서 새로운 사랑채 문화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를 거쳤다. 예술인들이나 예술 애호가들의 사교모임이 사랑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전주는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사랑채 모임이 활발했던 곳으로 학인당, 향천주장과 오일주장을 경영했던 백남석, 송정섭 등의 집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사랑에는 경향 각지에서 온

예술인들의 왕래가 잦았다고 당시의 일을 목격했던 가족과 친지들이 증언하고 있다.

일제시대 이후 전주는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곳이었다. 전주에는 당대 뛰어난 예술가들이 있었고, 후원자들과 애호가들 역시도 관람객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전주에서 전시를 하면 작품이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이는 전주에 예술품 관람객이자 수집가들이 여느 곳 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 된다. 지금은 유명해진 예술인들도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예술창작에 혼을 불어넣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려는 예술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후원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1924년 전주시 중앙동에 ‘개척사’라는 간판업을 시작한 이응로(1904~1989)도 한때 오목대 아래에 위치한 오일주장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다. 그는 전주에 머물면서 해강 김규진의 문하에서 사군자를 배웠다고 한다. 그가 1932년 일본유학을 떠날 때까지 약 8년 동안 전주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창작활동을 했다. 군산에서 전주로 온 젊은 하반영(1918~)은 이응로의 개척사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다.

“...예, 고암(이응로의 호)은 명필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 양반(이응로) 대신 글자를 썼죠. 무슨 무슨 상점이라고, 내가 처음으로 사사키 약국이라고 페인트로 썼는데, 글자가 내가 맘에 안 들었어요. 처음으로 쓴 것이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보더니 “이거 솜씨가 좋네. 자네 이 간판 그릴래?” 그래서 간판점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간판 달려갔다가 이층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 고생도 했지요. 그 양반이 전주를 떠날 적에는 이순재 선생에게 개척사를 맡기고 떠났죠.”(하반영氏 구술)

하반영의 증언을 통해서도 해방 이후 전주 인근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가 예술의 중심지로 일제시대 이후 활발했던 예술활동이 더욱 자리를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반영 : 그 무렵 임신에 부자가 있어요. 박부자라고. 그 큰아들이 박병수예요. 일본 가서 공부를 했죠. 당시 부자사람들은 동경으로 유학을 많이 갔었어요. 박병수가 유학을 갔다 와서 전주에다가 미술학원을 했어요. 재산을 몽땅 들여서 전주 고사동 자리에 학원을 시작했죠. 그 전에는 미술학교라고 하지 않고 학원이라고 해서 귀족들만 다니는 거예요. 가쿠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귀족들이 땡기는 학원이에요. 그 본을 딴 거죠. 미술학원이 있던 곳이 고사동 백양메리야스 자리에요. 동방학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을 때 우리가 벽돌을 나르고 그랬어요.

질문자 : 선생님도 그 학교에 다니셨나요?

하반영 : 그때 나도 벽돌을 날랐죠. 나는 극장에서 마네킱을 그리니까 영화초대권이 나와요. 다섯 장 씩. 그게 나오면 우리 선생님한테 갔다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학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그 학원 학생이 됐어요.

질문자 : 그때 함께 다니셨던 분 기억하세요?

하반영 : 그때 허산옥, 선초(仙草), 몇 명이 그 학원을 땡겼어요. 선초는 일찍 죽었죠. 그림 잘 그렸어요. 또 이강천이라고 같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러지 동료가 많았죠. 고암선생님, 그리고 관재 이도영씨. 홍대를 설립한 이도영씨가 거기서 동양화를 가르쳤어요. 나는 2기생이었는데, 1기생이 이의주 부산대학, 배영식, 백양석이도 거기 졸업했고 이도영씨, 또 고은희, 또 허은이도 수채화를 잘 그리죠. 허은이는 익산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계

소병호였어요. 조선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이 그 학원일 거요. 일본사람들이 허가를 했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총독부에서 주목을 했어요. 반일사상가들이 전부 다 그 학원에 있다고 해서.

질문자 : 아니 뭐 그림을 그리는 학원인데 왜 이념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반영 : 그 때는 소위 지식인들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렇게 봤어요. 해방이 되니까 공산당으로 몰렸어요. 사회주의자. 공산당으로 몰아서 학장은 아들 하나 놔두고 북한으로 가버렸고, 그 여파가 남아서 결국 그 학원이 없어져버렸죠.

질문자 :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누구들이시죠?

하반영 : 천경자랑 이의주, 배영식도 거기 교수로 들어갔어요.

질문자 : 학원에서는 주로 동양화를 가르쳤어요?

하반영 : 네. 동양화, 이응로 선생과 이도영 선생이 동양화·수묵화를 가르치고, 금릉 김영창 선생도 (서양화)교수고, 그리고 서예도 고암선생이 가르쳤고, 또 박병수씨가 원장인데 가르치고, 또 진환씨라고 있었어요. 고창에 진환. 그이도 일본서 미술공부를 하다 왔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거든요? 해방되고서도 학교는 지속이 되었는데, 여순반란 사건이 나가지고서 경찰들이 모두 다 데려가고, 그 학생들 중 여자 김... 누구더라 개도 서양화 잘 그렸는데. 그냥 데려가 버린 뒤 행방불명이 되었고, 또 경상도 진해에서 온 설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경찰서 데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아주 살벌한 때였어요. 여순반란 사건 때는, 그러다가 육이오가 일어났지 않겠어요? 학원은 그 이전에 없어졌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집을 부수고 그랬어요.

면담자 :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겠네요.

하반영 : 그렇죠. 그 학생들을 몰고 서울로 가신 양반이 이도영씨요. 관재 이도영. 이근영이는 동생이고. 동양화 가르치던 양반이 서울로 가서 홍익대학을 설립했어요. 홍익대학을 어디에 만들었냐하면 종로 1가에 가면 다케다 약국이라고 일본 사

람이 약국을 하던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두 개를 빌려서 시작했죠. 전주에서 데려간 학생들 한 삼십여 명과 거기 서울에서 온 학생들 그저 몇 명하고.”(하반영氏 구술)

“...우리나라 10대 작가 중 여기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울보다 여기 전주에서 전시를 해야 100% 소화를 했다는 얘기해요. 전시하다 안 팔리면, 학인당하고 박00이가 다 사줘버렸대요.”(구술자 Y)

6·25때 피난을 와서 약 1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뜬 목로 이용우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주에서 창작활동을 했다. 그는 이광렬의 주선으로 거처를 마련해서 당시 전주에 있던 예술인들과 교류했다. 한편, 외지에서 와서 생활이 어려웠던 이용우를 남전 허산옥, 백남석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허산옥이 운영하던 행원과 백남석의 집에서 머문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인물이 허산옥이다. 그는 자신이 화가이기도 했지만, 주위의 어려운 예술가들을 소리 없이 도운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예술가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얼굴 없는 후원인 역할을 했다.

“허산옥씨한테는 많은 화가들이 찾아왔어요. 그 화가들을 많이 도왔어요. 소정선생은 한때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던 분인데 머리를 뽕뽕 깎고 그랬었어. 근데 허산옥씨가 모셔다가 돌봐줬지. 나도 그 옆에 있었고. 그러고 청전선생도 거기에 와서 있으면서 고맙다고 열두 폭짜리 병풍을 다섯 벌인가를 그려서 허산옥씨한테 주었고. 그러니까 허산옥씨가 또 돈을 주었어요. 그 병풍을 이병철이가 가지고 있었죠.”(하반영氏 구술)

전주의 예술이 꽃을 피운 시기는 아마도 192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 무렵까지가 아닐까한다. 약 반세기 동안 전주는 전국적으로도 예술의 도

시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 근대도시에는 예술가들, 향수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 존재했으며 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VI. 맺는말

본고에서 필자는 근대 전주에서 예술이 발달하게 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들의 전유로 여겨져 왔던 시서화의 향유계층이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을 형성했고, 이들 가운데는 적극적인 예술향유층이 된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계층은 재편되었으나 과거의 문화적 상징자본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즉 양반의 생활양식, 문화적 취향을 그대로 유지하여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제가 폐지된 근대사회에서도 부를 축적한 신 부르주아 계층이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양반적인 요소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본고에서는 문화의 ‘양반화’ 경향이라고 분석해 보았고, 신 지배계층으로 올라선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는 문화적 상징을 획득코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류였다. 그런가하면, 과거의 양반들도 더 이상 폐쇄적인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었다. 신진세력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교우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양반 문화의 확산에 일익을 담당했다.

전주에서는 근대 시기 사랑채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신분별로 교류했던 과거의 사랑채 문화가 직업, 취향, 이념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교류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예술인들이나 예술 애호가들의 사교모임은 근대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사랑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전주는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 김용옥, 「조선사발같은 전주토박이」, 『노령(蘆嶺)』71, pp.16-24, 1994.
- 박명규, 『한국근대국가 형성과 농민』, 문학과 지성사, 1997.
- 백승중, 『한국사회사연구 - 15~19세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 이용엽, 『전북미술약사』,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 이용선, 『거부열전』, 상서각, 1976.
-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 전북대학교,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 - 효자가문의 학인당」, 『전주시 한옥마을스토리개발사업 결과보고서』,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08.
- 전주문화재단, 『일제 식민시대 구술실록』, 2007.
- , 『격동기 구술실록』, 2008.
- 전주역사박물관, 『서화(書畵), 손끝에 흐르는 정신세계』, 전주학총서9, 2007.
- 진준현, 『근역화회』,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1, 1992.
- Bourdieu, Pierre, 1984(1975), Distinction :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trans. R. Ni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 백남중 · 백남혁 소장품(학인당 소장)



〈도 1〉 12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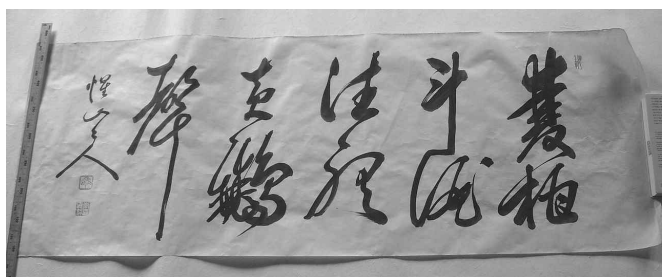
〈도 2〉 창암 이삼만 글씨 자수 병풍



〈도 3〉 성산 이순재 서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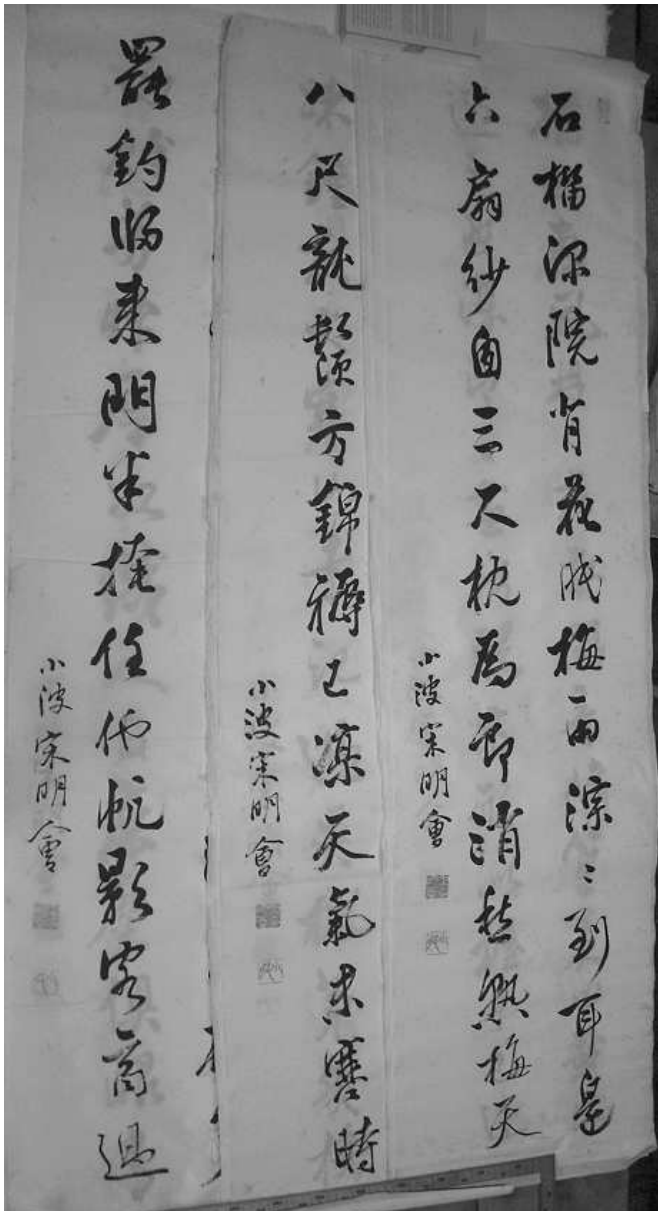
〈도 4〉 성산 이순재 서화 2



〈도 5〉 성산 이순재 서화 3



〈도 8〉 유당 김희순 사군자 서화



〈도 9〉 소파 송명회 서화



〈도 10〉 창암 이삼만 글씨



〈도 11〉 남농 허건 그림액자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이 태 영*

〈목 차〉

- | | |
|-----------------------|---------------|
| I. 서론 - 1950·60년대의 전주 | IV. 〈가람길〉의 구성 |
| II. 전주의 문인, 예술인 | V. 결론 |
| III. 전주 문인들의 활동 무대 | |

I. 서론 - 1950·60년대의 전주

1945년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에 1950년 6·25사변이 터졌다. 서울이 함락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남쪽 지역에 있는 전주와 부산은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전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향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영화인, 미술인, 문학인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전주를 찾게 되었다.

당시 가장 변화가였던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의 인근 지역은 문화 예술 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음식점, 다방, 술집 등이 번창하였고, 극장과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현대까지 전주의 문화적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주는 음악, 미술, 서예, 문학, 영화 등등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1950·60년대의 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월등한 문화적 발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활동한 문화예술인과 그 문화 활동에 대한 언급은 그 당시를 겪은 문화인들과 이 지역 거주자들이 구술한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의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근·현대라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해 당시의 상황과 구술자료를 모아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51년 전주로 내려와서 약 5년간 전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서지학계의 거목인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석정, 김해강, 김창술, 최승범과의 교분 및 활동을 조명하고, 그 시대의 많은 예술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주 지역의 문화적 활동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전주의 문인, 예술인

6·25사변이 터지고 전주에서 활동하던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학, 극장, 개인의 거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가람 선생이 전주에 온 뒤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인사들과 교유하면서 전주의 학문, 교육,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 거쳐했던 양사재와, 전주의 예술인들이 활동했던 전주극장,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어 강의를 했던 전시종합대학과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문인들의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사재'와 문인들

향교에서 유림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곳이 '양사재(養士齋)'이다. 양사재는 서당 공부를 마친 청소년이 모여 생원, 진사 시험 공부를 하던 곳이다. 향교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자 이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전북대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자, 1951년 6월 4일 양사재로 이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1956년까지 주로 기거하게 된다. 가람 선생은 양사재에서 약 5년간 기거하는 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문예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며, 양사재를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과 교분을 나누게 된다.

1975년 서울에 있는 신구문화사에서 『가람일기』(1)가 출판되었다. 가람 선생의 제자인 정병욱 교수와 최승범 교수가 편집하여 낸 책이다. 이 책은 가람 이병기 선생이 1919년 4월 14일부터 1968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50년의 일기를 모아 편집한 책이다. 가람 선생의 활동 사항은 이 책을 참고하여 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여산이 고향인 가람 이병기 선생은 국문학을 전공하신 시조 시인이었다.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은사님으로부터 가끔 국문학자이며 시조시인으로 잘 알려진 가람 이병기 선생의 일화를 들곤 하였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1951년 전시연합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이어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강의를 하실 무렵, 선생은 수업이 끝나시면 학교 앞 막걸리 집에서 술을 드시기 시작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풍납문 앞에서 술을 드시고 집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들었다. 국문학사를 강의하시면서 점심에 하신 술이 얼큰하게 올라와서 여학생 앞에서 하기 어려운 시조의 내용을 거침없이 읊으면서 강의를 하셨다는 말씀도 자주 들곤 하였다.

선생은 이처럼 호탕하셨고 올곧은 선비의 자세를 지녔다고 전한다. 난

을 좋아하셔서 선생이 학장 관사로 쓰면서 계시던 양사재 방안에는 항상 난향과 수선화 향기가 가득하였고 울안에는 매화, 연꽃을 심으셨다.

특히 문인 중에서는 신석정, 김해강, 백양춘(신근), 최승범과 주로 만났으며, 이름이 언급된 분들을 들어보면 박준규, 김상기, 소공(素空), 포광(包光), 우당(愚堂), 유호석, 고형곤, 이우식, 박천일, 양상경, 김남곤, 유엽(柳葉), 이혜구(李惠求), 조병희, 문선규, 이광렬(효산), 김용규, 국어학자 김형규, 정인승, 박길진(원광대학 학장), 장순하(삼남신문사), 김근수, 김충선 등이 보인다.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을 양사재로 초청하여 꽃을 보면서 술을 드셨던 내용이 가끔 나온다.

57년 1월 11일(금), 청매가 많이 피었다. 전원배, 송준호, 홍현식, 노철, 김상오, 김근수, 최승범 군을 청하여 매화음을 하였다.

1968년 11월 29일, 가람 이병기 선생의 서거에 쓰신 신석정 선생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풍란이 바야흐로 벌어졌습니다. 방렬청(芳烈淸)한 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난대 밀림 속에나 앉아 있는 듯합니다. 틈나시거든 왕림하시압.”

선생이 생전에 보내신 글밭이다. 아마 어느 해 늦은 봄이었다고 기억된다. 글월을 받자마자 바로 나는 선생을 심방하였고 그날 선생과 더불어 두견주를 기울이며 좀체 틈을 주지 않는 선생의 장광설을 경청하던 것이 어제런 듯 선하다.

봄이 지나면 바로 뒤이어 연엽주(蓮葉酒)의 계절이 선생을 찾아온다. 이때쯤 되면 풍란도 이울고 들에는 백련이 소담하게 피어 그윽한 향기가 술곳이 들려오는 오목대 아래 양사재 서가에는 선생의 지기와 제자들이 둘러앉아 호방한 선생의 웃음소리 속에 연엽주 잔이 오고가기 마련이다.

고매(古梅)처럼 허울 다 떨어버린 그 고매한 풍모에 어울리는 담소에

서 풍겨오는 선생의 담담하면서도 뜨거운 인간애를 어찌 한두 송이 매
화꽃 봉오리에만 비기랴?

청자 빛 하늘이 오목대를 넘어가는 가을철이면 양사재엔 또 다시 국
화주¹⁾의 향기가 드높은 시절이 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가신 포광 선생
과 더불어 국화주를 기울이며 오고가는 이야기는 그대로 속진을 떠난
청담(淸談)이 아닐 수 없었다.

— 『신석정 전집』4, 247쪽

시인 김해강의 산문에서 다음과 같이 가람 선생과의 교분을 볼 수 있다.

3月 4日(木)

가람 李秉岐 先生의 招待를 받았다.

夕汀, 白楊村, 구름재, 그리고 나. 오늘이 先生의 生辰이라 하여, 薄酒
나마 나누어보자고, 特히 우리 네 사람을 부른 것이다.

8月 27日(金)

뜰에는 白蓮이 피어있고, 마침 蓮葉酒가 알맞게 익었으니 와달라는
ologa람의 부름을 받고, 낮에 夕汀, 白楊村과 함께 養士齋로 내달았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거하던 양사재를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이 드나
들면서 전주의 문학을 꽃피운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 ‘비사벌초사(比斯伐艸舍)’와 신석정(辛夕汀)

한편 가람 이병기 선생과 문학적으로 교분이 많았던 분은 신석정 선생
이다. 신석정은 1907년 7월 7일 전북 부안읍 동중리에서 출생하고, 1930년

1) 전북 여산에서 생산하는 술로 ‘호산춘’이 있다. 이는 가람 선생이 즐겨 애용했다
는 술에서 연유하여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월 서울로 상경하여, 석전 박한영(石顛 朴漢永) 선사가 경영하는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공부한다.

1931년 6월 『時文學』 3호에 〈선물〉을 발표하여 시문학 동인이 되어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과 활동하며 한편으로는 이광수, 한용운, 주요한, 김기림과 교분을 쌓으면서 영향을 받는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고 1952년 전주로 활동무대를 옮긴다. 1961년 남노송동 비사벌초사(比斯伐艸舍)에 기거하면서 활동한다. 1951년부터는 태백신문사 편집고문으로 있으면서 전북대학교 ‘시론’ 강의를 맡아 후진 양성과 전북 문학 활동의 선도가 되었다.

1954년 전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대학교와 영생대학에서 시론을 강의한다. 1958년 이병기와 공저로 『명시조 감상』(박영사), 역서 『매창시집』(낭주문화사)을 출간한다.

신석정은 ‘가람 선생과 나’라는 글에서 가람을 만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내가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40년이 가까운 까마득한 옛날로 20대의 문학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 영광·고창을 둘러 오신 선생은 매창의 무덤을 찾아오신 길이라고 우리 고장 부안을 들르셨습니다. 그 길로 매창의 무덤을 둘러 변산 해수욕장으로 모신 나는 밤이 이슬하도록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문학 이야기를 듣던 것이 바로 엇그제같이 성합니다.

— 『신석정 전집』4, 249쪽

전주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운포의 권유로 전주로 나와 정박한 지 벌써 20여 성상, 나의 교우록에도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T신문사의 편집고문을 맡아오는 동

안 고등학교 국어와 대학의 시론을 맡게 되어 가람 선생을 대학에서 다시 만나고 김해강·백양촌을 중심으로 전주문인회라는 문우 친목 서클을 만들어 문학 활동에 자못 활기를 띄게 되었다.

— 『신석정 전집』4, 516쪽

신석정은 ‘전주 문학풍토기’(『신석정 전집』5권, 186~190쪽)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전북의 문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소설가로 채만식(백룡), 최일남, 홍석영, 박상남(상산), 양인기, 유현중, 오승재, 박조웅, 윤항목, 신석상, 강석근, 유림일, 이추원을 언급하고 있다.

시인으로는 유엽, 김창술, 김해강, 서정주, 백양촌(신근), 최승렬, 이철균, 하희주, 허소라, 황길현, 이병훈, 김영협, 백초, 이향아, 최종규, 이가반, 장경룡, 오경남, 진을주, 고은, 박항식, 박순호, 박희선, 이어룡, 이운룡, 강인한, 이가림(이계진), 채규판, 문효치 등 시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시조시인으로 가람 이병기와 그의 제자들인 이호우, 김상옥, 장순하, 최승범, 구름재 박병순을 언급하고 있다. 평론에는 천이두, 원형갑, 이상비, 희곡 분야에는 정구하, 김진옥, 박동화가 언급되고 있다.

최명표(2006)에 의하면, 신석정과 같이 활동한 김해강은 1903년 4월 16일 전주시 전동 182번지에서 출생하여 1927년 1월 1일 동아일보 문예 작품 현상난의 공모에 시 ‘새날의 祈願’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45년 전주사범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9월 김창술 등과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47년 2월 16일 채만식(대표), 이병기, 김창술, 신석정 등과 ‘전라북도문화인연맹’을 창립하였다.

1945년 8월 27일 김해강, 김창술을 중심으로 전주문화동우회가 탄생되었다. 문학 백양촌, 미술 김영창, 연극 김구진, 유춘, 음악 이준석, 무용 김미화, 언론 이평권 등이었다.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 2008년,

445쪽 참조) 1959년 12월 신석정 등과 ‘전주문학회’ 해체 후, ‘문인의 집’을 재발족시켰다가 4·19후 해체하였다.

신석정과 함께 활동한 김창술은 1902년 4월 19일 전주시 중앙동 9번지에서 출생하여 1927년 10월 동향의 시인 유엽, 김해강 등과 전주시회를 조직하고, 문예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문학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였다.(최명표, 2002 참조)

3. 전시종합대학과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명륜대학관, 군산에 군산대학관, 이리에는 이리농대가 있었다. 전시상태에서 각 대학은 휴교 상태여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1951년 정부에서는 전시체제에 맞게 대학을 연합하여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도내 대학들은 전시체제에 연합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종합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당시 전주에 피난을 내려온 많은 인사들이 전시연합대학의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을 필두로, 철학과 전원배, 국어학의 김형규, 정인승, 김영수(김포강) 등이 있었다.

전북대학교는 1951년 12월 10일 이리농과대학, 전주명륜대학, 군산대학이 합쳐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개강하게 되었다. 전시연합대학에서 가람 이병기, 미당 서정주, 김형규, 정인승 박사 등이 강의를 하였다. 52년 9월부터 56년 8월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이 문리과대학장을 역임하고, 건재 정인승 박사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게 된다. 신석정 선생은 전북대학교에서 7년 동안 시론을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의 원로 시인이신 고하 최승범 명예교수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회 졸업생이다.

52년 6월 8일(일) 오전 10시 전북중학교 교정에서 전북대학교 개교식

이 시작되었다.

— 『가람일기』, 657쪽

52년 12월 29일, 문리대에 나갔다. 신석정 외 김해강, 백양촌 등 문인들이 신천지(新天地)에서 회합하여 산옥이 집으로 가 망년회를 찍지게 하였다.

— 『가람일기』, 662쪽

1956년 12월 23일(일), 영산옥(映山屋)으로 가 전북 국어국문학회 총회. 전회원 13명. 신석정, 김교선, 이기우, 최승범, 김준영, 이학용, 고현, 나다. 회칙 통과, 상무위원 선정, 나는 그 회장, 부회장에 신석정, 김교선, 총무에 고현, 편집책임에 최승범.

— 『가람일기』

4. 가람문고

가람 이병기 선생은 평생 가난한 선비로 사시면서도 우리 옛 책을 많이 모았다. 지금은 거금으로도 사기 어려운 보물급인 많은 책을 월급으로 샀다. 가람일기를 통해서 생활의 곤궁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일기를 보면 서울에 계실 때 진고개 근처에 있는 책방과, 한남서림, 광동서관, 박경수서사, 광창지점, 화신상회, 회동서관 등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옛 책을 구입하였다. 그 내용이 『가람일기』(1)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쓰여 있다.

1930년 6월 11일(수) 맑다.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국어역본 4권(첫1권 낙질)을 95원에 샀다.

1930년 10월 24일(금) 맑다.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2책, 『원각경(圓覺經)』 1책 사다.

1924년 휘문고등학교 선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1951년 전주에 내려올 때까지 무려 20여 년간 상당히 중요한 책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에는 한글과 관련된 귀중본이 다음과 같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들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구입하기 어려운 귀한 책들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1, 2(1447년),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활자본) 5권(1461년),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6, 7, 15, 16(1481년),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2, 3, 4, 5(1482년),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17년),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1517년),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1608년),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1608년), 양금신보(梁琴新譜)(1610년), 불정심경언해(佛頂心經諺解)(1631년), 가례언해(家禮諺解)(1632년), 농가집성(農家集成)(1656년), 어록해(語錄解)(1657년), 배자예부운략(排字禮部韻略)(1678년), 중용언해(中庸諺解)(1684년), 역어류해(譯語類解)(1690년), 이문대사(吏文大師)(17세기경), 신간증보삼략직해(新刊增補三略直解)(1805년), 신전자초방언해(新傳煮硝方諺解)(1809년)

가람 선생은 ‘한국 서지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서적은 학자의 밑천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람 선생은 그 고된 책 수집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였다. 가람일기에서는 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서울로 와 중학교사가 되어 20여 년을 보내는 동안 나의 뜻하던 바 고서적 몇 천 권을 모았다. 내가 처음 18원 월급을 받았으나 그 돈의 반 이상은 책을 샀었다. 나는 이걸 한 오락으로 여기려니와, 보라도 우리 국학에 당한 귀중한 문헌을 수집하자던 것이었다.(이하 생략)”

가람 선생이 작고하고 유족들이 선생의 책을 전북대학교에 기증하려고 하자, 전북대학교는 당시 재정이 매우 빈약하여 선생께 드릴 사례금이

없어서 기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약 4천 권의 옛 책을 기증하였는데 이 책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가람문고’에 들어 있다.

이 가람문고에는 국보급을 비롯한 좋은 책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선생님이 전공하신 국문학의 소설들도 상당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에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인 열녀춘향수절가, 홍길동전, 심청전, 소대성전, 유충열전 등이 보인다.

춘향전(가람古 813.5-C472a), 홍길동전(가람古 813.53-H41h), 심청전
(가람古 813.5-Si41f), 소대성전(가람古 813.5-So15a)

5. ‘고하문학관’과 고하 최승범

1969년 동호회 형식을 빌어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의 이름으로 『全北文學』이란 잡지가 전주에서 발행되었다. 그 후 2011년 현재까지 253집이 발행되었다. 현재 최승범 교수가 발행을 하고 있다.

이 잡지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데 이 잡지의 표지에는 화가들의 그림, 조각가들의 조각품이 표지 화면으로 등장한다. 현재 그러한 작품이 ‘고하문학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훌륭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하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최승범 교수님이 전국의 문인들과 나눈 편지에는 유명한 문학인들의 친필 편지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많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하문학관’에는 수만 권의 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특히 시집, 1950·1960년대의 양장본 등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전주 문인들의 활동 무대

1. 다방 문화

전주의 근·현대사에서 다방(茶房)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예술인들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전시하던 곳이었다.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이 다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1950·1960년대의 다방은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친목하는 곳이긴 하지만 시화전, 그림전시회, 시낭송회, 각종 회의를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당시 전주의 다방의 분포와 그 활동 영역을 이해하는 일은 바로 전주의 문인의 활동사를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²⁾

전주의 다방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3장이 있다. 하나는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2008 : 525쪽)에 수록된 ‘1951~60년까지 50년대 다방 분포 상황’이다.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2008 : 525쪽)의 지도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6·25 전에는 다방이 없었고 양식집인 신천지가 있었을 뿐이다. 6·25 후에 첫 번째 생긴 다방이 고향다방이고 이어서 왕궁다방, 우인다방, 아담다방, 삼양다방 순으로 문을 열었다. 그 후로는 우후죽순격으로 다방이 늘어갔다. 전쟁 직후 암울할 때 지식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다방 이용이 잦았다. 특히 문화예술인, 연예인은 다방의 단골손님이었다.

—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 2008, 525쪽

2) 김동리의 ‘밀다원 시대’(1955), 마해송의 ‘아름다운 새벽’(1961), 이청준의 ‘조울사’(1972)와 같은 문학작품에는 다방에 대한 시대적인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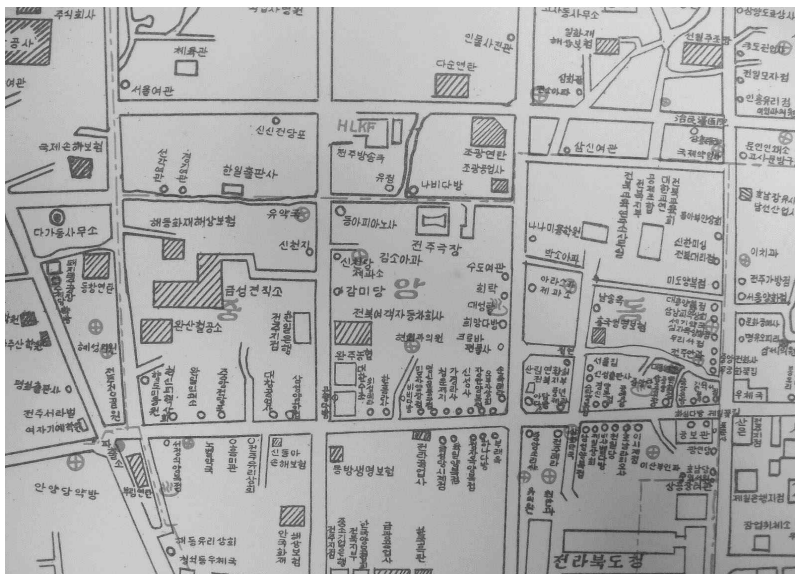
〈도 1〉 1951~60년까지 50년대 다방 분포 상황

두 번째 지도는 1962년 대한상공전선사에서 발행한 ‘전주 상공 안내 시가도’이다. 이 지도에는 중요한 다방과 음식점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세 번째 지도는 1965년에 발행한 『湖南略圖』에 나오는 1960년대 다방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지도이다. 이 세 지도를 종합하고 참고하면 새로운 ‘전주 50, 60년대 다방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아담 다방

창업자는 고귀순 씨(1924년생)로 1950년대 중반에 창업, 80년대까지 1층에서 영업, 후에 2층으로 옮겼다. 여고 시절 중앙동 우리 집(하얀 웨딩) 가게를 구입하였다. ‘다리봉 식당’ 자리였다.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 2008, 523쪽)



〈도 2〉 전주 상공 안내 시가도

아담다방을 만들고 세를 내놓았으나 나중에 주인이 직접 영업하였다. 고급다방으로 판검사, 고관들이 많이 다녔다. 연예인, 기자, 신문기자들이 주로 왕래하였다. 현재 다른 분이 ‘(구)아담다방’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저녁에 다리봉(茶里峯) 다방서 국문학의 빛나는 고시가화(古詩歌話)를 했다.

— 『가람일기』, 650쪽

다방에서 주로 전시하던 시기여서 아담다방에서 석정선생 시화전을 열었다.

— 『이야기로 듣는 전주』, 197쪽



〈도 3〉 1960년대 전주 다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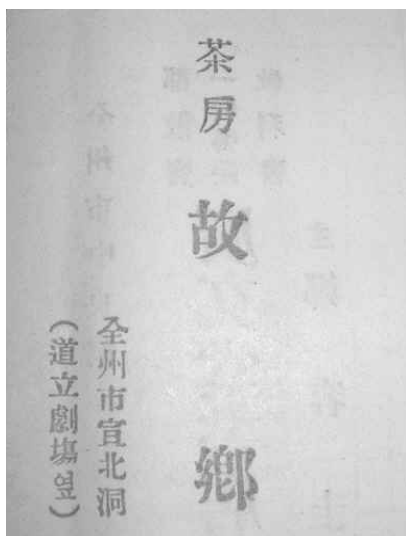
2) 고향다방

일제강점기 국제관이었다가 도립극장으로 불리고 후에 전주극장이 된 이 극장 골목에 고향다방, 우인다방, 왕궁다방, 무영다방, 심원다방 등이 모여 있었다.

52년 10월 9일, 한글 반포 506주 기념날 도립극장서 기념식, 오후 5시부터 고향(故鄕) 다방서 한글의 밤을 하였다. 어학회 사건 당시의 회억담을 하였다.

- 『가람일기』, 660쪽

다음 ‘고향 다방’의 선전물은 1953년 전주에서 발행된 ‘列車時刻表’에 게재된 광고이다.



〈도 4〉 고향다방 선전물

3) 우인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으로, 6·25 직후 연예인이 가장 많이 모인 다방이다. 출입한 연예인으로는 변기중, 김승호, 이예춘, 허장강, 김진규, 주선태, 황해, 박노식, 전택이, 노경희, 도금봉, 김희갑, 현인, 김정구 등이다. 우인다방은 주로 극단배우들이 많이 다니는 다방이었다.

4) 무영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이다. 최승범 교수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가람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56년 12월 30일, 무영다방으로 가 석정의 『빙하시집』 출판기념회를 했다.

— 『가람일기』

5) 심원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이다. 최승범 교수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가람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1954년 3월 19(금), 가람동인회의 사화집 『새벽』 출판기념회를 열다.

— 『가람일기』, 669쪽

시인 김해강의 산문에서도 심원다방이 등장한다.

3月 19日(金)

午後 다섯時 茶房 『心園』에서 열린 詞華集 『새벽』 出刊 祝賀會. 거기 모인 人士로는 主로 『새벽』에 詩를 낸 執筆同人들이었는데, 老가람을 筆頭로 夕汀, 白楊村, 구름재, 柳林一, 崔勝範, 崔辰聖, 高琳順들이었다. 特히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金敎善氏도 參席을 해주었고, 그밖에 數三人의 青年 文學同志들도 陪席해 주었다.

3月 27日(土)

그렇게 오랜 時間은 아닌 것 같았는데, 날은 어느듯 저물어버렸다. 함께 일어서기가 거북했던지 R嬢은 『心園』에서 기다리겠오라 하고, 먼저 자리를 떳고, 둘이서는 동안을 떠어 일어섰었다.

6) 삼양다방

경원동 아리랑제과소 사거리에 있는 다방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음악다방으로 그림 전시회를 열곤 하였다.

7) 교차로다방

아담다방 건너편에 있던 다방이다. (『이야기로 듣는 전주』, 231쪽)

8) 풍납다방

9) 봉오리 다방(시청 옆)

10) 일번지 다방

‘신천지’ 양식집 앞에 있던 다방으로 화가들이 주로 드나들던 다방이다.

11) 신천지

양식집으로 전주극장 사거리에서 중앙동 사거리 사이에 있던 음식점이다. 90년대까지 ‘갈매꽃’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장소이다. 6·25 전 부터 있었다. 『가람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52년 12월 29일, 문리대에 나갔다. 신석정 외 김해강, 백양촌 등 문인들이 신천지(新天地)에서 회합하여 산옥이 집으로 가 망년회를 찍지게 하였다.

— 『가람일기』, 662쪽

이상으로 다방과 문인들의 활동사를 정리해 보면, 다방은 단순히 커피나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긴 곳이 아니라 전시회, 낭송회, 문학과 예술을 위한 담소의 장소로 활용된 곳이어서 특별히 문학을 표현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전쟁의 시대에 문학인들의 삶의 공간이자, 문학을 표현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2. 극장과 예술인들

1) 전주극장

일제강점기 ‘국제관’이었다가 ‘도립극장’으로 불리고 후에 ‘전주극장’이 된 이 극장에서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인들의 행사가 있던 장소

였다. 자연히 그 뒷골목에는 많은 다방이 자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현재 전주극장 골목은 1950~1960년대의 전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수많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드나들던 음식 골목이었다. 현재에도 찻집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세탁소와 음식점이 옛 정취를 간직하며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2) 풍남극장

현 전주백화점 자리에 있던 독립극장과 함께 풍남극장 무대는 시낭송의 밤으로 활용되었다. 시 낭송의 밤은 기성시인이고 대학생,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이고 간에, 남자들만으로 이뤄졌으며, 여류시인이 희귀한 당시에는 문학을 열망한 여학생을 양념으로 출연시켜 성황을 유도했다.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2권, 2008, 521쪽)

1945년 8월 하순에는 전북관현합창단이 활동을 개시하였다. 지휘 김홍전, 기획·감독 정인성, 악장 김길영 등이 맡았다. 음악인 80여 명이 모였고, 관현악부, 성악부로 나뉘어 연습을 하였다. 9월 하순에는 전주극장에서 1회 공연을 가졌고 6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2권, 2008, 445쪽

3) 미국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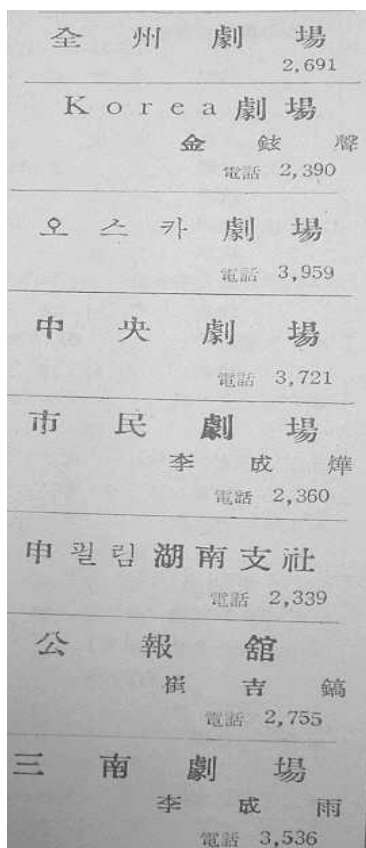
1947년에 개설한 미국문화원은 50년대 콘서트 건물에서 미국 문화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였고 최신 미국에서 간행한 도서가 많아 문학 활동이 활발한 본거지였다. 시 낭송회가 주로 열리는 장소였다.(『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2권, 2008, 520쪽)

4) 공보관

미국문화원 콘서트 건물이 헐리고 3층 건물의 극장(공보관)이 개관되자 대학생들이 문학서를 활동 무대가 극장으로 옮겨졌다. 전시실이 유일하여 미술, 사진 등의 전시가 많았다.

52년 10월 17일, 공보관에서 호서문학회(湖西文學會) 주최인 ‘문학의 밤’에 갔다. 정훈(丁薰) 군이 문학회장으로 사회, 이병기 선생 축하

— 『가람일기』, 660쪽



〈도 5〉 전주 극장 광고

5) 유네스코 협회

최승범 교수에 따르면 공보관 자리에 ‘유네스코 협회’가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회장에 오명순, 유영대 총장, 박길진 총장이 맡고, 최승범 교수는 상임이사를 맡았다고 한다.

다음은 1965년도 발행된 ‘호남약도’에 게재된 전주 극장들의 광고이다.

3. 선술집

현재 막걸리집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50년대 이전에는 선술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서울에서 대포집이라고 부르니까 이 말이 전

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여 50년대 중반에 대포집, 왕대포집으로 불리게 되었다가 현재는 막걸리집으로 불리고 있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149쪽)

전주극장 뒤에 대포집이 많았다.

(『이야기로 듣는 전주』, 222쪽)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전주의 역사를 증언한 많은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치한다.

1) 정읍집

70년대 초 정읍집에 자주 다니던 사람들 배형식, 하반일, 묵산, 운봉, 유희열, 권경승 등의 이름이 나온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222쪽)

2) 삼천포집, 이화집

이화집은 구 시청 옆 전신전화국 앞에 위치했다고 한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124쪽)

신석정 선생이 단골로 다녔던 구 전주시청 옆 ‘이화집’은 냉이국이 술 맛을 돋구었다.

—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눈이라도 살포시 오는 날이면 돌아오는 길에 호주머니가 막상 빈털털이가 되어도 좋다고 단골로 다니는 대포집 이화장에 들릴 양이면 예전 다방에서 만나던 친구들의 얼굴은 거의 대할 수 있다.

— 『신석정 전집』4, 130쪽

3) 새우집(전주여고 앞 철길 옆)

4) 구슬아기집(전고 앞)

5) 동동주집(교동 성당 가는 길목)

6) 혜경이집(태평동)

7) 곶보집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와 『가람일기』에 나오는 선술집이다.

‘곶보집’ 등 이루 셀 수 없는 단골 선술집을 만들어 다녔다.

—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281쪽

남문시장안 ‘해방관’ 역시 가람 선생이 자주 찾던 단골 술집이었다. 일명 ‘곶보집’으로 불리던 이 집은 큰 술뚜껑에서 만들어 낸 파전이 일품이었다.

8) 옴팡집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에 나오는 선술집이다.

그리고 남문시장 안에 있는 곶보집이니 옴팡집이니 하는 술집에 가서 약주 대접을 해드리며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시종 진진한 강의가 선술집 한 모퉁이 바닥에서 펼쳐지곤 하였다.

—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284쪽

9) 툇래미집

우리들의 단골은 허름한 선술집이었다. 가람 선생은 툇래미집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술을 파는 과부집에 자주 가서 환담을 하기도 하였다.

10) 비빔밥집

전주 비빔밥의 원조는 지금의 남부시장이었다. 남부시장 한 모퉁이에 조소녀라는 여자가 하는 술집이 있었다.

11) 버드나무집(금암동 분수대 부근)

12) 후문집

도청 뒤에 있는 허름한 선술집이었지만 각기 나름의 맛과 멋이 있어 단골을 끌었다.

13) 군자집(노파집, 남노송동)

김준영 교수와 최승범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가람 선생이 자주 다니셨던 곳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선술집은 소시민들의 애환을 나누는 장소이다. 1950~1960년대 당시 문인들은 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았던 관계로 선술집을 드나들며 세상과 친구와 인생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문인들이 다니던 선술집의 역사가 2000년대인 지금까지 전주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막걸리’가 다시 유행하게 되고, ‘막걸리집’이 재탄생된 것이다.

4. 음식점

예나 지금이나 음식점은 비교적 젊잖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음식을 나누고 행사를 하는 곳이다. 전주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음식점에서 활동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 음식점

일제시대의 음식점(『이야기로 듣는 전주』, 82쪽)으로는 일본인이 운영 하던 비빔밥전문점으로 ‘박다옥’(박다, 하까다), 남계동(다가동), 남문에서 다가동 가는 길에 있던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평양집’, 기타 ‘비사벌’, ‘전주식당’, ‘금일옥’ 등이 있었고(『이야기로 듣는 전주』, 109쪽)

경원동, 시청 옆에 후생극장(깡통극장) 근처, 현 예술회관 옆에 콩나물 국밥집으로 ‘성심옥’이 있었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149)

2) 요정

허산옥(남전)씨가 운영하던 요정인 ‘행원’이 있고, 보건소 앞에 있던 ‘수월정’이 있었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221쪽) 이 외에도 ‘노송각’(『가람일기』, 636쪽), ‘청풍관’(『가람일기』, 639쪽) 같은 큰 음식점도 있었다.

3) 부여옥

『가람일기』에 나온다.

1956년 3월 30일, 낙원(樂園)서 문인회 송별연. 석정, 해강, 백석, 백양촌, 최승렬, 박병순, 남상천, 최승범, 청포, 감용문 일동 촬영

— 『가람 일기』, 690쪽

4) 영산옥

『가람일기』에 나온다.

1956년 12월 23일(일), 영산옥(映山屋)으로 가 전북 국어국문학회 총회. 전회원 13명 신석정, 김교선, 이기우, 최승범, 김준영, 이학용, 고현, 나다. 회칙 통과, 상무위원 선정, 나는 그 회장, 부회장에 신석정

5) 산옥이 집

『가람일기』에 나온다.

52년 12월 29일, 문리대에 나갔다. 신석정 외 김해강, 백양촌 등 문인들이 신천지(新天地)에서 회합하여 산옥이 집으로 가 망년회를 찍지게

하였다.

— 『가람일기』, 662쪽

IV. 〈가람길〉의 구성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가칭 〈가람길〉을 만들어 다녀보았다. 1950, 1960년대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람길의 노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북대학교 - 덕진공원 - 금암분수대 옆 - 태평동 - 영화의 거리(오거리) - 전주극장 골목 다방 - 중앙동 다방 - 다가공원(가람시비) - 남부시장 - 고하문학관 - 한옥마을 - 최명희문학관 - 완판본문화관 - 양사재

1.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 가람시비와 석정시비



2. 덕진공원의 시비들



3. 영화의 거리(오거리)



4. 전주극장 골목 50년대 다방 거리



5. 1950년대 중앙동 다방 거리



6. 다가공원 가람시비(1969년 11월 19일 건립)



7. 남부시장 완판본 고전소설 서점



8. 고하문학관(교동)



9. 최명희문학관(전주한옥마을 내)



10. 완판본문화관(전주한옥마을 내)



11. 양사재(전주한옥마을 내)



V. 결론

전주 교동에 있는 양사재는 국어국문학의 거목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거하면서 전주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터다. 특히 가람이 이 터에서 가꾼 난, 난초, 수선화, 매화, 연꽃 등은 한옥이 가지는 생활 이미지와 매우 관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는 꽃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주 중앙동 거리는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려 100여 년 동안 전주의 제일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거리이다. 1950, 1960년대 전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드나들던 다방은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한 장소로 전주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장소이다.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주극장 뒷골목은 1950, 1960년대 전주의 영화거리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다방골목이다.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바로 옆 동네의 2000년대 문화와 대비를 이루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여전히 지나간 문화를 상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를 기념하거나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전주극장 골목은 바로 영화의 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이 영화의 거리가 된 것은 바로 1950년대 전주극장 골목에 모였던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찾았던 식당과 술집은 전주의 낭만과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들 음식점과 술집과 다방을 통틀어 ‘가람길’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전주의 막걸리가 유명한 것도 이런 역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가람길’을 만들어 다녀보았다. 1950, 1960년대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국효문, 『신석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대한상공전선사, 『전주 상공 안내 시가도』, 보광출판사, 1962.
-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4, 국학자료원, 2009.
- _____, 『신석정 전집』5, 국학자료원, 2009.
- 열차시각표(1953)
- 이계수·박송암·신동식, 『湖南略圖』, 국제문화출판인쇄사, 1965.
- 이병기, 『가람 일기』(1), 정병욱·최승범 편, 신구문화사, 1975.
- 장명수 엮음,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2, 전주문화재단, 2008.
- 전북대학교, 『샘물이 큰 바다를 이름과 같이 -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신아출판사, 1998.
-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전주시, 2001.
- 최명표 편, 『김창술 시 전집』, 문예연구사, 2002.
- _____, 『김해강 시 전집』, 국학자료원, 2006.
- 최명표,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에 대한 토론문, 『제12회 전주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홍성덕·김철배·박현석 번역, 『국역 全州府史』,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8.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이 동 희*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필상의 전통을 이은 필방 |
| II. 전주일원 필장과 필방의 분포 | V. 맺음말 |
| III. 전주한지의 맥을 이은 필방 | |

I. 머리말

전주는 문화예술이 발전한 예향이다. 그렇지만 예향으로서 그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주가 예향임을 입증하고, 그 내력을 찾아보고자 할 때 난감한 점이 있다. 이런 연유로 전주가 과연 예향인가 하는 의문도 때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주가 예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주지역의 예술활동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

본고는 이런 차원에서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筆房)에 대하여,¹⁾ 붓과 종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방사우를 취급하는 필방 운영이 곧 직접적인 예술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림과 서예의 기반이므로, 필방

*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장

1) 본고에서 근대는 광복이후 1960, 70년대까지도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에 대한 고찰이 예향 전주를 밝혀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방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만 붓과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정리한 글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필방에 관한 연구들이 없는 상황 하에서, 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존의 구술채록 기사들이 비록 단편적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

붓과 종이를 생산했던 장인들, 즉 필장과 지장 개개인에 관한 기록을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 전통사회가 지금까지처럼 장인을 예우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을 통해 전주지역 필방의 연원을 찾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대로 필장과 지장을 이어오는 장인들이 있어서, 이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작고한 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인터뷰 기사들을 더하여 이 지역의 붓과 종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복원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전주에 필방이 들어선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보인다. 전주의 오래된 필방으로 고려필방과 송지방이 있으며, 필장(筆匠)의 가업을 이어온 이조필방이 있다. 또 전주일원인 모악산 자락에 금산필방이 있고, 전주에서 이주해 간 필장이 꾸려가는 대전의 백제필방이 있다. 필자가 파악하지 못한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장인과 필방들이 더 있겠지만, 우선 이들 필방과 그 후예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여 본 논고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전주지역 필방의 실체를 규명해 감에 있어서 구술채록이라는 조사방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필자가 부족하여 조사를 보다 폭넓게 수행하지 못하고, 장인들의 증언을 잘못 정리하거나 해석한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주지역의 필방에 관한 자료를 채록하고 모으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전주지역 필방과 예술사 연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전주일원 필장과 필방의 분포

연필, 펜 등의 필기도구가 들어오기 전에 붓은 일상의 필기도구로 일반 가정에서부터 관청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다. 이러한 붓의 대표적인 생산지는 광주 무등산자락 백운동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붓을 진다리붓이라고 한다.²⁾ 한때 백운동 필방골에는 50여명의 필장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모임인 필장제도 있었다.³⁾ 이곳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장도 여럿 있었지만, 지금은 붓의 수요처가 줄어 몇 명의 필장이 있을 뿐이다.

전주에도 여러 필장들이 있었겠지만, 전해오지 않아 어디에서 어떤 필장들이 활동했는지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필장 집안과, 그들이 기억하는 필장들이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 천안에서 필상을 하다가 완주군 신리로 이주해 붓을 만들어 팔았던 곽준팔씨(1971년경 74세로 작고)가 있다. 전주에서 이조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필장 곽종찬씨의 부친이다. 또 채주봉씨(89세)에 의하면 완산동 용머리고개의 최도숙이라는 필장이 오랫동안 붓을 만든다 알아주는 필장이었으며,⁴⁾ 중인리 주씨들이 동네에서 붓을 만들었다고 한다.⁵⁾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필장으로는 곽준팔의 아들 이조필방의 곽종찬씨(61세)가 있으며, 동산촌에서 붓을 만들다가 대전으로 이주해 백제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필장 장대근씨(58세)가 있다.⁶⁾ 전남 함평에서 이주해 김제

2) 백운동의 옛 지명이 진다리이다. 한편 벼루는 대천 백운산석이 좋다. 백운산석 벼루는 옛날에 선비들이 물 없이 갖고 다니면서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먹은 울산과 서울에서 고급 먹이 생산된다고 한다.

3) 채주봉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4) 채주봉씨에 의하면 최도숙씨는 40~50년간 붓을 만들었으며, 30여 년 전쯤 작고했다고 한다. 곽종찬씨도 완산동고개에 광주에서 와서 붓을 만드는 젊은 사람이 있었다고 기억 하였다.

5) 전주 일원은 아니지만 익산 황등에서는 유씨들이 붓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붓 수요가 많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집집마다 부업으로 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채주봉씨 구술)

모악산 금산사 앞에서 금산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채주봉씨(89세)도 그 선친으로부터 이어온 것은 아니지만 필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에 행상 형태의 필상에서 지금과 같은 가게형태의 필방이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이다. 풍남문 안쪽에 자리한 고려필방(고려당필방)이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때쯤 해서 ‘송가 종이’로 유명한 송지방이 도청 옆에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서는 고려필방과 송지방이 가장 오래된 필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다 전주한지를 토대로 한 필방들이다. 고려필방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송지방은 문을 닫은지 10여년이 넘었다.⁷⁾

1970년대 후반 이후 풍남초등학교 길 건너 이조필방이 문을 열었으며 현재도 그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자필방, 성지필방, 문산필방 등이 있었다.⁸⁾ 청자필방은 고려필방 집안간인 임씨들이 운영하였는데, 시청 옆 대한통운 사거리부근에 청자페인트 가게를 내고 그 한 칸에서 필방을 운영하다가 객사부근으로 이전하였으나 몇 년 안돼 문을 닫았다.⁹⁾ 성지필방은 충경로(동서관통로) 변에 있었으며,¹⁰⁾ 문산필방은 다가교 못 미쳐 충경로 우측으로 있었다.¹¹⁾

6) 장대근씨는 본래 상관(지금의 색장동)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그 조부 때부터 붓을 만들었는데 동네에서 만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털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장대근씨 부친을 털 장사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

7) 후에 송우석씨의 아들 송제천씨가 서울 인사동 거리에 송지방 매장을 내었다. 송제천씨가 올 초 작고하였고 현재 그 딸과 사위가 운영하고 있다.

8) 이하의 내용은 곽종찬씨와 장대근씨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

9) 전주지역의 필방을 이야기하면서 임지방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 청자필방을 두고 임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10) 성지필방은 젊은 사람이 운영하였는데 3년 정도 있다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11) 천변 못미쳐 우측 흰건물이 문산필방 자리라고 한다.

Ⅲ. 전주한지의 맥을 이은 필방

1. 전주한지

문방사우의 하나인 종이의 대표적 생산지는 전주이다. 전주는 한지 생산을 대표하는 곳으로 질 좋은 많은 한지를 생산하였으며, 서화지의 경우도 이곳에서 생산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공급되었다.

조선 초 『경국대전』에 수록된 지장(紙匠)의 분포를 보면, 전주와 남원이 각각 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19세기 전주고지도에 전주부성내 전라감영, 전주부성 서문 밖 도토리 골, 상관 신원(신리역) 부근에 지소가 나타나 있고, 19세기 남고산성 도형에도 남고사 아래 지소가 그려져 있다.

전주일원에 질 좋은 닥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으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한지공장들이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전주부 외곽에 해당하는 지금의 완주군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 동상면, 화산면 등 도처에서 종이를 땄다.¹²⁾ 전주도심의 경우 전주천을 끼고 한지를 뜨던 지소들이 있었고, 흑석골에 한지공장들이 집결되어 있었다.

완주군 소양면은 장판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최고의 장판지가 1980년대까지도 소양면 송광사 일원에서 생산되었다. 소양면의 또 다른 마을인 대승리, 반곡리 등에서는 창호지가 생산되었다. 상관면, 구이면, 동산면, 화산면 등에서는 창호지가 생산되어 북한 만주에 이르기까지 판매되었다. 2011년 완주군 한지 유적 조사에서 총 51개의 지소를 확인하였는데, 면별로는 소양면 23개소, 상관면 11개소, 화산면 7개소, 구이면 6개소, 동상면 3개소, 비봉면 1개소이다.¹³⁾ 이들 지소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12) 완주군은 1935년에 전주에서 분리되었다.

13) 완주군·전주역사박물관, 『완주한지의 역사성과 유적·유물』, 2011. 이 보고서는 완주군의 지소터를, 지장들의 구술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그 연원이 적어도 일제강점기 전후까지 올라가는 오래된 지소들이다. 이러한 지소들에서 서화지도 생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지골로도 불렸던 흑석골은 한국전쟁 이후 한지공장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곳으로, 이전에는 전주제지 한곳만이 있었다. 전주제지는 곧 송지방의 주인 송우석씨가 운영하던 한지공장이다. 고려필방의 주인 오동호씨는 6.25때 동상면에서 피난 나와 이곳에 정착해 한지공장을 차렸으며(문산제지), 지금 천양제지를 운영하는 최장윤씨(1930년생)가 1968년 흑석골에 호남제지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전주제지는 현재 효성흑석마을아파트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아파트와 그 옆의 넓은 대지가 오씨들이 운영하던 한지공장들이 분포했던 곳이며, 그 위로 올라가 호남제지가 자리하였다. 현재는 전주제지가 고궁한지로 바뀌어 유일하게 한지를 뜨고 있다.¹⁴⁾

전주에서 질 좋은 서화지가 생산된 데에는 제지술의 발전도 있지만, 이곳에서 나는 닥나무가 서화용에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장 곽종찬씨는 전라도 닥이 섬유질이 많아 글씨 쓰기에 좋다고 하였다.

전라도 쪽이 좋아요. 섬유질이 더 많아요. 경상도 치는 섬유질이 좀 적고 먹이 안 받는 초 같은 그런 진이 나와요 좀. 그래서 잘못하면 글씨를 쓰면 먹이 안 묻어서 희끗희끗하게 약품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송지방의 후예 지장 송제훈씨는 전라도 닥의 섬유질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으며, 짧고 기공이 적어 서화용으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반면 경상도쪽 닥은 빨리 자라 섬유가 굳고 길며, 이를 말리면 질겨서 물건을 만드는 가공지로 적절하다고 하였다.¹⁵⁾

14) 최장윤씨 구술, 2005년 녹취. 필자가 전주일원의 한지 유적을 조사하면서 녹취한 것이다.

15) 송제훈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2.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필방

풍남문 안쪽에 위치한 고려필방(高麗筆房, 高麗堂)이 1960년대에 문을 연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이라고 이야기된다. 고려필방 건물은 2층의 일산 건물로 예전 임치과 건물이라고 하는데, 1962년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전주상가지도에 고려필방이 나오지 않고 임치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이후 고려필방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필방 주인은 오홍석(吳泓錫, 이전 이름 吳東鎬)씨로 전주 흑석골에서 한지공장을 운영하면서 고려필방을 운영하였다. 오홍석씨는 또 골동품도 취급하였다. 그런데 오홍석씨가 고려필방을 차리기 전부터 남부시장 송약국 부근에서 자리를 펴놓고 붓을 팔았다. 이때가 50년대 후반으로 고려필방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려필방이라고 써놓고 붓을 팔았다는 것이다.¹⁶⁾ 그렇다면 고려필방의 연원은 필상의 형태이지만 더 오래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홍석(오동호)씨는 완주 동상면 사람으로 6. 25때 피난 나와 흑석골에 정착해 한지공장을 크게 운영하였다. 그 선친 때부터 제지업을 하였으며, 15세 때 약 3년간 초지를 하였으며, 도침공정에서 손을 찢어서 중단했다. 1953년에서 1975년까지 제지공장을 경영하였는데, 문화제지라고 하다가 62년에 문산제지(文産製紙)로 개명하였다.¹⁷⁾ 효성흑석마을아파트 자리가 문산제지 터이다.¹⁸⁾

흑석골 한지공장에 한 때 공장이 13개 있었는데 이 중 7개가 오씨들이 운

16) 오동호씨가 고려필방을 운영하기 전에 남부시장에서 필상을 하였다는 내용은 필장 곽종찬씨가 구술한 것이다.

17) 조형균, 「한지의 뿌리를 찾아서(15) -제2회 전주지방 편(중)」 『製紙界』1990. 7, 18~21쪽. 이 글에 보면 1962년에 문산제지의 연혁을 기록해 놓은 병풍사진이 실려 있다.(20쪽)

18) 흑석골에서 호남제지를 운영한 천양제지 회장 최장윤씨 구술. 2005년 녹취.

영하였다는 말이 있다. 흑석골에 그만큼 동상면에서 이주해 한지를 뜨는 오씨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오홍석씨는 흑석골에 한지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세를 놓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취급한 오당지가 서예인들에게 큰 인기였다. 오당지는 원당리 오수업씨가 만든 종이로, 이 종이를 가져다가 고려필방에서 팔았다고 한다.¹⁹⁾ 고려필방은 흑석골에 한지공장들을 세를 놓고 필요한 한지를 뜨게 하여 이 종이를 고려필방에서 가져다가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홍석씨는 7, 8년 전쯤 작고하였고, 현재는 고려필방을 셋째 며느리인 문지연씨가 운영하고 있다. 문지연씨가 고려필방의 일을 본지 26년째인데, 문씨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직원이 3명이었고, 전국적으로 종이가 나갔으며, 하루 종일 포장 짐을 싸고 시숙이 한 달에 보름은 출장을 나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었다. 서예대회 등을 앞두고는 한밤중에도 예술가들이 종이를 구하기 위해 고려필방을 찾았다.²⁰⁾

전주서화의 역사를 담은 오랜 연원의 2층짜리 일제 건물인 고려필방 건물이 철거되었다.²¹⁾ 고려필방은 바로 그 옆에 있던 보훈지청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비록 고려필방의 상호는 남아 있지만, 필방 건물의 철거는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 전주를 서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연원 깊은 고려필방 건물을 매입, 보존하여 전주의 서화 관련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3. 송가 종이, 송지방

서화가들 사이에 ‘송가(宋家) 종이’로 널리 알려진 송지방(宋紙房)은

19) 지금은 오수업씨의 딸이 팔복동에서 한코리아라는 한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0) 현재 고려필방을 운영하는 문지연씨의 기억이다.

21) 4월 녹취 때만해도 고려당건물이 있었다.

5대째 제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지의 명가이다. 송지방의 가업은 작고 한 지장 송우석(宋禹錫, 1923년생)의 증조부 우천 송주완(愚泉 宋柱完 이²²⁾ 조선말 고종 때 참봉벼슬을 하다가 낙향하여 오목대 밑에(풍남동 3가 5번지) 지소를 차린 데서 비롯되었다.²³⁾

송우석의 조부 송길환(宋吉煥)은 구 전주우체국 앞에서 「전주지물상회」를 경영하였다. 지물포는 1937년에 폐업하였다. 부 송기헌(宋基憲)은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 제지공장을 옮겨 특히 태지(苔紙)의 생산에 힘을 썼다. 그는 조선중기 순창지방에서 생산되다가 사라졌던 「태지(苔紙)」를 재현했으며, 태지를 사용하 「태지 봉투」와 「태지 두루말이(苔周紙)」를 만들어 당시 전라북도 산업장려관을 통하여 생산량의 80%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²⁴⁾

태지란 빗물로 씻기우는 시내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끊임없이 생수가 솟는 우물이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흐르는 곳에 달마다 생겨나는 태(이끼)로 파랗게 물이 오른 이끼를 채취하여 지료와 혼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²⁵⁾ 태지는 서화인들이 애호했던 종이로 송지방의 대표적 한지이다. 지금은 태를 구하지 못해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송우석은 전주 제1보통학교와 일본 나가사키 중학을 졸업한 그해 1941년 4월부터 한지일에 뛰어들었다. 8·15 해방과 더불어 현재의 흑석골(평화동 1-211)로 공장을 옮겨 전주제지공업소라고 하고 그의 부친과 함께

22) 조선말 송지방의 창업자의 이름이 기존의 글들에 송승완이라고 많이 나오고, 또 송길완이라고도 나온다. 그런데 조형균의 앞의 글(23쪽)에 ‘창업자의 자필 현판(愚泉 自書)’라고 하여 현판 사진이 실려 있는데, 현판 끝에 이름이 송주완으로 나오고 ‘우천’이라는 낙관이 새겨져 있다.

23) 조형균, 앞의 글, 21~22쪽. 최승범의 글에는 송지방 위치가 풍남동 17번지로 되어 있다.(최승범, 「전통예술 산업의 고장 - 예향 전주를 찾아서」, 1988년경)

24) 조형균, 앞의 글, 22쪽.

25) 원도연, 「전주의 마지막 지장 송우석씨」 『문화저널』(1996년 7월호).

한지공장을 운영하였다.²⁶⁾ 전주제지는 흑석골을 한지골로 육성하는 모태가 되었다.

한지 기술자로 이름이 나면서 송우석씨는 1965년에는 전라북도 한지공업협동조합의 한지 초지공양성강습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²⁷⁾ 가업으로 이어진 태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용 편지지로 쓰여지기도 했고, 송우석씨가 대만에 보낸 태지는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로부터 감사의 편지로 보답받기도 했다.²⁸⁾

송우석씨는 특히 초지공 강사로 활동한 이후 특수지 개발에 더욱 전념하여 마침내 옛날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던 화선지를 연구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1957년에는 발명특허(256호)를 받았다.²⁹⁾ 한지에 실을 먹인 새로운 한지도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에도 일본 대만을 넘나드는 끊임없는 연구와 상품개발에 힘을 써 1976년에는 갈대를 이용한 화선지를 새로 개발하여 ‘송가 종이’의 영예를 이루었다.³⁰⁾

초지장 송우석씨는 마침내 전북무형문화재 16호(1997.7.18 지정) 공예 기술분야 한지장으로 지정되었다.³¹⁾ 안타깝게도 한지장으로 지정된지 얼마 안되어 작고하여 1999년경 무형문화재에서 해지되었다.

송지방은 송우석씨가 구 도청 사거리 문우당인쇄소 우측(사리문다방 좌측) 현 삼성측기사 자리에 마련한 작은 필방이다. 그 시점은 1960년대 후반경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전주에서 오래된 필방으로 고려필방과 함께 송지방을 꼽는다. 송지방의 송가 종이는 이당, 소정, 소천, 운보 등의 화가들이 “야, 송가 종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정도로 그 명성이 서

26) 조형균, 앞의 글, 21쪽.

27) 조형균, 앞의 글, 23쪽.

28) 원도연, 앞의 글.

29) 조형균, 앞의 글, 23쪽.

30) 원도연, 앞의 글.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紙匠 및 네이버 백과사전.

을 장안에 자자했다고 한다.³²⁾

그러나 한지산업이 쇠퇴하면서 송지방의 운영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운영해온 「송지방」은 이제 그저 운영해 나가는 것만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전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발길이 끊어질 않지만 전통한지를 되살리는 길은 묘연하기만 하다. 거기에 환경 폐수 때문에라도 전통적인 수공으로 한지를 생산해낼 수가 없고, 85년부터는 값싼 중국산 한지가 밀려들면서 ‘송가 종이’는 지금껏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문화저널』, 1996년 7월호

그리하여 전주 송지방은 1990년대 후반에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³³⁾ 현재는 서울 인사동 송지방 만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 송지방을 차린 사람이 송우석씨의 아들 송제천(宋濟天)씨이다. 그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 70년대 중반 부친의 전주제지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물리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지업에 뛰어들어 5대째 가업을 이었다. 부친 밑에서 공장 일을 배우다가 전주에는 판로가 한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1976년 서울에 매장을 내었다.³⁴⁾ 현재 인사동의 필방 송지방이 그것이다. 송제천씨도 올 초 작고하여, 현재는 그 딸 내외가 송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가업을 이어 송제천씨의 아우 송제훈

32) 조형근, 앞의 글, 25쪽.

33) 송지방이 있던 곳에서 한블록 떨어져 있는 전라일보 도로 건너 맞은 편 보천당 표구사에 보면 건물 중앙 기둥에 ‘송지방’이라는 큰 글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도청 옆 송지방의 물건과 상호까지 보천당 표구사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표구사의 이야기를 빌리면, 당시 송지방에서 부채를 많이 팔았고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송지방이라는 상호를 붙여 놓았다고 한다.

34) 「매일경제신문」, 1994. 1. 15. 프로시대 ‘대를 잇는 사람들’ 송우석씨의 인터뷰 기사로 인물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 당시 나이는 45세였다.

씨가 종이를 뜨지만, 현재 특별한 한지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송제 천씨는 생전에 김제에 한지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 이었다고 한다.

IV. 필상의 전통을 이은 필방

1. 붓장이 필상

붓을 만드는 장인을 필장(筆匠)이라고 하고, 붓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필상(筆商)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개 필장이 붓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러 다니므로 필장은 곧 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붓을 제작하는 공정은 책상하나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가내수공업으로 지금과 같은 큰 공장과는 다르지만, 특히 붓 제조는 간단한 재료와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다. 지금도 필장들의 붓 제작은 책상 같은 작은 작업대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붓을 만드는 재료인 털은 노루 겨드랑이털(장액붓), 족제비 꼬리털(황모붓) 등이 널리 쓰였다. 예전에는 붓이 필기도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붓들이 널리 쓰였다. 노루털과 족제비 털은 짧아서 필기용 작은 붓을 만드는데 적합했다. 반면 큰 붓을 만드는 데는 염소털이 많이 쓰였다. 붓 만드는 털은 겨울철에 채취하는데 추운지방의 것이 좋으며, 대나무도 겨울철의 것이 좋다고 한다.³⁵⁾

이렇게 해서 만든 붓을 장날 장터에 나가 돛자리를 펴놓고 노점상 형태로 판매도 하였지만, 행상의 형태로 직접 서당, 약방 등 붓 수요처를

35) 필장 광종찬씨에 의하면 한겨울에 설 쇄고 보름 동안 나온 털이 제일로 좋다고 한다. 봄에 채취하면 쭈미 빨리 슬고 털도 좋지 않다고 하였다. 대나무는 도처에서 채취하지만 겨울 것이 쭈미 안 슬어 좋다고 한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붓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붓을 만드는 재료와 도구들을 담은 바구니를 등에 지고 몇날 며칠을 떠돌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 물론 필상은 붓을 만드는 장인인 것만은 아니다. 붓을 사서 팔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³⁶⁾ 또 필상들은 문방사우만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³⁷⁾

다음은 필상의 형태에 대한 구술 내용이다.

①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돛자리 깔고 붓을 만들어다가 팔았어요. 옛날엔 5일장 식으로 열렸어요. 그런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직접 여러 서당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생활도구를 가지고 붓을 만든거예요. 서당가면 다리미도 있고 인두도 있고, 없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나가죠. 밀이랄지 아교랄지 예리한 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 교통이 불편하니 수 십리 길 걸어가 그 서당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붓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만한 털을 가지고가서 쓸 수 있는 붓을 직접 서당선생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붓을 만듭니다. 서당선생이 강한 붓을 좋아한다, 직접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붓을 만들어 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붓을 만들어요. 작은 글씨 붓을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 주고.

— 필장 장대근씨 구술, 2011년 4월 녹취

36) 보성군 구비문화에 ‘황정승의 딸과 이정승의 아들’이야기가 있는데, 황정승이 죽고 계모가 그 딸을 죽이려고 하자, 황정승 딸이 남북을 하고 시장에 가 붓을 사서 필상이 되어 해남의 이정승 아들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온다.

37)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전해 오는 ‘머슴의 아들 이승지’에 책을 파는 필상 이야기가 나온다. 19세기 초 순조 때 참봉집에서 머슴을 하던 이씨 성을 가진 머슴이 쟁기질을 하다가, 필상이 책을 한 짐 걸머지고 가면서 책을 사라고 외치자 아들 교육을 위해 주인댁의 소 한 마리를 주고 이 책을 구입한 후 1년 세경으로 갚았다고 한다.

② 붓을 만드는 사람 만들고, 파는 사람 팔고 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했지. 즉석에서 저녁에 만들어서 아침에 팔고 했어, 재료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 서당 다니면서. (부안) 변산 일주, 서당을 뺄 다 돌면 일주일 걸렸을 것여. 남원, 순창, 전라남북도 다 돌아다녔어, 5.16전까지. 그 전에는 촌에서 공부해서 촌일수록 서당이 많았어.

— 필장 채주봉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필상은 행상이지만 일반 행상들과는 달리 팔시를 받지는 않았으며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이들이 문방사우를 다루다 보니 서당 훈장 같은 식자층을 직접 상대하고, 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어서 식자층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상치고 무식꾼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 동네 저 동네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으로, 식자층을 상대로 얻어 들은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상은 행상이지만 하룻밤을 묵어가는 과객의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필상의 지위에 구술 내용이다.

① 대감 집에 가면 차별이 심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필상하고는 대감들이 겸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필상을 상놈이라 하는데 상놈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자면서 붓도 고르고.

— 필장 박종찬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② 행상할 때 이거이(바구니) 짊어지고 다닌 것이라. 전부 재료 담아가지고. 전부다 들어가. 호룻불, 촛불 켜놓고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라. 서당, 약방, 서예가들, 이런데들 찾아다녔어. 말하자면 장인이라 허잖아. 안 알아준 것이여. 하인에 불과한 것여. 말도 허소하지, 허쇼도 안한 것이여. 그런데 붓 만들건 그러들 앓혀. 상대가 상대니만큼 선비로 대접혀. 의관 중에 갓 허고 붓 허고는 대등하게 선비로 대접혀. 그 여타

는 장인들 전부 하대했어. 8·15 해방 후까지도 그랬어. 이것은 상대가 상대니 만큼 그랬어.

이것은(필상) 아무나 허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은 못허. 학자들 허고 뭘 얘기가 주고받고 대화가 되야 댈 것 아냐. 유식한 사람이나 요 것 허지 아무나 못 했거든. 알아야 허. 동석 허서 한방에서 자기도 하고, 지위가 그랬어.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고, 필상은 어떤 사람이 허는 것이냐면, 유식한 사람이 길이 없으면 하기도 했어. 헐라면 일문일답이 되야 할 것 아냐. 그런데 일문일답이 안 되면 어떻게할거야. 요것 짚어진 사람은 대화가 되어. 그런 게 대우받은 것이지.

시방 갓 만든 이가 어디 있는가 몰라. 그전에 봉뚱 어딘가 있었는데. 세월이 그랬어. 이조 오백년 세월이. 이것만은 그러들 앉혔어. 붓 허고, 갓 만든 이허고 선비허고 대화가 됐어. 일본은 칼 쓰는 사람이 제일이고, 우리는 글 쓰는 사람이 제일이고 그랬어.

— 모필장 채주봉씨 구술, 『문화저널』(2009. 3)

한편, 필상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구전에서 필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고, 필상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로, 과객의 부모 제사를 지내주고 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과객이 붓 장수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붓 장수가 어느 대가집에 가서 유하게 되었는데, 밥을 차려주자 윗목에 물러 두고 먹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늘이 부친 제사라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였다. 며느리를 불러 제사밥을 차려주라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는 모두 거부하고 셋째 막내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차려 주었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수염이 허영게 센 노인이 나타나, 오랜만에 따순 밥 잘 먹었다고 하고, 앞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고 셋 다 대과에 급제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다.³⁸⁾

필상 출신의 밀양부사가 원귀의 원수를 갚아주었다는 설화도 있다. 밀

38)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인귀설화」.

양 관내 영남루 아래 아랑각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아랑은 밀양부사의 딸로 금지옥엽 키웠는데 관노가 아랑을 사모한 끝에 겁탈하려다가 결국 칼로 찔려 죽었다. 이후 밀양부사로 오는 사람마다 자고나면 아침에 시체로 변하자 누구도 부사로 올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을 어느 시골의 붓 파는 필상이 듣고 밀양부사를 지원하였다. 부임한 밤에 아랑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붓 장수 밀양부사에게 알려 원수를 갚았으며, 그 정절을 기리기 위해 아랑각을 건립하였다는 이야기이다.³⁹⁾

해안(海眼)선사 행장에도 필상 이야기가 나온다. 해안선사는 1901년 부안군 산내면 격포리에서 태어나 가까운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14세 때 필상을 따라가 내소사에 거하던 한학자 고찬선생을 찾아가 수학하게 된다.

이러한 필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근대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 1925년 9월 4일자에 통의부 의용군들이 필상으로 변장하여 군자금 을 모으다가 3명이 일경에 체포된 기사가 있다. 1932년 5월 31일자에는 브나로드운동(농촌계몽운동)을 펼치는 부산 배재학원 생도들이 필상대를 조직하여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붓을 팔아 경비에 충당하니 유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1934년 8월 28일에는 필상이 형사로 가장한 괴한에게 강도를 당한 기사도 있다.

2. 필장의 가업을 이은 이조필방

이조필방(李朝筆房)은 풍남초등학교 구정문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완산구 중노송동 504-11) 모필장 곽종찬씨가 운영하는 필방으로 여기에서 필방을 운영한지 34년 되었다고 한다.

곽종찬(郭鐘贊, 1951년생, 61세)씨 출생지는 충청도 천안삼거리로 어려

39) 「동아일보」, 1932. 7. 30.

서 신리(상관면 지서 뒤 신평마을)로 피난 내려와 정착하였다.⁴⁰⁾ 그의 집안이 붓을 만든 것은 그의 할아버지 때 부터였으며, 본격적으로 붓을 만든 것은 그의 부친 곽준팔씨 때 부터였다. 곽준팔씨는 필상으로 6·25때 난리를 피해 완주군 신리로 피난하여 필상을 이어갔다.

곽준팔씨 집은 필상이 잘되어 신리에서 부자로 살았다. 곽종찬씨의 기억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양 손에 두보따리 들고 등허리에 한보따리 지고 그 위에다 한보따리 올리고 나가면 한 삼일 만에 다 팔고 왔다. 충주, 청주, 서울 등 전국 안 다닌 데가 없었으며,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대 주었다.

지펜이 나오면서 붓의 수요가 줄어 위기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일을 곽종찬씨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신리서 만들면서 그때 지펜(붓펜)이 막 나와 가지고 지펜이 이기나 붓이 이기나 싸울 때죠. 지펜이 붓 대용으로 쓰는거 넓적한거. 근데 그것이 쓰기가 편하니까 그걸 썼지 붓은 멀리하고. 근데 아버님은 언젠가 지펜이 들어간단, 지펜은 당분간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일곱 명을 두고 계속 물건을 해서 쟁였죠. 지펜 나왔을 때가 한 61년도나 되는가?

그래가꼬 지펜하고 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펜이 얼마 안돼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붓을 쌓아 논 놈이 왕창 나갔지. 막 방으로 천장 당게 쌓아놔있거든요. 그 놈 가지고 나가면 이를 사들이면 너댓보따리 다 팔아가꼬 왔을게. 그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았지. 아니나 다를까 지펜은 자연미가 없고 연필 쓰는 식으로 쓰는 것 뿐이지 붓 같이는 안 나오죠. 그래서 얼마 안가서 지펜이 들어가고 붓을 세웠지.

이후 이리(익산)로 이사하였다가 1970년대 초에 곽준팔씨가 74세로 고하였다. 현재는 그 아들 곽종찬씨가 필장의 가업을 이어 이조필방을 운영하고 있다. 곽종찬씨가 부친을 따라 붓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어려서

40) 이하의 곽준팔, 곽종찬 부자에 관한 것은 곽종찬씨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2011년 5월 채록) 채주봉씨도 곽준팔이 붓을 만들었다고 하였다.(2011년 5월 채록)

부터로 신리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붓을 만드는 것을 거들다가 4학년 때부터 부친이 털을 주어 본격적으로 붓을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호남제일문》을 쓴 붓을 광종찬씨가 만들었다고 하며, 서울 인사동에 붓을 팔러가면 광주붓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서울 인사동 물건 가지고 다니면 전주붓이 광주붓보다 좋고 싸다고 항상 그랬어요, 인사동 사람들이. 그때가 한 1975~80년도 었을거여.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녀서 흰 고무신하면 통했다. 전주는 거의가 다른 지역 것을 재료를 안 쓰고 해남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털만 썼거든. 별것 아닌 것 같애도 붓 만드는 사람은 알지.

필장 광종찬씨는 붓 만드는 털로 전라도의 것이 제일 좋으며, 강원도 지역의 털은 거칠어 붓 재료로 안 좋다고 하였다. 광주가 붓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 전라남·북도의 털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오랜 연륜의 모악산 자락 금산필방

김제 모악산 자락 금산사 앞에 필장 채주봉씨(1923년생, 89세)가 운영하는 금산필방이 있다.⁴¹⁾ 채주봉씨는 선대로부터 필장을 이어온 것은 아니지만, 전주일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붓을 만들어 온 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채주봉씨의 고향은 전남 함평이다. 한학을 공부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23세경 종교에 헌신하면서 함평 웃동네의 필장에게서 1년 남짓 붓

41) 이하의 채주봉씨에 관한 내용은 2011년 5월에 구술을 채록한 것과, 『문화저널』(2009년 3월)에 실린 구술채록 기사(김승민 정리, 유백영 사진, 「금산필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만드는 것을 처음 배웠다. 1945년 광복 후 김제로 이주해 왔으며, 39년 전 쫓 지금의 금산사 앞으로 이주해 금산필방을 열었다. 그가 필상을 하다가 금산사로 정착한 것은 금산사 미륵신앙을 따라 온 것이라고 한다.

채주봉씨는 필상으로 바구니에 재료를 담아 등에 지고 걸어서 서당, 약방 등을 찾아다니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 그가 필상시절 메고 다녔던 바구니와 도구주머니 등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는 60년대까지도 서당을 돌아다니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10월부터 반년정도 필상으로 붓을 팔러 다녔으며, 도보로 전라남·북도 서당이란 서당은 다 다녔다. 필상 수입이 꽤찮아 반년만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붓의 수요가 줄면서 필상을 그만두었으며, 그러면서 금산사 앞에 정착하여 필방을 내게 되었다.

그전에는 서당 방에서 행상을 했지. 행상이란 재료를 가지고 서당에 가서 붓을 만들어 준거. 즉석에서 찾아가서 하룻지녁 잠서. 전라남·북도든 거의 다 거쳤을 거여. 도보로 걸어서.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 준 게 얼마나 실감날 것이여. 8.15 해방 히고 6.25 전쟁 히고 서당이 딱 끊겨 버리드라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시방은 어디 서당이 있들 안혀. 어디 갈다가 없드라고.

— 채주봉씨 구술, 『문화저널』(2009. 3)

V. 맺음말

붓을 만드는 장인을 필장(筆匠)이라고 하고, 붓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필상(筆商)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개 필장이 붓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러 다니므로 필장은 곧 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방이 등장하기 전에는 필상들이 장날 장터에 나가 붓을 판매도 하였지만, 서당, 약방 등 수요처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 필상은 문방사우를 다루므로 어느 정도의 식견이 필요했으며, 식자층을 상대하여 일반 행상들과는 대우가 달랐다.

전주일원의 필장으로는 6·25 때 천안에서 완주군 신리로 피난 내려와 붓을 만들어 팔았던 곽준팔씨가 있었다. 또 완산동 용머리고개의 최도숙이라는 필장이 붓을 잘 만들었으며, 중인리에서 주씨들이 동네에서 붓을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조필방의 곽중찬씨가 그 부친 곽준팔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관출신 장대근씨가 필장으로 대전에서 백제필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악산 자락에서 채주봉씨가 금산필방을 운영하면서 필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에 행상 형태의 필상에서 지금과 같은 가게형태의 필방이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이다. 풍남문 안쪽에 자리한 고려필방(고려당)이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동상면에서 피난 나와 흑석골에서 한지공장을 경영하던 오홍석씨가 1960년대 후반 경에 고려필방을 열었으며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고려필방에 이어 ‘송가 종이’로 유명한 송지방이 송우석씨에 의해 도청 옆에 문을 열었다. 송지방은 5대째 한지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지 명가로, 오목대 아래에서 처음 한지공장을 열었으며 이후 구이면으로 옮겼다가 광복 후 흑석골에 자리하여 전주제지공업소라고 이름하였다. 그리하여 전주제지는 흑석골을 한지골로 발전시킨 모태가 되었다. 맥이 끊긴 태지를 재현해 송가종이의 영예를 이루었으며, 화선지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송지방은 한지산업이 쇠락하는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1990년대 후반 경에 문을 닫았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필장 곽중찬씨가 풍남초등학교 길 건너에 이조필방을 열었으며 현재도 그 자리에서 필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객사부근의 청자필방, 충경로변의 성지필방, 다가고 못 미쳐 문산필방 등이 있었다. 청자필방은 고려필방 오홍석의 집안인 임씨들이

청자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한 칸에 필방을 차렸었다.

전주는 한지 생산을 대표하는 곳으로 서화지의 경우도 이곳에서 생산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공급되었다. 즉 문방사우 중 종이는 이곳 전주가 대표적 생산지이며, 이 같은 질 좋은 서화지의 생산이 전주지역 서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는 서화의 고장이다. 붓은 서화의 토대이다. 광주가 붓의 대표적 생산지이지만 전주일원에도 여러 이름난 필장들이 있었으며, 그 후예들에 의해 필장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화의 고장을 공고히 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필장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도 1〉 고려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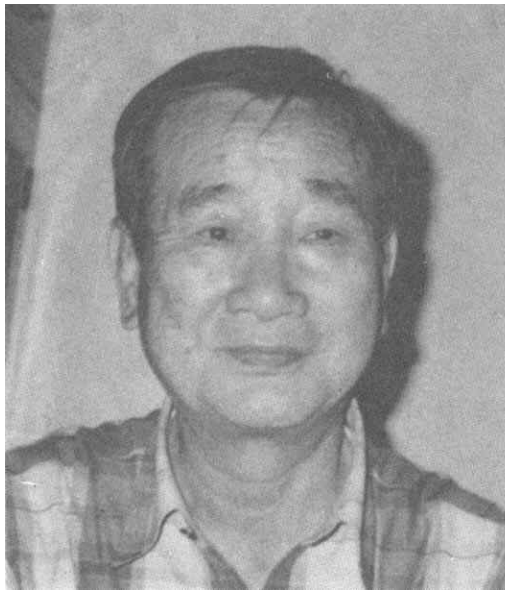
〈도 2〉 고려필방 오홍석씨(『제지계』, 19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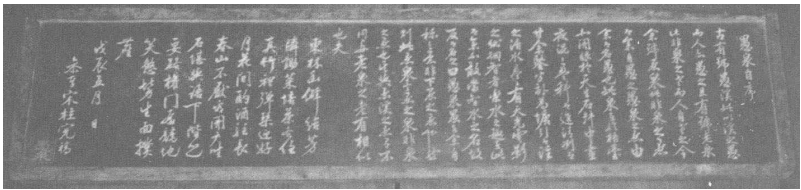
〈도 3〉 문산제지 연혁 병풍(1962.4 작성, 『제지계』, 1990.7 수록)



〈도 4〉 송지방(삼성측기사 자리)



〈도 5〉 지장 송우석씨(『제지계』, 1990.7 수록)



〈도 6〉 송참봉 자서(『제지계』, 1990.7 수록)



〈도 7〉 보천당표구사(송지방)



〈도 8〉 송지방 후예 송제훈씨



〈도 9〉 이조필방



〈도 10〉 필장 박종찬씨(이조필방 내)



〈도 11〉 필장 장대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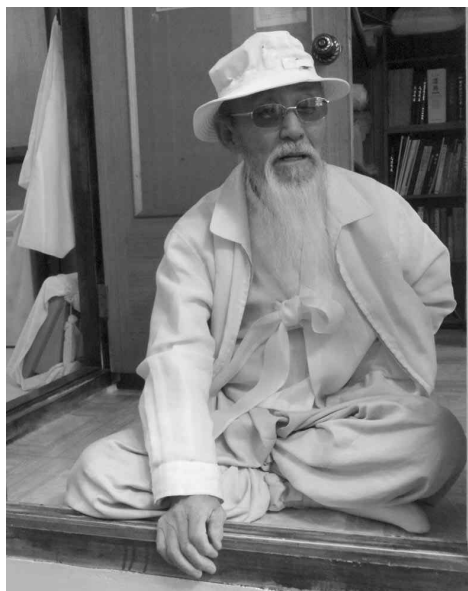
〈도 12〉 필장 장대근씨 작업대(대전 백제필방 내)



〈도 13〉 장대근씨 붓 제작 도구



〈도 14〉 금산필방



〈도 15〉 금산필방 채주봉씨



〈도 16〉 필장 채주봉씨 필상 바구니



〈도 17〉 필장 채주봉씨 붓 제작 도구 주머니1



〈도 18〉 필장 채주봉씨 붓 제작 도구 주머니2



〈도 19〉 필장 채주봉씨 붓 제작 도구 주머니3

근현대 풍류문화의 전개와 변화

- 전주를 중심으로

송 화 섭*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전주 풍류문화의 변화 양상 |
| II. 조선시대 풍류문화와 사회풍속 | IV. 맺음말 |

I. 머리말

2005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에 전주시민의 문화지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 전주시는 전국 74개 시(市) 단위와 비교했을 때, 문화유산 지수가 최상위등급으로 타 시 지역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높은 도시(1위)로 평가받았다. 문화유산 영역에서 전주시의 무형문화재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74개 시(市) 가운데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유사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 교수

한 전통·역사문화도시(경주, 안동, 남원, 익산, 공주, 김해)와 비교해 본 결과, 전주시는 문화유산지수, 문학·예술지수, 대중문화 지수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전주의 문화유산 지수와 예향 이미지는 무형문화재 분야와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¹⁾ 전국 74개 시 가운데 전주시의 무형문화재²⁾ 향유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인데, 이러한 문화예술의 지수는 하루아침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통예능의 토양에서 피어난 것이다. 전주 전통예술의 토양은 역사적으로 후백제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실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은 근현대 과정이다.

한국사에서 전통예술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것은 영조(1724~1776), 정조(1776~1800)대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문예부흥기라 부른다. 조선 후기 문예부흥이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회화, 음악, 학술, 문학, 도자, 서예 등 무형문화 분야를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전기의 문예부흥은 왕족과 양반 중심의 문예풍이었다면, 영·정조 연간의 문예풍은 중인과 신흥부민, 서민 중심의 취향이였다.³⁾ 문예부흥의 배경은 양란 이후 사회 안정, 장시(場市)의 발달, 실학(實學)의 성행, 화폐의 사용 등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 후기는 문예의 중심은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이동하면서 장악원(掌樂院), 도화서(圖畫署) 등 국가기관이 뒷받침하였으며, 문예부흥의 주도층이 형성되었다. 전통예능의 주도층은 판소리와 풍속화가 발

1) 문화관광부·전주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56~58쪽.

2) 무형문화재는 춤, 소리, 몸짓 등 연극, 공예, 기술, 놀이 등 형태가 없는 인간의 예능 및 기능을 말한다. 정부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물질적으로 보존할 수 없는 정신적 창조물인 무형문화재의 예능보유자를 법적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3)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그 님은 예술세계』, 효형출판, 2000, 13쪽.

달하고, 누정에서 시회(詩會)를 즐기고, 주점에 드나들고, 기생들과 야유를 즐기는 풍류문화가 사회전반에 성행하였다.

이때에 전라감영과 전주부영이 위치한 전주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전통예능의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전주의 풍류공간은 만화루, 진남루, 한벽루, 쾌심정 등 누정(樓亭)⁴⁾과 문학대, 가락대, 만경대 등 돈대(墩臺)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었고, 전주부성 안팎 곳곳에 사대(射臺)가 설치되어 있었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신분 요건도 갖추고 있었다. 조선시대 전주가 전라도에서 남원 다음으로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것도 그러한 요건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풍류문화가 「전주대사습」을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사습의 핵심은 궁술과 판소리와 백일장이었다.

이 글은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현대(일제강점기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근현대 사회변천 과정에서 전통예술의 주도층과 향유층이 어떠한 공간에서 풍류문화를 즐겼는가를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전통예능의 중심은 권번(券番)에 있었다. 권번은 조선시대 교방이 해체되면서 생성된 기생조합이다. 1923년 전주권번이 설립되면서⁵⁾ 예능의 공간이 요정도 활기를 띠었다. 권번은 예능의 교육공간이라면 요정(料亭)은 향유 소비하는 공간이었다. 1943년 전주의 대표적 요정인 행원(杏園)⁶⁾이 들어서면서 전통예능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해방 이후 6.25동란을 겪는 과정에서 요정을 닮은 백반집같은 한정식⁷⁾ 전문점이 태동하였다. 근현대 과정에서 전주에서 풍류문

4) 『完山誌』樓亭篇 參照.

5) 황미연, 「전라북도 권번의 운영과 기생활동을 통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10쪽.

6) 행원(杏園)은 낙원(樂園)의 자리에 그 이름과 흡사한 ‘살구나무 편 정원’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였는데, 이 행원의 명칭은 전주라는 도시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깊은 뜻을 갖고 있다.

7) 요정(料亭)과 한정식(韓定食)은 동일한 음식점처럼 보이지만, 성격상 차이가 있다. 요정은 일제시대 권번에서 기생이 출장을 나와 주연(酒宴)에 참석하는 방식

화가 유흥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 풍류문화와 사회풍속

1. 조선전기 사대부의 은일문화(隱逸文化)와 누정

조선전기 사대부들은 경전과 사서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문학적 소양이 높았다. 유교가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하듯이 문학에서도 도가풍(道家風)의 시문(詩文)을 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과거시험의 영향도 있겠지만, 선비문화에서 사장(詞章)이 풍미하면서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보다 문예를 과시하여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문예를 두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명분론에 그친 것이지 시문을 짓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훈구파들은 선비들이 성리(性理)의 학(學)에만 매달리고 사장의 아름다움을 숭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반면, 사림파들은 사장이 도덕에 근본을 두지 않고 사조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유가(儒家)의 도(道)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⁸⁾ 조선 전기에 사장학(詞章學)이 발달하고 사대부의 문예 능력은 일취월장하였다.

조선전기 사대부의 신분은 ‘중소지주 출신의 관인’이 많았다. 지방에서 경사의 학문적 소양을 쌓고 과거급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정치와 관리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낙향하여 초야(草野)에 묻혀 은둔 생활을 즐기는 유학자들이 많았다. 사대부가 향촌으로 내려가 심산유곡에서 한가로이 전원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산수화에 묘사되어 있다. 산수

이라면, 한정식 전문점은 해방 이후에 권번(券番)의 해체에 따라 기생이 없이 주연음식을 파는 식당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정식 집도 요리집으로 불려지면서 요정의 전통을 잇는 풍조가 강한 곳이다.

8) 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97, 37쪽.

화에는 한 선비가 호젓한 산간 계곡에서 자연을 벗 삼아 심성을 수양하는 듯 한 그림이 많다. 그러한 강호한정(江湖閒靜)의 생활을 동경하는 의미에서 그려진 산수화도 있겠지만, 16세기에 낙향하여 누정에서 사대부의 은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도 있다고 본다. 그림은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예 창조의 중심이 중앙의 관학(官學)에서 지방의 사림으로 이동하면서 서원(書院)이 발달하고 누정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도학의 전당이고, 누정은 문학예술의 산실이 되었다.⁹⁾ 조선시대에 거듭되는 정쟁과 사화로 관료생활에 환멸을 느낀 사대부들이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고 참됨을 지킨다(遁世以保眞)”는¹⁰⁾ 명분을 내세워 귀향하여 은둔생활을 의로운 선택과 실천이라고 판단했었다. 낙향한 선비들은 처사로서 승경이 좋은 정자에서 시회를 열고 술 한 잔에 흥이 취하면 시문을 짓고 시조를 풍류문화를 연출하는 주체들이었다. 누정은 선비들이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예의 산실이기도 했다.

누정은 루와 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루(樓)는 자연의 절경을 갖춘 산간 계곡(溪谷)의 암벽을 배경으로 산수 수려한 곳에 정자를 조성하는 방식이며, 정(亭)은 자신이 거처하는 주거지 인근의 절경지에 정자를 세우고 연못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누정의 주체는 조선시대에 지방관리와 낙향한 사대부, 유학자들이었다. 관가형 누정(官亭)은 지방관리들이 중앙의 관리, 사신, 지체 높은 빈객을 접대하는 장소 혹은 지방세도가들이 시회와 풍류 모임¹¹⁾을 하는 공적인 공간으로 읍성 내외에 조성되는 관 주도형의 누정이다. 경복궁의 경회루, 진주 남강변의 축석루, 남원의 광한루, 밀양 영남루 등이 이에 속한다. 사가형 누정(私亭)은 심산유

9) 임형택, 앞의 책, 391쪽.

10) 洪善杓, 『朝鮮時代繪畫史論』, 문예출판사, 2004, 217쪽.

11) 허균, 『한국의 누정』, 다른세상, 2009, 14쪽.

곡의 계곡·계류가에 조성되는 정자로서, 중앙으로 진출한 관리가 낙향하여 은자(隱者)로 생활하면서 자연과 벗하며 독서하고 시를 짓고, 강학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민간 주도형의 누정이다.

전주에는 세 유형의 누정이 있다. 첫째, 성문의 문루이다. 문루는 부성의 성문위에 위치한 문루이다. 전주부성 사대문에 문루가 조성되었는데, 풍남문의 명건루, 패서문의 문루, 완동문의 문루, 공북문의 문루이다. 전라도 관찰사 조현명이 쓴 풍남문의 「明見樓記」에는 전주성을 견고하게 보수하고자 1734년 5월 9일 전주 성황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옛 성을 철거한 뒤에 다시 개축하면서 무지개 모양의 문루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서문의 문루도 1734년에 명건루와 동 시기에 누각을 세웠으며, 완동문과 공북문의 누각은 1775년 관찰사 서호수가 중건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주부성의 문루는 1734년에서 1775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관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관정(官亭)이다. 관정은 전주부성의 안팎에 조성되어 있다. 진남루(鎭南樓)는 공관(公館)의 후원¹²⁾에 위치하였는데, 1409년 전라감사 겸 부윤 윤향이 창건하고 1441년에 부윤 한승순이 중수하였다. 진남루에는 관찰사 윤향(尹尙)¹³⁾과 허주(許周)¹⁴⁾가 지은 시액(詩額)이 걸려 있었다. 매월정(梅月亭)은 객관의 동북쪽 구석에 위치하였는데, 성종14년(1483)에 부윤 이봉(李封)이 창건하였다.¹⁵⁾ 관찰사 이숙감(李淑槭)의 시문, 문신 허침(許琛)¹⁶⁾의 시문, 문신 신용개(申用溉)¹⁷⁾의 시액이 걸려있었다. 녹균정(祿筠亭)은 관아의 북쪽

12) 『완산지』루정조에는 풍패관 북쪽 조산 뒤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13) 윤향(1374~1418)은 조선시대 문신, 본관은 파평이다.

14) 허주(1359~1440)는 조선시대 문신, 자는 백방, 호는 숙재, 본관은 하양이다.

15) 『신증동국여지승람』제33 전주목 루정조.

16) 허침(1444~1505)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현지, 호는 이현, 본관은 양천이다.

17) 신용개(1463~1519) 조선시대 문신, 자는 개지, 호는 이락헌, 본관은 고령이다.

에 위치하였는데, 1367년 목사 한계상(韓系祥)이 정자를 바꾸어 루(樓)라 하고 이달충(李達衷)이 편액을 바꾸어 관풍루(觀豐樓)라 하였다. 제남정(濟南亭)은 성의 남쪽 시내위에 있다. 홍여방(洪餘方)의 기문에 “東川가에樓가 있고, 한쪽에 고인의 詩板이 있으며, 또한 牧隱 선생이¹⁸⁾ 남겨놓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것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였다.”고 기술하여 제남정이 고려 말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공북정(拱北亭)은 부의 서북쪽 5리에 위치한다. 부운 이번(李蕃)과 통판(通判) 최치(崔漬)가 중건하였다.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¹⁹⁾의 기문에 “조정에서 덕음을 펴고 사명이 있으면, 부운이 관리들을 인솔하여 의관을 갖추고 이곳에 나와서 경례를 맞이하고, 만약 국왕의 생일이나 국가의 큰 경사, 큰 상서를 만나면 부와 주가 각기 전문을 받들어 대궐을 향해 예를 행하고, 또한 사신을 떠나보내는 곳이다.”²⁰⁾라고 밝히고 있다. 문신 천은당 노사신²¹⁾의 시문, 문신 노포 유순²²⁾의 시문, 어사 김시걸²³⁾의 시액이 걸려 있었다. 내사정(內射亭)은 성내 남쪽에 있고, 부운 정자제(鄭自濟)가 건축하였다. 쾌심정(快心亭)은 제남정에서 4리가 떨어져 있으며, 신용개, 사겸당 이승효 시액이



〈도 1〉 전주 한벽루

18) 목은 이색(1328~1396)은 고려 말의 문신이고, 유학자이다.

19) 서거정(1420~1488)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강중, 호는 사가정, 본관은 달성이다.

2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 전주목 루정조.

21) 노사신(1427~1498)은 조선시대 문신, 호는 보진재, 본관은 교하다.

22) 유순(1441~1517)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회명, 호는 문산, 본관은 문화이다.

23) 김시걸(1653~1701)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사홍, 호는 난곡, 본관은 안동이다.

있었다. 청연당(淸讌堂)은 객관 서쪽에 위치하고, 부윤 강징(姜澂)이 세웠다. 만화루(萬花樓)는 향교에 있으며 김종직²⁴⁾의 시액이 걸려 있었다.

셋째, 사정(私亭)은 사대부와 중앙의 관리가 낙향한 뒤에 자연을 벗 삼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주에서 대표적 사정이 한벽루이다. 지금은 한벽당이라고 불리지고 있는데, 한벽루는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월당 최담이 성황산 서쪽 기슭의 암벽에 세운 누각으로, 전주최씨의 강학 공간으로 겸해서 사용하였다. 1683년 관찰사 이사명(1647~1689)이 별도의 층각을 창건하여 후대에는 관정의 기능도 겸하였다. 한벽루는 전주지도에 5개의 누각이 층각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2개만 존재하고 있다. 전주 8경 가운데 한벽청연의 명소로서 풍광이 수려하여 시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누정의 편액을 살펴보면, 이경전²⁵⁾의 시, 관찰사 유색의 시, 백강 이경여²⁶⁾의 시, 관찰사 박태순²⁷⁾의 시, 관찰사 홍석보²⁸⁾의 시, 퇴어 김진상²⁹⁾의 시, 이랑 이정보³⁰⁾의 시, 관찰사 권적³¹⁾의 시, 관찰사 조현명의 중수기가 걸려있었다.

비비정(飛飛亭)은 1573년 무인 최영길이 창건하였으나, 1752년 관찰사 서명구가 중건하니 관정(官亭)이 되었다. 편액에는 서귀 이기발³²⁾의 시, 조여빈의 시, 김호익의 시, 권해³³⁾의 시, 판교 홍남립³⁴⁾의 시, 김두명³⁵⁾의

24) 김종직(1431~1492)은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25) 이경전(1567~1644)은 조선 문신 자는 중집, 서초, 석루이며 본관은 한산이다.

26) 이경여(1585~1657)는 조선시대 문신, 자는 직부, 본관은 전주다.

27) 박태순(1653~1674)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여후, 호는 동계, 본관은 반남이다.

28) 홍석보(1672~1729)는 조선시대 문신, 자는 양신, 본관 풍산이다.

29) 김진상(1684~1755)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여익, 본관 광산이다.

30) 이정보(1693~1766)는 조선시대 문신, 자는 경하, 본관은 안동이다.

31) 권적(1675~1755)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경하, 본관은 안동이다.

32) 이기발(1602~1662)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패우, 본관은 한산이다.

33) 권해(1639~1704)는 조선시대 문신, 자는 개옥, 호는 남곡, 본관은 안동이다.

34) 홍남립(1606~1679)은 조선후기 문신, 호는 화곡, 본관은 남양이다.

시, 이일상³⁶⁾의 시, 이우성의 시, 관찰사 조세환³⁷⁾의 시, 관찰사 이사명의 시, 관찰사 유득일³⁸⁾의 시, 우암 송시열의 기문이 걸려있었다. 죽수정(竹藪亭)은 가련산 아래에 있었고, 다가정(多佳亭), 진북정(鎭北亭), 군자정(君子亭), 읍양정(邑讓亭), 청수정(淸水亭)이 전주부성 안팎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전주 부성의 안팎에 위치한 관정과 사정에 걸린 시액(詩額)을 통해서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학세계와 낙향한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파악해볼 수 있다.

첫째, 누정은 고려 말 신홍사대부들이 주도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관직에 나아간 관리들은 낙향하는 명분을 도연명(陶淵明)이 쓴 귀거래사의 영향을 받고 도시 탈출을 실천하여 은둔하면서 살아가는데 흥미를 가졌다. 순창의 귀래정(歸來亭)³⁹⁾과 태인 칠광도의 그림에서 읽어볼 수 있다. 낙향한 사대부들이 향촌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방식은 현실 도피와 염세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대부들이 은(隱)의 정신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고려 말 사대부 관리들은 자신들의 자호에 은을 넣은 것이 성행할 정도였다. 대표적으로 三隱(圃隱 鄭夢周, 冶隱 吉再, 牧隱 李穡)을 들 수 있으며, 도은 이숭인, 농은 최해, 야은 전녹생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⁴⁰⁾

35) 김두명(1644~1706)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자양, 호는 만향, 본관은 청풍이다.

36) 이일상(1612~1666)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함경, 호는 청호, 본관은 연안이다.

37) 조세환(1615~1683)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의망, 호는 수춘, 본관은 임천이다.

38) 유득일(1656~1709)은 조선시대 문신, 호는 귀와, 본관은 창원이다.

39) 귀래정은 신말주(1429~1503)가 처가로 낙향하여 1456(세조2)년에 순창을 가남리 남산대에 지은 정자이다. 신말주는 신숙주 동생으로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에 염증을 느끼고 벼슬을 버린 채 낙향하였다.

40) 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창작과비평사, 1997, 387쪽.

둘째,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누정의 시액을 통해서 전원적, 도학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색의 영모정기(永慕亭記)에 “조정에 나아가 벼슬한 즉 논밭이 목게 되어도 돌아보지 않더니 벼슬을 그만두자 처자를 거느리고 돌아가 농사짓고 독서하고 시를 읊으며 나무하는 사람, 밭가는 늙은이와 더불어 웃고 이야기하며 권세와 이욕에는 마음이 멀다.”고 표현하여 ‘隱’ 생활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주 매월정 시액 가운데, 신용개의 시에 “매화와 달이 서로 청신함을 다투어 맑은 빛 담담한 모습이 우리의 벗이로다. 달그림자가 천상(天上)에 춤추니 고사산(姑射山)에 아가씨처럼 고운 신선(神仙)이 그 아난가. 눈이 깊으니 달 속 두꺼비는 뻗 속까지 차갑고 바람 탄 무학은 날개가 바퀴처럼 크구나. 나부산(羅浮山)은 고래로 신선(神仙)과 진인(真人)이 사는 곳, 사웅(師雄)으로 하여금 하룻밤을 친하게 한들 어떠하리.”하였다. 신용개의 시에서 당시 사대부들이仙境(仙境)의 세계를 동경하고 시로 읊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누정문화는 18세기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어 갔다. 전주 고을의 누정에 등장하는 시액의 주인공들은 15~17세기에 살았던 사대부와 선비들이며,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와 부윤, 사대부들이 대부분이다. 누정의 시액은 사대부와 지방관리들이 조선 전기의 ‘隱’사상을 향유하고 실천하는 전원적, 도학적 삶의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주 부윤 이백승이 성현에 부탁한 진남루, 제남루의 기문에 “여러 귀빈을 초청하여 술잔을 나누며, 촛불을 들고 밤까지 노는데, 예로서 응수함에는 진남루의 깊은 것이 좋고, 난간에 의지하여 사방을 둘러보고 천지를 부양하여 성정(性情)을 즐겁게 하고, 울적함을 풀기에는 제남루의 넓은 곳이 좋으리라.”⁴¹⁾라 하여 전주 부성의 진남루와 제남루가 풍광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음을 밝혔다. 이 기문에 사대부와 낙향한 관리들은 누정에서 자연풍광을 관조

41) 『신증동국여지승람』제33 전주목 루정조.

하면서 시회(詩會)를 갖거나 늦은 밤까지 술잔을 나누는 풍류문화를 즐겼다.

2. 조선 후기 중인·서리의 유흥문화와 주점

양반이후 17세기는 사대주의를 기저로 하는 성리학적 인식에서 점차 탈피하여 실학사상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성리학의 전통적 기반에서 점진적으로 실학과 그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와 문화에서도 중국문화의 관심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고, 중앙 관료보다 향촌사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한문학의 토양에서 국문 소설로 쓰여 지기 시작하고, 지식인들이 국토에 관한 관심과 지방지의 편찬,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 확산, 중국풍의 산수화에서 탈피하여 진경산수의 화풍이 생겨나고, 인물화에서 풍속화로 변모하고, 신윤복은 기생들의 생활풍속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예 전반에 새로운 문예사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⁴²⁾

이러한 사회변화의 배경 가운데 17세기 지방 장시의 발생은 전국적인 경제유통망을 형성시켰고, 화폐의 유통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의 부를 축적시켰다. 상인들의 독점자본은 대도시 시장이 번창하면서 형성하였으며, 상업자본은 수공업, 농업, 유흥업 등의 발달과 함께 도시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시대 신분제의 지배질서를 더 이상 지탱할 명분이 사라졌다. 신분제의 해체는 양반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주도층의 출현을 의미하는데, 도시사회의 중인·서리층이 사회주도층으로 등장한다.

실학사상의 새로운 사조가 전개되면서 사회주도층은 중인(中人)·서리

42) 金龍德, 「朝鮮後期の 社會와 思想」, 『韓國思想史大系』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64~69쪽.

(胥吏)들이 맡게 된다. 중인·서리는 소위 잡학 기술적으로 호칭되는 의학(醫學), 역학(譯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음양학(陰陽學) 등의 전문 지식과 화학, 약학 등 전문예능을 중시하는 계층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대부와 서민의 중간층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으며, 학문 교양이 사대부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적·실용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있었다. 사장 중심의 사대부들의 예능이 잡기 중심의 중인층으로 바뀌면서 시(詩)·서(書)·화(畫)와 잡기(雜技) 등이 도시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된다.⁴³⁾ 이와 같이 17~18세기에 중인·서리가 새로운 사회주도층으로 부상하면서⁴⁴⁾ 다양한 예능인들이 도시의 여향문화(閭巷文化)를 주도한다. 그동안 사대부와 양반들에게 신분적 제약을 받았던 중인과 서민문화가 상업적으로 분출하면서 시인, 화가, 기생, 가객, 기악, 유랑연예인, 연희집단이 예능문화를 이끌었다.⁴⁵⁾ 17세기 말부터 기생과 가객(歌客), 악사(樂士)를 초청하여 즐기는 기악(妓樂)이 도시유흥의 흥행 상품이었다. 기악은 각종 연회도(宴會圖)에 등장할 정도로 유행하였으며, 기생은 가객, 금객으로 불리는 전문음악인과 함께 기악단을 꾸려 도시의 기악 수요에 대응하였다. 18세기에 기생은 유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기생은 기방에서 손님을 맞이하였고, 기방은 술과 춤, 음악, 노래가 진행되는 도시의 유흥공간이 되었다.⁴⁶⁾ 조선 후기 풍류와 유흥을 즐기는 공간은 기방 외에 경승지였다.

『漢陽歌』에 풍류의 공간으로 누정과 돈대와 경승지가 나타난다. 풍류객들은 서울 일대의 누정 뿐만 아니라 인왕산 아래 필운대·세심대·수성동·옥류동, 북악 아래 삼청동·도화동·유란동·백련봉, 북부 안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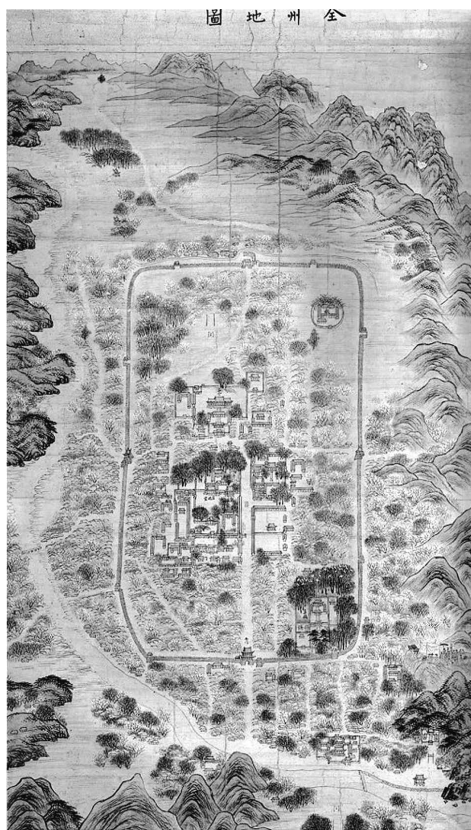
43) 정옥자, 「조선 후기의 문풍과 진경시문학」, 『진경시대』1, 돌베개, 2006, 56쪽.

44) 임형택, 앞의 책, 438쪽.

45) 임형택, 앞의 책, 443쪽.

4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2002, 165~168쪽.

의 화개동, 성균관 근처의 송동, 혜화동 밖의 북사동, 남산 아래의 산단, 창덕궁 서쪽 몽담정 등 수 많은 곳이 도시인들의 유흥지로 등장하였다. 특히 필운대의 살구꽃, 동대문 밖의 버들, 천연정의 연꽃, 삼청동·탕춘대의 수석에는 술 마시며 시를 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회를 자주 열던 곳이다.⁴⁷⁾ 여행시인들의 시회는 필운대가 제일 유명하여 필운대 풍월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였으며, 인왕산 기슭에 ‘가대(歌臺)’라는 곳에서 시회와 연회를 즐기는 풍류문화가 발달하였다.



〈도 2〉 가락대에서 풍류를 즐기는 장면이 묘사된 전주지도

이러하듯 조선 후기 풍류문화는 도시공간에서 경관이 좋은 돈대와 누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혜원 신윤복의 그림에는 중인들의 야유에서 기생들과 풍류와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기생이 술을 파는 선술집(목로주점)에서 술 마시는 그림도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에는 선술집, 내외술집, 사발막걸리집, 모주집, 색주가 등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

47) 강명관, 앞의 책 163쪽.

이 일상적이었다.⁴⁸⁾ 이와 같은 조선 후기의 풍류문화는 향락적이고 경제력이 이끄는 도시소비형 풍류문화였다. 도시의 유흥공간으로 목로주점(木爐酒店)과 색주가(色酒家)를 꼽을 수 있는데, 목로주점은 퇴기들이 기방에 선술집을 차려놓는 방식으로, 목로주점이 아니더라도 기방에서 술을 사와 마시는 경우도 있다. 색주가 역시 기녀가 흥을 돋우고 노래를 부르며 호객하여 술을 파는 것인데, 도시의 유흥은 항상 기방(妓房)과 기녀(妓女)를 중심으로 흥청거렸다. 18세기 중인(中人)들의 유흥 방식은 혜원이 그린 『蕙園傳神帖』에 나타난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중인들과 기생들이 어울려 유흥과 성적 쾌락을 즐기는 그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혜원의 성 풍속도는 중서층의 향락적 풍류의식이 반영된 것이다.⁴⁹⁾

이러한 여향문화는 전주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조선시대 전주의 중심은 전주부성과 자만동과 남부시장이었다. 전주의 토호세력들은 자만동 인근에 위치한 이목대, 오목대, 가락대,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와 만화루, 진남루, 한벽루, 쾌심정 등지에서 시회 풍류를 즐겼다. 얼마나 경승지로 좋은 것이었으면 千·萬·億이라는 단위를 붙였을까. 또한 발산(鉢山) 아래의 오목대(吳穆臺), 이목대(李穆臺), 가락대(嘉樂臺)는 전주 고지도에 등장하는 돈대 명칭인데, 세 곳 모두가 연회를 베풀고 즐겼던 경승지였다.

특히 18세기 전주지도에 선비들이 ‘가락대(嘉樂臺)’에서 장막을 치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전주에서도 돈대 중심으로 연회가 자주 열렸음을 시사한다. 전주의 풍류문화는 조선 전기 사대부의 전통을 한량(閑良)들이 있었으며, 상업경제의 발달에 따라 돈대(墩臺)의 풍류문화가 상권이 형성된 저자거리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비들의 풍류문화를 한량들이 승계하였지만, 신분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풍류문화의 주

48)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 145쪽.

49) 洪善杓, 『朝鮮時代繪畫史論』, 문예출판사, 1999, 573쪽.

체도 한량에서 서리와 상인들로 바뀌고 여흥을 즐기는 풍류의 공간도 도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주의 도시중심은 전주부성의 도시공간과 남문밖시장의 저자거리였고, 그곳에서 유흥문화가 꽃피었다. 전주부성의 풍남문 밖에 위치한 남문밖시장(남부시장)은 조선시대에 중국과 일본의 여상(旅商)들이 몰려들고, 감영이 위치한 관아도시로서 시전(市廛)과 포(鋪)가 매우 많았으며, 물화(物貨)를 쌓아놓고 백성들과 매매하여 화폐의 유통이 매우 활발한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⁵⁰⁾ 시장에는 부보상들을 위한 술과 밥을 팔고 숙박까지 겸하는 주막과 점막 등이 발달한다. 남문밖시장은 전주부성에서 가장 변화한 저자거리로서 다양한 술집과 주점들이 조성된 유흥공간이었다. 남부시장의 언저리에 전주의 유명한 요정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完山誌』에 따르면, 전주는 관기를 관장하는 관아로서 전라감영에는 영노청(營奴廳), 전주부영에는 관노청(官奴廳)이 있었으며, 교방(敎坊)이 조선 후기까지 활발하였던 곳이다. 나이 들어 기적(妓籍)에서 말소된 퇴기(退妓)들이 도시에서 목로주점을 운영하였음은 신윤복의 주사거배(酒肆舉盃) 그림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조선후기 신윤복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풍류객들은 한량이었다. 한량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즐기는 풍류문화가 신윤복의 풍속화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량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즐긴 향락적 풍류문화는 도시공간에서 여흥문화를 발달시켰다. 여흥문화는 기생집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주에서도 1917년 퇴기조합이 결성될 정도로 기생문화가 발달해 있었다.⁵¹⁾ 일제시대 기생문화는 조선 후기의 중서층이 즐기는 향락적 전통이 이어졌으며 술집과 기생들이 중심적 기능을 하였다. 일제시대에 전주 권변이 풍남문 밖에 조성되어

50)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출판사, 2003, 102쪽.

51) 황미연, 앞의 책, 110쪽.

있었고, 권변 가까운 곳에 요정(낙원, 행원 등)이 위치하였고, 풍남문 밖 인근에 보부상들이 즐긴 주점과 색주가 등을 통해 풍남문 안팎이 전주 여향문화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방에서 권변으로, 그리고 요정문화

조선시대 기생은 관기(官妓)였다. 관기는 경기(京妓)와 지방기(地方妓)로서 관아의 관노청에 소속된 노비 신분이었다. 『성종실록』 17년 10월 27일 왕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국가에서 경외(京外)에 창기소(娼妓所)를 둔 것은 노래와 춤을 가르쳐 연향(宴享)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듣건대 우후(虞侯), 수령 및 대소 봉사자들이 사사로이 데려와서 자기 소유로 삼아 주(州)·부(府)의 기생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니, 경은 엄하게 조사토록 하라”⁵²⁾는 엄명을 내린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기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기생을 두고 관리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관리가 기생과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는 일 등이 자주 발생하여 문제를 야기시켰다.⁵³⁾ 성종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창기소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라는 왕명을 내리는 시기가 1486년(성종17)이라면, 창기소 운영이 조선 성종 시기의 기록이지만, 처음 설치의 시점은 고려시대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교방(敎坊)이 있었다. 고려시대 교방은 향악, 속악을 담당하였으며 창기와 기예에 뛰어난 자를 뽑아 교육시킨 기생학교이기도 했다.⁵⁴⁾ 이러한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세종대에 장악원을 설립하면서 아악(雅樂)은 좌교방(左敎

52)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7年 10月 9日, “國家設京外娼妓 以敎歌舞備宴享也 今聞虞候守令及大小奉使者 私自帶來 以爲己有 州府人物 以此凋弊 卿其嚴加檢覈”.

53)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 211쪽.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권, 교방편, 342쪽.

房)에서 속악(俗樂)은 우교방(右敎房)에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기녀들은 천인 신분으로 우교방에 속하였다. 한편 고려시대에도 교방의 창기에게 기예를 가르치는 일을 우교방에서 담당하였다.

그런데 전주부영에 기생들을 교육시키는 교방이 있었다는 기록이 『完山誌』 공해(公廨) 교방조(敎坊條), 중직대부 이영민의 중수기(重修記)에 실려 있다.

(A)몇 달 뒤에 나 승임이 부모를 찾아뵈겠다고 말하고 전주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수일에 기녀 몇 사람이 와서 그들이 보고들은 것을 거듭 다 들었는데, 그것이 교방 중건에 관한 기억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주부에 교방이 있었지가 오래다. 이전 정유재란 때에 불탄 뒤 버려두고 일으키지 않은 지가 거의 60년쯤 되었다. 지금 우리 부윤어른과 통관이 이것을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더불어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집 다섯 채를 짓고 짧은 담장으로 둘렀는데,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농민들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공사를 완공하고 마침 중앙절을 당하여 전주부윤과 통관 두 분이 각각 그들의 봉급 일부를 떼어서 낙성식을 베풀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소문을 듣고 준비를 도왔다. 관기들 중 나이가 늙어 관기의 역(役)이 면제된 사람과 병약(病弱)하여 기적(妓籍)에서 말소된 사람도 모두들 모여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이틀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부윤과 통관은 지방관청에 속한 관기들의 공역을 감면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교방(敎坊)에 모여 오로지 음악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그 후로는 노래하는 사람이 교방에서 노래하고 북을 치는 사람이 교방에서 북을 치며,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모두 여기에서 연주하고 손으로 춤추며 발로 뛰며 오래도록 그곳에 머무니 여러 우렛소리와 바람소리가 멀리 도로에까지 퍼졌다고 하였다. 아 우리 두 원님이 이 일을 고집했던 것을 알만하다.⁵⁵⁾

55) 『완산지』 공해 교방조.

(A)에서 전주 교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의 교방은 고려시대 교방의 전통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주 교방이 불탄 뒤 60여 년 쯤이 지난 시점에 통정대부 심택(沈澤)이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부윤으로 재임(1651~1654)⁵⁶⁾하면서 건물 다섯 채를 짓고 담장을 둘러 교방을 복원하였다. 전주부윤과 통판이 봉급 일부를 떼어 교방의 낙성식 잔치를 베푼 후에 교방의 제 기능이 복원되었다. 교방에서 아악, 기악과 기녀들이 춤을 익히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1년에 편찬된 『완산지』에 전라감영에서 관기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영노청(營奴廳)이 있었고, 전주부영에는 관기청(官奴廳)이 있었으며, 교방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주교방은 1895년 갑오개혁으로 장악원이 궁내부 장예원(掌禮院)으로 이속되면서 해체되었다. 1909년 관기제도의 폐지에 따라 교방이 해체되고 관기들이 갈 곳을 잃었으나, 1909년 한성기생조합(券番)이 만들어지면서 기생의 명맥은 이어갔다. 전주 관아의 지방기(地方妓)들도 1915년 예기조합(藝妓組合)⁵⁷⁾을 만들어 예능의 맥을 이어갔다.

1880년경 일본인들이 경성에 상주하면서 일본식 요정이 등장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요정을 본뜬 한국식 요리집이 등장하면서 기생들이 요리집으로 불려나갔다. 일본 요정에는 게isha가 있다면, 한국식 요정에는 기생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교방의 관기들은 관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향연에 나아가 춤과 노래를 추는 것이었다면, 권변의 기생들은 요리집으로 불려나가 주연에 참석하여 춤과 노래의 기예를 파는 일이 본질이었다. 1887년 처음으로 일본식 요정인 정문루(井門樓)가 생겨나고, 곧이어 화월루(花月樓)가 들어섰으며 친일파인 송병준이 청화정(淸華亭)을 내

56) 이동희 편저,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 명단』,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5, 10쪽.

57) 황미연, 앞의 책, 110쪽.

면서 한말 3대 요릿집으로 등장한다. 1909년 경성 종로에 명월관(明月館)이 들어서고, 1918년 명월관이 불탄 이후 태화관(泰和館)과 식도원(食道園)이 연이어 들어섰다.⁵⁸⁾ 일본의 요정 영향을 받아 20세기 초에 한국식 요정이 등장하는데, 요정의 명칭이 한국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요정이 단순히 음식 하는 식당이 아니라 유흥과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잇고 루(樓)자명의 요정 명칭이다. 물론 〇〇館, 〇〇屋, 〇〇園이라는 일본식 요정 명칭도 등장하지만, 정문루, 화월루, 청화정은 누정을 본뜬 한국식 요정 명칭이다. 전주에서 일본식 요릿집이 등장하는데, 1919년 박다옥(博多屋), 1928년 길건옥, 1932년 청풍관(淸風館), 1933년 전풍관, 1934년 약지정, 1938년 낙원(樂園)이 들어섰다.⁵⁹⁾

한국에서 권번 설립은 일제 식민통치의 수단이었다. 권번의 설립은 1908년 9월 15일에 ‘기생 및 창기 단속시행령 제정 건’이었다. 이 건은 일제 경시청에서 발행하는 인가증으로 각종 여행이나 공연의 경우 경시청이 발급한 인가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법령이었다. 기생단속령 제 2조에 의하면, ‘기생은 경시청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조합을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경시청에 인가를 받음이 가함’이라 하였고, 10월 6일 ‘기생 및 창기단속령 시행 심득’, 즉 기생 및 창기단속령에 대한 세부지침이 전국 각 경찰서와 경찰분서로 하달되었다.⁶⁰⁾ 일제 경시청의 명령에 따라 1908년 9월 25일 이후 1909년 4월 1일 사이에 「한성기생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후 기생조합인 권번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의 권번은 예기(藝妓) 중심의 기생권번이 아니라 유곽의 공창(公娼)인 예창기(藝娼妓)를 관리하는 곳이었다. 일본의 유곽제도는 사창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음업자를 일정한 곳에 모아 영업

58) 신현규, 『기생인물 생활사 꽃을 잡고』, 경덕출판사, 2005, 72쪽.

59)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신아출판사, 2009, 483쪽.

60) 신현규, 앞의 책, 48쪽

을 하는 집창제(集娼制)에 따른 것인데,⁶¹⁾ 일제는 ‘기생 및 창기단속령’을 시행하면서 기생 이미지를 유곽의 창기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조선의 기생은 매음(賣淫)이 목적이 아니라 예기(藝妓) 수련에 목표를 두고 있기에 그 격과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조선의 권번은 일본의 권번과 달리 매음이 아니라 예기를 양성하는 기생학교 운영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권번에는 예기를 수련하는 근대식 기생학교를 부속으로 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교방의 전통을 이으려는 강한 집념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의 기성권번(箕城券番)에 부속된 ‘기성기생양성소(箕城妓生養成所)’는 3학년제 기생학교를 운영하였는데, 10대 소녀들이 입학하여 가무음곡을 배우면서 숙련된 기생은 대동강변의 요리집으로 출장을 나갔다고 한다. ‘기성기생양성소’는 조선 후기 ‘평양관기학교(平壤官妓學校)’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3년제 기생학교를 졸업해야 기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년제 예술대학을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당시 기생들은 사회적 여건상 연희무대가 아니라 요릿집으로 출장 나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일본의 게이샤와는 차원이 다른 엘리트적인 예기였다. 일제가 기생들을 창기(娼妓)로 활용하려 했으나 권번의 기생학교에서는 근대적 교육방식으로 엘리트적인 예기(藝妓)를 양성하였다.

기생학교는 평양, 경성, 전주 등지의 권번 부속의 기생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생양성소 규정을 두고 엄격한 학사운영을 하였다. 기성권번 부속 기생양성소 규정에 따르면, “제12조 입소 인원은 연 60명으로 한다.”, “제13조 본 양성소에 입소하려는 자는 원서에 호적등본, 이력서를 첨부하고 부모형제 및 보호자의 보증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 양성소의 졸업연한은 만 3년으로 하고, 매년 3학기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61) 신현규, 앞의 책, 65쪽

“제16조 교과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은 가곡·수신·창가·국어·조선어·산술·서화, 제2학년은 우조·시조·가사·국어·조선어·산술·음악·서화·수신·창가·무용, 제3학년은 가사·무용·잡가·일본창·국어·조선어·산술·음악·수신·창가”였다. “제17조 매년 3월 학기말에 수업과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 합격하는 자에게 수업증 또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고 되어있다. 제20조에 따르면, “학생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소를 명한다. 1. 성행이 불량하고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수업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는 자”였다.

평양 기성권번 기생양성소에서 시행중인 3학년 수업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월	국어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노래복습
화	국어	서화	가곡	일본창	예법	음악
수	작문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예법
목	회화	서화	가곡	일본창	성악	노래복습
금	시독해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토	시독해	서화	가곡	회화		

기생학교의 3학년 학생이 배우는 수업시간표인데, 매일 6과목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목은 서화, 가곡, 잡가, 회화, 작문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켰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학과교사, 가무교사, 잡가교사, 서화교사, 음악교사, 일본창 교사가 있었다.⁶²⁾ 3학년 수업시간표를 보면, 말이 권번 소속의 기생양성소였지, 조선시대 교방의 전통을 잇는 근대화 된 교방, 즉 관기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기생은 예기를 목적으로

62) 가와무라미나토, 『말하는 꽃 기생』 유제순 옮김, 소담출판사, 2002, 191~197쪽.

교육을 시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종합예술학교나 다름이 없었다. 또한 수업료를 낼 수 없으면 기생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다. 권번 소속의 기생 양성소는 교방과 근대학교가 조합된 근대화된 기생학교였던 것이다.

전라북도에서 기생조합이 가장 먼저 조성된 곳이 전주다. 전주권번은 1915년 예기조합이 결성되고, 1923년에 전주권번으로 바뀐다. 남원권번은 1921년 기생조합이 결성되고, 1926년 남원예기권번으로 바뀐다. 군산소화권번은 1923년 군산예기치육이 결성되고 1931년에 군산소화권번으로 바뀐다.⁶³⁾ 기생조합은 정읍, 부안, 익산에도 결성되었다. 각 권번마다 교육 시키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교방의 전통방식에 따라 기악(소리·악기), 서화, 춤과 근대무용 등 다양한 기예를 가르쳤다. 권번의 예능 교육은 교방의 관기들이 받는 기예교육보다 더 다양하였다. 교방의 관기들은 악기연주, 소리, 춤 등 속악에 치중하는 경향이었으나, 권번의 기생들은 서화를 배웠다. 기생들은 서화 수업을 받으면서 난을 치고 사군자를 배웠다. 일제강점기에 지방에서 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권번이 유일하였다. 권번은 근대 신식교육이 도입되면서 근대 최고의 종합예술학교로 입지를 세웠다. 권번에서 기생들에게 서화, 잡가, 작문, 가곡, 기악 등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였기에 당시 전통예술에 기량이 뛰어난 화가, 작가, 소리꾼, 춤꾼 등이 권번의 교사로 활약하였다. 1923년 전주권번의 기생규모는 50여명이었고, 권번 교사는 가야금 김창조·김삼태, 거문고 신쾌동, 통소의 유동초, 춤에 정자선·정형인·정모란과 판소리에 장판개·김준섭·신영채·송봉업, 시조에 최일원, 서화는 김희순이 담당하였다. 전주권번의 교과목은 소리(판소리, 단가, 잡가, 시조), 기악(가야금, 거문고, 통소), 춤(승무, 검무, 북춤, 살풀이춤), 서화, 구연극, 예절교육을 가르쳤다.⁶⁴⁾ 권번에서 기생들에게 시서화, 가무악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

63) 황미연, 앞의 책, 110쪽.

64) 황미연, 앞의 책, 144쪽.

다. 화가인 김희순이 교장으로 있으면서 서화계에 거목인 효산 이광열과 이당 김은호도 기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⁶⁵⁾ 김은호는 기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기생을 모델로 미인도를 그렸다. 김은호는 남원 광한루원에 위치한 춘향사당에 모실 춘향초상을 조선권변에 나가던 기생 김명애를 모델로 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기생들은 연예인의 기질을 발휘하여 공연단을 꾸려 활동하였다. 전주권변의 기생들은 가무악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전통예술을 공연하였으며, 중앙무대에 진출하고 국내 원정공연과 일본 해외공연⁶⁶⁾을 하면서 전통예술을 선도하였다. 그런가하면 화가의 모델로 활약하는 기생들도 많았다. 당시에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여성은 권변의 기생들 밖에 없었다.

4. 요정에서 한정식으로, 예능의 현대화

일제강점기에 권변의 기생들은 요정에 불려가 돈을 받고 예능을 파는 전문예능인들로 변모하고 있었다. 뛰어난 예술 감각과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기악 연주와 춤과 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예능인은 권변의 기생들 밖에 없었다. 그리고 권변의 부속 기생학교에서 서화, 가곡, 무용, 작문, 잡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기에 근대화 과정에서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 권변의 기생들이었다. 일제강점기 기생들은 봉건왕조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기생들은 유흥과 오락의 대상이었으며, 신분제의 관행에 따라 천민이었던 기생들은 ‘강요된 근대’를 경험하면서 술을 따르고 소리와 춤을 상품화시킨 예기(藝妓)들이었다. 근대화는 억압받던 여성을 종속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서구의 제도와 문화는 종

65) 이용엽, 서화가 증언(2011.5.31).

66) 황미연, 앞의 책, 174쪽.

속적 지위에 있던 기생들의 식민지 근대성을 탈피시키고 기생학교에서 신식화된 교육을 받으며 여성해방의 선봉에 서게 된다. 서구의 문물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라디오, 축음기, 영사기, 촬영기 등 음반영상 기기들이 도입되면서 기생들도 여성해방의 선진적 조류를 받아들이게 된다. 신식교육을 받은 기생들은 누구보다도 근대화된 신여성의 세련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각종 연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기생들은 일제강점기 권변 부속의 기생양성소에서 가곡, 서화, 예절, 성악 등을 배우면서 전문예능인 교육을 받았으며, 개화기 이후 서구문화를 받 빠르게 받아들인 곳도 권변이었다. 권변의 기생들은 서양예술의 공연방식을 받아들여 지방에서 행하던 노래와 춤을 무대공연으로 발전시켰다. 1920년대 명월관 특설무대에서 기생들의 예술공연이 열렸다. 1920년대 서양의 양악대와 재즈와 서양댄스가 수입되면서 기생들도 공연예술단을 조직하여 무대공연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권변에서도 국악단과 양악단이 구성되고, 레뷰춤과 사교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요정에서도 기생들이 양악대 공연에 등장하면, 손님들도 양악대의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기생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평양과 한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확산되었다. 전주의 행원에서도 제1부에서 판소리와 국악 중심의 공연이 이뤄지면, 제2부에서는 밴드(양악대) 음악에 맞추어 버라이어티쇼가 벌어졌었다.⁶⁷⁾ 그러나 전주권변에서는 서양댄스, 일본춤, 사미센 등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순수한 전통예술의 공연예술을 연행하였다고 본다.⁶⁸⁾

일제 강점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기생학교는 3년제 평양 기생학교였다. 평양 기생학교는 국악·양악 합동연주단까지 조직하여 공연할 정도

67) 장명수 증언(김명엽 조사).

68) 황미연, 앞의 책, 126쪽.

로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다. 1932년 평양 기성권번의 기생들이 경성으로 가서 경성 시내 각 권번의 후원 하에 단성사(團成社)⁶⁹⁾ 무대에서 특별공연을 하였는데, 공연레퍼토리는 가극, 무용 레뷰, 합창 가극 등이었다. 레뷰는 드라마, 희곡, 오페라, 발레, 재즈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취하고 음악과 춤을 뒤섞어 호화찬란한 연출을 하는 무대예술을 말한다.⁷⁰⁾ 레뷰춤의 등장은 요정에서 국악 중심의 정적인 예술이 양악 중심의 동적인 예술로 바뀌고 방의 공간에서 소극장, 카바레의 무대 공간에서 공연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근현대에서 서양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집단이 기생이었다.

국악에서 성악으로 가곡, 시조, 가사, 경기민요, 남도소리 등을 배우고, 국악기는 거문고, 가야금, 생황, 아쟁, 대금, 장구 등을 다뤘으며, 전통춤으로는 선유락, 향장무, 포구락, 검무, 사자무, 학무, 승무 등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을 배웠다.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에는 기생들이 검무를 추는 그림이 나온다. 또한 기생들은 권번에서 서양춤으로 사교댄스와 레뷰춤을 배우고, 일본악기 사미센과 서양기인 서양금, 만돌린, 아코디언, 트럼펫,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을 배웠다. 1930년대 평양기생학교에서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혼합한 연주단이 등장하였으며, 서양악기로 연주하는 관현악단도 조직되어 공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와 같이 기생들은 성악, 기악, 무용, 전통춤 외에 전통예절과 시·서·화도 배우는 등 모든 예술과 일반교양까지 모든 종목을 망라하여 배웠다.

한마디로 권번은 전통예능의 전문교육기관이었으며, 요정은 전통예능의 산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⁷¹⁾ 권번 부설의 기생학교에는 3년제 종합예술학교로서 예능 중심의 기생교육을 시켰다. 그러다보니 권번의 기생들은

69) 단성사는 1907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었다.

70) 신현규, 앞의 책, 216쪽.

71) 신현규, 앞의 책, 87쪽.

현재의 연예인처럼 방송, 음악, 영화, CF, 모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권번은 지금의 연예인기획사 또는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⁷²⁾ 기생 가운데 노래와 춤과 몸을 파는 창기(娼妓)들이 있는가하면, 뛰어난 예능의 소질을 갖춘 예기(藝妓)들은 연예계로 진출하였다. 예기는 기악, 성악, 무용·춤 외에 시·서·화에 예능적 소질이 있는 기생들은 화가로서 화단, 문단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서양 문화의 붓물로 기생들은 점차 기생에서 전문예능의 연예인 및 화가, 작가로 신분 변화를 가져오면서 점차 요정문화는 퇴화해갔다.

1945년 해방을 전후로 요정(料亭, りょうてい)은 점차 사양화 되어가고 대신에 요정을 닮은 한정식집이 등장한다. 일제강점기에는 권번과 요정 문화가 유지되었다면, 해방 이후에 권번이 해체되면서 기생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예에 뛰어난 기생들은 해방 후 방송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몸파는 창녀로 전락하는 등 제 갈 길로 가고 요정은 기생이 없는 요릿집으로 전락하게 된다. 요릿집이 한정식집으로 바뀌고, 한정식집은 예능보다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지만 요정을 찾던 사람들은 여전히 한정식집으로 바뀐 요정에 가서 놀기를 즐겼고, 요정을 대체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한정식집에 찾아가 유흥을 즐겼다.

해방 이후 1950년대도 도시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요정과 한정식집 밖에 없었다. 일본식 유흥음식점이었던 요정이 자연스럽게 침체되자 요정을 닮은 한정식집이 출현하고 한정식집이 요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성업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정식(韓定食)⁷³⁾

72) 신현규, 앞의 책, 61쪽.

73) 한정식(韓定食)은 한식(韓式)+정식(定食)의 합성어이다. 한식은 우리나라 전통 밥상인 백반을 지칭하는 것이며, 정식은 일본의 定食(ていしょく)을 지칭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에 일본식당과 한국식당이 있었는데, 料亭(일본식 요리집)이 등장하면서 한식을 일본식으로 내놓는 음식이 한정식이었던 것이다. 일본 정식은 음식의 양과 가짓수가 일정한 형식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한정식은 상다리

의 출현은 해방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전북 화단을 지키는 하반영 화백은 한정식은 요즘에 쓰는 용어지 일제시대에는 정식(定食, ていしょく)과 한식(韓食)이라는 용어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식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요정에서 판매하고, 한식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요정에서는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다.⁷⁴⁾ 전주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요정은 1932년에 「청풍관」(대표 서성철)이 개업한 이후 1933년 「전풍관」(대표 최만기), 1935년 「전일관」(대표 이병선), 1938년 「낙원」(대표 한태수)⁷⁵⁾ 등이 개업하였다.⁷⁶⁾ 1943년 허산옥은 「낙원」의 건물 일부를 인수받아 행원을 개업한다.⁷⁷⁾ 실제로 전주의 한정식은 1950년대에 부월옥, 평화촌, 만성장, 백번집 등이 개업하면서 번창하게 된다. 1950년대 초 한정식집은 음식점이지만, 일제강점기 요정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측면이 있다.

Ⅲ. 전주 풍류문화의 변화 양상

조선전기 사대부들은 학문을 일궈 과거급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거나 관료에서 물러나면 시골로 낙향하여 처사로서 전원적인 삶을 살아

가 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내놓는 형식이다. 한정식의 발달은 요정이었다. 한정식은 한식을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정식화 한 것인데, 요정은 식사하는 공간보다 주연을 즐기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정식은 '밥상'보다는 '술상'에 가까운 음식이라 할 수 있다.

74) 필자가 2011년 5월 4일 하반영(94세) 화백과 면담하였을 때 증언해 줌.

75) 하반영 화백은 낙원을 개업한 사람은 부여의 정영기라는 사람이며, 한태수는 남전 허산옥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허산옥의 돈을 받아 전주 중노송동에서 기름공장을 했다고 한다.(2011. 3. 25 필자 현지구술조사)

76)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國譯 全州府史』, 2009, 683쪽.

77) 허산옥이 낙원의 권번을 인수받아 행원을 개업하였다는 요정이 권번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전주권번은 풍남문 밖에 한 곳에 위치하였고, 그곳에서 기생을 요정으로 파출했기에 낙원 소유 권번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는 양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의 형성은 유학자들이 사서삼경의 경서와 중국 한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도가사상을 체득하여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무위자연의 삶을 동경하는 관행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 관료로 진출하여 관리생활을 하다가 염증을 느끼면 관직에서 물러나 산수 좋은 향촌으로 낙향하여 강호자연에 은둔하면서 누각을 짓고 산수시(山水詩)와 강호시(江湖詩)를 읊으며 세상을 초연하는 삶을 보여주었다.⁷⁸⁾ 조선전기의 사대부들은 사장학을 배워 오언율시와 칠언절구를 짓는 문인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 고향이나 처향으로 낙향한 사대부들은 누각에서 시서화의 풍류를 즐겼다. 조선 전기의 산수화는 당시 사대부들이 어떻게 풍류를 즐겼는지를 보여준다. 산수화는 당시 사대부들이 심산유곡에서 한유자적(閑遊自適)과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즐기는 처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많다.⁷⁹⁾ 그래서 전국의 산천계곡에는 곳곳에 누각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사대부들은 전원적인 삶을 누리며 풍류를 즐겼다. 조선전기에 전주를 찾은 점필재 김종직, 사가정 서거정, 양촌 권근, 노포 유순, 청하 권극중, 천은당 노사신, 삼탄 이승소, 체소 이춘영, 백헌 이정석 등 수많은 사대부들이 전주부성 안팎의 누정에서 전주의 산세와 풍광을 찬탄하는 시문을 지었다.

서거정이 ‘완산십영(完山十詠)’을 읊었는데 다음과 같다.

완산의 변화한 물색은 성산보다 낫거니와 / 完山佳麗勝星山
 전후 풍류 고상한 이는 늙은 교관이로다 / 前後風流老教官
 굳이 목지처럼 방탕할 필요는 없겠지만 / 未必牧之空落魄
 그대는 곤궁한 선비 꼴을 씻을만 하고말고 / 如君亦可洗儒酸

영호루 위에서 그대와 함께 즐겨 마시고 / 映湖樓上共君歡

78) 주승택, 「선비들의 삶과 한시」, 『선비들의 예술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4, 179쪽

79) 임형택, 앞의 책, 360쪽

웃으며 미인시켜 관을 바로잡게 했었지 / 笑倩佳兒爲整冠
 지난 일은 아득히 온통 꿈만 같을 뿐이요 / 往事悠悠渾似夢
 백발이라 정 흥 또한 이미 쇠잔해져버렸네 / 白頭情興已闌珊

향교 한 누각엔 일찍이 기문을 지었고 / 鄉校一樓曾作記
 견도 십영의 시도 내가 또한 지었으니 / 甄都十詠又題詩
 선생께 알리노니 화답의 시를 꼭 짓게나 / 爲報先生須和得
 화답하거든 의당 다시 내게 알려도 주오 / 和來宜復報吾知

위의 시는 조선 초기에 사대부들이 누각에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초 전주에는 영호루, 제남정, 쾌심정, 공북정, 한벽루 등이 있었고, 풍광이 좋은 곳은 만경대, 덕진연못, 건지산, 봉황암, 기린봉 등이 있었다. 전주의 사대부와 관리들은 이와 같은 누각과 돈대에서 풍류를 즐기는 관행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전주지도에 가락대⁸⁰⁾에서 장막을 치고 시회풍류를 즐기는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이 전주지도는 1782년(정조6) 8월에 국왕이 전주의 건지산과 전주부성을 그리게 한 산수화풍이 빼어난 회화식 지도다.⁸¹⁾ 정조가 왕조의 정통성과 왕권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화서에 지시하여 화원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회화식 지도는 특정지역의 산수와 자연환경을 산수화처럼 극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실제의 명산승경을 화폭에 담는 실경산수화와 진경산수화의 화풍에서 유래되었다⁸²⁾는 시각이다. 규장각 소장의 전주지도는 산을 표현하는데 피마준법(被麻皴法)과 미점법(米點法)이 나타나 남종화법과 진경산수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수작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진

80) 가락대는 현재 전주 남도송동에 위치하는 천주교 전주교구청 자리였다.

81) 한영우·안휘준·배우성, 『우리나라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1999, 111쪽.

82) 한영우·안휘준·배우성, 앞의 책, 202쪽.

경산수화는 겸재 정선의 화풍을 잇는 17세기 전형적인 한국화풍이다.

이러한 진경산수 화풍의 전주지도는 2점이 더 있는데, 전북대학교 박물관의 〈全州府古地圖〉과 국립전주박물관의 〈完山府地圖十曲屏風〉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회화식 지도는 당시 도화서에서 풍패지향 전주에 대한 깊은 관심의 발로였을 것이다. 전주에는 조선 왕조의 어진전인 경기전에 위치하고 있었고, 어진을 그리는 것은 도화서의 화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단원 김홍도는 도화서의 화원으로 어용화사로 뽑혔으며, 영조 49년(1773)에 정묘(正廟)의 초상을 그리고, 정조 5년(1781)에도 한중유, 신한평, 김홍도를 시켜 어진 1본을 그리게 하고 있다.⁸³⁾ 1782년 규장각 소장의 전주지도 역시 단원 김홍도가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은 1782년 전주지도에 선비들의 풍류를 즐기는 풍속도를 그려 넣은 점과 김홍도가 어진전인 〈경기전도〉⁸⁴⁾를 그렸다는 사실⁸⁵⁾에서 추론은 가능하다. 어진의 화맥은 석지 채용신(1850-1941)이 있는데, 석지는 영조 어진의 이모본을 그린다.

영·정조대에는 서화만 발달한게 아니라 음악에서도 발달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화폐 유통과 시장 발달에 따른 상품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중인 계층이 풍류와 유흥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나례도감 소속의 재인, 광대들이 저잣거리에서 판을 벌이고,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들이 민간의 음악 수요에 응하였다. 음악의 유흥에는 특히 기생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였다.⁸⁶⁾ 18세기 도시에서 기생들과 향락과 유흥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은 각 전(殿)의 별감·포도군관·정원사령·금부나장·궁가·왕실 외척의 청지기·무사 등 이었다.⁸⁷⁾ 지방에서는 관아의 아리와 향리들이

83)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그림』, 학고재, 1995, 109~112쪽.

84)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肇慶廟慶基殿圖形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5)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한국예총 전주지부, 278쪽.

86)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님은 예술세계』, 효형출판, 2000, 33쪽.

87) 강명관, 『조선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푸른역사, 132쪽.

지방기들을 관리하였다. 전주부성 내에는 감영 소속의 영노청과 부영 소속의 관노청이 있었으며, 관기를 양성하는 곳으로 교방이 있었다. 교방에서 지방기 양성은 지방관아에서 발생하는 음악적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었지만,⁸⁸⁾ 조선후기 전주에서도 지방관리와 이서집단이 기생들을 관리하면서 풍류와 향락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교방의 전통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우교방에서 민속악(판소리)의 전통이 강하게 온전해 올 수 있었던 고을이었다. 따라서 전주 판소리의 진원지는 교방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영조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였다는 사건으로 18세기 사대부들이 판소리를 환호하고 심취하면서 판소리가 공연예술로 등장하였다.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연간에 왕들은 명창들을 공연하게 하고 첨지, 낭청, 참봉 벼슬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홍선대원군(1828~1890)은 안동김씨 세도시절 전주지방을 떠돌 때 백이방의 도움으로 송홍록과 만나 인연을 맺게 되고, 후에 백이방을 통해서 전주대사습놀이⁸⁹⁾를 설립하게 되었다.⁹⁰⁾ 홍선대원군은 대사습 경창대회에서 장원한 명창과 송홍록과 같은 소리꾼 광대들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고,⁹¹⁾ 고종 앞에서도 어전 공연을 함으로써 광대들이 본격적으로 판소리 공부에 나서게 된다.⁹²⁾ 판소리가 숙종 말 영조 때에 불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소리꾼

88)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인의 생성공간』, 151쪽.

89)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한 연원이 분분하다. 그동안 전주대사습의 역사에 대하여 18세기 초엽(조선 숙종 말~영조 초)에 생겨났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종 원년(1864) 국가적인 행사로 막을 올렸던 전주대사습놀이는 임오군란(1882), 동학혁명(1894), 민비시해사건(1895) 등 국가적인 대변란으로 인하여 열리지 못했던 다섯 차례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지내왔다(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전주대사습사』, 1992, 38쪽)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다.

90) 김현주, 앞의 책, 177쪽.

91) 고창 출신 소리꾼 진채선과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와 홍선대원군의 삼각관계는 홍선대원군이 판소리를 얼마나 즐겨했는지를 가늠케 한다.

92) 김현주, 앞의 책, 179쪽.

들이 경창을 한 것은 고종 때에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사습은 전주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풍류와 유흥을 즐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장악원이 1897년 교방사로 바뀌고 1907년 장악과로 바뀌면서 유명무실 해졌다. 한일합방 이후 교방은 해체되고 관기양성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교방은 일제 강점기에서 권번의 기생학교로 대체되었다. 1935년 전주 권번은 풍남문 밖에 위치하였으며, 기생학교를 부속으로 두었다. 기생들은 권번의 기생학교에서 시서화와 가무악을 배우고 요정으로 파출을 나갔다. 해방 후 권번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권번 건물에 전주국악원(전동국악원)이 들어섰다. 권번에서 국악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전동국악원을 운영하였다.⁹³⁾ 전주대사습놀이를 전승시킨 주체들이 곧 국악동호인들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에서 전주사람들의 풍류문화와 유흥문화를 짚어보았다. 풍류의 장르는 시서화와 가무악이다. 전주에서 풍류문화가 발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주사람들이 풍류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사람들은 그림을 볼 줄 알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한량문화(閑良文化)를 오랜 세월동안 면면히 지속적으로 전승시켜왔다. 한량문화는 기본적으로 학문 소양과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선 전기부터 이름난 사대부들이 전주에 와서 전주의 풍광을 찬탄하고 누정에서 시회를 즐겼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대부 중심의 풍류문화는 시장경제와 화폐유통으로 여항문화가 발달하면서 유흥문화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 중심으로 풍류문화가 발달하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아전을 중심으로 유흥문화가

93) 전복예총, 『전복예총사』, 신아출판사, 2011, 177쪽.

변화하였다. 조선 후기에 시장의 발달과 화폐유통으로 물화(物貨)의 중심에 전주가 있었다. 전주는 기본적으로 전라감영이 있고 전주부영이 있는 지방도시였다.

전주는 조선왕조를 태동시킨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서 왕조문화가 깃들어 있었고, 사대부들이 전승해온 문화가 조선후기 실학시대 이후에는 풍류문화의 전통이 유흥문화로 전환되면서 전통예술의 맥은 지속적으로 발달하였다. 전주는 조선후기까지 교방문화가 유지되었고, 교방의 전통은 전주의 지식인들이 풍류와 여흥을 즐길 줄 아는 문화적 감각이 발달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에 교방은 해체되고 권변이 들어서게 된다. 선비들이 즐긴 시서화와 가무악은 권변의 기생들을 통해서 전승되었다. 전주권변에서는 기생들에게 시서화와 가무악을 가르쳤고, 전주의 기생들은 특히 전통예능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권변의 교사들은 당시 시서화, 가무악의 명인들이었고, 이들에게 배운 전주 기생들은 종합예술학교와 같은 권변에서 전주 전통예능의 맥을 이어간 것이다.

유흥문화는 조선시대 선비 중심으로 누정과 경승지에서 전승되었다면, 일제강점 전후기에는 아전과 상인을 중심으로 여흥문화가 발달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요정과 한정식집으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전통 예능의 맥은 교방의 예기에서 권변의 기생으로 변화하였으나 근대교육이 발달하고 신분해체에 따라 대학에서 국악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기생은 무조건 천박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권변은 신식문화를 수용하면서 교방보다 더 다양한 예능교육의 산실로서 오늘날 종합예술학교와 동일한 기생학교였음은 분명하다. 근현대 과정에서 기생들은 근대식 교육으로 최고의 예능교육을 받은 엘리트집단이었던 사실이다. 이제 뒤틀린 기생문화를 바로잡고, 그들이 이어온 전통예능의 맥이 재조명되기를 소망해본다.

[구술채록]

하반영 || 화가

백한기 · 백창현 || 백남석의 子 · 백남혁의 孫

곽종찬 || 필장, 이조필방 운영

채주봉 || 필장, 금산필방 운영

장대근 || 필장, 백제필방 운영

송제훈 || 지장

문지연 || 고려필방 운영

신문수 || 서예가, 월정서예 운영

일러두기

채록된 내용은 가능한 구술자의 언어를 유지하였으며, 구술자의 어투나 과장된 사투리 등으로 내용상 이해가 모호한 부분은 이해되는 선에서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인명이 사용된 경우를 비롯하여 실명을 거론함으로서 사생활 침해, 인격 침해의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김○○’의 형태로 기술하였습니다.

1. 하반영氏 구술 _ 화가, 1922년생

녹 취 일 : 2011년 3월 18일(금)·25일(금), 4월 29일(금)

녹취장소 : 하반영 화백 작업실

면 담 자 : 함한희 외

구술자 : 거 헐 말도 별로 없거든. 전주의 옛 이야기나 조금 허고.

질문자 : 네네, 전주의 그 옛 얘기. 저희가 오늘은 그 전주의 옛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주를 가신 그... 나
이가, 열 칠팔세 경?

구술자 : 열 일곱.

질문자 : 열 일곱, 예.

구술자 : 열 일곱이에요. 군산서 전주로 왔어.

질문자 : 예, 그래서 전주에 가서서 주로 그 당시에 주로 무슨 일을 하
셨던 거죠?

구술자 : (잠시 생각에 잠긴다.)그 처음에 가서는 배회했죠. 그 인자 군
산서 돈 조금 챙겨가지고 간 것 가지고서 쓰고 그냥 몇 달간
배회하다가 그 배회하는 동안에 돌아가신 작촌 선생을 내가
한 번 찾아갔었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때 나보다 나이가 조금 음... 많으신데

질문자 : 네.

구술자 : 이... 고등학교를 땡기더만요. 인자 저 전주고등학교, 전주고
등학교는 그 때, 그 양반이 아마 금산서 살으신 모냥인데 전
주고등학교 땡길 적의. 에... 우체국 앞에 2층에 인자 작업실

이 있는 거글 갔더니 테상을 하고 계시더만. 그 어떻게 저만 허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또 그 이야기를 하면 자네는 또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러는가?(웃음) 그냥 나는 그 빵 한 쪼 가리도 그 아쉬운데. 그 때 그 양반이 저 식빵으로, 식빵으로 그 테상을 해가지고 그걸로 문지르고 그러더라 말어요. 그러서 참 내가 나는 올 때 갈 때도 없고 허서 객지에 와서 먹는 것도 뭐 허는데 저렇게 식빵으로 거 테상한다고 저러고 있고. 부러워했고. 그리고 그 양반이 ‘너 뭐 때문에 왔냐?’ 그러글래 ‘그럼 그리는 걸 조금 배울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쉽게 그리는 그게 쫓 아... 다른 데 가서 볼 일이나 봐라.’ 어디가 점원 생활이나 해야지 뭐더러 그림같은 걸 그리냐고. 그러서 내가 저 싸가지 없는 놈이다.(모두가 웃는다) 속으로. 그리고 그 나는 그때섬부터 내가 그... 이... 선생한테 배운다는 것은, 그림이라는 것은 선생한테 배운다는 것은 내 것이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홍대에서 오라고 서울대에서 오라고 그렇게 허도 제1기생입니다. 홍대. 서울대학은 제2기생이고. 거그 다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졸업장 안 가져 간다고 학교를 졸업했어야 졸업장을 가져가지 응? 내가 그 때 부터 그래서 에... 작춘선생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지. 다른 데를 가보라고. 점원 생활이나 하지 그림은 그 어려워서 못 허는 것이라고. 그 때에 거기에 작춘선생을 가르키던 양반이 이순재씨라고. 이순재.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한국에서 제일 먼저 어, 그, 전라북도선 제일 먼저 일본으로 유학간 사람이여.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일본 저, 일본 미대 들어갔던 사람이여. 그러고 인자 그 양반
이 거그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때 못 만나고, 그 양반 만났으면
은 그림 그리라고 했을 판인데.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작촌 선생 혼자 거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 내 침... 에... 전주
에 가서 뵈던 것이 작촌선생 만났던 것. 그고 돌아가시기 전
까지 나하고 그렇게 같이 붙어 땡겼어도 내가 그런 말만하면
잊어버리지 왜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냐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양반이 유화도 잘 그렸고 수채화도 잘 그렸어요. 작촌 선생
이. 근게 내가 볼 적어는 그... 서양화 쪽으로서는 그 양반도
에... 최춘가 싶어. 그러고 아까 그 이순재씨는 동경 그 미술학
교를 땡기다 말았쥬. 거그가 또 했고 또 와서 내가 그 후에 내
가 좀 문학을 조금 연구할까 해서 해강, 김해강 선생님을 만났
쥬.

질문자 : 네...

구술자 : 만났는데 너는 이 배고픈 시를 써서 뭐덜라고 허냐. 너 배고파
서 안된다. 너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술을 배
워라. 인자 에... 그러서 나를 소개헌 것이 이순재 선생이 되겠
고 그 후에 고암 선생, 이응노 선생을. 그런데 이응노 선생이
개척사라는 공... 그... 간판사를 했어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명필이쥬. 명필인데 그 양반이 그 집에 가서 일도 허고 또 어
간판도 붙이고 땡기고, 사고도 내고 그랬는데. 에... 그 양반
이 에... 해방되야서 이자 떠날라고 떠날적에 이순재 선생에
게 그걸 땡기고 떠났쥬.

질문자 : 네... 개척사를?

구술자 : 네. 근데 그 후는 이자 이순재선생이 어떻게 갈쳤는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그 어... 누군가가 있었을거요. 그리고 나는 인자 그림을 초상화를 잘 그리고 그러는게 배가 고프게 인자 초상화를 그리죠. 그것이 인자 소문이 나가지고 극장에서 텔로 왔어요. 그 전주극장이 제국관이에요. 마쓰나가 시게루라고 아주 저... 예술로서는 아주 저 전라북도에서 으뜸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술이라는게 인자 그림 예술이 아니고 영화 예술. 그리고 변사를 가르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변사. 그 전엔 무성영화때게 변사가 아주 험 적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예뻐하던지. 마쓰나가 시게루라는 사람이. 그러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마네킹이라고 제일 큰 간판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크기를 가늠한다.) 그... 저... 여... 그림 그러서 요렇게. 그러서 인자 그 봉재를 허기 전에 1주일 전에 그걸 붙여야 해요. 그래야 선전이 돼죠. 그놈 하나 그리고난게 인자 딴 극장에 또 대구 만경관에 소개를 해서 또 거그가서도 그려주고 오고. 대전극장에서 또 대전극장에서 대흥변이던가 거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저... 거그서 그려주고. 그리고 익산와서 또 이리죠. 이리극장 그 마네킹 그리고 그러고서 인자 남원가서 또 남원극장 간판 그리고. 또 여수가서 순천 극장 없었어요. 여수에 중앙극장 간판도 그리고. 그러면 돈이 슷합니다. 한 장 그린게. 한 장 그리고 영화가 끝나야 간판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기대려야죠. 그러면 또 돈이 바닥나면 또 인자 대전으로 먼저 가요. 가서 대전 갔다가. 김천은 또 극장이 없어요. 그 인자 대구에 극장이 있었거든요. 만경관에 가서 거그서. 인자 거그서 소개를 해서 인자 저... 부산극장 가서 또 그림 그리고.

그리해서 그러면서 그 그림을 내가 포기하지를 않았죠.

질문자 : 그러면 선생님 그리실 때 혼자 그리신가요, 아니면 뭐 같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는?

구술자 : 제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데리고 땡기면은 교통비가 많이 들은 게, 그러죠. 그니까 내 혼자서... 그라고, 거그가면 또 그 선전 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흠. 그... 그런데 인자 이 내가 인자 내 이야기만해서 안되지만은 저그 저... 고암선생님이 그 무렵에 에... 근게 아니 거가 임실 부자가 있어요. 박부자라고. 그러서 그 큰아들이 박병수예요. 일본가서 공부를 했죠. 부자니께 인자. 부잔 데 부자사람들은 동경유학이라고 했죠. 일본유학이 아니라 동경유학에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그가서 에... 갔다 와가지고서 돈을 떨어가지고 이게 에... 전주에다가 미술학원을 열라고. 그 전에는 미술학교라고를 앓고 학원이라고 해야 귀족들만 대니는 거예요. 그 학원이라고 해요. 가쿠인. 그 일본 뽀을 땀 거이죠.

질문자 : 네.

구술자 : 일본에 귀족들이 땡기는 게 학원이에요. 근게 경성에서도 서울이죠? 경성에서도 어... 이대도 학원으로 처음 했었고 숙명여대도 학원으로 했었고 그렇죠. 뭐, 학원. 에... 그런데 그 후에 학교로 여파 다 고쳤지만은. 그 학원을 돈을 몽땅 들여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거그 고사동에다가 고사동. 지금보다 짤라서 전부 그 병원도 들어오고 했드만. 그 넓은 땅에다가 학원을 지었어요. 아주 그... 내가 질적에 벽돌도 가져날르고 그러고 나는 그 극장 마네킹하고 그런게 초대권이 나와요. 다섯 장씩. 나오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갔다주고. 내가 학교를 들어

갈 필요가 없는데 일단 거기서 자동으로 그 학원생이 됐죠.
그 때 인자 허산옥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허산옥, 선초, 몇
명이 그 학원을 댕겼어요.

질문자 : 선초가 누구예요? 선초가?

구술자 : 선초, 기생이었어요. 동기. 근게 그 저... 그 학교에서는 그 권
번이라고 했죠.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거그서 학교처럼 똑같아요. 권번이. 그게 남문밖에 있었어요.
음. 그...

질문자 : 선초가 글자가... 선생님 거기 한 번 써보실 수 있을까요?

구술자 : 선초. 아... 선녀 선자하고 풀 초자하고.

질문자 : 선녀 선자하고 풀 초자.

구술자 : 네. 근데 일찍 죽었죠. 그 그림 잘 했어요. 이강천이하고 같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선초. 많아요. 그 거그서 내가 지금 이름
을 잊어버렸은게 그러지. 에.. 고암선생님이 이... 그러고 관
재 이서영씨. 관재. 흥대를 설립헌 이... 이도영씨가 거 동양
화를 가르쳤어요. 관재 이도영. 에... 흥대 1기 에... 그 저 이
사장이죠. 흥대. 그러서 그렇게 왜정 때 그렇게 허다가. 거기
에 인자 형사들이 들어오거든요. 오면은요. 전부 사상가로 낙
인이 찍혔어. 사상가. 그때는 사회주의라고 허죠. 사회주의.
그러서 반일에 속한다고 허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주목을 많이 했죠.

질문자 : 아니 뭐 그림을 그리는 학원인데 왜 그 뭐 그렇게 이념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구술자 : 그래도 그... 그 때에 인자 그 지식인들이 거그 뭐다 그림 그리
고 허니께. 음... 허니께... 그렇게 봤어요. 그것이 나중에 해방

왜서도 그 여파가 있어서, 그 학교가 없어져버렸죠.

질문자 : 그 허산옥이나 그 기생들도 서양화도 가르치고 동양화도 가르치고...

구술자 : 아니요, 동양화.

질문자 : 주로 동양화?

구술자 : 네, 동양화, 서예. 서예는 고암 선생이 가르쳤고, 서양화는 김영창, 금릉, 금릉 김영창씨. 또... 저기... 에... 누구냐. 박병수씨가 가르치고, 박병수씨가 거그 원장이죠. 원장. 그리고 또... 진환씨라고 있었어. 고창에 진환. 거그도 일본서 저... 일본 미술 허다 왔죠. 고창서 다니고, 그렇게 했는디. 해방이 되었거든요? 해방되서도 학교는 지속이 되었었어요. 됐는데 그 거그... 으... 학생들 중에서 여순반란 사건이 나가지고서 또 하나 사건이 생겼죠. 그... 경찰들이 이 모다 데려가고 뭐 더고 해서 에... 여자 김... 누구더라 가도 서양화 잘 그렸는디. 강 데려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었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또... 경상도에서 온 진해사는 사람도 설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강 경찰서 데려가서 행방불명이 된 게 우리는 모르죠. 거... 그렇게 됐고, 여순반란 사건 때가 그런 때였고, 아주 살벌한 때였어요. 여순반란 사건 때, 그 때 인자 나하고 박정희 사건이 인자 거그서 나오지만은, 박정희를 내가 인자 여수에서 그날 그... 갔다가 그냥 거 데리고서 대전까지 데려다주고, 계급장 떼는 것 까지는 보고, 그 바로 고, 자수했는디도 계급장을 떼대요? 그러고서 그 후에 못 만났죠, 못 만나고, 그러고 인자 내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다.) 육이오가 인자 그러다가 육이오가 나왔지아네요? 음? 그러면 거기에

에... 학생들이 그 학원생들이 학원은 그 이전에 없어지고 어...
그 뭐 저... 이 소방관들이 와서 집을 뿌수고 다 그랬으께.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학생들을 몰고 가신 양반이 서울로 가신 양반이 이도영씨
요. 관재 이도영. 동양화 가르키던 양반이. 그러서 홍익대학
이라고 했죠. 홍익대학을 어따 맨드는구니, 종로에 종로 1가
에 가면요. 이 저... 다케다 약국이라고 일본 사람이 약국하던
창고가 있어요. 창고 두 개를 빌려서 학교, 학교에 담은 것은
전주에서 데려간 학생들 한 삼십여명허고 거그서 온 학생들
그저, 그저 몇 명 허고 그러고서 그 때 천경자가 동양화 가르
치고 어... 또 누구냐 보다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예... 그러고
또 누가 있었냐. 뭐 더 그 내가 이름을 내가 다 잊어버렸는디.
나는 학교 그 때 관재 선생이 나하고 형님동생했으니께. 형
님. 관재. 그러고 이도영, 이극영. 둘째가 이극영. 그 그건 전
주에 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이극영씨. 인자 돈이 많으니께.
그 저 그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러고 신문사들을(?) 가서 살고
그렸었는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거기를 와서 홍대를 들어
와라고 혀도 안 갔어요.

질문자 : 네... 네...

구술자 : 그... 그도 문 앞에 까지는 갔죠.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대학이
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고. 그 홍대의 전신이 저기 저
전주의 이... 박선생이 맨들은 동방 미술 학원. 그게 예... 그...
전신이죠. 홍대가. 예. 그런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또 육
이오가 나니께 몽땅 여그 전주사람들을 가서 거그 이... 거그
에 들어간 전라도에서 간 학생들을 전부 사상가로 몰아가지
고. 산으로 뿔뿔이. 거다 다... 알아요? 산으로 갔다 거 살아남

은 사람 거 있죠? 부산대학 저... 대학교... 어... 학장까지 지낸 이의주도, 배영식이도, 최근에 죽은 배영식이도(쓴웃음). 저... 끌려가고, 거다. 배영식이는 또 친일파의 손주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 저 남원 군수를 했거든요. 왜정 때, 진재 선생이라고 그림을 잘 그려요. 진재.

질문자 : 그러니까 진재 선생의 손주네? 그 손주인 배영식씨가.

구술자 : 네, 손주죠. 그리고 인자 부안에 유화 선생하고 진재 선생하고는 같이 친했는디 유화 선생이 친일파라고 해서 그랬죠. 그래도 유화 선생은 중모를 그 학자면서도 중모심는 것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김제에서 중모심는 것, 요렇게 줄을 떠서 해놓고 그 가운데서 그 줄 맞춰서 요렇게 심는거죠.

질문자 : 보내기하는거. 유화 선생님 성함이? 존함이?

구술자 :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이... 그... 저... 유화 선생... 그 아주 인자 저... 거 이게 책자에 나왔을거요.

질문자 : 아... 네네... 찾아볼게요.

구술자 : 그리고 이순재 선생은 서울로 안가고 신문사에 들어갔죠. 전 북일보, 이순재.

질문자 : 네네. 어디를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오기전에 단편적으로 읽어봤는데 그... 선생님 어려우실 때 그 백남혁씨가 뭐 좀 도와줬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어디서 하셨던...

구술자 : 예예, 그제...

질문자 : 백남혁, 백남혁.

구술자 : 백남혁씨. 갑부죠. 저... 저... 남성고등학교 맨든 사람이죠. 동생이 만들었죠. 백남혁씨가. 근디 사회주의자로 그 저... 거그

도 날러갔죠.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육이오 때 거그도.

질문자 : 이 분들이 저기에요? 학인당은 아니에요? 백남혁씨가?

구술자 : 네?

질문자 : 학인당집 아니에요? 다른 집이에요? 백남혁씨가? 관계없어요?

구술자 : 관계없고. 저기 저... 남성고등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백남혁. 그러고 백남태씨는 두 분이 있어요. 백남태씨가. 그게 같은 일간데. 백남태씨는 아주 큰 뭐 저 지금 그 저 교동에 있는 그 집들이 전부 백남태씨 집이에요. 그리고 한 쪽은 백남혁씨 집이고.

질문자 : 네네.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구술자 : 모르죠. 어떻게 벌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이전에 아마, 그러서 거그 지금 저... 대학은... 저그죠? 저... 무슨 대학이라.. 한양대학이던가? 아니 중앙... 아니 중앙대학은 이명식씨고.

질문자 : 한양대.

구술자 : 한양대. 그 거그 그것도 백남혁씨 돈으로 맨들었죠. 병원. 마지막으로 헌 것이 백남혁씨가 진 것이 그 한양대 종합병원있죠. 그것 짓구서 돌아가셨어요. 음... 그 인자.

질문자 : 이 분들이 고창 분들이신가요?

구술자 : 아니요. 예. 아마. 그 본거지가 그 아마... 교동... 그 큰집을 보면요. 지금은 전부 찌개서 전부 들어가 있지만은. 열두대문이라는 걸 나는 실감을 했어요. 말로만 듣던 열두대문이지만. 그것을 들어가면 큰 대문. 큰 대문은 홍살문으로 혀났죠. 해 놓고 들어가서 나는 열두 대문이 있어요.

질문자 : 네... 교동에 있었어요?

구술자 : 네. 교동이죠.

질문자 : 그러면 그게 지금 학인당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구술자 : 교동하고 풍남동하고 연결을 했어요. 집이. 연결됐어요.

질문자 : 그럼 다른 집 인가보네.

구술자 : 아주 커요. 하나는 남쪽으로 문이 있고 형의 집은. 동생집은
백남혁씨 집은 저... 서쪽으로 있고.

질문자 : 거 산하당인가 거기 아니여?

구술자 : 으... 은행... 은행나무 골목이여요.

질문자 : 아... 은행나무골목? 산하당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아... 거기가 형제간에 이렇게.

구술자 : 네. 형제간이요. 그 근처가 전부 다 겨요. 그리고 머슴들 집은
지금 저... 누가 사는구나...(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한다.) 지
금 어... 오명... 아니 오근풍씨가 살고 있죠. 그 잘 알아요. 그
양반이.

질문자 : 오근풍씨 댁에는 뭐 옛날에 그... 박... 박... 박영근.

구술자 : 나중에... 나중에 그 쪼개서 팔아서 그러요. 그 이전에는 그
근처가 향교 빼놓고는 그 근처가 다 백씨네집이에요.

질문자 : 혹시 그 집들이 언제부터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시죠?

구술자 : 모르죠. 내가 가서 사....

질문자 : 그 때도 있었으니까...

구술자 : 그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고 단청이었어요. 집... 문... 문에.
문 첫 문 들어가는데를 전부 단청혀가지고. 그래 나는 절이나
허고 내가 했었는데. 그 전주에 갑부가 사는 집이라고 허더라
고.

질문자 : 학인당만 부자가 아니었네요. 학인당보다 더 부자였겠는데.
그렇겠네요? 학인당보다.

구술자 : 아... 그쵸, 학교를 그 경영할 정도면은, 또 백남태씨 한 분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십년됐나요. 그 양반은 나무만 심어요. 완산동 나무 그 측백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양반이 심었어요. 나 있을 적에 심었어요. 나도 가서 거그 가서 거그 따라서 나무 몇 포기 심었지만은, 그것이 지금은 아릅드리 되쵸. 그 나무만 심다가 역대 대통령 박대통령서 전두환 요렇게 역대 대통령이 표창을 늘 허쵸. 저그 진안 남원가는데 까지도 전부 그 양반이 심은 나무예요. 그 백씨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짓는다, 나무를 심는다. 그 양반은 나무 심어서 남의 산에다 나무를 심어요.

질문자 : 여기 지금 말씀하신 백씨들은 남성고하고 관련된 그 집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 예예.

질문자 : 지금 학인당 쪽 백씨는 또 다르고?

구술자 : 아마 학인당이 그 백씨인가도 몰라요. 내가 잘 모르니까.

질문자 : 제가 알기로는요 이리에 계신 백남신씨...

구술자 : 남혁이요.

질문자 : 원래 아니 그 우에 윗대에. 백남신씨가 원래 백낙신이었거든요?

구술자 : 네. 낙신. 백낙신.

질문자 :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구술자 : 이름만 들었쵸. 낙신.

질문자 : 남신이라고 이름을 둔거쵸. 백남신씨 아들이 백인기씨라고 그 아버지보다 더 돈이 많았더라요.

구술자 : 그런데 그 거기까지는 나는 모르쵸.

질문자 : 백인기씨 부인이 백인기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백인기씨 부인

이윤성 여사가 그... 백남혁씨 학인당 백남혁씨하고 같이 해서 남성학교를 세웠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구술자 : 그 비 있어요. 비가. 지금 저 익산에 간다치면 삼거리에 비가 있는다. 그 비... 학교는 저로 옮겨갔지만은 비는 있어요. 백남혁씨가 남성학원을 맨들었다는.

질문자 : 남성고 건립이 학인당하고도 관련이 된다. 말씀이시네요?

구술자 : 관련이 있을겁니다. 아마 나는 그 할아버지까지는 모르고. 백낙... 백낙...

질문자 : 백낙신씨 다음에 백낙중이가... 나오죠. 백낙중 다음에 무슨...

구술자 : 그...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백낙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백남신이... 그런 말은 들었어요.

질문자 : 아니 선생님 들은 것 말고 선생님이 직접 관련된 것은 없으세요?

구술자 : 그러고 인자 백남혁씨는, 나도 그 양반 때문에 하도 그... 저... 이게 저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전화한게 들었은게 나도 하마터라면 죽지 않았었냐. 그런 얘기 듣는다. 아주 완전히 그... 김일성이 공산당은 아니고. 미제나 그 저...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뭐냐...

질문자 : 백남혁씨가요?

구술자 : 네.

질문자 : 백남혁씨 동생이 백남석씨 맞아요?

구술자 : 백남혁.

질문자 : 백남혁씨 동생이 백남석?

구술자 : 석. 예예. 석. 그... 백남석. 그 우애가 백남태.

질문자 : 아 그게 사형제 중에서 사형제가 사형제서 칠남매니까 사형제 중에서 제일 큰형이 백남태예요?

구술자 : 네. 백남태. 음. 그러고 이자 그... 백남혁씨 말고 그 동생...
되는 분 아들이 왜 신문사에 아니 방송국에 좀 있었죠?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저 향천주장 그 경영하던 사람.

질문자 : 아... 백한기씨, 백인기씨.

구술자 : 네. 그런가도 모르지만 나 이름도 모르고 좌우지간. 내...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형님동생 하고 지냈으께.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내가 그러고본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모두 웃음) 나... 장
난... 그... 젊은 사람들 아직도 젊다고 했는데 요즘 나와서 최
희태 작가가 ‘아이 나도 벌써 칠십이 넘었어요.’ 그러는데 깜
짝 놀랬지. 내가 나이먹은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 나이먹은
줄은 잘 모르죠. 이제 그건 그렇고 내가 확실히 백씨네 집안
들은 잘 모르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저그 저... 남성고등학교 큰아들 있죠, 백남... 누구든가... 백
남... 이사장... 이사장... 지금 이사로 있죠?

질문자 : 지금 현재요? 지금은 모르는데...

구술자 : 아이고 나하고 친군데 지금 거그도 인자 한 구십됐겠네요. 근
데 저그, 한양대학 그... 병원 새로 높이 지었거든요? 지었는
디. 거그 초대해서 갔더니 거그가서 ‘어이 자네가 어쩐일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맨든 핵교여.’ 허드만. 그러고 내 제자들을
많이 거그다가 미술선생으로 심고, 다른 거시기도 오고, 학교,
고등학교 선생으로도 보내고 그랬죠. 한양고등학교.

질문자 : 그러고 선생님 혹시 선생님 활동하실 때 전주에서요, 필방이

나 화방이나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어느 필방이 있었단지?

구술자 : 필방?

질문자 : 네.

구술자 : 송필방이라고 했어요. 송지반.

질문자 : 송지반?

구술자 : 네. 죽었죠. 어...

질문자 : 음... 주로 여기를 많이 다니셨... 거래하셨던...

구술자 :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에 갔을 적으 근게 그 사람이 일본 군대에 간게 아니고 한국 인자 군대를 갔을 적의 내가... 이...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죽으러 가는 편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헌병이었어요. 근데... ‘너 일루와’ 하구서 나를 뺏어요. 요렇게 묶여가지고, 사형장까지 갈 적으.

질문자 : 사형장까지요?

구술자 : 예. 그 사형장도 내가 가는 디가 어딘구니요, 이... 저... 용머리고개 넘어서, 넘어서 김제가는 길... 그... 쭉고개라고 있어요. 거그다 거그다 갔다. 군... 요렇게 길쭉허게 파라고허고 거기다 죽이는거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빼내줬어요. 그런데 죽을 적으 우리 이... 시 쓰는 며느릴 보고 ‘자네 아버지를 내가 살렸네.’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더라 말이요. 근데 그것이 인자 누구하고 연관이 됐는거니 백남혁씨하고 연관이 돼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게. 긴가민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몰아세워서 그렇게 사형장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간 친구들 다 죽었어요. 그때 거그 죽은 사진을 내가 경찰서서 가면 죽이든 내 친구들 세워놓고 이 눈이라도 막으면 좋던디 그냥 눈뎌어놓고 죽었어요.

질문자 : 그러니까 육이오 때네요. 그러니까 육이오 직후.

구술자 : 예. 육이오 직후죠.

질문자 : 1950년이나 2년.

구술자 : 그러서 그러고 백남혁씨는 어... 그것보고 뭐라고... 저... 저...
왜 자수한 사람들 모두 요렇게 뭐... 요렇게 한 조직한 것 뭐...
뭐라고... 거기에 끌려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자수한 사람들
왜 다시... 데려다가 끌려가는 걸 남문에서 보고 나보고 고개
허면서 '잘있어라' 하고 인자. 육이오가 인자 난 뒤에 인자...
애지간하면 다 끌어다 죽였잖아요. 그건 뭐 사실인게요. 뭐
이제 지금인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얘기도 못했죠. 헐 적에
나도 끌려가다가. 인자 송지방. 그러고 송지방 아들은 지금
거시기서 하고 있죠. 저... 서울... 낙원동에 저그... 인사동에
서 종이방 하고 있어요. 송지방이라고.

질문자 : 아... 지금도 인사동에 송지방이라고 있어요?

구술자 : 네네. 전주 송지방, 그 옆에가 전주지방. 그 사람이 내 친구였
었는데요. 왜정 때부터 같이 친구 도망댕기고 그랬었거든요.
군대 안 갈라고. 근데 인자 해방되가지고 국군에 들어가가지
고 헌병이었어요. 그러 내가 살았죠.

질문자 : 그러면 친구분 사실 때도 필방같은 거 하셨어요? 송지방.

구술자 : 응응. 제대한 뒤에도 필방하고 내가 불란서 가기 전까지는 내
깎다운게 죽었다고 허대요. 내가 전주에 자리를 많이 비웠거
든요.

질문자 : 그 때 그니까 송지방이 전주에선 가장 큰 필방이었던거예요?

구술자 : 네. 그러고 어... 이... 임지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종이를 송광
서 맨드는 사람이고.

질문자 : 송광? 송광사?

구술자 : 네. 송광사. 임지방. 그게 인자 저... 어... 삼남일보하던 임동환이란 사람 형이 했죠.

질문자 : 여기는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곳이었는데? 임지방은요.

구술자 : 네네.

질문자 : 송지방도 종이도 이렇게 하고 그랬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했을 거고.

구술자 : 아니. 저그 거그가 어디야. 은석골에서 종이를 만들었죠. 송지방도.

질문자 : 흑석골 말씀하시는?

구술자 : 흑석골, 흑석골.

질문자 : 송지방은 흑석골이고 임지방은 송광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구술자 : 네네. 송광사.

질문자 : 이게 지방이라는 송지방이라는 게 이름은 아니죠?

구술자 : 네. 종이 종이 종이방이라는거요. 네, 종이방.

질문자 : 그런데 그 흑시 성함은, 이름은 송지방했던...

구술자 : 내가 그 이름을 다 잊어먹었어요.

질문자 : 그냥 송지방, 임지방 이렇게만 기억을...

구술자 : 그 아니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질문자 : 송지방이요?

구술자 : 예.

질문자들끼리 대화 : 어디 연관 같은거하면 안 나올랑가? 고 송지방 이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동의 송지방을 한 번 가봐

야겠구만.

구술자 : 아니. 저... 전주에 지금도 뭣... 조그만하게 필방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들이.

질문자 : 송지방 아들이?

구술자 : 예.

질문자 : 고려당하고 관계는 없는가요?

구술자 : 예. 고려당은 그게 고려당은... 나중에서 생긴거요. 임지방 자리가 고려당이여.

질문자 : 지금 오... 어떤 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구술자 : 예. 오... 오... 거그도 나하고. 그... 그 부인이 그 저 김일성대학 나오고 여군으로 왔을 적으 같이 구해준 사람이지, 부인은. 그러가지고 같이 그... 내일이쳐로 살고 있었쥬.

질문자 : 그럼 선생님 당시 필방이 송지방이나 임지방이나 다 인제 중이도 팔고 뭐 그림 그리는...

구술자 : 물감도 팔고.

질문자 : 그런 일도 했겠지만, 또 그러한 인제 작가들이 좀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또 뭐 교류도 하고 이러한 쪽의 기능들은 없었던가요?

구술자 : 인자 해방되서는... 예... 남문화방이라고 거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화방으로는. 그리로 다 모았쥬.

질문자 : 아... 육이오 후에?

구술자 : 예예. 아니 육이오 전에도 남문화방이 있었어요. 남문화방이 어딘가구니 남문 저쪽에 그... 저쪽 편에 그...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전에 권번자리에. 권번자리에 거에 남문화방이 있었어요.

질문자 : 아... 그 권번자리에 남문화방이 있었습니까? 건넌 것 같은데.

구술자 : 예. 건너 남문에 건너. 권번있는데. 거기.

질문자 : 선생님 뭐 혹시 이렇게 그 무슨 협회, 무슨 조직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해방 그 전주에서 활동하실 때.

구술자 : 있었죠. 있었는데 나는 그런데 예... 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게 사실 예총에서 어... 회장을 하라고 하고, 중앙에서도 회장 하라고 해서. 중앙에서 예총 부회장까지는 잠깐 했지만. 내가 하지를 않고 목포 출신 저... 누구더라 아이고, 조... 누군가 그 여자가 대개 하고 회장까지 그 여자가 다 했지만은. 음... 신영균이하고 나하고 친하니께. 내가 영화에 가끔 나가고 하니께 신영균이 하고 친하고. 그리고 이강천이가 인자 신영균이를 저 데뷔시켜서 그렇게 유명한 배우를 만들었거든요. 군산출신 이강천. 그러서 인자... 그 사람이 예... 예총 회장을 지낼 적으 내가 할 수 없이 부회장을 승낙을 했죠. 나하고 친구니께. 형님이 부회장을 좀 해주십시오. 부회장이 들인데 목포출신 여자, 문학하는 여자가 조... 누구더라 아이고 내가 이제 다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하고 부회장 내가 부회장 7년간을 했으니께. 부회장을.

질문자 : 선생님이 영화에도 잠시 출연했던 기록이 어디 있더라구요.

구술자 : 많아요. (모두 웃는다.) 그런디 이 내가 유명해요. 발만 나오는 배우, 손만 나오는 배우. 내가 그림을 그려야하니께 얼굴을 못 나오게 하고. 우선 아쉽게 돈을 벌어야할 것 아니어요. 밤을 통보한다는 데는 저... 그게 지금은 광주시장허는 누구냐.

질문자 : 황익태?

구술자 : 아니. 배우로서 국회의원 세 번하고. 저... 아이고... 이대엽, 이대엽이.

질문자 : 아... 성남시장.

구술자 : 예. 이대엽이가 주연인데 아, 형님 어떻게 해서 악한 역할이라도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부라도 맡든지 그러냐고 밤을 통 보한다. 이 조진구가 썼어요. 조진구라고 전라북도에 유명한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인자 그러서 아이... 내 그림 그리니깐 그런 거 안는다고. 그러고 인자 감독보고서 나는 저... 이... 세역을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얼굴 안 나오는 역할로, 팔만 나오는 거, 또 지킴쪽 요렇게 구경하는 거. 그러고 인자 땀동하나 들고서 요렇게 꼬덕꼬덕하고. 그것이 연기죠. 그러고 피아골에는 인자 내가 어... 반역자로 나오죠. 저... 예... 이... 누구였더라. 이예춘이. 가 인자 우리 거그 저 아가리라고 허가지고 빨치산 대장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인자 어... 그... 쫓병이 되고 허가지고 하는데. 총살하는 거까지가 나와요. 지금도 가끔 그 배우지만요. 피아골. 유명한 영화니깐. 지금도 이강천 감독이 내 친구니깐. 이강천이가. 그런데... 그 영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십대 영화 속에 들어간단 말이요. 거기에 내가 이제 예춘이가 총살하는 데 까지 나오죠. 게... 얼음이 안 얼어서 우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대충 얼음을 얼터록 하고. 그 장면 한 번 찍기 위해서 거그 서 인자 내가 인자 이예춘이 인자 아가리에 그... 총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걸 몇 번 했어요. 왜냐. 얼음을 깎서 넘어가야 허가거든. 그러서 얼음을 이래놔는데. 내가 다칠까봐 그렇게 못허. 그러서 세 번 해가지고서 그 성공해가지고. 그 때 김진규는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김제출신이거든요.

질문자 : 아... 김진규가 김제출신이에요?

구술자 : 예. 근데 전주에서 완산국민학교를 댕겼어요. 김진규가. 가네 아버지가 이제 저 거시기... 저... 김제 군수였었어요. 그러서 인자 해서 진규하고 나하고는 친형제같이 지냈죠. 전주천에

서 같이 뛰어놀고 그랬었는데. 에... 이강천이라든가, 김진규 모두 다들 신상옥이 정말 에... 쟁쟁한 멤버들허고 허는디. 나는... 좋은 역할을 한 번도 안하고 발만 나온다든가, 손만 나온다든가. 그러도 역할을 많이 준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죠. 그 때 단역 한 카트 나가는데 하루 점드락 걸립니다. 그러도 2만 5천원 컷어요. 글고 나는 그러도 어... 연기가 좋아서 그런가 어쩐가 빨리 끝나고 또 돈 십만원 쥐빠부려. (모두 웃는다) 이... 그러서... 에... 필문답 뭐냐, 고 헌게 또 산새터에서는, 아... 마음에 고향에서도 저그 저... 최은희가 어머니. 내 어머니 역할을 허고. 내가 27살 때 머리를 뽁뽁 깎고 중... 그... 동승으로. 뭐 저, 마음의 고향에 동승이였거든요. 거기에서 인자 내가 그 최은희씨가 버린 자식, 어머니로 나오고. 산새터는 숯 구워서 인자 내가 밀고 인자 시장으로 어머니가 인자 저 리어커 끌고 허서 팔려나가고 허고 그러고 헌거. 필문답 뭐냐고 허서는 옛장사도 허고 그... 이걸 헐 줄 모른게 가위질을. 가위 옛갓이 어찌고 저찌고 그것을 열흘간을 공부를 했어요. 옛장사한테 가서 그러가지고. 북한산성 그, 관광지에서 옛을 팔고 있고 헌디 인자 어, 그 때는 우리 마누라로 나온 사람이 내가 인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박이나 허고 하다가 이자 옛장사하니께. 그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저 마지막 영화(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르킨다.) 저 추석영화여요. 그 저, 유인촌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으, 유인촌이가 쓴 ‘아버지 돌아오다’ 그 영화장면여요. 그러서 인자 저그 마지막 장면.

질문자 : 94년이네요? 선생님.

구술자 : 네. 마지막 그... 한 번 저... 유인촌이 아버지가 지가 쓴 건게

니가 한 번 나오니라. 근디 나는 조금 나와요. 남산에서 불란서에서 돌아와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남산에 와서 나 있을 곳이 어디냐하고 그러는 대사 몇 마디 있고. 그 저... 아들네 집을 이게 유인촌이네 집을 찾아가. 그런게 아들네 집을. 며 누리가 아침에 장보러 가다가, 시장에 가다가 나를 보고서 지금도 이런 거지가 있네. 거그서 내가 인자 다시 해서 묘를 우리 친구한테 인자 그 묘를 가서 인자 거그 가서 소주 따러놓고 꽃 하나 놓고 요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들이 오는 걸 보고 내가 저 논두렁으로 가요. 그거 봉동서 찍은 거여요. 봉동. 지금 가 봉동이 고향인게. 인자 그 저 거시기.

질문자 : 유인촌이?

구술자 : 예. 그러 인자 논두렁기 타서 요렇게 가는 걸 보고. 아들들하고 누가 여기다 소주병을 놓고 이랬는가 하고. 어... 거기 돌아본게.

질문자 : 유인촌씨가 봉동사람이구나. 자긴 아니라고 하던데.

구술자 : 어. 돌아보니께 저 멀리 가거든? 아... 그게 저 보통 그죠.

질문자 : 유인촌씨 아버지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구술자 : 유탉.

질문자 : 이 분 뭐허셨던 분이에요?

구술자 : 희곡 썼어요. 마지막 영화 하나 시나리오 쓴 것이 ‘순이야’ 그 저... 순이야라는 죽은 뒤에서 개봉됐었죠. 그 저... 북한에서 데리고 온 딸이 서로가 어긋나서 마주쳐서 순이를 찾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 됐을 적으 인자 딸을 만나게 됐는데 마지막 이름 “순이야” 그러고 끝이야.

질문자 : 전주에서 예전에 영화를 많이 제작했나요?

구술자 : 에... 그 때... 에... 해방돼서는 전주가 한국의 할리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정 때 제일 먼저 촬영한 데가 아리랑. 아리랑을 부안서 촬영하고, 아리랑 3편까지 있었는데, 2편은 서울서 촬영하고 3편은 부안서 촬영하고, 그러고... 어... 임자 없는 날 옆에는.... 저기 임진각은 임진각에서 찍었고, 에... 옥단춘전을 저 임실 그 저 사선대에서 찍었어요. 김진규 어... 주연으로 해서.

질문자 : 그거 현준호씨 집에서도 찍었잖아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옥단춘.

구술자 : 예.

질문자 : 현준호씨 집에서.

구술자 : 전주서 찍었어요.

질문자 : 광주서.

구술자 : 예?

질문자 : 광주 현준호씨 집에서 옥단춘 찍었잖아요.

구술자 : 예. 거그도 물론 거창하게 거그가 허지만은. 제일 거시기 한거
가 저그 저... 사선대예요. 사선대에서.

질문자 : 윤인자죠?

구술자 : 예.

질문자 : 윤인자 옥단춘.

구술자 : 예. 이... 유... 윤인자

질문자 : 그런데 왜 이렇게 전주에서 이렇게 저 한국 할리웃이 된 게
왜, 배우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구술자 : 예. 그거 인자. 그것이 지금 내가 미술 그 협회가 된 이유, 또
영화 협회가 된 이유. 그게 전부 전주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박남재... 그림 그리는 박남재 동생이요. 영화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죠. 나하고 친했는데. 그러고 감독들 많아요. 군산 출신들. 이강천, 신상옥, 거 누가 또. 그러고 김성... 김성호라고 유명한 그... 그 사람이 경기도 사람인데도 전주와서 피난을 전주로 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영화를 많이 했죠.

질문자 : 그런게 영화배우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를 전주에서 많이 했네요?

구술자 : 그렇죠. 네. 이 저... 유명헌 또... 신인들도 많이 나왔고. 예... 여그... 전주에서. 예... 송명선이라고 권투선수허던 사람도 내 친군데. 군산서 그 저 영화배우로 다 됐고. 어... 이강천이 때문에 이강천이가 전주 있었거든요. 전주.

질문자 : 네네. 음... 그래서 그 영화를 일으키는데요? 결국은요?

구술자 : 그러고 조진구가 군산 출생인데도 전주에 있었어요. 조진구.

질문자 : 네. 조진구씨두요?

구술자 : 예. 조진구. 아리랑 쓴 조진구. 아리랑 영화 허가지고 큰 돈 벌었죠. 큰 돈들 벌었어요. 그 돈 댄 사람들은. 그러고...

질문자 : 그렇게... 그렇게 나온 영화거...

구술자 : 아니. 나운규가 안 나온 아리랑이고.

질문자 : 그 앞이에요?

구술자 : 아... 그... 저... 그 앞에 찍은 것이 아리랑이 나운규가 나온 것이 부안서 찍은 거고요. 아리랑. 예. 백사장이 읍어서 그 백사장을 어디로 가서 찍었는구니. 저그 저 섬진강 저 아랫도리 가서. 백사장.

질문자 : 압록.

구술자 : 예. 아니 압록 밑에요. 백사장에서 찍었죠. 또 어... 피아골도

그 백사장에서 마농레스꼬라고 왜 저 영화있었죠? 마농레스꼬, 그 영화를 보고 뒷 장면이 모래 끌고 가는 거. 여자가 김진규를 끌고서요, 요렇게.

질문자 : 그러면은 당시에 전주에서 그 스폰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이렇게 영화인들을 돕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술자 : 예, 부안에는 많았어요. 부안 사람들은, 아리랑 저 나운규를 위해서 찍은 사람들이 김부자라고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김부자. 그... 그...

질문자 : 부안에?

구술자 : 예, 그 집 보면 차천자네 집 갔다가 지었죠. 차천자가 망했을 적에, 차천자.

질문자 : 차천자가 누구예요?

구술자 : 정읍에.

질문자 : 증산교, 증산교 그 보천교.

구술자 : 예, 차천자, 아주 일본사람들도 거그 다 모두 미쳐가지고, 정읍에 차천자.

질문자 : 그럼 지금 이 집이 부안에 있나요?

구술자 : 일부는 있을게요. 일부는 있는데 집들... 거그서 또 갔다가 저 내장산 불나가지고, 차일현이라는 사람이 불나가지고 빨치산들이 와서 잔다고, 기거한다고, 이 내장사 전부 다 대웅전이고 뒤편 났는데, 대웅전이고 뒤편 그 차천자네 집 써다가 지었죠.

질문자 : 네, 전주에서는 누가 스폰서 이렇게 돈대는 사람 있었어요?

구술자 : 전주에서는... 음... 세무청장 아니 저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지금 뭐이죠? 그 저... 광주에 있는

질문자 : 국세청?

구술자 : 국세청, 응, 국세청장하던 사람이 돈을 낸 것이, 그 때는 세무

청장이어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돈을 낸 것이 김병기라는 사람이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저 피아골에 다다 돈 대서는 거그서는 밀져서 이승만 박사가 인가를 안 혀. 왜 태극기는 하나도 없고 경찰만 죽냐. 빨치산 영화니께 경찰만 죽죠. 그러고서 나중에 '자유의 종' 할 수 없이 태극기를 냈죠. 일 년 만에 태극기를 다시 찍어가지고 꼬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종소리가 나면서 인자 끝이 나는데. 그러서 생각해... 돈을 거그 다 찢러 넣고서 같으면 일본말로 다이모토라고 하거든. 전주. 그 뭐가 돼요. 저 허는디 어서 또 돈을 내가지고서 아리랑을 제작을 했죠. 아리랑 제작에는 미국 사람도 나오죠. 호박도 먹고 고구마도 캐먹고. 호박 저그 배고픈게. 어... 그러서 인자 그 아리랑 그것에서는 큰 돈을 벌었어요. 서울서 개봉하는데. 그 때는 16미리에요. 35미리가 아니고. 그 저... 단성사, 국립극장, 국도관, 국도극장. 세 군데서 개봉을 했어요. 그러고도 다 못혀서. 다른 영화들 1주일 허는디. 그건 한 달을 허고도 손님이 강...

질문자 : 전주에서 찍은 영화예요?

구술자 : 응. 아리랑. 거그 우리 딸도 나와.

질문자 : 그때 전주가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구술자 : 그 사람, 이... 이 누군가가. 그러고 거그서 조금 돈 댄 사람이 이... 김영창, 김영창씨라고 있어. 그 그림 그리는 영창씨가 아니고 영화감독 김영창.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영화혀서 망혔지. 김영창 감독.

질문자 : 그 영화 영화 끝 장면에 종대 울린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구술자 : 예예.

질문자 : 그 멋있죠?(그 다음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 녹취가 생략)

구술자 : 예. 그러서 인자 그것을 그려가지고. 그러서 이박태(?)가 승낙
을했어요.(질문자가 구술자에게 차를 권한다.) 그러고 저...
전주서 영화 ‘성벽을 뚫고’, 반공영화 ‘성벽을 뚫고’ 이강천이
가 전우... ‘전우는 살아있다.’

질문자 : 학교서 본 것 같네요.

구술자 : 네. ‘전우는 살아있다’ 이강천 감독. 이강천 감독은 저 영화하
는데 너무 예술적이라봐서 손님이 안 들어와요. 예술감독으
로서.

질문자 : 네네. 연세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슷하셨던 모양이에요.

구술자 : 거그 저 나보단 한 살 밑에죠. 신상옥이도 나보단 한 살 밑이
고.

질문자 : 누구?

구술자 : 신상옥.

질문자 : 피아골이 왔을 때 보고 싶었는데 옛날에 영화관을 가는 게 그
렇게 쉬워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옛날에 영화관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구요. 그
려서 못 갔어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포스터가 노경희 머리 이렇게 길어갓고 썩 나오는 거.

구술자 : 예. 노경희. 예. 노경희가 전택이 부인이거든요? 전택이라고.
왜정 때 유명한 사람이요.

질문자 : 예. 춘향전의 방자.

구술자 : 나하고 다 친한 친구들인데. 다 죽고.

질문자 : 도금봉이도 나오죠? 거기.

구술자 : 예?

질문자 : 도금봉이도 나와.

구술자 : 도금봉이는 그 저... 전주에서 어린 애 낳죠.

질문자 : 아 그래요? 쌍둥이.

구술자 : 그것이 저... 거시기 우리 죽은 마누라가 갔다 전부 미역국 끓이고. 다 했어.

질문자 : 네...

구술자 : 김승호 아들은 내가 업구댕김서 즈 엄마 출연허지, 즈 아버지 출연허지 험다치면. 울어쌌고 내가 업고 땡겼어. 등에 인자 오줌싸고.

질문자 : 등에다요?

구술자 : 예. 그 전주 앞. 나 어드가 있는 줄 알으만은 올 편여요. 김희라는 저그 아버지 죽은 뒤에 허기야 저 유인촌이도 그러고. 저그 저... 뭐다. 저그 아들도... 이덕화도 그러고. 저그 아버지 죽은게 모다 나보고 아버지라고.

질문자 : 이덕화 아버지가 누구더라?

구술자 : 이예춘이. 이예춘이허고 나허고가 제일 많이 나와. 많이 나왔어. 아가리 아들.

질문자 : 근데 아까 오셨던 분도 아버지라고 하더라. 왜 이렇게 아들들이 많아요?

구술자 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 그 양반은 아까 김종섭씨라고 이 뒤에 좌지우지한 최고의 건달이죠. 그 전,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 건달 대장이었어요.

질문자 : 조폭. 조폭 두목이었구만?

여 성 : 조폭 두목이었지.

구술자 : 두목이요. 오야붕.

여 성 : 아주 유명한 사람이여. 김종섭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아주 1등으로 가는. 근데 그 사람이 간 이식을 해가꼬 다 죽게 생겼는데 이식을 해가꼬 살아났어요.

질문자 : 그럼 조폭 두목보다 선생님이 더... (웃는다)

구술자 : 어. 아니 저 작년에 저... 저... 서울 갔을 적으 낙원동에 가니까 사람들이 젊은 애들들 줄서서 90도로 쪽 허니 늘어서서 나한테 절을 혀. 뭔일이냐고 그랬다. 내가 이 종로의 오야붕이었었다.(엄지 손가락을 치켜든다.) 그러던데.

질문자 : 아... 그랬군요. 아, 선생님이?

여 성 : 아니고 옛날에 정치... 그 사람이 고려대학을 나온 유명한 정치 깡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구술자 : 정치깡패.

여 성 : 선생님보고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래갔고.

질문자 : 임화수 말고?

여 성 : 네? 임화수 아니고.

구술자 : 임환수...

여 성 : 임화수. 그 밑에지. 그 양반이.

구술자 : 그 밑에지 바로. 말하자면. 임화수 밑에.

여 성 : 임화수씨 밑이래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인물이 너무 잘 생긴거예요. 집안이 훌륭하고. 병원까지 하고 서울에서 아버지가. 그런데 그 양반이 선생님을 좋아해서 형님형님하면서 우리 형님 인게 느네들은 전부 형님으로 모셔라. 인사를 허고 갔어요. 그 양반이 그러. 우리 형님이 옛날에 동네 오야붕이라고 근게.

구술자 : (웃으면서)깜짝 놀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여성을 가르킨다.) 놀래가지고.

여 성 :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하더라고 자기가. 선생님은 키도 쪼꼬마시고 그림을 그리면은 옛날에는 깡패들이 막 그림그리는 사람들에게 막 그... 여관에다가 옛날에는 막... 데다놓고 막 그림을 몇 점 그린다, 몇 점 그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그 깡패 대장이 선생님을 뭔가 보호를 해야겠는데 이 보호를 어떻게 하나, 그럼 자기 형님으로 모셔야만이 보호를 받고 유명한 화가가 되겠구나. 허고 그러서 모두 그 자기 밑에다 있는 사람들 쫓 붙여놓고. 내가 이 형님을,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니까 니네들은 어 내 우의 형님인게 최고 형님인게 형님대접을 해주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허드래요. 근게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제 어디만 가도 그 분들이 만나서...

질문자 : 90도.

여 성 : 90도로 허고.

구술자 : 아니 낙원 너 애가(손으로 표현한다) 이 양쪽으로 쭉 허니 다 서간게, 깜짝놀라 왜 그러냐고.

여 성 : 아, 나는 진짜 깜짝 놀랐던게 한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래갔고. 그 양반이 그래갔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 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근데 습관이 되가지고.

구술자 : 그러서 종로간다치면은 그냥 떡집이고 어디고 강 내가... 나만 오면 떡도 그냥 공짜로. 돈 줘도 안 받고. 뭐 어디. 책 집에 가도 그러고. 어떤 술집에 간다치면 술도 그냥 공짜로. 오야 봉인게. 최고.(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 모두 웃는다.) 아니

요. 내 친구들 가면요. 왜 너한테는 저렇게 춤뽕이 막 여기저기서 달려오냐. 가들이 안자있으면 가들이 저 양반 술, 술 값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뉴욕까지 소문이.(모두 웃는다) 뉴욕에 간게 저 마피아 지가 마피아 그 뭐 꼬붕이라든가 뭐라고 하면서 나를 오라고 해서 어 군산 출신이여.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이 나 지금도 있어. 이만은 혀. 수지 김.

질문자 : 음...

구술자 : 어. 군산출신이라고. 그러서 본 게 나를 본 게 그 깡패들이야. 그 저... 종을 올려.

질문자 : 네...

구술자 : 골든벨을 올리면은 술값은 지가 다 내는거여. 거그 온 손님들. 막 박수를 치고도 그렇게 해서 그 때 저... 내가 에... 이.. 저... 익산 시장, 이... 한...

질문자 : 이한수?

구술자 : 어?

질문자 : 이한수.

구술자 : 이한수던가?

질문자 : 지금 현재, 현재.

구술자 : 아니 그 전 시장. 미국서 왔던. 그러고. 거그도.

질문자 : 네 맞아요. 전 전 시장.

구술자 : 저... 어... 임형식이 막내동생 임... 임성희. 임성희 박사. 그러고 어... 저기 저. 김대중씨. 거그... 나하고 거그 서이 사진 찍은 것도 한국일보에 나왔더만.

질문자 : 음...

구술자 : 인자 나오면은 너 인자 전두환이 헌테 인자 그 뭐, 뭐 어떻게

라고 그러냐구. 아니 그 걱정말으라고. 내가 그... 그냥 암말 없드만요. 근디 그 때에, 내가 김대중씨를 거그서 어... 그... 병원하는 그 아줌마 부인보고 좀 그 양반을 많이 도우라고. 그 양반 그 저... 건강이 나빠지면 안되니까. 그라고하고, 이 야기했지 거그도. 김대중이하고 거그서 찍은 사진도 있고, 임 상희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있는디. 내가 인자 제일 어... 지금도 자랑같아서 이야기를 안는디. 미국 저 불란서 가서 르싸 룡에 금상을 받았을 적으.

질문자 : 네.

구술자 : 받으면 인자 그 저... 이... 대통령 부인이 와서 파티를 혀요. 해줘요. 거그서. 그 파티를 할 적으 대통령 부인하고 춤도 추고. 나는 키가 적고, 그 양반은

질문자 : 크고...

구술자 : 크고. 나는 적고한디도. 춤도 추고. 그때 오지호 선생님도 거 그 옆에 계셨고. 막 사진. 또 노서아 갈 적에, 그 때는 스탈린 댜디. 그러도 모스크바 가서 대우를 받고 그러고 왔어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왔는디. 내가 뭇 말을 혀고 싶은구니. 이런 얘기를 혀게 혀드라까지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 이것은 속을 비웠어요. 누가 뭐라고혀도 아무 소용없어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나는 아마 돈을 벌, 벌으려고 혀으면 영화배우 혀으면 연기력도 좋고 헌게 큰 돈 벌었을거요. 글도 싫꾸, 명예도 싫꾸 다 희갑이 하고 나혀고 나온 영화가 제일 많아요. 예... 이... 저... 삼천리 강산에선가 뭇가 그 왜 그거 찍을 적이요.

질문자 : 팔도강산.

구술자 : 네? 팔도강산.

질문자 : 선생님 그냥 하반영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명 안 쓰시고?

구술자 : 아니, 기냥 하반영이라고 해서 나오지만. 이 그 저... 그거는
정부에서 돈 대서 찍은 것이고.

질문자 : 아 맞아. 팔도강산이.

구술자 : 네. 글도 그 저... 내가... 저그 목포편을 찍을적으는... 그 때
여자가 누구냐... 어... 그 저 누구지? 제주도 출신 배우가 누
구지? 여자, 여자 배우, 제주도 출신.

질문자 : 고두심?

구술자 : 응. 고두심이 처녀 때. 참, 그 참, 그 때 거그서 인자 나하고
희갑이하고 그렇게 찍었고. 여그 박정희가 여그 저 부안 대견
왔을 적에, 얼마 안돼요. 대견은 지가. 거그 서 인재 김희갑이
하고 나는 수염 길르고 그 동네 노인으로 나와서 이 다리가
일본 사람들이 설게, 일본서 했는데 일본 사람도 몰살이 세서
이 다리를 못 났다. 희갑이 보고 얘기를 허거든. 근디 우리나
라 손으로서 요렇게 했다는 것. 어? 대견스럽지 않냐? 허고 희
갑이 한테 물어보고. 아~ 그러냐고. 허 그런 영화도 찍고. 별
군데 다 가서 찍었어요. 팔도강산.

질문자 :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전주, 전주에서...

구술자 : 아니, 근데 그러면 희갑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와서 삼일 간
있다가 가죠. 김진규도 죽기 전에 나한테 일주일 있다 와서
가고. 선배라고 죽기 전에 다 와서 그러고 가서 죽어.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그러니. 내가 어떻든, 인복을 타고서 요렇게. 그러고 서울에
임화수. 또 어... 누구냐 그 저... 종로깡패 그 임 누구지?

질문자 : 이정재?

구술자 : 이정재, 이정재가 통상으로 꼬옥 데리고 돈을 쥐, 이렇게 데리고,
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나는 그때 충무로에 있을 적인데, 돈을 그렇게 헐어도 내게는
지금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초만이 알고 있어. 저 좃불만이
알고 있어요.

질문자 : 선생님 옛날 전주에서 그 술 드시고 막 그 정읍집에서 막 선생
님들하고...

구술자 : 그렇죠.

질문자 : 그게 참 그 전주의 역사가...

구술자 : 그렇지. 아, 참 전주에 유명한 곳이 정읍대학원이라고 막걸리
집이여.

질문자 : 정읍대학원, 정읍집

구술자 : 응. 정읍집. 그게 어디가 있었는구니 객사, 객사자리.

질문자 : 앞에?

구술자 : 응, 앞에. 조그마한 집. 거그서 헐 적에, 내가 거그다가... 발을
들여놓고 있을 적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어.

질문자 : 네.

구술자 : 참 그러서 그림 한 장씩을 걸어라. 헐가지고 서울서 기냥 대구
에서 부산서 광주서 전부 술 먹으로 글로와. 어떻게 생긴 집이
그렇게 유명한가.

질문자 : 네...

구술자 : 내가 맨들었죠.

질문자 : 아... 네...

구술자 : 그러서 예... 시인들도 오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제일 많이 그 내가 데리고 땡긴 게 최승범이. 최승범이 데리고 땡겼지.

질문자 : 아... 네...

구술자 : 최승범이. 최승범이하고 나하고는 땡래야 땡 수가 없었어. 왜냐 지 장인이 신석정 선생님인게. 내가 또 좋아하신 분이요 또 그랬는데. 그 때 거기에 온 중에서 누가 있는 구니, 칼 회사 부사장하는 누구야 그...

질문자 : 조... 조중후씨.

구술자 : 조중후씨 동생. 이 낚시질을 하러 가다 운암으로. 거 유명하다고 왔는데. 별로 별것도 아닌 막걸리 집이거든? 도손허니? 그래서 인자 거그다가... 내가 인자 칠판이 있웅게 칠판에다 시를 쓰지. 한시를.

질문자 : 네.

구술자 : 에... 이... 화형은 천지가 할 망정 그 말이 지금 말하자면 화형 천지라는 말.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부자가 천리를 갈 망정, 정심은 만정이다. 정심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것이다. 정심. 만정. 정이라는 건 길 정자씨요. 어... 끝이 없다. 거 그 다 그 다음에가 인자 겁이죠. 그러서 그걸 쓴 게 고 그저 아무것도 몰라. 아니 비행기 회사 그 저 부사장이 그것도 못 읽냐고. 험서 내가 험지. 꽃냄새 천리를 갈 망정 인간의 정만은 못한다는 얘기다. 니 돈이 그렇게 많아도 없는 사람들 막걸리집에서 술먹는 서민들만 못하다. 이게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게 정읍집 그 유명한 데.

질문자 : 그러면 정읍집에 그림을 아까 걸어놓으라고 했다고.

구술자 : 응 그러서 그림을, 그림을 많이... 에... 내가 박남재, 박명보다 에... 내가 말하는 데는 다 갖다 붙이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런데 그걸 그만두기 이전의 그 이십년 전에 내가 불란서 갔다왔더니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 그림만 팔아가지고서 다는 안 팔고 조금 팔았는데도 또 한 삼천만원 돼서 집을 샀다고 그러드만.

질문자 : 정읍집 파신 분이? 사장님이?

구술자 : 네.

질문자 : 그 그림을 팔아가지고?

구술자 : 네.

질문자 : 그 때 당시 아까 그 지금 저 박남재 선생하고 그 드나드는 그 정읍집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어요?

구술자 : 한소희.

질문자 : 한소희.

구술자 : 박민평, 박남재 아이 거가 다. 그리고 또 서울서 모더 그 저 오죽허야 그 저 어... 누구여. 옛 우리가 미술협회를 맨들었던 본 장인들은 다 왔었지. 저... 어. 박덕순씨 또 누구여. 이... 이수억. 모다 그 전부 좌우간 도상봉, 또 임하동. 그림 그리는 미술가들이 내 나를 만날라고 나 만날라든 그 집에 가야 만나 거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러서.

질문자 : 그거 만드신 동기는...

구술자 : 그 집이 어려운 게 돕기 위해서.

질문자 : 아 네... 그 때 당시 유명한 게 정읍집 말고 참 어느 집이 유명 했어요? 막걸리집서.

구술자 : 거 다른 집은 인자 예... 저 신석정 선생, 김영창 선생 뭐 그

때 있는 집 거기는 이화집이라고 있고, 또 하나, 이화집이 제일 유명했지. 이대 나와 가지고 피난 내려와 술장사를 했을게.

질문자 : 그래서 이화라고 했구나.

구술자 : 그러서 이화집이라고 했죠.

질문자 : 그러면 지금 이 당시 저기는, 그 저기 행원은?

구술자 : 아 인자 그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아니 그건 인자 내가 조금 옆으로 흘러가서 그 얘기를 안 했는디. 해방이 돼가지고 피난을 부산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이쪽에 와서 있을 데가 전주여.

질문자 : 네...

구술자 : 특히 문학을 한다던가 어.. 그 저 그 그림을 그린다던가 또 영화연극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전주로 왔죠. 전주로. 그러서 그 때는 이... 미국 그... CIA집이 그... 저... 요렇게 동그랑으로 허서 지은 집이 두 동 있었어. 중앙동 2가에.

질문자 : 응응.

구술자 : 거기에 두 동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인자 미국 사람들의 그... 선전부고 국가 선전부고 또 거그서 비밀을 따지는 하나의 어... 교훈실이 되었고 그렇지. 그러서 인자 대화실이지 우리와 미국사람과.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때에 거그서 미술가협회를 맨들자 해가지고서 예... 한국 미학을 맨들었어요. 맨들을 적에 인자 김영창 선생이 인자 금룡 김영창 선생이 거그 주가 되가지고 거그도... 저도... 도상봉 선생, 임화... 임화동 선생 아니 임화동 선생 광... 저... 부산으로 갔고, 예... 또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 인자 돌아가신 분은 도상봉, 박덕순씨도 다 돌아가시고. 내가 이름을 다

시방 외우도 못헌데 그러서 전라북도 사람이 거그 헌 것은 전영상이라고 있어요. 만보라는 그 만화를 그리는 전영상. 전영상이 초대 사무국장이지.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라고 김영창 선생님이 인자 어... 초대 회장이 됐지.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러고서는, 인자 그 거기 인자 회원들은 배영식이 뭐 나 전부 다 이의주다 뭐이다 모다 다 들어갔는데. 부산서 온 사람들이 한국미술협회. 여 우리는 대한미술협회다 한국미술협회를 거 그서 또 맨들었어. 가지고 한 3년간은 서로 다투고 허다가 합쳤지. 지금은, 그서 여그서 그 미술협회가 탄생되었다는 거. 허고 그러고 인자 나중에 신석정 선생, 백양춘 선생 허서 설창수 선생 다 모다 모아서 여그서 인자 박목월 선생 허서 인자 여그서 문협을 또 맨들었쥬. 그 후에 미술협회 다음에 문협을 맨들었쥬. 거그 어... 백양춘, 신근씨도 들어있고, 그 때 그러서 인자 음악협회는 천... 천 뭐냐... 아이... 피아노 허던 아니 테너허던 모다 다 잊어버렸고만. 천기장 어 음악. 그러서 그러 가지고서 거그서 인자 협회를, 문, 예술협회를 맨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김해강 선생님을 제일 처음에 한국예술협회 회장을 맨들었는데. 서울가서 갈라졌거든요. 서울로. 그 사람들 환도해가지고서. 그러서 서울예총이 나중에 됐어.

질문자 : 예... 그래서 전주에서 한국예술협회를 처음으로 만들고 김해강 선생이 회장을 맡았는데

구술자 : 예.

질문자 : 이 사람들이 서울가가지고 두 개로 쪼개졌다 그 얘기쥬?

구술자 : 그 아니 부산서 온 사람들이.

질문자 : 아, 부산서 온 사람들이?

구술자 : 어.

질문자 : 만들 때는 전주에서 한국예술협회를 만들고.

구술자 : 어. 만들고, 근게 부산서 온게 자기들이 맨들은 어 한국 장이라 뭐라고 또 해서 그 해서 그거 때문에 한 삼년동안을, 아웅다웅 서로 싸우고 하다가, 그런게 인자 언제 그랬는구니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각 도마다 개가 따로해라 했지.

질문자 : 음음... 그거 저...

구술자 : 그 이전에는 문화상 제도를 중앙에서 했거든. 김종필이, 그러서 그 후로 1년 후에 있다가 각 도마다 따로따로 해라. 번거롭게 하지말고 서울까지 하지 말고 해서.

질문자 : 그거 선생님 한국 전쟁중에 육이오 때 그 전주하고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저그 전주 쪽 예술가들이 많이 피난와서 지금 협회도 만들고 그러한. 전쟁 때 전주도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게 컸을텐데, 부산은 점령이 안됐지만.

구술자 : 아니요. 없었어요. 저그 다가동에 저 군수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연 거, 거그다가 폭탄만 떨어졌죠. 거가 인민군들이 있는 줄 알고, 인민군들이 점령했을 적으 거그에서, 다가동 일대가 조금 헛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삼레 다리를 끊고 밤에 와서는 폭격해서 끊고.

질문자 : 그러면 지금 그 예술인협회 중에 국악을 미술협회?

구술자 : 국악협회는 누가 했던가를 모르겠어요. 모른데, 거 아까 허산 옥씨는 국악협회로 안 들어가고 미술협회로 들어왔죠.

질문자 : 그 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국악활동 하던 사람이, 아, 지난 번에 전주국악원의 임방울씨가 그 권번에.

구술자 : 임방울씨는 여그 사람이 아니고 저... 그... 저... 정읍사람이거

든요.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고부. 고부사람.

질문자 : 고부.

구술자 : 예. 임방울이. 그 자식들은 전부 전주에 살고 있어요.

질문자 : 그러니까 당시에 권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안인들이 이 전주 국악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술자 : 전주국악원 안 만들었어요.

질문자 : 안 만들었어요?

구술자 : 예. 맨들었는데도 그것이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은 돈 별로 땡기느라고 사람이 뭉쳐지지를 못했어요. 그러서 예... 국악 협회가 된 것이 얼마 안돼요. 그 저... 국악협회는.

질문자 : 근게 돈 별로 다니는 것은 소리허로 돌아땡기느라고?

구술자 : 네.

질문자 : 결속이 안 되었구만.

구술자 : 그러서 인자 박정희 때에 인자 협회를 맨들었죠. 그냥 그... 저... 연예협회라던가 음악협회라던가 있는등마는등 허던데 박정희 때 그냥 뚜렷하게 맨들어놔요. 허가지고.

질문자 : 그 때 그 저 박초월 선생도 권번에서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구술자 : 전주 그 저 낙원에 있었어요.

질문자 : 누가요?

구술자 : 박초월이.

질문자 : 그럼 낙원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구술자 : 그게 지금 내가 모르는데 박초월이만 있었을... 내가 기억을.

질문자 : 김소희는?

구술자 : 어?

질문자 : 김소희.

구술자 : 김소희는 모르겠어요. 김소희도 아마 있었을게요.

질문자 : 낙원에?

구술자 : 예. 그러고 인자 행원에는 없었고. 인자 행원에는 허산옥이를
돕기위해서 왔다갔다 했죠. 김소희라든가 어... 그 저 모두 다
른 사람들도 모두...

질문자 : 그 때 당시에 낙원, 낙원이 행원이 생기기 전에 낙원이 있었
고.

구술자 : 예. 왜정때는 낙원.

질문자 : 근게 낙원이 있을 때, 당시 그게 요정이었잖아요 권번이 아니
고. 요정.

구술자 : 요정 아주 큰 요정이지.

질문자 : 낙원이?

구술자 : 응.

질문자 :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낙원 말고 큰 다른 요정들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 예... 있었어요. 저그... 이문기 선생이 허던...

질문자 : 청풍관.

구술자 : 청풍관. 청풍관이 있었어요. 청풍관이 있었고 또 하나 있었는
디. 그러고 일본 요정은 큰 거 많았고.

질문자 : 일본 요정?

구술자 : 고구지니, 뭐 그 여... 많았고.

질문자 : 그러면 일본 요정하고 한국 요정 뭐가 달라요?

구술자 : 마찬가지로.

질문자 : 주인만 다르다 그 애집니까? 주인만 다르다?

구술자 : 그죠. 일본 기생들이 있었는데 예... 그 저... 일본 요정은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옷 입고 있었고 어 근디 한국 요정을 가

면 일본 사람들이 없어.

질문자 :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구술자 : 인자 거그에 오는 사람들은 인자 권번을 나온 사람들이었죠.

질문자 : 네.

구술자 : 기생핵교를 나온 사람들.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기생일거라고 한 게 우습게 보는데. 꼭 다른 학교 똑같이.
서예가르키지, 아 저 예절 가르키지. 아주 어려워요. 권번이.

질문자 : 근디 그 한국 요정에는 일본 사람들이 안 와요?

구술자 : 아... 와... 수... 술 먹으로 오지. 오지만은 일본말도 가르켰은
게 그 때.

질문자 : 권번에서?

구술자 : 권번에서.

질문자 : 그런데 그 때는 요정이 있으므로 권번이 그 반드시 같이 있습
니까? 요정 옆에?

구술자 : 아니여. 떨어져서 있었어. 에... 낙원... 남문 안에가 낙원. 낙
원이 있었고. 그러고 남문 밖에가 권번이 있었고. 내가 지도
를 그린다면 그냥 딱하니 그린단게.

질문자 : 그 권반... 낙원이 어디쯤 있었는가요. 그림 좀 그려주세요...(구
술자가 말없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다. 구술자가 '권반의 위
치를 표시한다.) 이게 지금 행원자리죠? 그죠?

구술자 : 아녀.(구술자가 다시 지도를 그린다.) 여그가 인자 임산부인
과.

질문자 : 거그가 어디요? 임산부인과요.

구술자 : 임산부인과. 거 내 친구. 이름이 유임일이라.(어떤 집을 그린
다.) 커요. 여가. 요렇게. 여가 낙원.

질문자 : 낙원.

구술자 : 자리라.

질문자 : 지금 행원자리는 그럼 어디예요?

구술자 : 행원자리가 이 자리야.

질문자 : 아... 행원자리가 낙원이예요? 그런데 일본식 냄새가 좀 풍기
더라구. 집진 스타일이요.

구술자 : 예. 그 맞아.

질문자 : 네네.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구술자 : 낙원이 요렇게 컸어요.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여그 후문이 여기 있어가지고서. 일로 나오고, 정문이 여가
있었고. 정문 들어가서 여가 인자 기생들 집. 저 탈의실이 여
가 있고.

질문자 : 그게 한옥으로 된 공간이 지금 그 낙원 안에요? 권번처럼 이
렇게 이케 한옥으로 된 건물이 있더만요.

구술자 : 많아. 전부. 지금 새로 진, 짓고 있는건 모르지만. 옛날 전부
한옥으로 됐어. 여그도 한옥으로 됐고. 그리고 여그도 요렇게
가가지고 여가 인력거 조방이라고 있었어.

질문자 : 네.

구술자 : 근게 인력거 조방. 그고 여그 인자 선뎁이 여그. 여그 요렇게
해서. 여 경기장.

질문자 : 그러면 저기는요, 선생님. 청풍관은.

구술자 : 청풍관은 여그.

질문자 : 음

구술자 : 여그서 쪽허니 내려가서 여그.

질문자 : 음. 네. 그 때 거기 쫓?

구술자 : 여그 셋길이 있지. 셋길. 이게 남원가는 길.

질문자 : 네.

구술자 : 게이샤들이 거가 인자 게이샤 학교가 어디가 있었는구니 부산
에가 있었어. 게이샤 학교가. 거그서.

질문자 : 전주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권번은 없었어요?

구술자 : 없어.

질문자 : 권번이 이거 하나 있었습니까?

구술자 : 그거 한국 권번만

질문자 : 한국 권번만. 다가동쪽에 뭐 권번 혹시 없었는가요? 다가동.

구술자 : 쪼끔 다가동에는 이... 소리꾼들이 많이, 기생들이 많이 살았
어요.

질문자 : 기생들이 살았어요?

구술자 : 응. 소... 소리꾼들 응.

질문자 : 이 거기에서 기거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다가동에서

구술자 : 응?

질문자 : 다가동에서

구술자 : 응. 기거. 했는데 거기에 인자 어... 아리마스라고. 문, 문에다
가 낙서로 크레파스나 그런 걸로 아리마스허거든. 그 이... 기
생집이다. 일본말로 알기 쉽게. 그 기생이 사는 집이다. 응.

질문자 : 아리미스. 있다. 그 얘기요?

구술자 : 응. 그리고 인자 거그다가 문패에다가 인자 있지만은 문패를
인제 적어가지고 기생집에서 인제 일본 요정에서도 그 사람
을 불러.

질문자 : 아...

구술자 : 불러. 거 권반에다 연락허면 어디 아리마스 그... 그 다가동에
많어. 저... 대문에다가 아리마스라고 낙서로 해놔. 일본애들

이 알기 쉽게.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고 인자 그 기생을 일본 요정에서도 불러. 그러면 인력거 타고. 인제 인력거가 권반에다 이야기하면 인력거가 거기다가 어떤 요정으로 가거라 하몬 인자 태우고 가지.

질문자 : 그게 좀 이진 얘기가 다른 건데요.

구술자 : 네.

질문자 : 그 다가동에 인제 기생들도 많이 살고 소리꾼들도 많이 살았다면 전주는 또 부채가 유명하잖아요? 부채. 부채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만드는데요?

구술자 : 부채 만드는 데가 오목대 밑에가 하나 있었고. 한 사람. 공예, 공예가가.

질문자 : 음... 예예.

구술자 : 그러고서는 안골이라고 하는 데 있지?

질문자 : 그렇죠. 거기가 많이 있었더라구요.

구술자 : 거기가 그냥 쪽 허니 붙어서.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봄에 가면 그 부채 말리는 것이 별에다가 말리느라고 척~ 장관이에요. 장관.

질문자 : 그 저도 예전에는 인제 부채 만드는 사람들이 서학동 쪽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구술자 : 거기는 장기알. 장기하고 우산. 지우산. 지우산.

질문자 : 장기가 뭐예요? 지우산하고요..

구술자 : 장기 저...

질문자 : 장기 두는거요?

구술자 : 장기 두는. 예.

질문자 :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안골에 부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선생님 말씀이.

구술자 : 부채 안골이고, 어...

질문자 : 서학동은 지우산이고?

구술자 : 서학동은 우산, 지우산.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기름 맥여서 우산 맨드는 거 있죠?

질문자 : 그 노란색으로.

구술자 : 네, 노란색, 지우산, 거그 가서 내가 글자 써주러 많이 가거든요.

질문자 : 아... 네...

구술자 : 우산에다가.

질문자 : 우산에다가?

구술자 : 글자를 써서, 글자 쓴 인자 선비들은 그걸 인자 가지고.

질문자 : 그 일본 요정하고 한국 요정은 음식이 달랐나요? 음식은...

구술자 : 달렸죠, 한국은 상이 찢어지게 놔, 요렇게, 강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하죠? 놓고, 우리는 술을 좋아하게 술, 그냥 먹느라고 그런거 안먹지만은 그냥, 정말로, 찢어지게 놓고, 일본은 가먼 개인 한 사람에 하나씩 요만쪽한데다(손으로 크기를 나타낸다) 상에다가 조금씩 해서 이렇게 놓고.

질문자 : 그게 이제 일본 정식이네요?

구술자 : 네, 정식, 응, 상, 지금도 일본 간다치면 외국에서 온 손님 같으면 요렇게 상 하나 썩 허서 쪽허니 놓고, 그러고 놓고 인자 기생들은 와서 인자 간뎡이다가, 이 간뎡이라고 해요 쪼그만 한 한웁짜리, 강 거그다 한 잔 씩 따르고 요렇게 쥐, 그런디 술잔을 다 비면 안 따려요, 한국 사람들 같이 가서 일본 요정

에 가서보면 쭉 먹고 그러고 딱허고. 거그는 술 안 따려요. 쪼끔 넘겨야 와서 따려요. 그러고 인자 술잔 저그 하는 밑에가 인자 물을 떠서 요령거든. 술잔 요렇게 먹은 비어있으면 그놈 거그다 기생이 요렇게 딱 딸아서 얹어놔 거그다. 왜 술안주는 가 하고서. 그러죠.

질문자 : 아...아... 자기가?

구술자 : 근게 침간 사람들은 모른게 그러죠.

질문자 : 음음.

구술자 : 그러면 인자 어... 우리 같음들 땡긴게 그저... 잔에다가 술을 먹가다 3분의 1쯤 넘겨. 그러야 와서 따려.

질문자 : 한정식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구술자 : 한정식이란 건 최근에 나온거요. 옛날엔요, 한정식이란 게 없어요. 그냥 정식인게 전부.

질문자 : 옛날에 다 정식이었어요?

구술자 : 예. 정식이지. 거그 일본 사람들도 저 일부러 그 정식을 먹으로 기생집으로 오거든. 기생집은 다 저... 그... 아까 여 그 여 기허던 이... 이선생이허던 그 요정이 뭐 요정이죠?

질문자 : 청풍관

구술자 : 예?

질문자 : 청풍관

구술자 : 청풍관?

질문자 : 네.

구술자 : 예. 청풍관 거 가면 상다리가 찢어져요. 그것도 요정마다 달라요. 또 음식이. 저거 또 거그 저... 주방장 같으면은 지금 같은 한 오백정도 줘야 했죠. 비싸요. 왜정 때도 예... 공무원 월급이 45원 같적으 어... 요정 주방장 같으면 어... 100만원 아니

1원 아니 10원이 100원. 100원이 넘었어요. 150원까지 가고.

130원, 150원 요렇게 컸어요. 그 때 공무원 월급이 45원이거든.

질문자 : 음.. 이... 일본 요정에서 파는 것도 정식, 한국 요정에서 파는
것도 정식. 정식을 그렇게 썼습니까? 한식이란 말 안 쓰고?

구술자 : 한식이란 말 안 써. 한식이란 말 있도 안혀.

질문자 : 음음. 그 땐 안 썼겠지. 본래 정식이란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이
죠?

구술자 : 테쇼쿠. 그렇죠 일본거.

질문자 : 그렇죠. 테쇼쿠. 일본말로.

구술자 : 테쇼쿠. 일본말이요. 이... 요 상 하나씩 놓고 테쇼쿠여. 자기
꺼만 따로 요렇게 해서

질문자 : 행원을 저희가 언제 그게 세워졌나 그걸 좀 추적해본 적이 있
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해방, 으... 해방 후에 그 세워진 걸로.

구술자 : 예. 해방 후에요.

질문자 : 훨씬 후에?

구술자 : 예 아니요. 해방 훨씬 후에는 아니고. 이... 낙원이... 그 때 허
산옥씨가 행원을 헌 게 아니고. 어... 낙원하던 사람 동생이
고백교 선생이었어요.

질문자 : 정인교...

구술자 : 고백교 선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질문자 : 혹시 정씨 아니예요? 정...

구술자 : 정, 정, 정씨. 어... 아니고 내가

질문자 : 정인기.

구술자 : 정인기는 형이고

질문자 : 아... 정인기는 형이고.

구술자 : 형이고. 저... 형이 이제 낙원을 하고서 해방이 된 게 그 저

거시기로 갔죠. 부여로 갔죠. 그리고

질문자 : 형은?

구술자 : 어. 누이동생이 그 옆에 부여옥이라고 조끄마한 요정을 했어요.

질문자 : 음...

구술자 : 그 저 지도에는 못 나오지만.

질문자 : 네.

구술자 : 부여옥 자리가 지금 뭐이, 뭐 큰 저.

질문자 : 무용한 사람.

구술자 : 아니 근게 큰 뿔이 돼 있더만요. 거그.

질문자 : 아... 저기다 금... 수구정? 아니예요? 수구정?

구술자 : 아니예요. 저 뭐 뭐 뭔가 저 문자가 하나던디.

질문자 : 부월옥이라고 이 누이는 누이가 부월옥을 했다던데. 부월옥이 어디 자리에요? 낙원 옆이에요? 아니면은...

구술자 : 아니 부월옥은 거그. 조금만.(필기도구를 건네받는다.) 부월옥이 여그서 그 저 옆집으로 들어가는 셋길인디. 지금 그 뭐 거시기가 됐죠. 저... 한국식당.

질문자 : 한국식당? 한국관.

구술자 : 한국관.

질문자 : 아아... 저기 저 비빔밥하고 한 집이요?

구술자 : 예예.

질문자 : 그 쪽 앞에. 옛날에 그 쪽 앞에.

구술자 : 그게... 그 집 마당이 커요. 지금도 들어가보면. 그게 저 부월옥 자리여. 그게 정선생 누이동생이요.

질문자 : 정형인이여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맞으신 것 같아요?

구술자 : 예. 맞아요.

질문자 : 정형인?

구술자 : 예. 그고 동... 동생이 저 공업학교 선생이였어는디. 정... 그
거...

질문자 : 정형인씨가 처음에 행원의 문을 열었다 그 얘기요?

구술자 : 예. 그 큰 아니 낙원.

질문자 : 아니 낙원을 했고 정형인씨 동생이... 동생이...

구술자 : 나중에 인계를 해서 해방되서

질문자 : 아이고 진작 여그 왔으면 행원 허느라고 안 해뻤지.(웃는다)

구술자 : 해방 돼서 인자 그 사람이 헐어요.

질문자 : 아니 선생님 저기 그 부월옥이에요? 부월옥이 아니고? 달라?

구술자 : 아니 부월은

질문자 : 틀려요?

구술자 : 그 저 요새 저... 한... 한식집을 허느라 이사갔쥬. 부월옥. 그
거는 옛날에 전주안과 옆에가 부월록이고.

질문자 : 아... 전주안과 옆에 있는데가?

구술자 : 어. 부월록인데 그... 그 아... 아주머니는 언제 늙었어도 머리
곱게 요렇게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참 단장하고 예뻤어요.

질문자 : 예예.

구술자 : 그 그... 아주머니 동생은... 행원허고 친헌 기생인데. 아주 친
헌.

질문자 : 예예. 부월록. 동생이 기생이였어요?

구술자 : 어, 기생.

질문자 : 아...

구술자 : 부월록 동생이 기생인데 예...

질문자 : 행원에 산다마 중에 또 누구하고 친했어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행원에, 행원하기 전에

구술자 : 예.

질문자 : 산다마가 있었잖아요. 뭐 금옥이, 행옥...

구술자 : 아... 금옥이.

질문자 : 산옥이

구술자 : 금옥이는 예... 최근에 죽었어요.

질문자 : 음... 그래요?

구술자 : 금옥이. 그 마저 그 잘 외고 계시네요?

질문자 : 그거를 지난번에 다 조사를 했었는데... 네...

구술자 : 산옥이도 외고 계시고.

질문자 : 근게 산옥이하고 금옥이하고 또?

구술자 : 또... 선화.

질문자 : 선화래요. 선화.

구술자 : 선화가 그림을 제일 잘 그렸었어요. 선전에 입선을 몇 번 허
고. 저... 선녀 선자고 선인 선자고 꽃 화자고.

질문자 : 일찍 죽었대매요?

구술자 : 예. 일찍 죽었어요.

질문자 : 연옥이, 연옥이?

구술자 : 연옥이. 응.

질문자 : 누구는 또 서울로 가서 살았다고.

구술자 : 연옥이혀고 산옥이혀고 어...

질문자 : 금옥이

구술자 : 금옥이허고가 삼바가라스라고 혀. 셋, 세 사람을 그.... 세 감
둥이라고.

질문자 : 세 감둥이? 뭐 다마라고 했던데 옥 자가 셋이라. 산다마.

구술자 : 산다마라고 했어요.

질문자 : 예, 쓰리.

구술자 : 예, 그 저 그 때 왜정 때 산다마라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연옥이 맞아.

질문자 : 그러면 그 때 운심각이 어디가 있었어요? 운심각이라고....

구술자 : 운심각이라고... 조그만했겠쥬 뭐.

질문자 : 경기전 뒤에.

구술자 : 어?

질문자 : 경기전 뒤쪽에 어디잖아요.

구술자 : 아 그 뭐 조그만한거요. 운심각은. 그제...

질문자 : 선생님 모르는건 조그만한...

구술자 : 아... 이 왜 그러는... 운심각이라는 거는 경기전 저쪽 동쪽으
로 그... 있는 옆에... 그게 허산옥이가 이... 행원을 허기 전에
운심각이라고 했어. 그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이... 행
원을 인수했지.

질문자 : 음.

구술자 : 근게 허산옥이는 행원을 세 번째 인자 낙원을 세 번째 인수한
사람이 행원이여.

질문자 : 권번까지 같이 인수했어요? 그러면?

구술자 : 아니요. 권번은...

질문자 : 없어져버리고?

구술자 : 권번은... 해방되서 권번은 없어지고. 그러고 그림에만 정진을
했죠. 그림.

질문자 : 그림 외에는.

구술자 : 그리고 허산옥씨는 중앙에 있고 유명한 화가들을 전부다 어렵게 살면 전부 도왔어. 그러서 허산옥이 주변에는 이당, 소정, 청전, 또 저... 저그... 누구여 저... 저기 있는 저... 대전에 있는... 어... 박...

질문자 : 이응노.

구술자 : 아니요. 응노씨는 나중에 오고. 저... 누구냐. 에... 대전에 유명한 작가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설경 잘 그리고.

질문자 : 설경하면은 토림이지만은.

구술자 : 아니 토림 말고 토림보다 훨씬 윗 양반 계셔. 그 양반들 좌우간. 전부 다 이응노도 와서 그 집에 신세를 짓고.

질문자 : 이용우도요?

구술자 : 이용노

질문자 : 아니 이용우도 그랬어요? 묵노.

구술자 : 묵노, 묵노도 그렇죠.

질문자 : 또...

구술자 : 또... 좌우간 돈 있는대로 그 사람들 데려다는 끊임없이 요렇게 작품활동에 아쉽지 않도록 다 해주고 험게 허산옥이고, 산옥이네 집에 병풍이 소정병풍도 한 서너벌 있었고. 그 저... 청전, 청전병풍은 다섯 벌 있었고. 내게 다 자랑한게 인자 내가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묵노 선생 그림은 그냥, 많았고. 수도 없었어. 묵노, 술 먹고서 그 양반은 술을 먹어야 붓을 잡거든. 묵노는, 그냥 쓱쓱쓱 허고, 어, 낙관. 낙관도 안 찍고, 낙관 없는 그림도 많고. 강 그러서 싸인만 하고. 그 묵노 같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인자로 봐야지. 허... 달필이고.

질문자 : 뭐 오 누구 필체도 뭐 한자 비슷허대매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묵노가

구술자 : 예, 오원.

질문자 : 오원 그림도 그렸대요.

구술자 : 예예, 오원. 하... 정말, 달필이에요. 근디 오원은 오래 붓 잡고
를 보든 하나 그리는데 오래 걸렸어. 붓 하나하나를 전부, 묵
노는 그게 아니여 쪽 쪽 쪽, 술 먹고서 그거 그거 또, 술 한잔
따르라면 예 허고는 하는거요. 애, 야... 그 옆에는 술 따르는
사람 하나있고 옆에 저 종이 받치고 먹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허요.

질문자 : 묵노는 나중에 오일주장에도 좀 있었다는데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오일주장.

구술자 : 예, 거기에도 좀 있었고 여러군데 카...이... 그래서 인제 주로
있기는 거기 다가동 요정하나 있었어요.

질문자 : 아...

구술자 : 거기도 이제 기생출신이 했죠. 근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나
는 그 양반에게서 배운 것이 많아요. 뭐냐. 예... 먹좀 갈아서
붓 좀 허라, 허고서 붓들고 먹 찍어달라고 허서 드렸는데 붓
들고 화선지에다가 딱 한 번 찍고서는 그냥 숨졌어.

질문자 : 아... 그 때 계셨어요 같이?

구술자 : 어. 근게 아들이 내게다가 그냥 무릎팍 꿇고 절을 하지. 요
중앙대학 교수하는.

질문자 : 아드님이 고향 왔어요?

구술자 : 예. 왔죠. 묘 혈 적에.

질문자 : 후에 따님만 왔던 것 같던데.

구술자 : 아니요. 아들이 왔었어요.

질문자 : 아들 없는 줄로 알았는데.

구술자 : 후에 왔었어요. 아들하나. 아주 잘생긴 아들 하나 있어요. 꼭
기... 저... 기생집 만며늘... 저... 만서방같이 생긴 거 하나
얼굴도 잘생기고 어떻게 예쁜가 몰라요. 어... 그라고.

질문자 : 그 묵노 뭐 저기 저 무덤도 하고 비석도 하고 하는데 한 번
허셨겠네요?

구술자 : 예. 그렇죠. 저... 저 거시기하고 어... 그...

질문자 : 문화원에서 할 때?

구술자 : 아니. 에... 누구여 그... 저... 아니... 저... 최승범이하고 나하
고 여럿이 허서 묘 허고 혈 적에 아들들도 오고 참 좋고. 마지
막 기생 몇 명하고 그 집 사장도 못보고 그 요정 주인도 못
보고 기생 몇 명 허고. 그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허고. 나하고
마지막을 봤죠.

질문자 : 그 부인은 어디가 안 계셨어요?

구술자 : 없었어요. 아이 저 부인은 참 그 뭐... 한국 여성같이 그냥 곱
게 꾸미고 그러는. 근게 그 아들이 지 엄마 닮았어. 예쁘거든.
근데 강원도에 가면요. 어... 저 강릉에 거그서 교편 들었거든
요. 묵노 선생. 거기가면 아직도 묵노 선생 그림이 많아. 찾으
면 집집마다. 그 보물이라고 보다 저그다 안 준게 그러지. 몇
장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양반은 백노지예다
도 그리고 그렸어. 그 그림.. 나중에 보든 백노지예다 그러서
전부 찢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내가 많이도
또 표구사예다가 어뜨 어뜨게 말기라고 가르켜주고 했는디.

질문자 : 그... 저 고암은요. 호를 죽사란 호를

구술자 : 예

질문자 : 효산이 지어줬다는데?

구술자 : 예?

질문자 : 효산 이광렬 선생이 지어줬다구요.

구술자 :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나. 죽산은 일본 이름이에요. 다케야마라고. 다케야마.

질문자 : 아니 죽사. 역사 사자.

구술자 : 아니여. 그게 죽사는 그 저... 묵노 선생 침에 일본에 충성혈적의 죽사라고 했고.

질문자 : 이게 그 고암선생이 호를 그... 죽사라는 호를 효산한테 받았다고 그러던데 어디를 보니까 김은호 선생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서 받았다고.

구술자 : 아니여. 아버지한테. 이당허고는 영... 그 저... 이... 이... 작품. 작품에 대한 것이 어울리지를 았고 했으면은 그 해강, 해강... 그 누구여 김규진씨한테서.

질문자 : 어? 거그였던가?

구술자 : 받았을란지 모르죠.

질문자 : 해강 김규진.

구술자 : 예. 대나무를 저... 이... 죽사도 대나무를 잘 쳤어요.

질문자 : 그니까 그 이용노 박물관, 미술관 사진을 좀 찍어 보내라고 했더니. 대만 찍어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해강 것이 딱 왔어요. 찍은 사람이 모르니까. 대만 딱.

구술자 : 대만. 해강 선생한테서 좀 사사를 받았어. 국민학교 2학년 밖에 안 대녔어요.

질문자 : 음...

구술자 : 보통학교 2학년.

질문자 : 죽사 저기 우리 여기 우리 이용노 저 고암 선생님?

구술자 : 예. 보통학교 2년 그 때 2년제니께. 그 양반.

질문자 : 보통학교가요?

구술자 : 예. 내가 땡길적으 4년제.

질문자 : 아... 그랬어요?

구술자 : 예. 나 보통학교 4년제 밖에 안 대녔어요.

질문자 : 아... 그 다음에 또 6년제가 되고 그랬고만요?

구술자 : 예. 내가 졸업헌 뒤에 6년제로 됐죠.

질문자 : 참... 그런 역사 얘기도 듣군요. 오늘.

구술자 : 예. 이응노 선생이. 그리고 이... 저... 청전 선생도 2년제 나왔어요. 보통학교 2년제. 그 저 어... 원주에서 2년제 학교 나왔죠.

구술자 : 이 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국 미술이 미술협회가 전주서 됐다는거.

질문자 : 네.

구술자 : 어... 그러고 예... 예충이 초대가 그 때는 서울이 없으니께(손 사래를 친다). 초대 예충 회장이 예... 김해강 선생이죠. 근게 나중에 또 인자 서울이 된 뒤로부터 후는 또 김해강 선생님이 또 허고. 그 아마 3대쯤 했을거요.

질문자 : 예...

구술자 : 그 때 3년 만에 한 번씩 허는 것을 그냥 9년 동안을 그 김해강 선생님이 하시고. 그 인자 그 때 뭐... 무용이다 뗏이다 전부 있기는 있는데, 이... 국악도 있고 있는데. 이 회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모다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헤어지고. 이 저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뒤로부터 뚜렷하게 해라. 허가지고 서 그... 문인협회도. 문인협회도 있는 등 마는 등 했어요. 그 문인협회 회장 초대 회장이 예... 신근씨. 백양춘. 신근씨가 초대 회장.

질문자 : 음...

구술자 : 미술협회 회장은 금룡 김영창. 금룡이 했고, 그것도 인자 에...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권유해서 헌것이죠. 사실은
도상봉 선생님을 허시라고 헌 게 아이 자네가 허 자네가 해서.

질문자 :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가고 이제 전주
로도 오고 근데 예술가들이 많이 왔다는 건데.

구술자 : 예.

질문자 :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전쟁의 피해도 좀 적었을 거구요. 또
여기에 또 예술가들도 많이 사니까

구술자 : 예예.

질문자 :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구술자 : 요는 왜정 때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질문자 : 아아... 왜정 때.

구술자 : 왜정 때. 왜정 때 일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여그에 다 유
명한 작가들이 여그 있었어요. 군산, 군산... 중학교에 있던 선
생. 오쓰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요. 오쓰는. 오쓰.
대진이라고 하죠. 오쓰.

질문자 : 진자는 무슨 자요?

구술자 : 진자 저... 물 진자. 삼수변에. 어... 물 진. 오쓰라고 하죠. 쓰
나미라고 쓰자.

질문자 : 그, 그 때 당시 왜정 때부터 전주에는 예술인들이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 예술인들이 많이 있었다?

구술자 : 그렇죠. 오쓰. 오쓰가 전여고도 오쓰가 가르쳤고. 또 사범학교
에는요 유명한 에... 에... 가만있어라. 아주... 내게다도 그림
을 사사하고 한 사람이다. 가만있어. 뭘라. 거그 저 유승국이
도 그 사람한테서 배웠는데 그림. 유승국이기도 그림 그렸어요.

질문자 : 예.

구술자 : 그리고 저기 누구여. 어... 전영래도 거그서 그림을 배웠고, 유명한 사람이 전부 사범학교서 나온 사람들이여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음.

질문자 : 그니까 선생님 그... 그렇게 이제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그런 또 하나를 더 이제 든다면 아무래도 인제 어... 전쟁통에 먹는 문제도 힘든데, 그래도 좀 먹자할 것이 있고, 그런 문제도 또 여기 오면 인제 먹는 문제들은 그렇게 조금 해결되는...

구술자 : 예예, 아주 저 부단부단하죠.

질문자 :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들게 했는데, 왜정 때도 여기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그러한 이제 그 전부터에 뭐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예술에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니까 예향으로서 여기에 조선시대 때도 많은 예술인들이 여기서 뭐 활동을 했든지, 뭐 아니면 일제 때 그러니까 일제 때 예술인들이 여기 많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구술자 : 에...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서예가로서... 유명한 설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질문자 : 음.

구술자 : 최, 최선생, 설송, 또, 저그 저... 어... 저... 완산동에 사시던 효산.

질문자 : 어, 효산.

구술자 : 어, 효산, 효산 아들도 그림 그리다가 저... 죽었지, 효산 선생이 있었고...

질문자 : 조주승이라는 사람들은

구술자 : 또... 어... 저기 있었어요. 저... 권번에 그림 가르치던 저...

질문자 : 김희순

구술자 : 유당.

질문자 : 유당 김희순.

구술자 : 김희순. 김희순. 유당. 선생이 있었고, 또 기생들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된 이유는 그 저... 홍대 1대 거시기 허던 저... 이... 도영씨. 이도영씨가 인자 있어서 거 그림 잘하는... 그... 저 동방학원 저 동양화 공부하고 가르쳤으께. 그래서 인자 동양화가 에... 활발하게 좀 전개 되었고. 서양화는 일본 사람들 유명한 작가들이 에... 있었거든. 그 저... 내가 사범학교 유명한... 이동, 이도 마사키. 유명한, 제일 유명한. 일본에 유명해. 나하고 최근까지 편지 연락 했는데. 하... 유명한 사람이여.

질문자 : 이도 마사키는 어떻게 써요, 선생님.

구술자 : 이토. 이토. 이 이... 글자하고(이토 마사키를 쓴다) 이토 마사키.

질문자 : 정명.

구술자 : 응.

질문자 : 마사키를 정명이라고 해요?

구술자 : 이토 마사키. 그러서 이 사람이 나도 그림을 가르쳤고. 어... 저... 죽은 누구여. 이자 이름들 많이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러고 한소희도 여그서 배웠고. 이토 마사키한테.

질문자 : 그러면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교 아니 이분...

구술자 : 나는 안 가는데. 내가 그림을 늘 그린게 친하게 와요. 나하고. 그 저... 그... 친하게 오지. 내가 학교를 뭐덜라고 학교를 땡겨. 글고 그 저... 원대 교수허던 친구도 있었고.

질문자 : 배영식.

구술자 : 어?

질문자 : 배영식.

구술자 : 아 배영식이는(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 그때 그 사람은 그
저그 할아버지가 남원 군수였었응게. 카... 그냥 그 저 그 뭐
냐... 아이고.

질문자 : 나상목은요?

구술자 : 나상목은 그거 관계(고개를 가로 젓는다) 나상목은 사실이지
그... 이당헌테서 배웠다고 해야지. 그림이 이당 그림인디. 자
기는 절대 이당헌테서 안 배우고 저그 저 누구 저 저그 저...
저그 누구여 저... 목포에 있는... 목포 그 저... 허...

질문자 : 허병렬.

구술자 : 어. 허병렬헌티서 배웠다고도 하고. 죽은 뒤에. 그 뭐 거 그렇
게 말할라든 그 뭐 죽은 뒤에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이
지 뭐. 그고 그림이 예... 시대의, 시대를 죽은 뒤에도 그 시대
를 알릴 수 있는 그림되야허. 미술은. 그러고 또 문학도 그래
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 시대를 반영시켜줘야 하는 거야. 내가 반영인디(모두 웃는
다) 반영시켜줘야허. 그 시대를. 그것인데. 그냥 처음에서부
터 학교배울 적으 그대로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예술가
가 아니쥬. 창작이 되어야 하는 것인디.

질문자 : 아, 네... 네...

구술자 : 창작.

질문자 : 선생님 그림... 특별히 색깔이 이렇게 막 후반에 오면은 막 색
깔이 굉장히 좋으신. 저는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그림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책 제가 열심히 몇 번 봤는데 색이 막

후반에서 막 좋아지시던데. 하, 그것도 시대를 반영해서...

구술자 : 그거 시대를 반영시킨거죠. 지금 화려해져가잖아요.

질문자 : 네. 굉장히 화려해지시고 색이 좋더라구요.

구술자 : 내 공자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죠. 어... 그러나 너무 과욕은
부리지 마라. 음... 그뿐이죠. 시대가 변천돼 가는데 지금 동
양화가 왜(얼굴을 찌뿌린다) 그런게 백천... 같은... 사람은

질문자 : 네.

구술자 : 극사실로 불렸던 사람이요.

질문자 : 음...

구술자 : 전북대학 그... 미술선생, 미술교수하던. 저... 거시기 누구여.
김제 출신인디.

질문자 : 벽경이요?

구술자 : 어... 벽판...

질문자 : 벽경 송...

구술자 : 아니.

질문자 : 송하... 뭐더라

구술자 : 아니 송계일이.

질문자 : 송계일이.

구술자 : 어. 그 사람 봐요. 인자 그냥 색이 그냥 밝... 하나의 한국의
오방색을 우리가 잇아서는 안돼요. 불란서 갔다오고해서. 아
뭐 그 봉쥬르 조금 몇 마디 하고 아 나 불란서 작가라고. 서양
화 그린다고. 어떻게 서양화가 그려. 거그는 서양화 그리는
사람들은 서양화대로. 수 천 년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상
이 깃들고 뿌리가 짙 찌든 사람들인디. 그 사람들을 보고 동
양화 하라면 하겠어요?

질문자 : 예...

구술자 : 피카소 동양화 했어요. 수묵화도 하고, 피카소 그... 그러고
고... 고희도 동양화를 얼마나 많이 그렸어요. 응? 또... 고펡
도 그러지만은 고펡은 동양화에 미쳐서 아주 오세아니아와서
저가서 죽었지만은, 거... 거... 저 모네도 그렸고, 모네는 일
본 여자를 데다놓고 그렸어요. 저 집에다 살리구. 하나코라
고.

질문자 : 음...

구술자 : 그런데 우리가 거가서 일년, 이년, 삼년, 백년 죽는 날까지 있
어도 아직도 서양화는 못 그려요. 근데 국전에 서양화가 뭐...
한국화 이렇게 허는 건, 웃기는 얘기에요. 한국화까지는 좋아
요. 서양화, 유화라고 하면 뭐 어찌요. 유화라고 하기도 그래
요. 유화는 일찍이 우리가 아교, 아교를 썼어요. 유화가. 그
유화지 뭐요. 소기름이에요. 그먼 단청혈적으 그걸로 그린다
면 비가 와도 안 흘러요. 우리가 제일 먼저 유화를 했어요. 그
런데 중국서 고려 때 그, 그, 그걸 배워가지고서 중국도 이제
단청을 하게 됐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근데 또 물감은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지금도 유화 물감으
로 재료가 어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월남이에요.

질문자 : 아...

구술자 : 그 전에 중국계열이죠. 헌적에 월남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응? 그런데 서양화가다.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
국가서도 그래요. 미국을 가나, 여보다 내가 조금 예... 민망
한 소리지만은, 내 것을 잊어버리고 와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혹은 또 자기 혼까지도 버리고 와요.

질문자 : 네.

구술자 : 이태리가서 우리나라가 나막신 그렇기 거그 박물관에 가면요.
한국에서 맨든 전천후 슈즈라고 썼어. 써놓고 그걸 그렇게
찰~해서 요렇게.

질문자 : 아... 나막신을?

구술자 : 예. 했는데 거가서 썬모구두. 가죽이 유명허니까 그러졌지만
은, 썬모잠바 뭐... 여그 한국에서는 오래 입덜모던다고 그래
요, 썬모가. 근다고 그 이 이태리 사람들 거그서 파는 사람들
도 그 애길혀요. 왜 이런 걸 좋아하는가 모른다고. 불란서 사
람은 이태리가도 구두 안 사요. 가죽이 약헌게 수이 갈라진다.

질문자 : 네. 음...

구술자 : 개 묶여놓고 잘 만들었지만은. 독일은 더군다나. 독일은 투박
허야혀. 강 오래가지고, 망치하나를 맨들어도 무거서 못 들
정도로.

질문자 : 네...

구술자 : 어? 응. 그런데 자기 것을 아름다운 줄 모르고 나는 외국에
가서 많이 땡겨봤지만은. 내것만치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나
이아가라 폭포가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요. 아기자기한 폭포.
응? 그... 이 개성에 있는 그... 구룡폭포라든가 그런 것. 우리
나라. 내실, 내 같이 흐르는 저그는 위봉폭포가 있어요.

질문자 : 네네.

구술자 : 가보면 실넷같어. 그러도 그게 아름다운거여. 그걸 생각하니
키양... 그 나이아가라. 그러면 그 저 그이 이 저그 어디여
저... 브라질 같은 그 폭포는 더 크니까.

질문자 : 이과수

구술자 : 어... 그 이과수 폭포. 이 그거는 범위가 뭐 얼마나 커요. 어?

그러는디 그런게 인자. 그런게 내 것을 잊어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외국가고. 내가 요새 가만히 정치 썩, 정치를 보면. 외국 가서 정치공부를 하고 왔다는 사람들은 도둑질부터 먼저혀.

질문자 : 예.

구술자 : 도둑질부터. 나 그 사람들 아니 왜 그렇게 자주 갈어.

질문자 : 음.. 그래요. 맞아요.

구술자 : 뭘 배웠어 거그서. 응? 미국 사상을 배우는 건 좋지만은. 우선 참고로 해야 할 것이여. 우리 사상은 우리 사상이여. 자기 것은 또 내 것이 아니여. 자기 것이여. 응?

질문자 : 맞아요. 선생님.

구술자 : 그런 걸 가지고서는 가서 응? 아 여그 서도 할 노릇 충분히 허는디 왜 뭘라고 거시기까지가. 응. 돈질혀서. 그러서 어... 지진나서 그렇게 죽어 응? 돈이 죽인 것이지 가들 운명이 죽인 것이 아니여. 응? 내, 내 것이 좋다는 걸 알아야하고. 일본에 가면 그 전에 김치냄새 난다고 했는디 지금은 김치를 못 먹어서 야단이여.

질문자 : 네...

구술자 : 지그덜이 담은 김치하고 한국서 담은 김치하고 틀려. 그러서 역시 한국은 김치. 지그들이 담은 껌데기만 담는디 그 말이여. 그러서 불란서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전부 껌데기만. 가서 서양화 어떻게 서양화를 유화지. 그냥 유화라고 허야지. 어? 유화는 그러도 유화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

질문자 : 음... 네...

구술자 : 그림으로 그리는 거.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랬는데 그, 그... 모다 이... 모다 나보담더 모다 잘 그런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생각할적으는 외국에서 공부한다, 참고로 가볼만은 혀. 쑥 돌아보고, 우리가 외국 정세도 알아야하고, 또 외국에는 어떤 사상이 존재혀드라 하는 것도 파악하고 오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양화라고 혀서는 안 돼. 결코 서양화는 못 그려 한국 사람들이, 결코 서양 사람들이 동양화는 못 그리구. 아직도 동양화를 중국 거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수묵화는 중국이거든.

질문자 : 예...

구술자 : 떡 번지는 거라든가 보면, 우리는 여섯 짝을 가지고서 떡색이라고 하는데. 거그는 열대여섯 색을 가지고서 어? 떡... 떡을 열 대여섯색을 가지고서, 또 그거도 부족하다고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또 광주에 가든 동양화 그리는 사람은 의저 선생님것만 자꾸 뿐 따서 그리다가 발전이 없어. 그러다가 인자 남농선생것만 쑥 따서 그리고, 또 서양화는 지금도 그래. 내 지금도 일찍 죽었지만은 임직순이 모냥 그대로 지금도 발전이 없어. 어... 조금 더 자기의 사상의 것이 있어. 내가 아직 뇌를 쓰면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 그런디 남의 것을 보면사 지금 자기 뇌에서 나오는 거는 없어. 남의 그림만 생각하는거여. 그거는 생각하는거여. 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여. 뇌는 조금 쓸 수록 이 빛난다고 혀니께. 그런게 저 박사님도 더 쓰세요.(모두 웃는다) 그러서 써서. 많이 쓰면요 빛이 나요.

질문자 : 혹시 질문 하실 것들 있으면 얼른 이제 마감하게. 예?

다른 질문자 : 주로 이렇게 물어주신 분은 안 계세요?

질문자 : 누구?

구술자 : 예?

다른 질문자 : 서양화 하신 분들을 밀어주신 분.

질문자 : 아... 지금

구술자 : 아니... 내 제자들이요?

질문자 : 아니아니, 이제 그거 주변에서 혹시 그... 그... 이렇게 화가들을 이제 허산옥처럼 밀어주신 분들을 기억하시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술자 : 아... 허산옥씨가?

질문자 : 아니, 허산옥씨 같은 분이 또 있었느냐구요.

구술자 : 없어요. 그만한 사람이, 아니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없어요.

질문자 : 그러면 이문기씨는 그런 역할을 안 하셨어요? 조금도?

구술자 : 예?

질문자 : 이문기. 청풍관에.

구술자 : 아, 이문기씨는 이 저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쟤만 내고 땡기지.

질문자 : 아니 근데 누구 말에 의하면 그 이문기씨랑 백남혁씨, 아니 백남석씨가 그런 분들이 허산옥씨를 또 도와서 그렇게 하게 했다고...

구술자 : 아니여, 아니여 그거는 기생이니께 그저 혹시나 허고 땡긴 것 뿐이에요. 내가 놀... 솔직한 얘기에요. 허산옥씨 사상은 또 딴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딴... 딴 생각으로서, 기생이니께, 허산옥씨를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질문자 : 아...

구술자 : 기생이라고, 그러도 국전 작가가 되고 어, 초대 작가가 되고 어? 웬... 그러니께 인자 허산옥이는 아니. 지금도 허산옥씨하면 딴 사람들이 기생으로만 알아요.

질문자 : 음...

구술자 : 나나 예술가로 알고, 그 사람을.

질문자 : 그...

구술자 : 그 죽은 어... 선화라든가, 어... 선초라든가. 이런 사람들 죽은
다는 거 내 아까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질문자 : 아... 네... 그런 분들 그림 안 남아있죠?

구술자 : 안 남아있죠.

질문자 : 네... 안타깝네요.

구술자 : 그러구 어... 박덕남씨하고 지내던 기생하나는 자살했죠. 근디
자기 그림을 다가 품에 안고 자살했어요. 그서 또 그 그림을
냄겨줘야하느디. 그냥 그렇게 저 거시기 에... 저그 저 화장을
했대요.

질문자 : 아...

구술자 : 그림 가지고 가라고.

질문자 : 음... 그 기생은 어디에 있었는데 죽었어요? 행원이에요?

구술자 : 거그도 행원에 좀 있었었죠.

질문자 :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닌가요?

구술자 : 아니여. 물에 빠진 사람 말고.

질문자 : 그 행원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있었다고.

구술자 : 있었어요. 하나. 또 누군사.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느디. 그러
고 저그 연옥이는 지금 어디가 있는가 지금 살았을텐데. 모르
졌고. 어...

질문자 : 선생님 그...

구술자 : 금옥이.

질문자 : 허산옥씨... 에게 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정신 세계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가 그림을 좋아해서 도운 것도 있지만 그 분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이 얘기 할 수 있

어요?

구술자 : 예. 그 저...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잠시 생각에 잠긴다) 남을 도와야 한다는 거. 자기가 어린애도 읊고, 내가 벌어서 뭇 허냐. 어린 애 하나 양녀로 하나 따른 애 대학까지 보내서 졸업은 했지. 그러고, 또... 조카들한테 안 줘요. 자기 조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도와요. 니덜뜰, 니덜 내가 어려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덜뜰도 하마 나처럼 일어나봐라. 그렇게하고, 안 도와요. 그꼬, 그러고서 인자 자기가 못 살았은게 못산다. 기생들 못사는 기생들을요 전부 데려다가 밥 맥이고 집에서 다 재우고 어. 했어요. 그러그 음... 참 특별난 사람이었어요. 인자 거그 인자 신랭이라고 하나 얻은 것이 전매청장이었었는디 그 사람이 은퇴하고서 저그 저 저, 전고 옆에 그 창고 하나 있죠? 지금도 있어요. 거그 거그다가 그 저... 이... 겨를 뭐 기름 기름 짜는 거.

질문자 : 예.

구술자 : 쌀겨루 기름 짜는 거. 허자고 해가지고 공장해가지고 몽땅 거그 다 다 투자해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러고도 후회를 안 해요. 잘 될라고 허다가 안 된 것인게. 후회를 안코. 또, 허산옥이가 저그... 용인에 그... 저... 민속촌. 거기에도 돈을 많이 댔어요. 응. 민속촌에.

질문자 : 무슨 연고로 민속촌에 돈을 댔어요?

구술자 : 예. 거그 예... 그러고서 거그서 또 저... 비빔밥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거그서 비빔밥을 또 전주비빔밥을 허느라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인자 그... 전주에서 인자 또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집도 전주에서 뜯어다가 짓고.

질문자 : 예.

구술자 : 정읍서 구지꼴고 갔다간 집 갖다가 뜯어다 짓고 하는 것을 허산옥이가 다 뒀어요.

질문자 : 예.

구술자 : 집값을(정적이 흐른다) 고사동 어디다 하려다가 그 민속촌을 지었거든요.

질문자 : 네... 네네. 음...

구술자 : 그러서 정읍에 구지꼴코 간 집도 갖다가 거그 저... 거그다 지었죠. 그 돈을 허산옥이가 다 뒀어요.

질문자 :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도우시는 노인들이 있죠.

구술자 : 네.

질문자 : 선생님이 매우...

구술자 : 에... 에... 그런거는(손사래친다.)

질문자 : 그래도 말씀시면은.

구술자 : (손사래를 치면서)아니 새발에 피야. 아니 허산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여.

질문자 : 아니 그래도 양로원이나 지금 그 혼자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선생님이.

구술자 : 아니여(고개를 가로 짓는다)

질문자 : 매월 얼마씩 도와드리고 그러시잖아요.

구술자 : 아니 그건 그거는...

질문자 : 왜 그런 말을 안하시냐구요.

구술자 : 아니 그건 소용없어. 허산옥이만 헐라면 아죽도 멀었어.

질문자 : 또 그러시고 선생님이 지금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의 이 모든 작품들이. 내 새끼같은 자식이... 작품들이 흩어져있는데 이걸 모으고 싶어 하시잖아요.

구술자 : (고개를 끄덕인다.)

질문자 :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 아, 군산서 해준다고 허니께.

질문자 : 군산시에서?

구술자 : 예.

질문자 : 군산시가 역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역부족하면.

구술자 : (생각에 잠긴다)역부족하면 인자... 내가 죽은 뒤에 인자... 후
자들이 또 생기는거요. 그거는...

질문자 : 아니요 그 그... 그렇기도 하지만은.

구술자 : (조용히)후자들이

질문자 : 지금 그... 선생님이 미술을 하시면서 그 동안에 이렇게 그 국
보급에...

구술자 : 아... 그것이

질문자 : 예.

구술자 : 그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 흐트러지면은 다시 규합하기가 어
려워.

질문자 : 그렇죠.

구술자 : 어려워.

질문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구술자 : 근게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있는 것을 그걸 어떻게

질문자 : 그러니까 선생님이 국보급에 그림들이 각 대학 박물관에 들어
가 있고 여기저기 박물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
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술자 : (말을 하려 한다.)

질문자 : 지금도 남아져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
했으면 쓰겼어요?

구술자 : 그런게 그걸을 어따가, 어따가 줘야지.

질문자 : 어디다가?

구술자 : 시에다가 줘야할 것 아니여.

질문자 : 아니 문제는

구술자 : 군산 출신인게 군산따가 줘야지.

질문자 : 아니 인자 그건 그건..

구술자 : 그거는...

질문자 : 그런데요 저... 저... 저희가 안...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선
생님의 그 글에도 다 나와 있고 묻어져 있고 그런 것들 있잖
아요.

구술자 : (고개를 끄덕인다.)

질문자 : 선생님이 그 귀중한 그런 그... 그런 작품들이 큰 공간 저...
남농기념관처럼 큰 건물들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것 아니겠어
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구술자 : 소망인데

질문자 : 네.

구술자 : 사실은 내 소망이 아니고.

질문자 : 네.

구술자 : 그거는 내 후자들의 소망이라야 하.

질문자 : 그리고 해외에서 가져오신...

구술자 : 나야... 나야....

질문자 : 해외에서 주고받고 해서 이 그림하고 바꿨던 그림들도 있고.
소장하고 계신 그 주옥같은 것들 어떻게 하실거예요?

구술자 : 아, 국가에다 줘야지. 그러고 인자 여그... 어... 내가... 생각하는 점 하나 있어. 남이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만은, 일부... 도립박물관에... 줄 것 허고 일부? 또... 일부... 도립미술관에 줄 것 허고, 또 일부는 군산시에다가 짓든 말든 지그들 맘대로 허라고 허고 줄 것 허고 그것만 남았어, 그러고 내 모교에다가 몇 점 넘길 것 허고.

질문자 : 아니 그런데 그게 가치로 따지면은 그 엄청난 가치거든요? 그냥 줘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구술자 : 이봐... 이... 가치를 예술의 가치를 내가 따질적으 판단할 적으 내가 그렸어, 너 공부를 잘못, 너라고 해서 새끼야 너 공부를 잘못했구나. 예술의... 호당 얼마냐고 나한테 물어봐? 어디 너... 육법전서했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질문자 : 그런데 선생님 그림을 사가꼬 그 판사들이 지금 이렇게 감정하면서 증인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술자 : 응.

질문자 : 그런 것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구술자 : 여러 번 있었지. 그러나.

질문자 : 그런데 제값도 하고 군산시는 그걸 모르잖아요.

구술자 : 모르면 말지 뭐.

질문자 : 이게 답답하다 이거 참..

구술자 : 뭐냐면 그런 게 아... 그런 걸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일들이 읊어. 내가 또.. 언변이 짧어. 그 왜 요새 유행어로 가방끈이 짧아서.

질문자 : (웃으며)가방끈이 짧아서...

구술자 : 응.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어, 언변도 없거니와. 요는 사회에다 어떤 사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의 가치도 높아질터

고 또 내 이름도 날 것이고 허지만 지금 난, 내 자신은 지금 이국장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애긴데, 나 자신은 솔직하니 내가 명예를 위해서 그림 그린게 아니여. 명예가 뭐요. 그러고 내가 재벌이 될라고 그림 그린 게 아니여. 재벌 뭐더게? 죽으면 내가 가지고 갈거요? 또 내가 명예, 명예 가지고 가는 거요? 이름만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촛불을 켜놔. 그런게 여러분들도 가실 적으 그림 한 점씩 줄게. 꼭 가지고 가세요.

질문자 : 아,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구술자 :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해서 내가 죽으면 이름이 남잖어. 여러분들 앞...

질문자 : 자, 여기 저 우리 저 박물관장님 오셨는데.

구술자 : 어

질문자 : 박물관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구술자 : 뭐

질문자 : 어떻게, 어떻게 하면 쓰겠다고.

구술자 : 아, 박물관에다가 내 그림 전시한다는 거는 박물관 아직 살았은게. 그 전시한다는 건 내 입 밖에서 내 놀 수가 없어. 죽은 뒤에 박물관에 걸리는 건 역사의 하나의 임무를 다 했다 생각하고 편히 눈을 감지. 감지만은. 아즉 내가 살아있을 적 박물관장보고 '내 그림 거그다 전시합시다', '거그 집을 하나 새로 짓자고 도에다가 신청하시오.' 그런 얘기는 못허지.

질문자 : 오늘 그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정몽준씨가 가진 재산이 국회의원들 다 가진 재산보다 많대요.

구술자 : 많아. 어.

질문자 : 정몽준씨가 와서 이거 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구술자 : 아 그건 그 사람이 한다는 건 모르지만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헌다는 의도 저그 저 에... 내 그림 사기치드끼 저 이...
누구여 저 삼성 그 저...

질문자 : 이건희?

구술자 : 이건희. 아니 아버지

질문자 : 이병철씨.

구술자 : 이병철이같이 그런 마음 가꼬서는 안되지.

질문자 : 그림을 갖다 그 양반이 사기쳤어요?

구술자 : 아, 내가 지그 자기가 초대해서 전람회 하는 거여.

질문자 : 응.

구술자 : 저... 나하고, 천경자하고 둘이를 인자 좋은 사람으로 해서. 헌
게. 천경자는 그냥 테프도 감기전에 그냥 와서 여자들이 그냥
난리여. 내가... 그럼 다 그런가보다. 나는 그런 것도 뭐 개의
치않고. 글더니. 테이프 끊고서 뭐라고 한 줄 알어? ‘어 그림
팔라고들 생각하지만. 안 팔리면 내가 다 살게. 어? 걱정들말
어’ 혀고 갔거든.

질문자 : 음.

구술자 : 나는 그런게 하따 돈 많은 사람이 거 한다고. 그냥... 나 아따
가슴이 뛰더만. 이거 인자 사, 사주는가 하고. 인자 그림 몇
장은 사갔지. 저 박... 저... 거시기 이... 보다 그 누구여 박...

질문자 : 박정희?

구술자 : 아니아니 그 저... 그 때가 아니고. 모다 내 어른들. 도상봉씨
니 임화동씨니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 양반들이 그러도 후배
가 전람회 한다고 헌 게 몇 점 썩 옆에 불러서 팔아 주드만.
그러고는 더드라니(?) 남았어. 천경자씨는 그냥 다 팔렸다고.
주서가버리고. 내 그림만 썩 남았는디. 어? 안 팔린... 전부 저
창고다 갔다 넣라. 혀고서는 갔거든. 간게 인자 그면 인자 내

가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전화로 헛게 쓰읍. 어, 그럼 내가 다 샀어. 다 내가 다 창고에다 넣으라고 했네. 근게 돈은 며칠 서 줄게 허더니 한달하 있다가 수표로 끊어 보낸 것이 오천만원치는 되는데 돈 오십만원. 아니 오백만원.

질문자 : 어...

구술자 : 그거 사가지 뭐여. 다 산다고 하고서 오백만원. 그랬더니 이당 선생도 그렇게 당했어.

질문자 : 어...

구술자 : 이당 선생도. 내가 다 산대. 어? 그 팔라고 노력하지마. 허고...

질문자 : 아이고... 정말 사기꾼이네.

구술자 : 사기꾼이지 뭐요.

질문자 : 야... 그런 사기꾼은 야... 그러면 지금 저 선생님 그림을 김대중 대통령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구술자 : 응?

질문자 : 김대중 대통령?

구술자 : 응. 가지고 있지.

질문자 : 그리고 지금 저... 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안 가지고 계셨어요?

구술자 : 안 가지고 있고.

질문자 : 누구 누구 가지고 있어요?

구술자 : 박정희

질문자 : 이명박 대통령은?

구술자 : 이명박이. 아... 가지고 있지. 시장했을적으.

구술자 관계자 : 예, 그때 가지고 계시고.

구술자 : 저...

구술자 관계자 : 노태우 대통령한테. 김옥숙 여사가.

질문자 : 김옥숙 여사가 그 그..

구술자 관계자 : 대구 전시회할 때 갈 때.

질문자 :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구술자 : 응

질문자 : 그 문화재의 혜택을 어떻게든지 받거든, 유무형으로?

구술자 : 응

질문자 : 그 저 그... 소리는 소리대로? 그런데 그림은 그게 없잖아요.

구술자 : 응?

질문자 : 그림 미... 저... 화가들은 인간문화재 지정이 안 됐잖아요.

구술자 : 인간문화재는 그거는 인간문화재가 될 수 없지. 그거 아직 미
완성인게.

질문자 : 미완성인게요?

구술자 : 미완성이여. 이건 하나의 철책이여.

질문자 : 네...

구술자 : 또 기약이여. 어떻게 풀어나가? 아직도 멀었ندی. 나 일찍 죽
은 사람들 전부 욕심 때문에 죽은거요. 명예 때문에.

질문자 : 네...

구술자 : 한소희도 그렇고. 어? 전부다 그래. 명예가 아니여. 아직도 내
가 헐 일이 많아. 기약.

질문자 : 오늘 말씀하시는 게 시사하시는 게 굉장히 많죠.

구술자 : 그렇죠 그 뭐... 그 저 거시기 거저 그걸 갖다가. 저 뭐여...
저 기름공처럼 말이여. 어? 인간문화재를 허.

질문자 : 하하 예... 아 이제 제가...

구술자 : 국보도 아니고.

질문자 : 다른 것을 제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예술하
고. 예...

구술자 : 그게 가격도 없는거여. 무한대 험거여. 내가 마하의 세계를

그리잖아? 가끔.

질문자 : 네...

구술자 : 마하. 아이 그, 이 불교말로는 겁이라고 혀. 영겁이라고 혀는
디.

질문자 : 지금 전시관 지금 문, 문 못 열죠?

구술자 : 못 열어. 그러서 어...

질문자 : 가서 보시면 예술관 무슨 소형으로 같지만은 에 진짜 이 이
선생님 것을 다 정리를 했을 때에는 완전히 우리 지역에 정말
큰...

구술자 : 그리고 에... 남문화방, 전북화방, 전주화방. 그 셋이 인자 제
일 크고. 군산에도 남문화방 지금과 같은 데가 있고. 또 전주
화방 그 동생이 혀는 게 또 있고.

질문자 : 그 세 곳이 가장 컸었고만요?

구술자 : 예. 지금도 크죠. 근데 이자 그 하나의 이 경제적으로 어뜨케
에.. 들쭉날쭉 혀 가지고 어... 잘못 되는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조금 아마 화가들이 그림을, 방출
을 못 헌게. 안 그리니께.

질문자 : 음...

구술자 : 제조상에서는 좀 곤란을 보고.

질문자 : 필방은 아까 말씀하신 그...

구술자 : 송지방.

질문자 : 송지방, 임지방

구술자 : 예.

질문자 : 그런 정도...

구술자 : 예. 그리고 임지방 자리가 그 저 허산옥씨 경영허던 행원 앞에
요. 바로. 앞에.

질문자 : 아까 고리필방 자리가...

구술자 : 예. 고리필방 자리. 예.

질문자 : (안 들림)살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술자 : 예. 하인들이 아니라.

질문자 : 예.

구술자 : 좌우간. 그 오는 객들을 모시는 집이여. 손님이 오면 글로.

질문자 : 근데 그걸 궁녀가 지었다고 하드라구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궁녀가.

구술자 : 궁녀가... 아...

질문자 : 지었다고.

구술자 : 아... 예예. 궁녀가 진 것이 아니고

질문자 : 예.

구술자 : 그 저 저그 저... 누구여. 누구 뭐...

질문자 : 박영근씨 아들 박중...

구술자 : 뭐...

질문자 : 근게 박영근씨가 진 거라고.

구술자 : 아니 지... 짓기는 그렇게 지었는가 모르지만 나중에 다 박남
철씨가 그 근처 다 샀어요.

질문자 : 백남철씨가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백남혁씨...

구술자 : 백남태씨가요.

질문자 : 백남태?

구술자 : 예. 샀어요. 사가지고 거그다가 인자 여그 남성고등학교를 저
쪽으로 이전 할 적으 전부 끊어서 또 팔았죠.

질문자 : 음...

구술자 : 남성고등학교가 왜 이전했잖아요. 저쪽으로. 저... 남중동으로. 예, 이쪽 중앙동에 있었다가.

질문자 : 네... 네...

구술자 : 그 이... 이사를 했죠. 하면서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팔아서 거 하고. 또 한양대학교 병원 짓는디 조금. 어. 그리고 그 저... 어... 여당으로서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죠? 이... 누구더라.

질문자 : 이철승씨?

구술자 : 아니아니. 익산출신 이... 여당. 그 왜 아이구 이... 이... 아이고 쫓, 그 양반이 거그 이사장을 했죠. 한동안.

질문자 : 남성학교를요?

구술자 : 예. 그런 게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자기가 이산디.

질문자 : 음...

구술자 : 이사장을 안 시키고 어면이...

질문자 :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술자 : 예.

질문자 : 예. 음.

구술자 : 그게 사위거든 사위.

질문자 : 아... 그 국회의원이?

구술자 : 국회의원이. 예. 그서 그 아주. 지금도 아들은 방랑생활해.

질문자 : 음...

구술자 : 이사는 이사지.

질문자 : 네...

구술자 : 문호식이하고 나하고 늘 술만 마시러 다니고. 그저 행원 그

사람은 행원으로 가야 술을 먹어요. 그서 그 사람 때문에 행원을 들락날락 했죠. 문호식이는 돈을 잘 벌은게.

질문자 : 음.

구술자 : 화간데도.

질문자 : 네...

구술자 : 둘이 친해요. 그런게 똑 붙어서 땡기고.

질문자 : 네... 그럼 아까 이순재 말씀하신 건 성산 이순재 말씀이시죠?

구술자 : 예?

질문자 : 성산 이순재 선생. 그 하루에 천자문을 꼭꼭 쓰셨다는...

구술자 : 아니요. 아니요. 그 이순재 선생 말고. 화가 이순재 선생인디.

질문자 : 화가가 있어요?

구술자 : 예.

질문자 : 글씨 쓰는 분 아니고?

구술자 : 아니여. 화가여. 잉.. 그 아들이 신문기자했죠.

질문자 : 음.

구술자 : 이... 이... 누구더라. 고 그 저. 그러고 그 김영창... 씨가 외숙
되죠 외숙. 어. 그 모다 그걸로 집안들이예요 한. 전주는 다
보던 전부 영켜있었어. 그 전에.

질문자 : 예. 맞아요.

구술자 : 지금은 글도 안치만. 이제는 뭐...

질문자 : 예. 다 얹혀있었어.

구술자 : 저 다가동 부자 김천수씨라고 있었어요.

질문자 : 음...

구술자 : 김천수씨 집은 어... 그것도 만석꾼이죠. 지금 모다 찌개서 전
부다 팔았드만. 집들 전부. 전부 양옥으로 거그는 지었죠. 한
옥이 아니라.

질문자 : 다가동쪽은? 음음.

구술자 : 김수천씨 집.

질문자 : 아까 또 행원에 그 양녀가 있다고 했는데.

구술자 : 예.

질문자 : 양녀 지금도 살아 계세요?

구술자 : 있죠.

질문자 :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구술자 : 나이가. 나이가 지금 한 삼십 넘었을텐데. 어려서 가... 행원...

이 죽기 전에 대학땡겼응게.

질문자 : 조카 아니고 그냥 양녀예요?

구술자 : 양녀지. 조카.

질문자 : 조카는 아는데...

구술자 : 조카를 양녀로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은. 하나 데려다가.

질문자 : 그림 그리잖아요? 조카가.

구술자 : 그런 게 그 애긴가봐. 아마.

질문자 : 허영순이요.

구술자 : 예. 그 애긴가봐.

질문자 : 오빠 아들, 오빠 딸.

구술자 : 아... 그 맞아.

질문자 : 어...

구술자 : 그 오빠기다가 도., 도움 하나도 안 줬어요. 허산옥이가.

질문자 : 근데 나중에 오빠들도 그들이 좀 없애먹었대요.

구술자 : 예. 없애먹었지.

질문자 : 아니 우리 선생님이 재밌으시다. 그... 허... 지금 조카 양녀가
오십쯤 되는데 삼십이라..(모두 크게 웃는다) 지금 오십이 됐
어요. 오십. 딸이 예수병원에 의사예요.

구술자 : 그래?

질문자 : 네. 여기 삼십쯤 넘었다 그러시는데(웃는다)

구술자 : 그런게 나만 나이 먹는 줄 알고 거 옛날. 최희태가 와서 ‘야 너는 아직 젊은데?’, ‘아녀요. 나도 칠십이 넘었어요.’ 그러니.
(모두 웃는다) 그러? 나만 나이를 먹는 걸로 알지.

질문자 : 예.

구술자 : 아직도 그...

질문자 : 어린애 같은 생각이 다...

구술자 : 응.

질문자 : 나이를. 허산옥이 남편으로 또 저기 전매청장하시던 분이 한
태수씨 맞아요?

구술자 : 예. 한태수. 예. 한태수씨 유명한 사람이요.

질문자 : 왜요? 뭘로요?

구술자 : 아, 돈만 아는 걸로.

질문자 : (웃는다)

구술자 : 그서 허산옥씨를 그냥 몽땅 그 돈 갖다가 다. 그 사업한다고
거그 저...

질문자 : 기름 짜는 거.

구술자 : 기름 짜는 거.

질문자 : 그럼 나중에 같이 사셨던

구술자 : 지금도 그

질문자 : 분은 한태수씨 아니에요?

구술자 : 공장 있대요.

질문자 : 나중에 같이 사셨던.

구술자 : 아니. 그 저 나중에 죽을 적으 현 거는 허산옥씨 수발하기 위
해서.

질문자 : 음음.

구술자 : 허셨지. 어떤 청이 있어서 헨 거 아니고. 전라남도 사람이지.

질문자 : 한태수씨가, 그 낙원을 개업을 한태수씨가 했죠?

구술자 : 아녀.

질문자 : 아...

구술자 : 낙원은 아니여. 그 저 거시기 정선생이여 낙원은.

질문자 : 정선생이?

구술자 : 어. 정선생.

질문자 : 정선생이 낙원을 처음에 시작했다.

구술자 : 어, 왜정 때. 낙원을. 부여 사람이여. 그 아주... 아주 잘생겼지
미남이고.

질문자 : 그 분이 춤 좀 하셨던, 춤 선생 아니었어요?

구술자 : 아니여.

질문자 : 아니에요?

구술자 : 아니여. 아니고. 그 저 거시기 부여, 부여 거기 부여관이 그게
인자 저 여동생.

2. 백한기氏(백남석의 子) · 백창현氏(백남혁의 孫) 구술

녹 취 일 : 2011년 4월 8일(금)

녹취장소 : 학인당

면 담 자 : 함한희, 김명엽

백창현 : 제가 당숙 어른께 들었어요. 예술에 대한거 전주에 대한 역사에 대해 구술 작업 하신다면서요.

질문자 : 아, 네네. 저희가 6월에 전주학 학술대회를 하는데 근현대에 중요한 장소들을 찾아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저는 예술후원을 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덕에 예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제안해서 그걸 맡았어요.

백창현 : 왜냐하면 해방이전에는 저희 조부님이 주축으로 갔다가 해방 이후에는 작은 할아버님 중심으로 후원회를 했었지요. 그 사업이 남아 있는 것만이라도 보면 전라북도 뿐 만이 아니고 ○○선생님 제가 어려서 봤어요. 의제 선생님건 제가 봤는데 팔려서 없구요. 벽에 붙어 있었는데 ○○선생님과 ○○선생님 것도 없어졌구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남농 선생님은 나이가 작은 할아버님과 저희 할아버님과 중간이셔서 두 분 다 친하시고, 교분이 있으셔서 같이 다니셨던 거 같아요. 의제 선생님 같은 경우엔 들락거리면서나 전주에 오셔서 주무시고 그분들에게서 배웠던 예술인들이 모이고,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이광열 선생님이 주축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학인당에 예술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던거는 호산 선생님이 우리 조부님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광열 선생

님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요, 현판 뿐만 아니라 그 분 것이 젤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 분이 전주에서 사람들과 향목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연목회를 만든것이구요.(지금은 연목회가 더 유명한데, 원래는 향목회가 전신임.) 이쪽 분이 아니고 근데 전주에서 전시를 하면 서울 다음으로 작품이 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에서처럼 많이 팔린거죠. 강남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전주가 예전에 서울의 강남처럼 많은 수요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전주에서 전시회를 열기를 열망했었고 전시회를 열면 모든 분들이 다 사주고.

질문자 : 그때 그래서 그 소장품들이 많이 있나보죠?

백창현 :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150점 정도.

질문자 : 150점 정도가 없어진거 포함해서, 그때 전시회를 열어서 많이 사라지고?

백창현 : 그리고 묵으시면 가실 때 보면 작품 활동 하실 수 있게한 보답으로 글씨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림으로 보답을 한거죠. 옛날에 보면 한량의 기질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분들이 그 당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보답이 있어서 두루마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어떤 것은 완전한 작품성은 없어요. 아주 극히 써주고 가는 부분이여서.

백한기 : 그 분들이 찾아오시면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우리 아버지는 장손이 아니고 같이 동호인이라고할까? 후원인 겸 동호인처럼 작품도 좋은 것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제가 결혼할 적에 ○○○화백이 결혼기념으로 저한테 그림을 주시고 축하하러 일부러 오시고, 변관식씨도 우리 집도 오셨고, 소리하시는 분 김○○씨, 박○○씨 그런 분들도 계셨지요.

백창현 : 저희가 근래에 토지를 조사해보니까 백씨들이 40호 이상이 살
았어요. 그러니까 40호 이상이 군락을 이루고 살았죠. 한 집
건너 한집씩 두 세집 건너 한집정도를 이루고 살았었어요.

질문자 : 그게 한 몇 년도 정도 됐나요?

백창현 : 그게 한 1930년도, 40년도. 그러니까 한 1920년도부터 시작해
서 1940년도까지 해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가 최근 언제부터 떠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5.16이후 근대화되
면서죠. 다 교동을 떠나게 되었죠.

질문자 : 그 쪽에 큰 백부자가 계셨다는데 누구예요? 백남석씨라고? 백
남석씨라고 말을 들었는데.

백창현 : 저희가 백남혁이고 거기는 남자 석자 그러니까 남석이지요.

질문자 : 똑같은?

백창현 : 백남혁이 여러분이에요. 나이가 적으신 분은 전라도 대표 일
도 하시고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적으시고. 거기는 저희 할
머님하고 먼 친척분이 되셔서 똑같은 백씨라도 그분 이야기
를 들어보면 그 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시
다가 서울고 가시게 됐고. 그 이전에 할아버지 나이에 백남혁
은 익산에 농과대학장을 하시던 분이 계시죠.

질문자 : 아 맞아요 그 분이 여기 사시진 않으셨어요?

백창현 : 네, 그 분은 익산 쪽 백남혁이고요. 그답에 백남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저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으신데 중앙동 삼화약국
뒤쪽에 사시던 백남택, 그 분이 나무왕으로 알려진 분이지요.
그 분이 거기서 살면서 해방 이후에 점차 부를 쌓으셨어요. 그
래서 그 분들 사는 것이 저희하고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질문자 : 그 분 성함이?

백창현 : 백남택, 저희 당숙어른이 말씀하신대로. 남자 택자일 겁니다.

질문자 : 근데 그 분은 남자 혁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백한기 : 네, 잘 모르고.

질문자 : 헛갈려요, 아닌게 아니라. 근데 왜 거기 사셨다고 그러세요?

백창현 : 이쪽에서 산건 그 아드님이 있어요. 그 아들이 예전에 3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뒤로는 연락처는 잘 모르겠구요. 거기도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었고... 아, 그 집 말고, 또 저희 일가 말고 백씨들이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부안 쪽 백씨들도 있어요. 고창 쪽, 부안 쪽에서 나온 분들은 저희 윗대에서 갈렸는데, 판자 수자 어른 그 답에 백관수 ○○그분하고 그답에 거기 내려오는 좀 백정기 의사, 그 일부가 전주로 들어옵니다. 전주로 들어와서 일가를 이루고 살아요. 저희 할아버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구요. 근데 백남혁은 아니고 남자 옆에 이름이 조금씩 틀리니까.

질문자 : 그러니까 헛갈렸던 모양이네.

백한기 : 하나은행 건너편에 삼층 건물 상가임대하고 그 건물 주인이 백 남자 택자신 분이에요.

질문자 : 네,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그 분의 아들.

백창현 : 네, 그 분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쪽도 상당히 부를 누려서.

질문자 : 하반영씨를 제가 두 번쯤 군산에 가서 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한옥마을에 백 남자 혁자씨 댁에 신세를 많이 졌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인당이나 했더니 어느 땐 그렇다고 하고 나중엔 아니라고 하셔서.

백창현 : 확인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사람들이 부른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죠.

백한기 : 하반영씨는 제가 잘 아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가깝게 알고 지내셨죠. 하반영씨는 저희 아버지보다 10여세 연하실거예요.

많이 오셨고 저도 잘 알아요. 중간에 직장이 간판일 하시고.

백창현 : 학인당이라 하는 것은 근래에 저희가 행사 때문에 학인당이라고 한 것이고, 1976년에 지방문화재등록신청을 하면서부터 학인당이라고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숙어른들은 더 이전부터 보셨지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것을 개장한 동기가 있어요. 개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본채를 보여줘야겠다고. 사람들이 대개 감을 못 잡더라고요. 아무리 들어와서 보기는 했어도 이 넓은 공간에서 뭘 했을까하는 것은 못 보여줬고요. 지금도 사실은 전부 다 못 보여주죠. 왜냐하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건넌방까지 다 터놓고 뒤편까지 다 트고 앞에 여기도 다 빼고 제가 저렇게 다해놨는데 저것도 다 빼낼 거예요. 그럼 좀 더 흰하게 커져 버릴 거예요. 앞뒤 공간이 다 열려 버리는 상황에서 잔치를 했었고. 이런 걸 어려서 봐 왔었기 때문에 소리하는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듣다보니까(알게 된 거지요). 제일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죠. 할아버님이 그냥 사람을 불러서 들으셨으니까 들을 수 밖에 없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LP판에다 들으시는데 흥부가고 먹고 들었을 때고. 그땐 텔레비도 음악회 하기 전에 국악회 하기 전에 들었는데 듣다보니까 알기 시작하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학인당에 진짜 좋은 거는 이런 모습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와서 들어보고 여기서 창을 해보신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울림이 틀리거든요. 여기서 하면 문을 더 열고하면 그 울림자체가 확성이 되어 나갑니다. 문을 완전히 열어 제낀 상태에서 올려서 나가면 저쪽 양쪽 사거리까지 들릴 정도가 됩니다. 마이크 없이 음향장치 없이(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곳 자체가 울림통이니까요. 그런 상태를 재작

년에 처음 보여주었죠. 사실 100주년이 넘었지만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오픈행사를 하면서 참 보여줬죠.

질문자 : 그럼 소리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와서 연회를 하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례를 하셨나요?

백창현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소리꾼들을 불러서도 연회를 했지만 소리꾼들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서로 어울렸던 거죠. 그러다보면 이제 저녁 때 쯤 되면 행원에 가서 같이 술 한잔도 하고 ○○에서도 많은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니까 돈으로 뒷바라지를 했다가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에 주흥을 불러 일으키는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행원 옆에 사실은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가 여자친구가 계셨었어요. 그 분들 기생집이었는데, 나중에는 우성여관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뵈던 적이 있어요. 행원하고 같은 나이 또래 그 분들이 있었고 같이 ○○을 했던 분들이죠. 그 분은 어디 소속이 없어요. 없어서 끊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분들한테 뭘 해준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묵어갈 수 있고 했던 거 아닐까 해요. 저희가 6·25이후에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공산당 관사로 썼었고 할아버님 작은 할아버님 당숙어른의 아버지 작은 할아버님이 되시죠. 근데 셋째가 돌아가셨어요. 6·25때 학살당한다구요. 그것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죠. 6·25 이후에는 작은 할아버님이 위주로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누가 취임해서 오거나 일 했을 때 여기서 연회를 베푸는거죠. 베풀었던 것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죠. 그게 사실 베푸는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뭘 하셨냐 하면 도의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도의원하셨을 때 이야기를 누가 해

주시냐면 진기풍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진기풍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 양반 대단했어 도의원하는데,’ 그 뭐 하나가 잘못되어서 부결되었는데 누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표결이 잘못 되었다는데 그 분이 유도가 몇 단이라나. 그래서 냅다 혼찌검을 내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창을 하시더라고요.

백한기 :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남 주기를 좋아하셔서 가지고 일가고 누구고 다 주시고 많이 주셨어요. 우리 백숙님 같이 모으고 잘 관리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없는 편이었어요.

질문자 : 그럼 향촌주장에서 식객을 하신 분들 누구세요?

백한기 : 우리 집은 집에다가 그 분들을 모신 게 아니라 여기 중바우 절에다가 계시게 했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오명선씨라고 전복일보사에 계시기도 하셨던 유명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밖에 사랑채가 비어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계시도록하고 밥은 우리 집에서 오셔서 잡숫도록 하시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질문자 : 누가 그렇게 계셨어요?

백한기 : 소명이라고 전관식씨라고, 그 분이 그때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질문자 : 하반영 선생님은요?

백한기 : 아니요. 식객은 아니셨지만, 친하게만 지내셨죠. 하반영씨하고 저희 아버지는 십 여세 차이가 나요. 왜 내가 그걸 기억하냐면 저희 아버님 회갑을 할머니 돌아가시고 초사흘 안에 아버지 회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 복을 입고는 회갑년을 안한다 하셨지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두 살 터울이신데 내 어머님이 회갑도 고생을 많이 해서 너희 어머니 회갑 때 같이 하겠다하셨지요. 우리 교동극장할 때 그제

상당히 컸어요. 274평인가.

백창현 : 개띠이고 몇 살 차이 안 나네요.

백한기 : 종이를 접어가지고 만드시고, 페인트로 칠하시고, 공작 같은 것도 그리고, 수수 같은 것을 하반영 선생님이 만들어 가지고 오서 가지고 다시고 그랬어요. 밤이 늦고 그러면 우리 집이 넓어서 저랑 같이 제 방에서 같이 주무시고 가셨지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압니다. (하반영씨가)나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죠. 간판일도 하시고 그 중간에 백도극장이라고 예술회관 건너편에 그 자리가 옛날 백도극장 자리인데 그 백도극장이 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극장이었어요. 후원회 사업으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전라북도 경찰후원회장을 지내셨어요. 백도극장에 관여하시고 하반영 선생님이 극장에서 간판일을 하시는데 백도극장 것도 아버지가 맡기시고 그래서 유대관계가 아마 깊어요. 이강천씨라고, 이강천씨는 아버지가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위에 매형이 있었어요. 3남매인데 누님의 남편이 되겠죠? 그 매형이 이강천씨 뒷바라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석건이라고. 이 분이 이강천씨하고 극장에 후원회장하고 그러니까 사위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이강천씨로 어울려가지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도 버리고 후원회장으로서 빚만 남긴다고 했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저는 나이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강천 감독을 잘 몰라요. 하반영씨는 이강천씨를 잘 알거예요.

질문자 : 친하셨대요. 또 옛날에 신상옥, 이강천이 셋이 친구였대요. 그 분들이 의외로 전주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들 군산분이신데 전주로 나오셔서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좀 필요했을 거 같아서 부자들이 좀 도움을 줬을 거 같아서요.

3. 이조필방 곽종찬氏 구술 _ 필장, 이조필방 운영, 1951년생

녹 취 일 : 2011년 5월 19일(목)

녹취장소 : 이조필방

면 담 자 : 이동희

질문자 : 지금 몇 년생이신지요?

구술자 : 51년생.

질문자 : 여기서 이조필방은 언제부터 했나요

구술자 : 그때가 34년 전이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자 : 선대에 언제부터 하시게 됐나요?

구술자 : 제가 어려서부터 했죠. 할아버지는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하기는 오래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아버님이 좀 오래하셨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간이 다 하다가 별 안목도 없고 그니까 다 그만두고 조카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카도 몇 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지금 막둥이하고 저하고 둘 남았죠.

질문자 : 형제가 몇 이시나요?

구술자 : 지금 4형제인데, 3형제가 했었죠. 막내 동생은 여산에서 하고.

질문자 : 원래 (필방을)어디서 했나요?

구술자 : 원래 제 출생지는 천안 삼거리고, 어려서 신리로 피난 내려와 가지고 신리서 컸지(6.25때). 학교도 신리 다니고

질문자 : 혹시 그 쪽에(신리역 부근) 옛날 지소 터를 아시나요?

구술자 : 신리역이 아니라, 신리 윗 동네지. 백산바위라고 거기밖에 없었죠. 어두리애가 좀 있었고. 강암리라고 산 밑에 역전 뒤에 거기가 제가 쪼그만 했을 때 종이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

데 얼마 안돼서 걷어치웠지 거기는.

질문자 : 여기서 붓을 만드셨나요?

구술자 : 그러쥬. 신리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4학년 때 본격적으로 학교 갔다 와서 만들고(아버님하고 같이). 일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거들어주고 만들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아버님이 털을 쥐가지고 인자 내가 만들었지. 학교 갔다 오면 일하고 그래서 놀 시간은 없었지 어려서도.

질문자 :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곽준팔.

질문자 : 돌아가신지는 얼마나 되나요?

구술자 : 일흔 네살에 돌아가셨나? 오래되셨쥬. 그때가 71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질문자 : 그때까지도 그럼 아버님은 신리서 붓을 만드셨나요?

구술자 : 그렇쥬. 신리서 만들면서 그때 지펜(붓펜)이 막 나와 가지고 지펜이 이기나 붓이 이기나 싸울 때쥬. 지펜이 붓 대용으로 쓰는거 넓적헌거. 근데 그것이 쓰기가 편하니까 그걸 썼지 붓은 멀리하고. 근데 아버님은 언젠가 지펜이 들어간다 지펜은 당분간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일곱 명을 두고 계속 물건을 해서 쟁였쥬. 그래도 신리서 갑부로 하면은 상관면서 글도 저희 집 밖에 없었거든요.

질문자 : 정확히 마을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상관면 지서 뒤에, 신평마을.

질문자 : 이리(裡里)로 이주할 때가 언제쯤인가요?

구술자 : 이주할 때가 70년대가? 이주하고 얼마 안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질문자 : 피신해왔으면 그렇게 돈이 많진 않으셨을텐데.

구술자 : 신리서는 갑부로 살았응게, 그때는 양 손에 두 보따리 들고 등허리가 한 보따리 이고 그 위에다 한 보따리 올리고 그러면 한 삼일이면 다 팔아가꼬 왔응게.

질문자 : (보따리를) 메고 서당을 다녔나요?

구술자 : 아뇨, 파는데, 소매상으로, 충주, 청주, 서울 뭐 전국 안 다닌 데가 없었지, 전국적으로 다 다니다가 돌아가셨죠.

질문자 : 그때 붓이 잘 팔렸군요?

구술자 : 그쵸, 지펜 나오기 직전에는, 그래가꼬 지펜하고 싸우는데 아 니나 다름까 지펜이 얼마 안돼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붓을 쌓아 논 놈이 왕창 나갔지, 막 방으로 천장 닿게 쌓아놔 었거든요. 그 놈 가지고 나가면 이틀 사흘이면 너댓보따리 다 팔아가꼬 왔응게. 그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았지 아니나 다를 까 지펜은 자연미가 없고 연필 쓰는식으로 쓰는 것 뿐이지 붓 같이는 안 나오죠. 그래서 얼마 안 나가고 지펜이 들어가고 붓을 세웠지.

질문자 : 지펜 나왔을 때가 몇 년도 정도인가요?

구술자 : 그때가 한 61년도나 되는가.

질문자 : 대전 (백제필방) 장대근씨를 아시나요?

구술자 : 장대근이 동생 친구예요, 거 신리 대전네라고 거기 살다가... 동산촌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갔지.

질문자 : 전주가 붓 수요가 많았다던지, 그런게 있었나요?

구술자 : 수요는 동등했죠, 제가 충청남도 일부 다니고, 그 때만해도 그렇게 많이는 안다녔는데, 전주하고 비교하면은 동등해요, 김제도 그렇고.

질문자 : 여기서 종이도 취급하나요?

구술자 : 네.

질문자 : 초서를 쓰는 종이하고 행서를 쓰는 종이하고 다르다는데 그런 게 있나요?

구술자 : 종이가 예서는 좀 두꺼운걸 쓰고 행서나 해서는 좀 얇은 걸 한 놈이 잘 넘어가죠. 그 차이예요. 만 건 없고 붓도 좋아야고 끝이 잘 넘어가야니까 예서는 거위가 옆으로 그시는 것 밖에 없잖아요 뽕뽕뽕뽕하네. 근데 초서는 돌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붓이 잘 넘어가야죠. 초서는 붓이 약간 부드러워야하고 예서는 좀 뽕뽕해야하고, 예서는 뽕뽕이 가기만하니까 저기하고, 너무 뽕뽕하면 초서 같은거 해서 같은거 돌리는 부분에서 뽕뽕하면 끝이 잘 안돌아가니까.

질문자 : 붓도 초서 쓰는거하고 예서 쓰는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구술자 : 그렇죠. 다르죠. 초서는 끝이 좀 가늘고 예서는 끝 밥이 많아 가지고 그래야 뽕뽕하네 나오고.

질문자 : 그럼 종이도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초서는 속력도 빠르지만은 종이도 얇은 놈에다가 써야하고 그래야 붓이 잘 넘어가거든요.

질문자 : 전주지역 필방들에 대해 좀 아시나요?

구술자 :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람이 들어서면 시장 집들이 처마가 닿을동 말동 다 오두막집이었어요. 처마 밑에 세멘종이 몇 장을 깔아요 그래놓고 붓을 쪽 펴놓지. 그리고 그 앞에 앉았고 오동호씨가. 아버지가 다 대주고 그랬지. 그 때가 제가 한 다섯 살 여섯 살이니까 그때가 한 55~57년도 되겠네요. 전쟁 직후 집들 허스름하고 했을 때. 처마 밑에다 그 때만해도 깨끗한 종이가 없었잖아요. 공사판에서 세멘종이 물에다 빨아가고 깨끗하게 해가고 말려서 그 놈 쪽 펴가고 거기다 펴놓고.

질문자 : 그럼 그 때는 고려필방이란 가게이름이 없었겠네요?

구술자 : 그 때 있었죠. 그 간판이 오래되었지. 저도 거기 한 14년 정도 대렸지. 지금 매곡교 가는 삼거리 거기 약국도 있고 송약국 있고 거기. 그 부근이 다 초가집이었지.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펴놓고 했지. 그 앞에 넓적한 종이에 고려필방이라 써놓고.

질문자 : 그럼 고려필방이 처마 밑에서 하다가 현재 고려필방 가게자리로 옮겨서 한건가요?

구술자 : 그렇지. 60년대쯤. 오래돼요 거기는.

질문자 : 그 때 송지방이 있었다는데.

구술자 : 송지방은 얼마 안 되고. 송지방이 제가 알기론 한 2~30년 했을거야. 지금 가게가 그 싸리문다방 옆에 건물이지.

질문자 : 그 전에는 우체국사거리에서 했다는데요?

구술자 : 네. 거기서 쪼그마하게 하다가 고리 옮겼지.

질문자 : 그 때(우체국 사거리로 옮긴 때)가 60년대쯤 됐나요?

구술자 : 그렇죠. 오래됐죠.

질문자 : 예전에 좁은목 앞에 유기정씨가 했다는 지소 아시나요?

구술자 : 네. 그 양반은 얼마 안했지 조금하고 그만뒀지 좁은목 앞이 아니라 좁은목서 막 돌아와 가지고 골목하나 있죠. 좁은목서 오자면은 좌측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위예요. 좁은목에서 송암사 가는 다리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시내쪽이 아니라 그 산쪽으로 조금 올라가가지고 교대까지는 안오고. 약수터에서 막 돌아와 가지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골목이 있거든요.

질문자 : 좁은목 약수터 물로 한지를 뿔다는데요?

구술자 : 그쪽에서는 말은 그런데. 물이 안 좋아져가지고 별로 물건도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계 우리 한지가 소양으로

들어가나 팔복동으로 들어가나 한참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소양으로 결정을 했어요. 종이공장 사람들이 소양 쪽이 낫다. 근데 시에서 팔복동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팔복동은 지하수 뚫어봤자 용산다리 오염된 물이 빨아 올라 오니까 종이가 안 좋죠. 그래가꼬 다 그만뒀자나 몇 년씩 하다가. 소양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지.

질문자 : 예전에 상관, 구이, 소양 이런데서 제일 한지 많이 떴던데요?

구술자 : 젤로 많이 떴던데는 흑석골이지. 상관 백산바위가 한 네군데나 될까. 닥 베끼는일 한집이 몇집 있었고 그리고 구이가 서너집 있었고. 소양 쪽은 동네전체가 했었고 또랑전너 근방 사람들은 거의 한지를 다 했었죠. 저 어렸을 때죠. (60년대쯤) 지금도 인자 그때 남은사람들이 화선지는 안 뜨고 문종이 같은거 조금씩 부업으로 뜨고.

질문자 : 소양이 언제부터 한지를 많이 떴는지요?

구술자 : 거기도 오래됐죠. 장판지도 뜨고 제가 어렸을 때도 거기 있었으께.

질문자 : 닥나무가 서해안 쪽이 경상도보다 글씨쓰기 좋다는 말이 있던데요?

구술자 : 그렇죠. 서해안 쪽이 좋죠. 이쪽 치가 좋아요. 털도 이쪽이 좋고 (붓 만드는 털도) 전라도 치가 좋아요. 강원도는 털이 좀 안 좋아, 거칠어. 그리고 제주도치는 노루털 같은 경우는 산중 색깔이 나와요. 젤로 좋기는 전라남·북도 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광주가 붓 만드는 데가 동네 전체가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그 많던 사람이 다 없어져버렸어.

질문자 : 광주는 붓 만드는 사람들끼리 계가 있었다는데.

구술자 : 응. 근데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서너사람 남았다 글더만.

질문자 : 대나무는 어땠나요?

구술자 : 대나무는 많아. 지금은 붓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만드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지만은. 중국 대는 구멍이 좁고 살이 두꺼워서 일하기도 사납고, 우리 대는 구멍이 크고 껍데기가 얇고 그래서 일하기도 편하고 빠르고.

질문자 : 그럼 종이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술자 : 전라도 것이 좋아요. 섬유질이 더 많아요. 경상도 치는 섬유질이 좀 적고 경상도 치는 먹이 안 받는 초 같은 그런 진이 나와요 좀. 그래서 잘못하면 글씨를 쓰면 먹이 안 묻어서 희끗희끗하게 약품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 종이는 귀통이를 찢으면 털이 많이 나오고 중국 종이는 닥이 안 들어가니까 뚝뚝 떨어지고 갱지처럼.

질문자 : 털이 겨울털이 좋다는데요?

구술자 : 한겨울에 설 쇠고 보름 동안 나온 털이 젤로 좋고, 웬만한 놈은 보름 쇠도 상관없이 없고. 대나무가 설에서 보름사이에 벤 놈이 완전히 쯤이 안치고, 보름 지나서 벤 놈은 껍질만 쯤이 먹어, 그리고 봄에 벤 놈은 가운데까지 살을 다 패먹어. 그런 차이점이 있어. 털도 봄에 저기 허면은 털도 안 좋고.

질문자 : 털도 수컷털이 좋나요?

구술자 : 그렇죠. 노루는 암컷이어야 하고, 염소 털은 수컷이 질고 털이 좋아요. 노루 털은 지금 안나오고 염소털을 제일 많이 쓰지. 옛날에는 황모하고 노루털이 젤로 좋았죠. 황모가 족제비 꼬리. 작은 것을 이런 걸로 만들고, 큰 것은 염소털 이런 걸로. 황모는 지금도 더러 나와요. 그리고 소 귀속 털. 우모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중국서 나와요.

질문자 : 예전에 붓 만들던 분들이 대접을 받았나요?

구술자 : 그렇지 대접을 받았지. 옛날 아버님 같은 경우 대감 집에 가면 차별이 심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필상하고는 대감들이 겸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필상을 상놈이라 하는데 상놈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자면서 붓도 고르고.

질문자 : 이조필방이 70년대 후반 개업할 때 또 다른 필방이 있었나요?

구술자 : 고려필방, 송지방. 그리고 고려필방 집안 되는 사람이 페인트 대리점을 했었죠. 시청 앞에서 대한통운 그 골목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필방을 채렸죠. 채려가고 여기서 저리헌게 중앙교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서 필방이 안 되게 고려필방에서 인수했지. 청자 페인트 대리점인디 청자필방이라고 한쪽에 채렸었지. 성지필방이라고 그 뒤에 젊은 애가 하나 관통로 옆에다가 채려가고 3년인가 하다가 그만두고 이 정도였지. 문산필방이라고 예수병원 넘어가는 다리 거기 그분이 종이장사를 했는데 물건을 인수해서 필방을 차렸어. 지금은 없어졌고. 천변건너기전에 안쪽으로 우측에 하얀 건물 하나 있었어.

질문자 : 청자필방은 몇 년쯤에 생겼나요?

구술자 : 그때가 75년도 무렵 될거요. 거기도 한 2~3년 하다 그만뒀지. 문산필방은 그 뒤고.

질문자 : 80년대에는 (필방이) 별로 없었나요?

구술자 : 별로 없었어. 한동안 한 사람이 없었어.

질문자 : 현재는 (필방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구술자 : 지금은 성지필방하고 파고다한지하고 근데 여기는 종이가 전문ینگ. 고려필방, 동양당 그리고 저희집 이거 뿐인가보고만.

질문자 : 송지방은 언제 없어졌나요?

구술자 : 오래됐죠. 지금 몇 년 됐죠.

질문자 : 전주에서 붓 만드시는 분이 유명한 분 누가 있나요?

구술자 : 없어요. 원래는 저희 집 밖에 없었고.

질문자 : 용머리고개에 하나 있다던데요?

구술자 : 거기도 광주에서 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와서 했다고. 근데 요새는 이사 갔는가? 서울 인사동 물건 가지고 다니면은 전주 붓이 광주 붓보다 좋고 싸고 항상 그랬어요 인사동 사람들이. 그때가 한 75~80년도 었을거여.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녀서 흰 고무신하면 통했어. 전주는 거의가 다른 지역 것을 재료를 안 쓰고 해남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털만 썼거든. 별것 아닌것 같애도 붓 만드는 사람은 알지.

질문자 : 그때 그럼 붓 만드는 분 선생님 혼자 었나요?

구술자 : 그렇죠. 저 하나. 그리고 광주사람 젊은 사람와서 조금 허다가 그만두고.

질문자 : 학교나 서당 문구점 다니며 납품 하셨나요?

구술자 : 학교는 몇 번 안다니고 거의가 문구점. 서당은 동네마다 있었는데 서당은 와서 가져갔지. 서당 선생이 와서 몇 개 가져가고.

질문자 : 금산필방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구술자 : 그 양반이 나보다... 원래 제가 하기는 4학년 올라가면서 털을 아버님이 따로 쥐가지고 했지. 옛날 호남제일문 쓴 거 그걸 제가 해줬거든 그 붓을 액자붓 이라고.

질문자 : 벼루는 어디가 대표적인가요?

구술자 : 벼루는 대천서 나오는데. 지금 백운산석이라고 옛날에 선비들이 물 없이 갖고 다니면서 썼다는 벼루데 그 벼루가 지금 안 나와. 대천 가면은 길보기에 산 갈아도 벼루 캐내지, 석탄 캐내지, 상석돌(비석) 캐내지. 궁계 구멍을 하도 뚫어싸니까 위에만 산이지 속은 산이 아니라는 거여. 백운산석이라는것도

최고가는 벼룬데 맥이 끊겨가지고.

질문자 : 먹은 어디가 대표적인가요?

구술자 : 먹은 울산, 서울. 대전서는 아주 고급은 안 만들고. 원래 울산,
서울 치는 좋았죠. 그 좋다기 보다 선전이 먼저 됐지.

질문자 : 종이는 어디가 대표적인가요?

구술자 : 전주 종이지. 인사동서 전주 붓이 좋다고 했어 싸고.

질문자 : 남아있는 기록이나 사진이 있나요?

구술자 : 옛날엔 뭐 그런걸 별로 신경을 안 썼으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 실로 짜매는게 아니고 밀로 지져서 만들었어요. 옛날엔 큰
붓이 없었어요. 화로에다 숯불 지펴놓고 달궈요. 밀이라고 이
것을 녹여 가지고 만들거든. 종이로 털을 모아서 밀을 집어넣
는거여. 그게 기술이여. 요만치해가지고 밀로 지져가지고 칼
로 띠어요 인자 뻘쭉허니 지금은 실로 짬매지만은 옛날엔 다
이걸로 했지. (붓을 가르키며) 요것은 마미(말꼬리), 요것이
산양 족털(밭목털), 배넛머리붓(애기뺨속에서 달고나온 머리)
붓 중에 현재는 젤로 좋아요. 서예하는 분들이 배넛머리붓으
로 글 쓰는게 평생소원이다.

질문자 : 배넛머리 붓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구술자 :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해가는 사람이 없었지 머리카락이
귀하니까.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지. 그리고 그 때는 노루털이 젤로 좋아서 그 때는 신경을
안 썼지.

4. 금산필방 채주봉氏 구술 _ 필장, 금산필방 운영, 1923년생

녹 취 일 : 2011년 5월 4일(수)

녹취장소 : 금산필방

면 담 자 : 이동희

질문자 : 붓 만드신 게 오래되셨다는데 어떻게 해서 붓을 만드시기 되셨나요?

구술자 : 어려서부터 한학공부를 했었고, 내가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있었고 붓을 사도 이게 잘 안 되어서 30살 먹어서부터 배웠죠 인자.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옆에 사람 써보라고한게 좋다고 해서. 요새는 서예를 큰 붓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1945년 해방 전후해서 그 때쯤에는 동네마다 서당이 있었다고요. 그 때는 붓을 쓰는 용체가 요새는 큰 붓으로 예술적으로 쓰는데 그때는 볼펜 쓰듯이 필기구로 하지 않았어요? 작은 붓으로 했거든 그래서 그 때는 행정사무도 봤었지. 그 때는 약방에서도 많이 쓰고 서책 기록할라면 썼었고 볼펜만양 작은 붓. 주로 노루털로 만들었지. 하도 이제 평가가 좋아보니까 찾는 데가 많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돌아버립디다. 그래서 만들어서 검해서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당방 이런데 돌아다님서 팔게 됐지.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붓 만드는 재료도 10월~3월까지 재료도 구해서 그 때 쓰고 그래요. 농한기 때는 별로 안쓰고 그렇더만요. 대도 겨울치여야 좋고. 털도 겨울치여야 좋고.

질문자 : 선대로부터 내려온건 아니신가요?

구술자 : 내가 직접 한거지. 내가 쓰게 되면서 공부하면서 한거지.

질문자 : 주로 만드신 붓은요?

구술자 : 응. 서에 필기구로 기록하는데. 큰 붓 이런거는 그땐 있지를 않았어.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손에 맞는 붓이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손에 맞는 붓이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 맞는게 있어요. 한국 붓은 부드러운 붓을 가지고 글씨를 강하게 힘차게 쓰는데 일본 붓이나 중국 붓은 힘이 뻗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주 싫어하거덩. 한동안 붓 만드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재료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지금. 인건비가 싸요. 도저히 한국 사람은 타산이 안 맞아. 거의 중국 붓이여 시방은 지금. 그니까 후계할 사람이 없어 타산이 안 맞을게.

질문자 : 전주지역에 붓 만드신 분이 누가 있나요?

구술자 : 내가 알기로 최도숙씨가 있었고, 중인리라고 그 근방에서도 만들었었고. 전국적으로 쓰니까 지방 지방마다 군 단위마다 있었을 것여. 만드는 사람 만들고 파는 사람 팔고 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했지. 즉석에서 저녁에 만들어서 아침에 팔고 했어 재료 짊어지고 다니면서.

질문자 : 언제까지 그렇게 했나요?

구술자 :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 서당 다니면서.

질문자 : (붓)가격은 얼마나 했나요?

구술자 : 노동품팔이 했으면 끝났어. 나는 수양을 많이 해서 반년은 산에 있고 반년은 팔고 그랬지. 생활이 아주 여유가 있었어요. 잠깐 활동해도 소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노동일하고는 틀려서 기술계통하고는 틀려서 짹짹한 소득이 있었어요. 반년만 활동해도 생활할 수가 있었어. 공부에 취미가 있어서 나하고 싶은 수양을 하고.

질문자 : 수요가 특별히 많았던 곳은요?

구술자 : 골고루 다 팔렸어. 변산 일주 (서당) 뺀 다 돌면 일주일 걸렸을

것여. 남원, 순창, 전라남·북도 다 돌아다녔어. 5.16전까지. 전주 헐 것 없이 다 많았어. 그 전에는 촌에서 공부해서 촌일 수록 서당이 많았어.

질문자 : 필상에 대한 대우는?

구술자 : 장사한다면 인정 안했는데 필상은 인정을 받았어. 예전에 큰 학자가 못되면 필상한다 그랬거든. 갓 만드는 사람도 대화가 되요. 직접 쓰니까 갓 쓰고 망루 쓰고 하니까. 여타장사는 다 무시당하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 중에 갓 만드는 사람하고 필상은 대우를 받았지. 생계가 어려워서 그랬지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

질문자 : 필방이 생긴 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다.

구술자 : 한 20~30년 전 일 것이여. 60년대 후로 필방이 생겼을 것이여. 그 이전에는 필방이 없었다. 점포가 있들 안했지. 다 행상이었지. 붓 만드는 것을 필방이라 했지 상업적 장사를 하던게 필방이 아니었다. 필방하면 붓 만드는데 보고 필방이라고 했지.

질문자 : 전주에 필방 오래된 곳 어디가 있나요?

구술자 : 고려당 필방이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다 중간에 생겼어. 시방은 대여섯간데 될 것이여. 그 전에는 송지방 있었지. 동양당, 한림당 5~6년전 생겼을 것이고, 고려당이나 송지방이나 그 두 간데일 (오래된) 것이여. 최도숙씨가 오래했지. 완산동에 최도숙이라고 했으면 알아줬지. 완산동 고개 있는데, 중인리에서도 주씨들이 많이 만들었지. 광종필이가 이조필방이라고 아버지가 필상이었어.

질문자 : 상관에 장씨는 모르시나요?

구술자 : 상관에 장씨는 잘 모르것어. 함열 그쪽에 유씨들도 만들었고, 농사지으면서 부업으로 그냥 옆에서 보고 만들고 그랬어. 광주 백운동은 옛날부터 유명했지. 광주는 (30년전에) 한 50명

됐어. 지금도 필업계가 있고. 지금은 한 30명 될랑가.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광주서 제일 잘 만들었거든 문화재도 됐었고. (붓은)노루털로 만들어야되는데 지금은 못 잡게 허고, 지금은 맨 놈의 염소 양털이여. 꼭 수놈털이어야지 암놈털은 안됩니다. 윤기가 달라.

질문자 : 광주에 수요가 많아서 많았나요?

구술자 : 그렇지. 백운돌골이 유명했지. 필방골목이잖아. 염소털을 쓰는데 흰 염소에 수놈이어야는데, 한국에서는 구할 길이 없어. 다 흑염소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중국서 가져오지. 한테지방(추운지역)것이 더 좋고.

질문자 : 예술적으로 쓰는 붓 어디가 많이 썼나요?

구술자 : 전주가 많이 쓰는 편이지, 전라북도에서는. 시단위로는 김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방은 그것도 아닌가비. 요새 붓이란 것이 한동안 붓이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서예원장이 밥 먹기가 힘들어요. 내가 행상 돌아다니다가 금산사 정착한지가 39년인가 될 것이여. 그전엔 행상으로 돌아다녔었어.

질문자 : 여기는 광주처럼 필업계가 없었나요?

구술자 : 여기는 없었어. 완산동 최도숙씨, 중인리 주씨만 개별적으로 좀 있지. 최도숙씨는 4~50년 만들었을것이여. (돌아가신지) 한 30년 됐지. 태인 멧고지라고 거기서 만들고 그랬어. 함열 유씨들 잘 만들고, 주씨도 안 만든지 오래되어. 함열도 몇 십년 되고. 내가 갈테가 없어서 금산사에 정착한 것이여. 찾아갈다가 없응게.

질문자 : 고향이 어디신가요?

구술자 : 본 고향이 전라도 함평입니다. 함평에서 만들다가 8·15해방 후에 김제 황산면으로 왔어.

5. 백제필방 장대근氏 구술 _ 필방, 백제필방 운영
(대전소재, 완주군 상관면 출신), 58세

녹 취 일 : 2011년 4월 20일(수)

녹취장소 : 백제필방(대전)

면 담 자 : 이동희

질문자 : 언제부터 하셨나요?

구술자 : 이 근방에서 27~8년 붓을 계속 만들었죠. 동산촌에서 만들다가요.

질문자 : 지금 연세가?

구술자 : 58이요.

질문자 : 그래도 지금은 (장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구술자 :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전 충남에도 붓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80년대 중반에 왔을 때만 해도 몇몇분 계셨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버렸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과거에 필방이라는건 없었습니다 전주에.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돗자리 깔고 붓을 만들어다가 팔았어요. 벼루 서너개만 짊어져도 무거워서 20~30리씩 못 걸어옵니다. 전주에 장이 매일 열리거든요. 옛날엔 오일장식으로 열렸어요. 그런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직접 여러 서당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생활도구를 가지고 붓을 만든거예요. 서당가면 다리미도 있고 인두도 있고. 없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나가죠. 밀이랄지 아교랄지 예리한 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붓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 깔고 거기서 털 뜯어서 기름 좀 빼서 그 자리서 묶어서 주는

그런 붓이거든요. 그냥 무슨 시스템이 갖춰진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거죠.

질문자 : 몇 대째 붓을 만들어왔나요?

구술자 : 할아버지 때부터 하고 있다. 상관에 거주하면서 할아버지는 행상을 하셨어요. 동네에서는 저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붓을)한 자루도 안 만들었어요. 다소 털 취급한다는 것만 알았다 동네 사람들이.

질문자 : 왜 그렇게 붓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 했나요?

구술자 : 붓 뿐만이 아니었죠. 옛날 같은 경우 교통이 불편하니 수 십리길 걸어가 그 서당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붓을 만들라 이거다. 그러면 요만한 털을 가지고가서 쓸 수 있는 붓을 직접 서당선생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붓을 만들었죠. 서당선생이 강한 붓을 좋아한다 직접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붓을 만들었다 이거다. 작은 글씨 붓을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었다. 그럼 만드는 것을 자주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흥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돈 욕심이 있으면, 근데 절대 옛날 선비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장인의 선을 넘지를 앓았어요. 선비님들은 값을 논하지를 앓아요. 붓을 고르는 법도 없어요. 두말도 안하고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가세요.

질문자 : (붓만드는 일을)그때는 어디서 하셨나요?

구술자 : 동산촌에서 붓을 만들어 팔러 다녔어요. 맨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젠 도저히 아니야 이진. 여기서 지금도 배달은 안해요.

질문자 :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것인가요?

구술자 : 선대 때는 일부로 쫓아다녔어요. 서당 같은 곳을. 저 같은 장

삿속 같은 예우를 받지 않았어요. 선대 때까지만 해도 존중을 받았는데 지금은 변했죠.

질문자 : 서예 종이의 수요가 전주가 많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구술자 : 서예 종이라는 것이 순지(문종이를 얇게 뜯은 것)를 그것이 이조 시대부터 뜯던 것이 거기랑게.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근방가면 닥나무가 많아요. 원료의 원산지가 거기였다고 보면 돼요. 서울이건 평양이건 거기서 다 나갔다고 보면 돼요. 전주는 큰 대단위 집단지를 이루었던거고 소비처는 전국으로 다 나갔대 이거예요. 그래서 전주한지가 유명한 것이지, 전주에서 소비가 많아서 그랬으면 유명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층은 전국이 골고루죠.

질문자 : 그럼 붓은 어땠나요?

구술자 : 붓은 전주에서 만든 데가 몇몇 집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질문자 : 떡과 벼루는 더 했겠네요?

구술자 : 벼루같은 것도 귀했다고 보면 돼요. 뱃대기 위로 불룩 튀어 오른 거, 그런 걸로 잔글씨들을 썼잖아요. 그게 먹물 애끼려고 그런 것이다. 떡이 귀하니깐, 떡도 아교하고 섞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끈을음을 받아서, 직접 만들어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손수 등에 붙어있는 기름들 털어서 땀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굴뚝털면 엄청나오는 (옛날엔 그런)시대가 아니잖아요.

질문자 : 전주에서 썼던 먹이나 벼루는 전주에서 생산이 없었나요?

구술자 : 대천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가 생산지였어.

질문자 : 집안이 붓은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떤가요?

구술자 : 할머니가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였어요. 일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식들이 설움을 받고 그럴 땐데, 그 때 생계를 이어가기 위

해서 붓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할아버지께 전수를 받았어요. 그게 대대로 내려져 온 것이예요.

질문자 : 전주에 필방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나요?

구술자 : 1960년대 말경에 고려당이 처음 생겼어. 서울에 필방 역사 깊은 것이 구하산방이고 이것이 일정 때부터 있던거여. (도청 옆길에 문우당자리에)이 사람이 부채를 주로 하던 사람이여. 필방을 하던 곳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송지방이 아닐텐디. 송 뗏을 텐디. 박지방은 없었고, 임사장이 홍지서림 사거리에서 했고, 페인트 가게랑 같이했고, 그리고 나중에 관통로에 문산필방이 생겨졌고, 관통로 생길 때 청자필방하나 생겼고, 그 무렵 성지당 필방 하나 생겼고, 그 이후로 인제 동양당이건 이조필방이 생긴 것이여.

질문자 : 전주에 필방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구술자 : 전주에는 그렇게 필방이 없었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일거여. 71년도에 고려당에서 붓을 취급하기 시작한때가 그때 쯤일거여. 그리고 그 이후에 송무슨(송지방) 도청 옆에 조그만한 것이 생겼고, 그 때만해도 일반 장에서 돛자리 깔고 팔고 그런 상황이었어.

질문자 : 예전엔 필방이 많지 않고 소규모상으로 있다가 서예로 인해서 늘었나요?

구술자 : 옛날엔 붓의 수요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엔 지방에다 다 썼고, 제사 지낼 때도 썼고, 실생활에도 많이 썼고 뭐 기록들 같은 거 붓으로 많이 했어요. 초상나면 붓으로 다 알잖아요. 일상 생활품이었어요 우산집 마냥. 전주에도 우산집들 많았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동서학동 쪽, 남고산성 들어가는 쪽에도 많았어요. 왜냐면 상관면에 대나무가 많아서 거기서 떼어

다가 거기서 만들었지.

질문자 : 문산필방(배창수씨)은 어디쯤 있었나요?

구술자 : 신흥학교 가기 전에 관통로 끝부분 다리 못 미쳐서. 한지 공장은 옥당지 공장은 동서학동에 있고, 오당지 공장은 원당리에 있고 오수업씨가 오당지 공장을 했어. 오동호씨는 고려당을 했고, 오수업씨가 만든게 오당지고 그걸 갖다 판게 오동호씨가 고려필방에서 판거지. 오당지는 원당리에서 지금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좁은목 지나서 원당리잖아요. 좁은목 약수터도 화선지 공장이고 거기서 쪽 가다보면.

질문자 : 조선시대 지도에 상관쪽 신리역쪽에 한지공장이 그려져있다. 그 위치를 아시나요?

구술자 : 신리 철뚝 넘어 공장이 있었어.(고지도에 나타난 지소는 모름)

질문자 : 서울 말고 필방이 있던 곳이 있나요?

구술자 : 서울 말고는 거의 없었고 부산에 작은 필방하나 있었어. 남포동 옆에 보광동인가 해 가지고 부흥필방인가 꽤간하게 하나 있었어요. 대구에도 필방이 한군덴가 있었어. 광주도 없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주 같은 데는 있었겠어요. 옛날에는 붓 만들 때 한창 시절 좋을 때는 서울 필방들이 와서 이런 방문에다 돈을 내놔야 붓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더 주는 선돈 받고 일을 했죠. 붓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많았으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하지도 않고, 붓 수요가 죽은 게 아니요. 붓 수요는 늘었는데 중국 붓이 난리를 쳐버리게 다 죽어버린거지.

질문자 : 서예 하시는 분들이 전주에 많았나요?

구술자 : 전주에 대가들이 많았지. 서예계를 주도하다시피 했죠. 대단했어요 전주가. 옛날에는 권위있는 전시를 많이 했죠. 전주에서 많은 서예가를 배출해냈죠.

6. 송지방 송제훈氏 구술 _ 지장, 도무형문화재(지장)

故송우석氏 子, 1960년생

녹 취 일 : 2011년 5월 7일(토)

녹취장소 : 전주대학교 벤처창업관

면 담 자 : 이동희

질문자 : 처음에 종이를 쓰신 분은 어디서 났나요?

구술자 : 처음엔 풍남동. 오목대 밑에 지금 한옥마을. 한옥마을 향교 옆에가 그때 당시 여든 몇 채를 갖고 있었데요 집을. 그니까 한옥마을 거의 그냥 가지고 있었죠. 1대 조부(송주완)께서. 전주천있는 거기다가 닥 삶고 씻고 거기서 하느라고. 물이 좋 으니까. 정확한 위치는 KBS기록보존실에다가 말했는데 아버지(송우석)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엔가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 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이면 10년이 넘었죠. 1시간짜리 했거 든요.

질문자 : 아버님이 몇 년에 작고하셨나요?

구술자 : 아버지가 7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면 90세인게. 한 13~4년 됐겠네요. 지금 시내 우체국 있죠.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하고 풍년제과 저쪽하고 한 블록이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근데 (1대 때)당신이 글씨 쓰고 싶어서 그림 그리 고 싶어가지고 물 따라만 돌아다닌거예요. 완주군 구이면 계 곡리에서도 한 20년 하셨다 그러더라구요. 그니까 물하고 닥 있는테만 쫓아다닌거요. 근데 소양닥이 가장 좋거든요.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쓰기는 황해도 해주닥하고 완주군 소양닥이 제일 좋은데 한반도에서는. 근데 지금 소양닥은 완전히 멸종

됐어요. 그리고 고개 넘어 동상면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그 닥은 안 좋아요. 머구쟁이라고 해가지고 마디가 많아요. 추우니까 닥나무 가지가 마디가 많아요. 추우니까 뻗다가 말아버리고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뻗고 우리 애기로 조롱이라고 하거든요. 섬유가 얇혀버린거. 그런 거 머구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놈으로 창호지를 뜨면 윤기가 있고 질기죠. 임실 순창당은 머구쟁이가 많고, 완주군 소양면하고 황해도 해주당은 그런게 없어요. 부드럽고 짧고. 그래서 글씨나 그림 그리고 좋고. 그니까 화선지용이고. 근데 닥나무가 비싸고 가공하기 힘들니까 저희 조부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먹발을 좋게 할라면 목재펠트를 좀 섞자 그래서 거기다 목재 펄트를 섞은 것이 화선지가 되버린거죠. 그레가꼬 화선지발명특허가 256호. 그거 특허청 들어가면 나옵니다.

질문자 : 글씨 쓰시고 그림 그리기위해 1대분께서 한지를 만드신건가요?

구술자 : 그렇죠. 그 일대가 오목대 근처에서 하시다가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가셨다가 흑석골로 마지막에 가신거죠. 오목대 밑에 지금 오모가리집 있는데 오목대 바로 밑에.

질문자 : 소양은 장판지 많이 안 뗐나요?

구술자 : 소양은 실질적으로 한지 닥나무로만 만든 장판지가 주인데, 지금은 기계지.

질문자 : 예전에는 (소양에서)장판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구술자 : 경주나 울진, 봉화 저쪽은 태백산맥 줄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양가가 풍부해요. 편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닥나무가 잘 자라요. 그런데는 잘 크기 때문에 섬유가 굵고 길어요. 그니까 가공지. 뭐 갑옷 같은거 만든다던데 아니면 집에서 다과상 만든

다던데, 그리고 서해안 쪽은 글 그림을 쓰는 닥. 지금은 이미 소양 닥은 멸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거의, 몇 가닥 있겠지만 생산성이 없으니까 배어버리죠.

질문자 : 왜 (서해안쪽이)글씨 · 그림 · 그리기 좋나요?

구술자 : 섬유가 닥나무 섬유는 속이 비었거든요. 근디 목재섬유는 속이 다 막혔어요. 뽕죽뽕죽해, 그렇기 때문에 먹을 대면은 벌어 버려요. 닥을 얼마만큼 방망이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서를 쓸 종이냐 초서를 쓸 종이냐를 만들어 내는 거요. 그것이 기술이죠. 본인 스스로만이 체험한 느낌으로만. 지금은 목재펄프를 섞어서 만드는 화선지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로지 닥나무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글씨를 초서를 쓰려면 붓이 빨리빨리 먹이 먹어야는데 안 먹는단 말예요. 그러면 몽글게 쳐안단말여 섬유를 찢어버려야혀 완전히, 오로지 손에 의해서만 해야는데, 그니까 두들기는 그것밖에 없죠. 고해도, 얼마만큼 때려가꼬 만들어서 물에 풀어보거든요.

질문자 : 도침하고는 관계없나요?

구술자 : 도침해야죠. 옛날에는 철판이 없었습니다. 그냥 햇빛에서 빨래줄에다 말리면 쭈글쭈글하죠. 글면 글씨쓰기가 안 좋죠. 그면 면풀이라는게 있어요. 쌀을 15일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막걸리처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맷돌에다 갈아요 몽글게. 그 다음에 걸러 끓여 물하고 섞어서 농도를 정해서 손에서 딱 발라가꼬 종이에다 발라요 축축허니. 한 장을 때리면 종이가 터지니까 한 20장이나 30장 정도해서 놓고 디딜방으로 때리는거요. 그럼 종이가 뽐뽐하게 퍼지거든요. 그럼서 조직도 이렇게 된 것이 오프라들고 짝 퍼지는거죠. 그게

도침지예요. 위에 걸장을 항상 놔요. 항상 버리는 놈. 그걸 복지라고 해요.

질문자 : 도침을 반들반들하게 하면 글씨가 미끄러질텐데요?

구술자 : 종이는 아무리 건조하다 그래도 습도가 7%있거든요. 지구상의 어떤 종이라도. 공기 중의 습기를 자기가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방바닥 불을 때놓고 거기다가 덮어놔버려요 수분 못날라가게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습도를 7~10%사이를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종이가 오래가. 황촉규라는게 있어요. 한약재인데요. 거기서 수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종이 뜰 때는 섬유분산제인데. 그것이 항균작용을 해요. 지금은 화학품을 쓰는데 황촉규 수액으로만 종이를 떠야지 종이가 안 썩어요. 곰팡이가 안 슬고. 이걸 안 쓰면 어떤 종이라도 천년가는 종이 없습니다.

질문자 : 도침을 얼마나 더 하나 글씨쓰기에 관련 있지 않을까요?

구술자 : 그것을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침을 하느냐. 30%에서 젤로 좋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걸로 볼 때는 그래야 종이가 늘어나지도 않고 늘어지기만하고 광도 안 나지만 퍼지기만 하는 것이 30%.

질문자 : 글씨 쓰기 좋은 종이 나쁜 종이, 이런 부분이 섬유하고도 관련 있고 도침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질문자 : 서해안이 글씨쓰기 좋은 닥이 나온다는 것은 천천히 자라서라는 건가요?

구술자 : 천천히 자라면 섬유가 윤기가 있고 잘고 기공이 적어요. 저쪽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냥 커버리니까 속이 커져버리죠. 종이는 그런 놈을 말려놓으면 질기긴 하죠. 그래서 가공지를 많

이 쓰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는 전서는 맞는데 해서 이상 넘어가면 글씨를 못 써요. 먹이 짝짝 먹어줘야는데 안 먹어주잖아요. 근데 서해안 쪽 닥은 어떤 글씨체를 써도 다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저쪽(영남)은 섬유가 굵으니까 글씨가 안 나간다는거죠. 서해안 쪽 섬유는 평균 섬유길이가 1.5m 제가 연구한 결과로써는 저쪽은 2m가 넘어요. 서해안 중에서도 글씨 쓰고 그림 그리기에는 소양 닥이 최고였죠.

질문자 : 옛날에 소양에서 종이가 많이 나왔나요?

구술자 : 겁나게 많았죠. 원래 흑석골에는 한지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조부께서 가서 맨들은 것이 한지공장이고. (소양쪽에)오명선씨, 면소재지 딱 우측으로 들어가면, 동양산업조합 있었다는 거기에 오명선씨라고 있었고. 그 때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9살 때 종이를 사러 다녔거든요. 그 쪽에서는 화선지가 좋았어요. 땅이 좋으니까. 1979년도에는 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아, 젤로 오래된 양반 생각났네. 허복동씨라고 있어. 송광사 들어갈라면 다리 하나 건너면 뚝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첫 집이 있어요 허복동씨라고. 그 양반이 거기서 젤로 오래했어요. 그 양반이 도침을 잘항게.

질문자 : 그전에는 소양에서 글씨 쓰는 종이 많이 만들었겠네요?

구술자 : 아니요 안 만들었어요 제 기억으론. 글씨 쓰는 종이는 소양다을 가져다가 저희 조부께서 흑석골서 만들었죠. 박정희 양반이 저희 종이를 갖다 많이 썼죠. 저희 집 종이만 썼어요. 서울대학교 이종상 교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있는 거 이어령씨가 초대 문화부장관 할 때 거기서 우리가 29개국 초청해서 한지로 다 나라에다 비행기로 보내가지고 작품 공수해가지고 전시하고.

질문자 : 이 지역에 서예하시는 분들도 종이를 많이 가져다 썼겠네요?

구술자 : 그럼요. 백당 선생, 석전, 강암 저희 종이 안 쓴 사람 없어요. 화선지나 한지나 저희가 자기들이 원하는 종이 다 만들어주니까.

질문자 : 그 당시 고려필방의 오당지를 많이 썼다는데?

구술자 : (오당지 만든건)오수업씨요. 지금 오남용이라고 딸이 지금 팔복동에서 한코리아라고 하고 있죠. 큰딸이거든요. 원당리에 살다가 흑석골에 있는 거 없어지고 지금 한코리아하고 있는데, 오당지를 오동호씨가 만든게 아니요. 오수업씨가 만든거지. 오동호씨네꺼 세내서 한거죠, 집은 동상면인데, 흑석골에서 하다가 원당리로 간거죠. 오당지가 한 때 잘나갔죠. 먹이 잘 먹으니까. 닥나무는 먹이 잘 안 먹거든요.

질문자 : 문우당 자리 송지방이 (원래)이름이 송지방이었나요?

구술자 : 네. 해방 후에 저희 아버지 때 송지방이라고 냈죠, 고려필방은 한참 뒤죠, 20년 정도 뒤죠. 처음에 우체국사거리 석리당 들어가는 골목 바로 옆에 (도장가게 있고, 삼성안과 들어가는 골목) 거기에 있었죠. 그러다가 가게세가 비싸지니까 도청 옆으로 그리고 불교사 옆에 마지막으로 표구사하고 같이 할 거요. 지금 돌아가신 양반 아들이. 도청 옆 문우당 자리가 두 번째. 지필묵은 다 했죠. 붓은 광주 진다리 거 갖다 쓰고, 그때는 전주에서는 붓대는 잘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질문자 : 임지방인가 박지방인가도 있었다는데?

구술자 :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송지방 때문에 너도나도 장씨는 장지방 이렇게. 송가 한지가 최고였었죠. 전라북도든 송가 한지하면 끝나버렸으께.

질문자 : 종이가 전주에 수요가 특별히 많거나 했던 건 없었나요?

구술자 : 의케 납품했던 종이가 지금 있어요. 이어령씨가 초대 문화부 장관했을때 1992~3년도 됐을 때 그때 375년 됐다고 했거든요. 그 종이가 지금 있어요. 홍화물 들인거, 치자물 들인거, 쪽 빛 들인거, 몇 가지 있거든요.

질문자 : 흑석골 땅이 다 오동호씨 땅이었다는데?

구술자 : 다는 아니죠. 한 오천평 있죠. 다 세내주고 했어요. 거기가 청보제지, 평화제지, 문성제지, 세군데 있었어요. 동상면 오씨들이 흑석골로 온 거다. 흑석골 종이공장이 잘 된다하니까. 원래 저희 집 한군데 밖에 없었는데. 공장이 13개 있었는데 그중 7명인가가 오씨여. 중국 수교한 뒤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 몇 년 만에 싹 없어졌어. 그전까지 일본에 수출도 많이 했어요. 종이가 딸리니까 막 1년치 선불 맡겨놓고가고 그랬어요. (중국 수교 전까지만 해도)

질문자 : 사람들이 폐수처리 때문에 다 쫓겨났다는데요?

구술자 : 안 그러. 말하기 좋게 말한거지. 폐수처리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중국수교문제가 컸어. 우리나라 인건비도 안 되는데 원가가.

질문자 : (한지틀)소양, 구이, 상판, 동상 정도가 많이 떴나요?

구술자 : 옛날에는 소양 면소재지에 공장이 있었죠. 뒤쪽 또랑 쪽으로. 거기는 주로 화선지 계통이고, 장판지는 송광사 쪽에 두 세군데 있었고. 허복동이 그 양반이 그 동네 박산데. 지금 살아계시면 아흔 몇 살 일텐데. 그 양반이 도침 최고 기술자여.

질문자 : 좁은목 약수터가 물이 많이 쏟아져서 그 물로 한지 떴다는데요?

구술자 : 안 그래요. 그 물로는 종이 못 뜨지. 철분이 많아가지고. 종이는 철분 많으면 나중에 빨강게 변해요. 오래 못 가 끊어져 버

려 삭아가꼬. 흐르는 물 자연수가 제일 좋아요.

질문자 : 우물 파서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구술자 : 했쥬. 비오면 흙탕물 돼서 못쓰니까. 우물 파도 탱크에다가 저장해서 가라 앉혀서 썼쥬. 종이 안 좋아요 수명이 짧고. 광목에 몇 번 걸러쓰던가.

질문자 : 닻무지는?

구술자 : 남쪽으로 닻을 베고, 바닥에 큰 돌을 많이 깔고 밑에다 불을 때 그럼 돌이 달구어지면 그 위에 닻나무 다발 묶은 놈을 놓고 거적데기를 덮어 수증기 못날라가게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 그러면 돌에서 수증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익는거여 그게 오리지날 닻무지여. 베는 것은 음력 11월에 베어야지 수분이 적고 그니까 두 번째 서리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태국애들은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아무 때나 혀. 칼집내서 막 베고 또 걷어내고. 라오스 접경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아랫지역은 거의 없고. 개네들 닻은 더 잘어 섬유가 더 몽글어. 거의 목재펠프만해요. 10m이상 넘들 안해. 그 중에서도 태국닥은 12~3m되는데 우리나라 것은 25~30m도 되거든 길어 섬유가 그리고 속이 비었어. 종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빗갈도 틀려요. 우리나라 종이는 반짝반짝 빛나거든, 근데 애네들 닻은 빛나들 안혀.

질문자 : 옛날 종이 얇은거보면 찰랑찰랑 소리가 난다던데요?

구술자 : 왜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냐면 얇은 종이가, 얇으면 얇을수록 황축규 수액을 더 많이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탈수가 늦어지니까. 그니까 풀끼가 있으니까 찰랑거릴 수밖에 없지. 한지는 쥐가 도망가요. 태국닥만 뜯어 먹어요 한국닥은 뜯어 먹들 안해요. 황축규가 천연방부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7. 고려필방 문지연氏 구술 _ 고려필방 창업자 오동호씨 子婦, 고려 필방 운영

녹 취 일 : 2011년 4월 12일(화)

녹취장소 : 고려필방

면 담 자 : 이동희

질문자 : 고려당이 가장 오래된 필방이라고 들었는데?

구술자 : 네, 그 당시 흑석골에서 한지공장을 같이 겸했죠. 그때는 전국에 우리나라 90%이상이 전주에서 생산되는 화선지로 납품이 됐는데, 그런 걸 거의 다 이쪽에서 보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중국에서 오는게 90%이상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외제는 없었죠, 국내생산인데, 그래서 이름이 다 붙여져 있었죠 화선지마다.

질문자 : 그때 오동호 선생님이 운영하던 한지공장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이름은 특별히 없었고, 흑석골 한지공장이라고 했죠. (흑석골에)거기를 다 했죠. 그 공장들이 다 저희꺼 였거든요. (위쪽에)천양제지 최사장님쪽은 아니고 그 밑에 5천평 이었거든요.

질문자 : 그러면 굉장히 컸네요?

구술자 : 네 굉장히 컸죠. 나중에는 세를 내주고 잘하시는 분한테 세를 내주면서 저희가 주문하는 종이를 쓰시게 했죠.

질문자 : 그전에는(6·25전에) 그럼 오동호 선생님은 어디서 하셨나요?

구술자 : (아버님이)동상면에서는 한지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고향이시구요.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한지를 하셨어요.

질문자 : 이 자리가 원래 임지방 자리였다고 하던데요?

구술자 : 임지방이 아니고 임치과 자리였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자 : (고려필방 한지가)얼마나 됐나요?

구술자 : 40년 넘었죠. 50년 정도 돼요. 왜냐면 아버님이 골동품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한지장판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공장까지 하다보니까 자제분들이 있지만은 출장을 맨날 가야하니까 아버님이 출장을 못 다니게 하셨어. 가정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시숙님이 처음에 받았는데 하시다가 외국가시고 저희가 셋째데 저희 애기아빠도 다른 거 하시고 제가 그냥 꾸준히, 지금은 저 혼자해요. 제가 26년 됐죠.

질문자 : 종이를 어디서 가져왔다던지 그런 얘기들 들은 것 없나요?

구술자 : 예전에는 유명하신 분들은 저희 집을 다 거치셨고. 서예하신 분들이 오시면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방처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다 만나고, 지금도 그런 걸 못 잊어서 꾸준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에는 여기 있으면 정말 심심치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질문자 : 전주에서 예술 활동 하시던 분들은 거의 여기를 다니셨군요?

구술자 : 여기를 다 거치셨죠. 옛날엔 여기밖에 없었으니깐.

질문자 : 어디 종이가 좋다는 그런 얘기 없었나요?

구술자 : 한지계통은 특별히 없어요. 전주가 생산지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버님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뭐 꼭 뜨면 아버님한테 갖고 와서 아버님이 시필을 해 보세요. 그러면 뭐 석회 뭐를 더 넣어라 어찌라 이런 말씀하셨고.

질문자 : 전주의 유별났던 점, 지역적 특색이 있었나요?

구술자 : 지금은 없죠, 지금은 똑같죠, 지금은 중국에서 다 들어오니깐. 수요도, 서예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인구들이 자꾸 줄으니까.

질문자 : 수요가 예전에 많았나요?

구술자 : 수요는 말도 못했죠. 저희 하루 종일 물건을 썼어요(실어나가는거). 저 있을 때는 직원이 세 명. 시외로 나가는 물건을 썼어요. 이걸 뭐 전국구로(나갔죠). 나가는 물건을 매일 싸고, 시숙님은 출장을 한 달에 보름은 나가야 돼, 수금하러.

질문자 : 주로 나가는 게 화선지인가요?

구술자 : 그건 뭐 전부다. 전에는 무지무지했죠.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붓 글씨를 의무적으로 했었잖아요.

8. 월정서에 신문수氏 구술 _ 서예가, 월정서에(싸전다리 부근)
운영, 69세

녹 취 일 : 2011년 4월 19일(화)

녹취장소 : 월정서에

면 담 자 : 이동희

질문자 : 여기 보니까 일기라고 써 놓으신 것이 있으신데, 몇 년 도부터
쓰신 건가요?

구술자 : 지금 한 학원한지가 30년 되는데 일부는 화재가 나가지고(타
어). 제가 지금 예순아홉이다.

질문자 : 붓은 어디서 만들어서 가져오나요?

구술자 : 광주 백운동에서도 만들고 전주 서학동에서 만들었습니다. 지
금은 그분들이 다 안 계셔. 그때가 한 87년 정도. 지금은 다 뿔
뿔이 헤어지고 안계시고. 붓을 직접 맨드는 어른들은 금산사에
채주봉 선생님이 만들으세요. 여기 대필은 전부 그것이고요,
고려필방 오동호 선생님 계실 때는 전부 샀는데. 지금 현재 붓
만드는 곳은 이조필방이라고 있어요. 풍남문 바로 후문 옆에.
아마 그분이 붓을 메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당도 어디
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붓을 대량으로 많이 들어드만요.
그래서 각 서원 학교에 보급을 많이 하는 것 같여.

질문자 : 고려필방에 서예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셨나요?

구술자 : 많습니다. 고인 되신 강암 선생, 석전 선생도 붓을 거기서 갖
다 쓰시고.

질문자 : 종이는 어디 종이가 좋았나요?

구술자 : 고려필방의 오당지라고 그게 참 좋았어요. 흑석골에 그 근방

이 모두 그 어른 것 이었어요. 오당지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죽지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화선지가 손으로 뜨는 것이 없고 그리고 송지방이 있었어. 고려필방하고 송지방이 쌍벽을 했어. 송지방은 최근까지만 해도 공장이 있어요. 송지방이 문우당 옆에 있었어요.

질문자 : 죽지도 오동호씨가 만들었나요?

구술자 : 죽지는 모르겠는데, 오당지는 유명한 종이에요. 1970~90년대 까지도, 요새는 화선지를 많이 만들어, 거기가 오염이 된다 해서 폐철수 되버렸거든. 여기저리 지원을 받고 해서 기계지가 나와가지고 많이 썼는데, 저도 지금 한지를 많이 쓰죠. 화선지는 40년 이상이 지나면 부패되고 습기를 잘 받고 그것이 고실고실 떨어져버려.

질문자 : 오당지는 전국으로 다 나갔겠네요?

구술자 : 네, 전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오당지를 썼죠. 송지방의 종이는 좋았는데 조금 유했어. 오당지는 조금 강한 편이었어.

질문자 : 소양 쪽에서 나오는 종이는 글 쓰는데 안썼나요?

구술자 : 그 종이는 제가 안 써봤어요. 그쪽은 장판지고, 오동호 선생님 한지만 기준했지.

질문자 : 송지방은 몇 년도에 없어졌나요?

구술자 :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초반에 없어졌던가. (송우석 씨가)계셨을 때 제가 주로 거기를 다녔죠.

질문자 : 임지방, 박지방이 있었나요?

구술자 : 그건 내가 잘은 몰르겠네.

질문자 : 그때 오셨을때(70년대) 필방이 뭐가 더 있었나요?

구술자 : 글썸, 이조필방이라고 있었고, 그 후로 금산사 금산필방 채주

봉 선생. 파고다는 근래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화 불교사라고 있는데 거기가 조화필방이라고 있었어. 지금은 파고다 옆에서 조화불교사를 크게 하고 있어.

질문자 : 우리 지역에서 고려필방하고 송지방이 오래 됐네요.

구술자 : 응, 제일 오래되고, 그 뒤로 이조필방이 생겼는데 거기도 아마 순서로 보면 고려필방, 송지방, 이조필방 일거야, 제가 알기론 누가 먼저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고려필방 먼저 이용을 했으니까. 그때 (고려필방이)대단했어.

<보고서>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

【보고서요약】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한국 전라북도의 전주시와 중국 광서성의 전주현은 ‘전주(全州)’라는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완산(完山), 금산사(金山寺) 등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산과 사찰이 있다. 기린산, 기린봉으로 불리는 산도 두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전주가 서로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었으며, 2011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중국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가 지명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역사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지명을 같이하고 있고, 형세도 유사하며, 중국 전주 지명 연원이 후백제 멸망 직후라는 점에서 좀 더 폭넓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주 지명이 중국 전주보다 먼저 쓰였음도 주목된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 전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전주역사박물관 · 전주시,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 2011)

○ 연구명 :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의 역사적 연관성 조사

○ 연구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2월

○ 중국 현지 조사 : 2011년 1월 4일 ~ 11일

○ 연구자 : 책임연구원 조법중(우석대 사회교육과 교수)

연구원 권덕영(부산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박현규(순천향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연구보조원 최우중(어진박물관 학예연구사)

나상형(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I. 중국 광서성 전주현 개관

광서성(廣西城) 전주는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광서 장족자치구 계림(桂林)지구(桂林市)에 소속된 현이다. 전주현은 자치구 동북쪽으로 호남성과 접해있어 광서 서대문(西大門)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상급 관할지 계림에서 125km 떨어져있고, 호남 영주(永州)로부터 78km 떨어져있다. 지도상의 위치는 동경 110°37' - 111°29' 이고, 북위 25°29' - 26°23'이다. 동북쪽 경계는 호남 영주시 영릉구(永州市 零陵區)와 쌍패현(雙牌縣)이고, 북쪽 경계는 호남 신녕현(新寧縣)과 동안현(東安縣)이며, 서쪽 경계는 광서 자원현(資源縣)이며, 남쪽 경계는 광서 관양현(灌陽縣)과 흥안현(興安縣)이다. 남북 길이는 99.23km이고, 동서 길이는 85.77km이다. 전체 면적은 4,021km²이고, 전체 인구는 78만명(2009년 기준)이다.

광서 전주의 지형은 서북쪽에 월성령(越城嶺) 산맥이 있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산지와 구릉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편이다. 가장 높은 산은 해발 2123.4m인 진보정(眞寶頂)이다. 광서 전주 경내에는 여러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강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상강(湘江), 관강(灌江)이다. 교통은 광서와 호남을 잇는 길목에 있어 일찍부터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철도는 상계철로(湘桂鐵路)가 지나가고, 도로는 G72로와 G322로가 지나간다. 예전에는 선박이 수로 상강(湘江)을 통해 장강으로 드나들었으나, 1958년 이후로부터 상강에 여러 제방이 생겨 운행이 중단되었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하며, 평균 온도는 17.8℃이며, 평균 강수량은 1489mm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옥수수, 생강, 고추, 마늘, 감귤, 은행 등이고, 주요 축산물은 돼지, 소, 양이며, 주요 광물은 석탄, 아연, 주석, 망간, 금 등이다.

광서 전주의 건립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BC 221년(진시황 26)에 광서 전주에 영릉현(零陵縣)을 설치하고, 장사군(長沙郡)에 속했다. BC 111년

(서한 元鼎 6)에 영릉군(零陵郡, 현 咸水)을 설치하고, 관할지에 조양현(洮陽縣)과 영릉현(零陵縣)을 두었다. 후한 시대에 영릉현을 천릉(泉陵, 현 永州)으로 옮겼다. 삼국 시대에 촉나라에 속했다가, 나중에 오나라에 속했다. 590년(수 開皇 10)에 조양(洮陽), 영릉(零陵), 관양(觀陽)을 폐하고 상원현(湘源縣)을 설치했다. 907년(梁 開平 1)에 마은(馬殷)을 초왕으로 삼고, 상원현을 초국(楚國)에 속하게 했다. 926년(후당 天成 1)에 상원현을 상천현(湘川縣)으로 바꿨다. 939년(後晉 天福 4)[일설에는 937년(전북 2)]에 초왕 마희범(馬希範)이 상주하여 전주(全州)를 설치하고, 상천현을 청상현(淸湘縣)으로 바꿨다. 전주는 청상현과 관양현을 관할했다. 1277년(元 至元 14)에 전주로(全州路)로 바꾸고 호광(湖廣) 영릉군(零陵郡)에 속했다. 1368년(明 洪武 1)에 전주부(全州府)로 승격했다가, 1376년(홍무 9)에 주(州)로 강등당하고, 호광(湖廣) 영주부(永州府)에 속했다. 1394년(홍무 27)에 상급 관할지를 광서(廣西) 계림부(桂林府)로 옮겼다. 1911년(민국 1)에 전주에서 전현(全縣)으로 바꿨고, 1935년(민국 24)에 현의 서쪽 지역을 나누어 자원현(資源縣)을 건립했다. 1952년에 자원현(資源縣)을 합병했다가, 1953년에 다시 자원현(資源縣)을 분리하였다. 1959년에 전주현으로 바꿨다.

오늘날 광서 전주의 행정지에는 9개 진(鎭), 7개 향(鄉), 2개 민족향(民族鄉)이 있다.(2008년 기준) 이것을 나열하면 전주진(全州鎭), 황사하진(黃沙河鎭), 묘두진(廟頭鎭), 문교진(文橋鎭), 대서강진(大西江鎭), 용수진(龍水鎭), 재만진(才灣鎭), 소수진(紹水鎭), 석당진(石塘鎭), 영세향(永歲鄉), 패당향(枳塘鄉), 함수향(咸水鄉), 봉황향(鳳凰鄉), 초강요족향(蕉江瑶族鄉), 안화향(安和鄉), 양하향(兩河鄉), 백보향(白寶鄉), 동산요족향(東山瑶族鄉)이다. 현정부는 전주진에 소재하고 있다.

Ⅱ.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의 동일 지명 연원

1. 전주(全州)

한국의 전라북도 전주는 757년(경덕왕 16) 한자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완산에서 전주로 개명되었다. 즉 통일신라 경덕왕 때 지명을 대대적으로 한자식으로 고쳤으며, 그러면서 완산을 전주로 개명하였다.

반면에 중국 광서성의 전주는 본래 상원현으로, 한국 전주 보다 훨씬 뒤인 937년 또는 939년 전진(全眞) 화상의 이름에서 ‘전’자를 따와 붙여진 지명이었다. 즉 중국 전주에 무량수불의 화신으로 숭배되던 고승 전진화상이 있었으며, 그를 기념해 초왕 마희범이 현을 주로 승격시키고 지명을 전진화상의 ‘전’자를 붙여 전주로 해 줄 것을 중앙에 상주하여 상원현을 전주로 개명하였다. 전진화상은 867년 입적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등신불로 만들어져 묘명탑에 안치되었다.

【자료】

○ 〈봉반자우적조대사가봉응칙첩(奉頒慈佑寂照大師加封應勅牒)〉

(1198년)

후진 천복 연간에 담수(潭帥) 마희범(馬希範)이 상원(湘源)이 스승의 실질 도장이라며 현을 전주로 승격할 것을 청하였다. 대개 스승의 법호에서 명명하였다.

[晉天福中, 潭帥馬希範以湘源, 實師道場, 請陞縣爲全州, 盖以師法號名焉. (《(康熙)湘山志》 권3 〈勅封〉)]

○ 《(강희)상산지(康熙 湘山志)》(서필(徐泌) 원본 : 1681년)

처음에 상원성(湘源城)은 원(淨土院) 서쪽 7리에 있었다. 석진(石晉 : 후진) 정유년(937)에 초번(楚藩) 마희범이 조사(祖師)의 법명이

전진(全眞)이고, 또 조사의 《이익경(利益經)》을 열독하니 내가 응중(應中)에 청상호광(淸湘毫光)을 발하여 운상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조정에 상주하여 (상원)성을 (정토)원 동남쪽으로 옮기고, 현을 주로 승격하고, 이름을 전주라고 했다.

[初, 湘源城在院西七里. 石晉丁酉楚藩馬希範, 以師法諱全眞, 又閱師《利益經》云: 吾于應中見淸湘毫光, 輪淸湘毫光. 因是奏于朝, 徙城院之東南, 陞縣爲州, 命名曰全.(권1 〈因緣〉)]

○ 《(康熙)湘山志》(장담연(張澹烟) 수정본 : 1708년)

처음에 상원현(湘源縣)은 (淨土)院 서쪽 7리에 있었다. 石晉(후진) 정유년(937)에 초번(楚藩) 마희범이 조사의 범명이 전진인 사실을 조정에 상주하여 (상원)성을 (정토)원 동남쪽으로 옮기고, 현을 주로 승격하고 이름을 전주라고 했다.

[初, 湘源縣在院西七里. 石晉丁酉楚藩馬希範, 以師法諱全眞, 因事奏于朝, 徙城于院之東南, 陞縣爲州, 命名曰全.]

○ 전진화상 생애

전진의 속성은 주(周)이고, 자호는 무량주인(無量主人)이며, 전진은 그의 범명이다. 부친은 상서(尙書)를 역임한 주정(周鼎)이고, 모친은 웅씨(熊氏)이다. 침주 정수향(郴州 程水鄉 : 현 湖南 資興) 사람이다. 출생연도에 대해 문헌에 따라 704년(장안 4), 728년(개원 16) 등 여러 기록이 존재하지만, 입적연대는 모두 867년(함통 8)으로 일치한다. 침주(郴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출가했다. 항주(杭州) 경산(徑山)에서 득도를 하였다. 748년(천보 7)에 스승 도흠선사(道欽禪師)를 따라 장안에서 현종을 알현했다. 그 후 여러 지방과 사찰을 돌아다니며 교화 활동에 나섰다. 756년(지덕 1)에 전주에 들어와 불법을 전수했다. 847년(대중 1) 현 상산사의 전신인 정토원(淨土院 : 현 湘山寺)을 세웠다. 지역민들은 전진조사를 무량수불(無量壽佛)의 화신으로 숭배하고, 정토원은 ‘초남제일사(楚南第一寺)’라고 널리 알려졌다. 867

년(함통 8)에 입적했다. 그의 유해는 등신불로 만들어져 불감에 담아 놓았다. 874년(건부 1)에 묘명탑을 세우고 탑 속에 안치했다.

2. 완산(完山)

한국 전주의 완산은 시내 일원에 자리하여, 전주의 옛 지명 완산의 유래가 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이다. 삼국시대 백제 때 전주의 옛 지명이 완산이며, 고려 중기 이규보가 그의 저서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서 “소위 완산(完山)이란 산은 나지막한 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한 고을이 이로써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한 것에 보이듯이 전주 옛 지명 완산이 이 산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곧 한국 전주의 완산이라는 지명의 연원이 고대사회까지 올라감을 말해 준다.

그런데 중국 전주 완산의 연원은 달랐다. 시내 일원에 자리하여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중국 전주의 완산은 명대에 등장하였다. 중국 전주의 완산은 본래 발우산(鉢盂山)이라고 하였는데, 명나라 때 이 지역의 수령인 고린이 산의 형태가 완정하고 빼어난 인물이 모여든 것을 보고 완산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전주의 완산은 대략 15세기 이후의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康熙)全州志》(1689년)

완산은 합강문(合江門) 밖에 있다. 산의 형태가 완정하고, 홀로 우뚝하게 성곽을 등지고 있다. 속칭 발우산(鉢盂山)인데, 수령 고린이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그 산기슭에 합강정(合江亭)이 있다.

[完山, 在合江門外, 山形完整, 巋然負郭, 俗呼名鉢盂山, 顧守璘易今

名, 其麓有合江亭.(권1 〈山川〉)

○ 《(嘉慶)全州志》(1799년)

완산은 합강문 밖에 있다. 옛 이름은 발우산이다. 수령 고린이 산의 형태가 완정하고 빼어난 인물이 모여든 것을 보고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그 산기슭에 합강정이 있다.

[完山, 在合江門外, 舊名鉢盂山, 顧守璘見其山形完整, 鍾秀人物, 易今名, 其麓有合江亭.(권1 〈山川〉)]

※ 2003년 완산(발우산) 봉우리에 뇌공탑(雷公塔) 건립.

- － 풍수지리상 광서 전주현의 좋은 기운을 돋우기 위해 완산(발우산)에 뇌공탑을 세움.
- － 매일 밤 뇌공탑에서 전주 시내로 레이저 광선을 쏘아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
- － 전주현의 삼대 탑 : 완산 뇌공탑(2003년), 상산 묘명탑(妙明塔, 874년), 용산 진상탑(鎭湘塔, 1798년)

3. 금산사(金山寺)

한국 전주의 금산사는 행정구역이 전라북도 전주에 속하지 않고, 김제시에 속해 있지만 전주 인근이므로, 한국과 중국 전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주목되는 사찰이다. 한국의 금산사는 삼국시대 때인 599년(백제 법왕 1)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산사가 미륵의 도량으로 자리한 것은 통일신라 때인 766년(신라 혜공왕 2)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중창하면서부터이다. 금산사는 또 935년 후백제 견훤이 유폐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한국 전주의 금산사에 비해, 중국 전주의 금산사는 그 연원이 깊지 않았다. 중국 금산사는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에 창건된 사찰이었

다. 그 규모와 지역사적 위치에서 두 지역의 대표적 사찰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한국 금산사가 6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창건되고 중창된 것임에 반해 중국 금산사는 그 보다 천년여가 뒤진 16, 17세기 경에 건립된 것이었다.

【자료】

○ [중국한자 : 명말시기 창건 추정]

梔塘鄉(패당향) 金山寺(금산사) 옛터의 잔석 명문 : 바야흐로 명말 연간에 창건하다.

["方於明季年間建"]

○ [중국 전주 향토학자 : 명말시기 창건 추정]

唐國輝, 唐玉蘭, 寥文麗, 〈雲罩霧鎖金山寺〉, 《楚南文學》 1호, 楚南文學社, 2010.10, 쪽18~22.

○ 《(민국)전현지》(1942년)

금산사는 (전주)성 남쪽 30리에 은향(恩鄉) 황가촌(黃家村)과 마주한 곳에 있다. 청 강희연간에 건립되었다.

[金山寺, 在城南三十里, 恩鄉與黃家村對峙, 建于清康熙時.](第12編 〈古蹟〉)]

※ 금산사 모습

－ 민국 연간에 사찰이 훼손되고 학교로 바뀜. 2005년에 학교가 폐교됨.

－ 금산사 옛 터의 각종 비문은 모두 청대 이후에 세운 것임. 〈恩免功德碑文〉(1694년), 〈恩賜禁碑〉(1783년), 〈金山歸一和尚塔〉(청 융정말~건륭초) 〈崑山和尚塔〉(1770년)

－ 임제종 계통 사찰임.

Ⅲ. 한국과 중국 전주의 역사적 교류 흔적

1. 고려 충선왕이 보물을 내려준 상산사

전주현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상산사는 756년 당나라 고승 전진(全眞, 無量壽佛)이 창건하였으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정토원(淨土院)이었다. 1004~1007년(송 경덕 연간) 상산사로 개명하였다. 1945년 일본군 방화로 훼손되었다가(묘명탑, 석각군, 석물 등만 남음), 최근 복원되었다.(圓通寶殿, 無量壽佛殿, 상산광장 등) 상산사의 창건자 전진화상은 전주 지명의 연원이 된 고승이다.

고려 충선왕이 이 상산사에 6종의 보물을 내려주었다. 하사한 보물은 세 상을 밝히는 여명주, 팔보로 만든 비로상, 봉황 깃털로 만든 모자, 금자로 적은 《화엄경(華嚴經)》, 금실로 수놓은 가사, 금으로 만든 발우 등이다.

또한 1327년 상산사 용천산(龍泉山) 서선당(西禪堂) 중을 주조하였는데, 고려국 왕사 철산명안화상(鐵山明眼和尚)이 증맹(証盟)하였다는 기록도 전한다.

【자료】

○ 《(康熙)湘山志》(徐泌 원본 : 1681년)

원 至大 연간에 철산장로(鐵山長老)가 고려 국왕에게 시주를 모았다. 신해년 여름에 (고려)국왕이 사절을 보내어 금륜상정(金輪相頂), 팔보(八寶), 봉시모(鳳翅帽),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금수천불가사(金繡千佛袈裟), 금발우(金鉢盂)를 하사했다. 이해 7월 6일에 산에 도착하여 이튿날 아침에 금륜상정(金輪相頂)을 철탑 꼭대기에 안장하고, 성체(聖體)에 팔보(八寶) 모자를 입히고 금수 가사를 걸쳤다. 도읍 수령과 명사, 기로들이 향불을 올리고 예불을 했다. 재가 막 끝났

을 때 철산장로가 급자기 금색 호광을 띠고 은은히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때 모두 놀라면서 장로가 조사(전진)의 화신이라고 말했다.

[元至大間, 有鐵山長老募之高麗國王. 辛亥夏, 國王端使資金輪相頂, 八寶, 鳳翅帽, 金字華嚴經, 金繡千佛袈裟, 金鉢盂. 從鐵山導引, 以其年七月朔六到山, 詰旦, 安金輪相于鐵塔之頂, 加聖體八寶帽, 披金繡袈裟. 郡邑守令紳衿耆老, 拈香頂禮, 上齋供甫畢, 鐵山長老儵見金色毫光, 隱隱乘空而去, 時皆訝, 謂長老又卽師之化身也. (권1 〈因緣〉)]

○ 《(康熙)湘山志》(張澹烟 수정본 : 1708년)

상산사(湘山寺) 용천산(龍泉山) 서선당(西禪堂) 종(鐘)은 원 태정 4년 丁卯(1327) 겨울에 주조했다. 고려국 왕사 철산명안화상(鐵山明眼和尚)이 증맹(証盟)하였다.

[湘山寺龍泉山西禪堂鐘, 元泰定四年丁卯冬鑄. 高麗國王師鐵山明眼和尚証盟. ((湘山勝迹))]]

2.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한 조씨(曹氏) 사당

중국 전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조학정(曹學程)의 출신지로 현재 그 사당이 남아 있다. 조학정은 중국 전주 서우(全州西隅 : 현 才灣鎮 田心村 曹家巷)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어사(御使)를 역임하였다. 명나라가 외교전으로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방식에 반대하였다가 명 만력제의 노여움을 사서 장기간 투옥되었으며 곧이어 사망하였다. 조씨 집안은 조학정을 “항왜영웅(抗倭英雄)”으로 높이 받들고 있으며, 2백여 년 전에 세운 조씨 사당이 그 출신마을에 현존하고 있다.

IV.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의 역사적 연관성

중국현지 조사결과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의 동일한 지명은 이름이 같을 뿐 역사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가 독자적으로 같은 지명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간 제기되었던 후백제 유민의 중국 전주 건립설도 정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가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우선 중국 전주의 탄생이 937년, 또는 939년인데, 한국 전주의 후백제가 몰락한 것이 936년이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전주를 왕도로 하였던 후백제가 몰락한 직후에 중국에 전주라는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과 중국의 동일 지명의 경우 중국의 지명을 한국에서 가져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는 반대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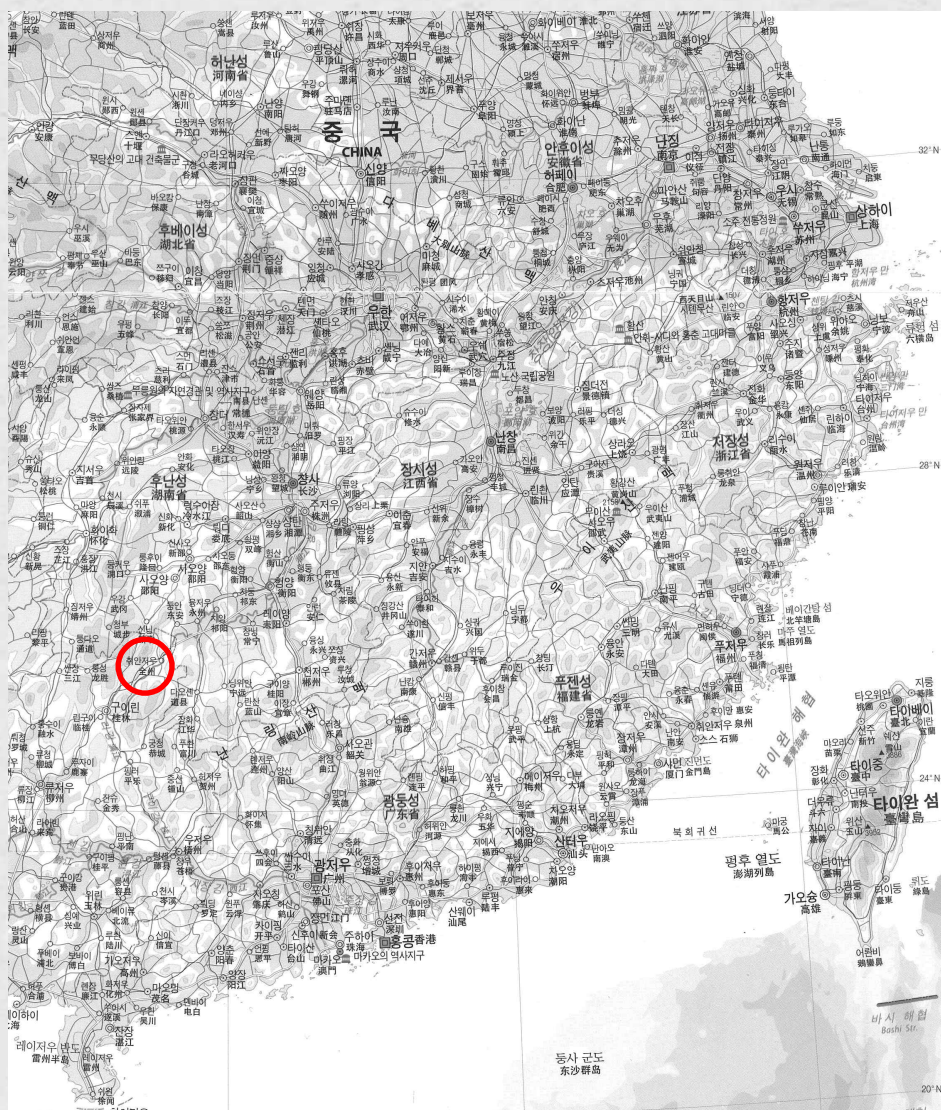
후삼국 시대 오월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인적 왕래가 빈번하였다. 중국 광서성의 전주 역시 오월과 민국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지역과 한반도의 교류와 교섭, 인적 왕래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완산의 경우 지명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다지 높지 않은 산으로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형세도 유사하다. 중국 전주 완산의 옛 지명이 발우산(鉢盂山)인데, 한국 전주에도 승암산 자락에 발산(鉢山)이 있다. 발우산과 발산은 둘 다 스님의 바리때를 뜻한다. 중국 전주에도 발산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찾아졌다. 중국 전주 발산 위에 기린산이 있는데, 그 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전주에도 기린봉이 있다. 금산사도 연원은 서로 다르지만 한국과 중국 전주의 대표적인 사찰로 그 이름을 같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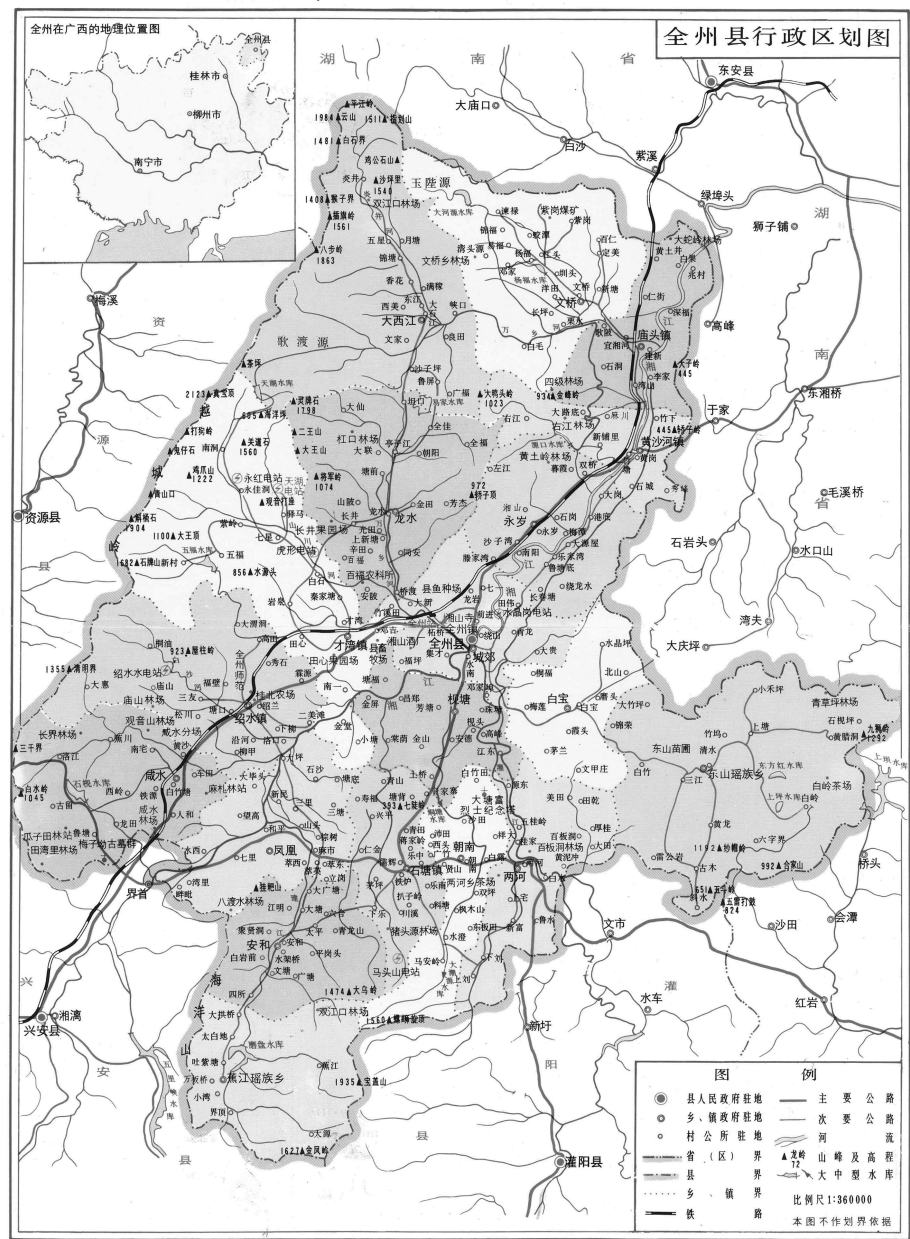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 간에 기록으로 전하지 않는, 아직 찾지 못한 숨겨진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을 수 없다. 물론 문헌에 동일 지명의 연원이 다르게 나오므로, 한국과 중국 전주의 역사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한 지명이 여럿 나오고, 그 형세가 유사하며, 남중국과 한반도의 인적교류가 잦았다는 점에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말여초 한중간의 인적교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전주와 관련해 중국 광서성 전주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 전주의 역사적 연관성은 찾아지지 않았지만,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일찍이 고려 충선왕이 중국 전주에 사절을 보내 6종의 보물을 하사 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조화정의 출신지가 전주로 그 사당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상호 우호 교류를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 특히 중국 전주가 속해 있는 계림과 한국 전주는 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점에서, 범위를 넓혀 중국 계림과 한국 전주간에 교류의 물꼬를 튼다면 두 지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전주와 중국 전주가 역사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한국의 전주 지명이 중국의 전주 지명보다 먼저 등장하였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지명들이 중국에서 가져다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한국 전주의 지명이 먼저 사용되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지명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닌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중국전주의 위치



附:本图根据全州县人民政府地名办1986年9月编制的1:250000地图编制。

▲ 전주현지도, 『전주현지』, 1998



▲ 광서사범대학



▲ 전주현청



▲ 완산



▲ 완산에서 바라본 전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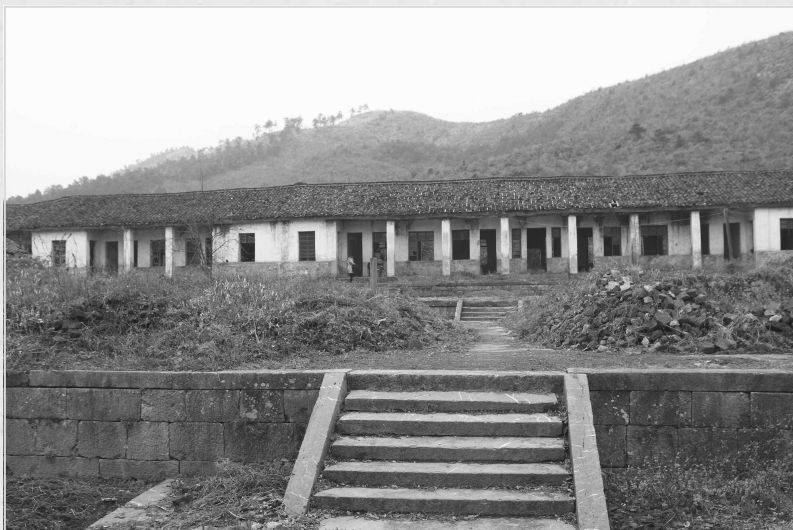
▶ 완산 뇌공탑



▲ 용산 진상탑



▲ 금산사



▲ 금산사



▲ 금산사비 파편 탁본



▶ 금산사 부도탑



▲ 금산사 부도탑 뒤편 비문 탁본



▲ 조학정 사당 원경



▲ 조학정 사당 내부



▶ 상산사 묘명탑



▲ 상산사



▲ 전주현은 많은 과거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다.
연와루는 과거급제를 기념하여 건립한 장씨사당이다.



▲ 전주현의 명문, 전주고

전주학 연구사업 회보 (2011)

□ 전주학 총서 발간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2011. 10

□ 전주학 학술대회

1. 제12회 전주학 학술대회

○주 제 : 근대 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

○일 시 : 2011년 6월 8일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발제 및 토론

— 주제발표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함한희)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이태영)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붓과 종이(이동희)

전주 전통예능의 산실, 행원에서 백번집까지(송화섭)

— 종합토론

이철량(전북대학교), 최명표(문학평론가)

조수현(원광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2. 제13회 전주학 학술대회

○주 제 :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일 시 : 2011년 12월 9일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발제 및 토론

－ 주제발표

전주지역 구전설화의 유형과 미학(김현선)

지역사로 본 한국적 도시 전주(조법중)

풍류정신과 전주(최영성)

전라도 신부 혼례복 청색 원삼의 유래(박현정)

한국 음식문화와 전주(이영은)

전주 한옥마을 한옥의 유형과 특성(남해경)

한국 예술문화와 전주(유영대)

－ 종합토론

윤영옥(전북대학교), 이옥(한국국학진흥원), 이천승(전주대학교)

이경미(한경대학교), 정혜경(호서대학교), 김철주(문화재청)

함한희(전북대학교)

□ 전주학 시민강좌

○주 제 : 〈한스타일 시민강좌〉 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가

○기 간 : 2011년 10월 15일~11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대 상 :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대학(원)생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강 좌 : 1강. 전주음식의 역사와 문화 _ 이영은(원광대학교)

2강. 전주한옥마을의 건축이야기 _ 남해경(전북대학교)

3강. 전주한지의 역사성 _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4강. 전라도의 혼례복식 _ 박현정(전주대학교)

5강. 전주지역 한지유적 현장답사

6강. 전주대사습놀이와 전주판소리 _ 최동현(군산대학교)

7강.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전주 _ 이태영(전북대학교)

◆ 편집위원 ◆

함한희(전북대학교 · 위원장)	김기현(전북대학교)
소순열(전북대학교)	송화섭(전주대학교)
이상균(전주대학교)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이태영(전북대학교)	조법종(우석대학교)

全州學研究 제5집

2011년 12월 24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펴냄

발행처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싑고개로 259
T. 063-228-6485~6 F. 063-228-6484

펴낸곳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 16번지
T. 063-252-5633 F. 063-274-3131

ISSN 1976-9822

〈비매품〉

※ 이 책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